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0호 2010. 12

차례

특집 1 한일강제병합 100년 재조명

한일강제병합 100년 Ⅲ - 한일강제병합의 국제환경과 인식

최덕수 | ‘한국병합’ 전후 동아시아 국제환경과 한인언론의 세계인식 11

방광석 |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각국 언론의 반응과 일본정부의 인식
-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39

하지연 | ‘한국병합’에 대한 재한일본 언론의 동향 - 잡지 『朝鮮』을 중심으로 65

취안허슈[權赫秀] |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에 관한 청 정부의 인식과 대응 127

특집 2 18세기 말~19세기 전반 일본의 대외관 연구

신동규 | 『赤蝦夷風說考』와 에도막부[江戸幕府]의 북방인식 167

류미나 | ‘식민사상의 선구자 · 혼다 도시아키’의 재발견
- ‘속도 개업’ 논의를 중심으로 217

최은석 | 사토 노부히로의 대외관 - 구제와 침략 251

박 훈 | 吉田松陰의 대외관 - 敵體와 팽창의 이중구조 285

허지은 | 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
- 『通譯雜帖』을 중심으로 315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357

Contents

Special Issue 1 Reexamining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in the Wake of the 10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text and Understanding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Choi, Deoksoo | The Korean Newspapers' Recognition about the Great Powers Policy under the East Asia International Circumstance in 1909~1910 11

Bang, Kwangsuk | Reactions of Overseas to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and Japanese Government's Cognition: An Analysis about Materials of The Diplomatic Record Office of Japan 39

Ha, Jiyeon | A Tendency of Japanese Public Opinion 'Magazine *Joseon*' in contrast to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65

Quan, Hexiu | A Study on Q'ing Government'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Annexation of Korea Empire in 1910 127

Special Issue 2 A Study of Japanese Perception of Foreign World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Shin, Dongkyu | 『Akaezohusethuko』 and Northern Area Recognition of Edo-Bakuhu 167

Rhyu, Mina | Making the Tradition of Colonialism in Modern Japan: The Reevaluation of Honda Toshiaki's Discourse for 'Cultivating Neighboring Territories' during the Meiji Era 217

Choi, Eunseok | Sato Nobuhiro's Perception of Foreign Affairs – Mysterious Coexistence of Relief and Invasion 251

Park, Hun | Yoshida Shoin's view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285

Her, Jieun | Tsushimas's Korean Interpreter Oda Ikugoro and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recognition to the outside 315

특집 1

한일강제병합 100년 Ⅲ
- 한일강제병합의 국제환경과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2010년 5월 10일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도쿄에서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한일병합’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과 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이 지상에서 말살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그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한국병합조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 일본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는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의 역사문제의 핵심이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일찍이 ‘한일병합’에 관한 객관적 인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9년 6월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관한 국제법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국내외에서는 학회와 연구기관 등이 주최한 학술발표회, 대중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의 교류회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올해 8월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한국병합’ 100년을 묻는 연구자 모임”과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연 「‘한국병합’ 100년을 묻는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있었다. 한편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도 ‘한국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위원회’가 조직되어 100년 전 조약이 조인되고, 발표되었던 8월 22일과 29일에 각각 도쿄와 서울에서 번갈아 가면서 학술대회와 공연 등으로 이루

어진 ‘한일시민공동선언대회’가 열렸다.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조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적 결합, 그리고 부당성에 대해 한일 양국의 지식인이 공개적으로 공동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것도 그간 국내외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가 낳은 결실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작년 ‘한일병합의 재조명’이란 기획을 하였고, 이번 호 특집에 실린 4편의 논문은 그 결과물의 일부이다.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학계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병합과정의 부당성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한국병합’의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넘어 세계사적인 시야로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일병합’을 한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이항대립적 관계의 틀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을 극복하면서, 나아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비교사적인 연구방법의 수용을 통해 병합과정과 세계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으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강제병합의 과정이 국가와 국가, 즉 제국주의 열강의 정책결정과정으로만 논의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민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동향에 대해 그들의 눈으로 파악하려고 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집에서 다룬 4편의 글은 대체로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않았던 자료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최덕수의 글은 ‘병합’의 부당성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 왜 그토록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압적으로 식민화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시도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역사적 위상을 비교 검토하면서 일본이 한국병합을 쉽게 단행할 수 없었던 국제적 여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였다.

방광석의 논문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伊藤公

爵滿洲視察一件」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사건에 대한 각국의 보도내용을 살펴보았다. 이토의 사망과 그에 따른 정세의 판단은 일본 내의 외국인 거류지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간 되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경계심을, 홍콩에서는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러시아에서는 사건의 발생 책임이 자국에 없으며 러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럽의 언론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거나 피상적인 관찰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방광석은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당시 각국의 언론이 대체로 일본의 대한정책에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1909년 당시 일본 측이 각국의 사건과 관련된 보도기사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면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연은 재한 일본인들이 발간하고 있던 잡지 『朝鮮』을 통해서 한국병합 전후 시기에 드러나고 있던 일본인들의 통감 이토 및 통감부의 정책에 대한 논조를 검토하고 있다. 『朝鮮』은 이토가 통감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통감부의 ‘한인본위주의’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각은 어디까지나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 근본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라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토의 사후에 『朝鮮』은 전체적으로 즉각적 병합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뿌리 깊은 한국인 멸시관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것은 병합이 실시된 이후 변화한 상황에 따라 일본의 식민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선동조론’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혁수는 청국 정부가 한국병합 당시 활용하고 있었던 외교채널과 이 문제에 대응한 양상을 당시 중국 측이 남기고 있던 여러 외교문서와 신문보도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그는 이 당시 청국 정부가 주일청국공사관, 서울주재 총영사, 해군고찰대신 등의 외교채널이 있었으나 한국병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국병합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통

고를 받은 후에도 소극적인 불간섭 및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구명했다. 청 정부 안에서는 당시에 오히려 자국이 한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국으로서는 자국의 이해가 긴밀하게 얽혀 있었던 통상과 국경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동북 지역의 동삼성총독이나 길림순무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음을 권혁수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이후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수상은 “식민지 지배가 가져다준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일한(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도적 협력”과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할 것임을 표명하였고, 11월 15일 1,205권의 도서에 대한 반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식민지의 어두운 역사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징조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끝으로 위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의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역사적으로 주목하였던 것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었다. 동양평화론을 동아시아 공동체의 역사적 기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여전히 영토문제를 비롯하여 100년 전의 과거 역사가 배태하였던 역사인식의 괴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화해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역사학의 기여가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최 덕 수

‘한국병합’ 전후 동아시아 국제환경과 한인언론의 세계인식

최덕수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학술발표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¹⁾ 올 한 해 한일병합과 관련하여 진행된 국내외 연구는 크게 몇 가지 갈래로 구분하여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치사 분야에서는 1906년에 설치되었던 통감부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및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대조선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해 국내 각 정치세력이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다. 또한 법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병합조약 체결이 가지고

※ 투고일: 2010년 10월 29일, 심사일: 2010년 11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2월 3일.

1) 동북아역사재단은 2009년 6월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2010년 8월에는 ‘1910년 한국 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아셈연구원은 ‘국권상실의 정치외교사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강제병합 100년전을 뒤돌아본다’라는 주제로, 그리고 10월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국병합의 세계사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있는 불법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두드러진 연구로 일반인의 관심도 집중되었던 분야가 바로 병합조약 체결과정의 문제점과 불법성에 관한 연구였다. 병합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취했던 강압적 조치와 국왕의 최종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애초부터 조약이 발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을 규명하였다. 한편 일본 측 연구자 가운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병합조약이 불법이기는 하나 당시 유효하였다고 하여 병합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연구자들에 의한 논쟁을 통한 연구성과들은 병합과정에서 체결하였던 각종 조약이 국제법상으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는 소중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²⁾

그러나 조약체결 절차상의 문제와 형식적 결합 그리고 법 이론적인 측면에만 논의가 집중될 경우에는, 100년 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에 이르게 된 역사적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되돌아보면 일본이 제국주의시대의 절정에서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시키면서, 서구열강의 식민지 건설과정과 달리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추구하였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병합 당시 대한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국주의시대 서구열강에 의해 식민지로 편입되었던 어떤 지역과도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국제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은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제국의 국제적 환경의 특수성에 유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고 하는 통사료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 이후 열강에 의한 영향력이 일본의 대한정책을 구속하는 요인의 하나이지만 주요 변수가 아니었던

2) 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츠 공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³⁾ 그러나 이하 본문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병합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대한정책은 변화를 거듭하며 동아시아 정국에 영향을 끼쳤다. 이 글에서는 열강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과정과 이와 같은 국내의 정세의 상황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대응을 두 축으로 병합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한국인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분석자료로는 당시 통감부 지배하에 있었던 국내 신문과 함께 세계정세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미주 지역 한인 신문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II. 세계사적 시야를 통해 본 ‘한국병합’의 특수성

19세기 말~20세기 초 제국주의시대 세계는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인종 간의 마찰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는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헤르체고비아 병합을 둘러싼 발칸문제, 아프리카에서는 벨기에의 콩고 합병과 독일의 모로코 점령문제, 남북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쿠바 합병 등이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만주와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과 열강의 각축을 들 수 있다.

당시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한제국의 경우 크게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 상황이 크게 상이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타 식민지와 달리 대한제국은 국제법상 제국주의 열강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병합조약 체결 당시에도 이에 근거하여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였다는 점이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영국(1883년), 러시아(1884년), 프

3) 松田利彦, 2010, 「日本の韓國併合」, 和田春樹 外 編, 『東アジア近現代通史2: 日露戰爭と韓國併合』, 岩波書店, 329쪽.

랑스(1886년) 등과 순차적으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90년대 후반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과도 각각 조약을 체결하였고, 만국우편연합이나 국제적십자회 같은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가입, 참여하였다.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자본주의 열강은 비서구 지역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함으로써 세력권을 확대해 나갔다. 그들은 무력사용 이전에 자신들의 법정신에 의거하여 전쟁의 합법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이른바 '주인 없는 땅의 논리' 혹은 '문명화를 위한 시혜' 등의 명분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다.⁵⁾ 그러나 서구열강이 해외로 진출하며 점령하였던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와 태평양의 여러 도서 지역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한제국은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였다. 조선과 서구열강은 상호간에 대등한 자격으로 맺은 수호통상조약을 명시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열강의 동의 내지는 묵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서구열강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식민지 편입을 승인받는 과정이 절실했던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한때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을 그들의 세력권에 편입하였으나 열강의 간섭으로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했다. 또한 조선에서도 스스로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청일전쟁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1904년 '한일의정서'를 거쳐 '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 전문에 조선의 자주독립과 동양평화를 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초 대한제국이 다른 분쟁 지역과 달리 세계적 차원에서 열강의 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점

4) 최덕수 외, 2010,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5) 김명섭, 2010, 「대한제국의 국제정치사: 탄생과 소멸의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치 100년, '국권상실'의 정치외교사적 재조명 발표자료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아셈연구원 공동 주최.

이다. 예를 들어 발칸 반도와 아프리카는 관련 당사국이 오스트리아와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일부였으며, 남북 아메리카는 주로 미국이 분쟁과 조정의 당사국이었다. 반면에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당시 존재했던 제국주의 열강 대부분의 이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병합’에 관한 해명은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교섭과정에 한정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며, 말 그대로 세계사적 시각에 입각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던 것 이상으로 대한제국 또한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근거하여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러일전쟁 이후 국왕 고종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바로 ‘보호조약’의 성립을 부인하고, 본래의 ‘수호통상조약’ 체제의 회복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곧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국제법에 의거한 열강의 중재를 통해 자주권을 회복한다는 구상이었다. 고종은 조선이 각국과 체결했던 수호통상조약 조약문에 근거하여 열강의 국가원수에게 친서를 보내거나 밀사를 파견하였다. 제2차 한일협약(보호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받기 위한 고종의 외교적 노력은 1907년 7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한국 정부 대표단의 출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삼아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였다. 통감부는 고종 퇴위 직후 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을 강요하여 통감이 조선에 대한 행정지도권, 입법승인권, 인사동의권을 갖게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한국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미조약의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군대를 해산하였고, 신문지법 등을 개정⁶⁾

6) 통감부는 1908년 4월 20일에 개정된 신문지법을 통해서 외국에서 발행된 국문, 국한문이나 한문으로 된 신문,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간한 국문, 국한문이나 한문 신문에 대하여 치안방해나 풍속문란의 경우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宋炳基 外編, 1971,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Ⅵ, 國會圖書館, 375쪽). 그리고 이러한 법령 개정은 특히 당시 반일 기사를 활발하게 보도하고 있던 『大韓每日申報』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점은 통감 이토가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에게 보낸

함으로써 통제장치를 강화하였다. 보호국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 체제를 이룩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이 당시 처해 있었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병합과정에 대하여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열강들이 어떻게 조선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법 이론에 근거하여 조선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 갔는지의 과정에 유의하며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제병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1909년 10월의 안중근 의거와 1910년 7월 제2차 러일협약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전후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한 국내외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한국인의 인식에 대한 분석은 당시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어 국내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였던 『新韓民報』, 『新韓國報』와 통감부의 신문지법을 적용받으며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던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의 관련 기사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III. 1909년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과 안중근 의거

1907년 6월 1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헤이그에 대한제국 특사 일행이 회의 참가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시점에 동아시아 정세 또한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1907년 7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종은 특사단을 파견함으로써 통감부의

전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日本外交文書』卷41, 문서번호 748, 「'베셀'處分ニ關スル英國政府訓令ノ内容報告竝'베셀'追放ニ關シ意見開陳ノ件」, 781~782쪽).

조선 지배정책의 불법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⁷⁾ 그러나 서구열강은 보호조약의 성립을 전제로 대한제국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 또한 조선보호국화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정미조약(1907. 7. 24)을 압박하여 내정에 대한 통감의 실질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일주일 뒤 러시아와 이른바 제1차 러일협약(1907. 7. 30)을 체결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제1차 러일협약을 통해 러일 양국은 겉으로는 ‘청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과 열국의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을 제시하였으나, 부속한 비밀협약에서 일본은 외몽골 지역에서 러시아의 특수한 이익을, 반대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현상에 대해 승인한 것이었다. 일본은 그 이듬해 루트-다카히라 협정(1908. 11. 30)을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조선 지배에 대한 열강의 동의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었다.

1908년 12월에 시행된 미국대통령 선거 결과 윌리엄 태프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3월에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⁸⁾ 주지하다시피 러일 전쟁 중 미국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국무장관 윌리엄 태프트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하였고, 도쿄 체재 중 태프트는 당시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와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협정’을 교환하였다. 태프트는 1908년에 일본을 거쳐 서울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당시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루스벨트의 정치적 후원에 힘입어 정치가로 성장하였던 태프트가 루스벨트와 정당은 달랐지만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태프트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동아시아정책은 루스벨트 정부 때와는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와 같은 미국의 동

7) 최덕수, 2008,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1907)와 대한제국 언론의 세계인식 -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0. 당시 헤이그 주재 일본공사인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다수의 약소국들에게 일본의 강경정책이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고종 퇴위라는 조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신하였다. 고종의 퇴위과정을 검토해 보면 통감 이토가 앞장서서 고종 퇴위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8) 『新韓民報』는 대통령의 취임 보도와 아울러 내각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였다.

아시아정책의 전환은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 이후 동아시아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만주에 대하여 적극적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의 성과로 출범한 중재재판소를 통해 만주에서의 자국의 주권회복을 추진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만주 회복정책으로 외교적 고립에 직면했던 일본의 외교정책은 1909년 9월 4일 '간도 및 만주 5안건에 관한 협약'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청일협약의 체결을 통해서 드러났다.⁹⁾ 그중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에서는 圖們江을 중심으로 양국의 경계확정, 청국의 네 개 지역에 대한 개방, 도문강 북쪽 개간지 내 한인들의 거주 허용 및 이들의 청국 관리, 길장철도의 회령 연결, 통감부파출소의 조속한 철폐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만주 5안건에 관한 청일협약'에서는 新民屯-法庫門 사이의 철도부설시 일본과 상의, 大石橋-營口 支線의 남만주철도지선 승인, 撫順 및 煙臺의 탄광에 대한 일본의 채굴권 인정, 京奉鐵道의 봉천 지역 연장 인정과 세부사항의 추후 상정 등을 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만주에 대한 상업상의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러시아는 吉林과 會寧 간의 철도 연결이 연해주 방어를 위협이 된다는 군사적 이유에서 청일 간 협약에 반대하였다.¹⁰⁾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극동 지역을 시찰하는 도중 하얼빈 역을 방문하여 러시아의 재무장관 코프초프를 만나 회담을 하려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배경이었다. 이토는 남만주철도와 동청철도의 상호 화물협정을 체결하고 교역확대를 도모하는 가운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토가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에 의하여 저격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당시 일본측이 의도하였던 회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안중근 의거가 미주사회에 알려진 것은 『新韓民報』 1909년 10월 27일자 기사로 통해서였다.¹¹⁾ 그 내용은 “한인이 이토를 육혈포로 처단했으며 그 이유

9) 『日本外交文書』 卷42, 문서번호 312, 「日清協約調印濟ノ件」.

10)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1909~1910)」, 『韓國史研究』 145, 154~161쪽.

11) “伊藤被殺續聞”, 『新韓民報』(1909. 10. 27). 이 기사의 바로 옆에 “伊藤被殺於滿

는 국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토를 죽였다”는 것이다. 이 당시 이토 암살에 대한 미국과 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의 일반적인 반응은 일본 정부 내에서 온건파인 이토의 급작스러운 죽음이 오히려 강경파인 일본군부의 세력확장에 기여함으로써 조선인을 한층 불행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이었다.¹²⁾

안중근 의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해외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통감부가 사실상 내정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까닭에 안중근 의거에 환호할 수 있는 국내 언론 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에 대한 각계각층의 애도성명과 추도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국왕 순종은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일본으로 조문 전보를 보내고¹³⁾ 위문사절을 일본으로 파견하였으며, 3일간 朝市를 정지하라고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¹⁴⁾ 그 속에서 이토를 저격한 안중근은 살인자로 매도되었다. 『皇城新聞』의 경우 10월 29일 이토의 사망에 대하여 “吊慰의 禮를 表”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2면 중앙에 배치¹⁵⁾하였으며, 11월 5일 하루는 이토의 장례를 추도하기 위해서 휴간¹⁶⁾하였다. 그러면서 이토를 살해한 안중근에 대해서는 ‘行凶韓人’이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민추도회가 1만 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한성부민회·대한협회·일진회 등의 단체가 연합하여 국민대추도회를 열기도 했다.¹⁷⁾ 『皇城新聞』의 전현직 사

洲”라는 제목하에 이토가 하얼빈에서 한인이 던진 폭발물에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도쿄 25일발’이라고 하면서 글자 크기가 다른 기사보다 강조되어 실려 있다. 하지만 이토가 안중근에게 사살된 것은 26일이고, 육혈포에 사살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만주 하얼빈의 26일발 소식인 「伊藤被殺續聞」에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토가 만주 하얼빈에서 피살된 같은 사건인데도 일본에서는 ‘25일발’ 소식이고, 하얼빈에서는 ‘26일발’로 다르게 실려 있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간접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식을 취합하는 가운데 두 가지 기사를 모두 편집하여 소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12) “The Korean Patriots,” *The New York Times*(Oct. 30th, 1909).

13) “大皇帝陛下親電”, 『皇城新聞』(1909. 10. 28).

14) “三日停朝市”, 『大韓每日申報』(1909. 10. 30).

15) “吊慰伊公”, 『皇城新聞』(1909. 10. 29).

16) 하루 휴간하겠다는 기사는 전날에 게재되었다(“追悼休刊”, 『皇城新聞』(1909. 11. 4)).

17) 이용창, 2003, 「伊藤博文追悼會」 개최 전후 ‘사회세력’의 동향과 親日 정치세력의 형성, 『史學研究』 69.

장 南宮櫛과 柳瑾 등도 국민대추도회의 발기인과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⁸⁾ 『大韓每日申報』의 경우에는 이토의 사망에 대한 추도 분위기에 비판적이었다고는 하나¹⁹⁾ 그러한 내용을 실제 신문기사를 통해서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토를 살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의 신문이 현재 영인된 판본에는 없는 관계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거행과 관련된 당시의 논조나 비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 언론은 국내의 이토 추도여론과는 달리 안중근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²⁰⁾ 『新韓國報』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등(伊藤博文)은 어떠한 사람이뇨? 일본의 야심을 대표하여 반도를 합병하려는 자이니 한국을 망할 자도 이등이요, 한국을 멸할 자도 이등이라. 이등이 죽지 아니 하여는 한국이 반듯이 망할지요, 한국이 망치 아니하여는 이등이 반드시 죽을지니 명명하신 하늘이 어찌 이등의 야심을 따라 한국을 권고함이 없으리오, 그런고로 이등은 스스로 죄악을 제조하여 당돌히 천리를 거역함이요, 천리는 이등의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려 보응을 밝힘이라.

일대전쟁이 끝이 나고 동서양의 대세가 판결한 후에 일본의 통감이 되어 창황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에 세계에 선언서는 무엇을 공포하였으며 한일약정서는 누가 발표하였느뇨, 당일 형세로 말하면 동양의 패권은 일본이 장악하였으니 동양평화의 유지는 진실로 일본의 책임이라.

18) 이용창, 2003, 위의 논문, 111쪽.

19) 이용창, 2003, 위의 논문, 110~111쪽.

20) “엄의사 이등을 포살하여 공분을 설치함”, 『新韓民報』(1909, 11, 3).

“동포여 생각할 지어다. 광무 9년분에 거병범궐하여 황제의 소매를 붙잡고 신조약을 능정할 때에 한규설 씨를 끌어내며 민영환, 조병세, 이상렬, 김봉학, 홍만식 제 씨를 죽게 한자 그 누구이며, 광무 11년분에 황제를 폐위하며 지사를 처교하며 기관포 몇 개로 도성을 들어 뺏던 자가 그 누구며, 수천 명 의사를 포살하며 수백 곳 촌락으로 무인지경을 만든 자는 누구이며 우리의 4천년 역사를 전복하고 우리의 이천만 생명을 죽게 만든 자는 그 누구뇨?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우리 대환을 멸망시킨 자는 이등이라.”

양국 전도에 대하여 오직 한국이 어리석게 믿을 뿐 아니라 세계 사람이 일체로 일본의 덕의를 주목하였고 일황의 조직은 이를 설명하여 문명 궤도상에 서로 제휴하기를 맹세하였거늘 부산 정거장에 도착한 후로는 돌연히 심장을 변하여 순전히 침략수단을 행하였나니, 이는 한국에 미증유하던 참변을 당하던 처음이라…… 이것이 어찌 일황의 조직의 본의라 하리오. 동주의 인국을 병탄하여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여화를 일본에 깨침이 실로 일황의 칙명을 위배함이니 이등은 오직 한국의 원수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일황의 죄인이다. 어찌 세상에 오래 용납하기를 바라리오.²¹⁾

안중근을 ‘흉도’ 내지 ‘흉한’으로 매도하며 이토를 동양 제일의 정치인이자 세계적 인물로 칭송하는 국내 언론과는 달리 미주의 신문에서는 이토를 한국을 멸망시킨 일등공신이자 한국의 원수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을 이미 망해버린 국가로 치부하고, 한국인을 노예적 존재로 비하하는 데 맞서 한국을 멸망시키고 노예로 만든 것이 바로 이토라고 적시하였다. 미주 언론의 신랄한 비판은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체결 및 고종의 폐위뿐만 아니라 군대해산과 사법권의 침탈, 언론탄압과 의병학살, 한국인 관리의 축출과 일본인 관리의 등용,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지난 5년간의 ‘시정’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침략정책의 선두에 이토가 서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일본 정부 내에서 이토가 차지하는 상대적 온건함을 강조하는 해외 언론이나, 그에 공명해 이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국내 언론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미주 언론들은 일본을 대표해 한반도를 병합하려는 인물로 이토를 분명히 지목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주 언론의 논조는 신문지법을 통해서 각종 통제와 발행허가 등을 받는 국내의 언론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했다.

노골적인 병합을 주장하던 일본 정부 내의 강경파와 이토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미주 언론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안중근에 대한 상

21) “寇韓賊伊藤之受戮”, 『新韓國報』(1909. 11. 2).

찬으로 이어졌다. 『新韓民報』는 안중근이 “대한의 대영웅이요, 20세기의 귀남자”이며 “천추죽백에 광채를 발할지며, 우리나라가 독립을 포고하는 날에 기린 각 제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²²⁾ 『新韓國報』 역시 “4천년 제국의 주권을 위하여 2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이토를 죽인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열사’라고 칭송하였다.²³⁾

대개 독립과 자유는 평화적 수단으로 취할 일이 아니요, 그 생명을 희생할지언정 나의 구적을 살패하여 압당한 풍운을 소탕한 후에 가히 별유 천지에 이를지니 이는 구미 열방에서 백년이래로 철혈정락을 베풀던 공례가 아니뇨?

1776년에 미국 식민이 영국의 속박을 받을 때에 금일 한인이 일본의 능학을 통분하는 것과 같이 13주 애국자들이 의기를 번드치며 영국을 거절하여 꿩을 피를 대서양 도도한 물결에 흘리며 8년을 싸우다가 마침내 자유를 회복하여 신대륙에 공화국을 건설하였나니…… 1789년에 영국 인민은 포학한 군주와 잔인한 관리의 악형 남세를 인하여 기한이 곤박하다가 대혁명을 일으켜 압제정치를 번복하였고…… 1904년에 체결한 바 한일협약에 대하여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유지한다고 선언서를 발표하더니 1905년에 일대전쟁이 종국된 후로 일본이 그 조약은 파괴하고 자의로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라 하였으니……

1906년에 헤이(헤이그) 평화회담 판시에 대한 황제폐하께옵서 세계열강으로 더불어 한국이 독립될 만한 증거를 변명하기 위하여 대사를 파견하였더니 이등이 감히 존엄하신 ○○○○○○○○○○○○ 대한 황제께서 권리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 하고 임의로 폐위하고 대사는 사형에 처하였으며 또한 한국이 일본의 능학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미조약을 특정하였고……

대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어늘 야만 무리한 일인들은 한인들을 무정부당으로 지목하면서 모함하기를 말지 아니하나니, 금일 본항에 재류한 한인들이 아무리 인구가 희소하여 세력이 단약하기로 어찌 이와 같은 누명을 받으리오. 현금 세계는 오직 공리를 주장하며

22) “엄의사 이등을 포살하여 공분을 설치함”, 『新韓民報』(1909. 11. 3).

23) “論說－寇韓賊伊藤之受戮”, 『新韓國報』(1909. 11. 2).

또한 신명의 눈이 번개같이 섬뜩하여 이매망량도 형상을 도망치 못하니 지원 극통한 한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명백히 살피기를 바라며 일부분의 왜인이라도 무리한 비평이 있으면 우리가 장차 변명함이 있을지니 물이 떨어지고 돌이 나와 흑백이 분석하는데 이르러는 추호라도 의혹함이 없으리이다.²⁴⁾

위 기사에서 최악에 따른 보복은 세계 역사를 보아도 공리상 자명한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원수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임은 역사가 그대로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영국과 8년간 전쟁한 미국의 독립전쟁과 군주정에 맞서 봉기한 프랑스 혁명을 거론하였다. 한국 역시 보호국이 되어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원수를 미워함은 인지상정일 수밖에 없으니 이토의 피살은 조금도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新韓民報』는 이토 살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여 미국 내 각 지역의 언론 보도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新韓民報』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계 신문 『자유신보』에 실린 안중근 관련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²⁵⁾ 기사 내용은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안중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노예의 삶을 달게 받고 있다고 질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주 언론의 안중근의 의거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이토에 대한 안중근의 저격이라는 일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러일전쟁 이후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열강 간의 대립이라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 “論說 - 討日奴書”, 『新韓國報』(1909. 11. 9).

25) “高麗不亡矣 (原題) 도선이 망치 안을이라”, 『新韓國報』(1909. 11. 17).

IV. 제2차 러일협약(1910. 7)과 ‘한일병합’ 이후의 신한국론

‘병합’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던 것은 1909년 초부터였다. 1909년 1월 순종의 평안도 순행시 내부대신이었던 송병준이 시종무관이었던 어담(魚潭)과 싸우다 순종 앞에서 칼을 빼어든 사건이 문제가 되어 사퇴 압력에 직면하였다. 그후 도쿄에서 “현금 한국에 두 정부를 두는 것이 무익하고 재력만 허비하니 한국에게 희망과 평화가 중앙 정부 하나를 튼튼히 세우는데 있다”는 송병준의 발언이 전달되자 국민회에서는 두 차례의 공동회를 개최하여 송병준을 성토했다. 제1차 공동회에서는 이완용과 송병준에게 전보를 보내 경고의 뜻을 전달했고, 제2차 공동회에서는 일본 황제에게 전보를 보내 송병준이 한국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니 정의와 인도에 입각해 송병준의 합방 음모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원하였다.²⁶⁾

미주 한인들의 병합 반대투쟁은 강제병합이 목전에 다가오자 다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910년 7월 4일 대한민국민회 북미지방총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 각기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 지방 대표자들을 소집해 임시공동대회를 개최한 후 각기 9개조와 6개조의 항일운동 방침을 결의하였다. 이 중 호놀룰루에서 결성된 대동공진단의 6개조 결의안을 보면, ①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니고 왜적이 강압적 수단으로 만든 합방을 절대 반대하기로 결의함, ② 합방 반대운동에 관한 모든 정책을 북미지방총회 결의안에 위반됨이 없게 행동 일치를 도모함, ③ 한국 황제와 일본 황제에게 통지하는 서류는 이미 북미지방총회가 작성한 서류에 연서하여 우리의 태도와 책임을 같이하기로 함, ④ 외교와 선전사업은 대한민국민회가 擔責하고 군인양성사업은 대동공진단에 일임하기로 함, ⑤ 각 지방에 양성소를 설립하고 청년 동포로 하여금 의무적 병식훈련

26) 김도훈, 2002, 「1910년 전후 미주지역 공립협회·대한민국민회의 민족운동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3쪽.

을 받게 함, ⑥ 일반 운동의 경비는 동포의 애국 特捐으로 충당하고 대동공진단 임원은 민중 공선으로 선택하기로 하였다.²⁷⁾ 요컨대 병합이 가시화되자 병합이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닌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병합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일진회가 정합방론을 주장하며 합방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유포되고 있었다.²⁸⁾ 이를 두고 『新韓民報』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간혹하도다. 합방론을 발론한 자여. 어리석도다. 합방론을 믿는 자여.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국 같이 한일제국이라 국호를 고칠 듯 하뇨? 스웨덴과 노르웨이같이 쌍립 정부가 동등권이 있을 듯 하뇨? 일인의 소위 합방론은 곧 합병이란 변사이니, 이는 일인의 가장 간혹한 수단이며 한인을 더구나 어리석게 희롱함이로다. 우리는 한일제국을 원함이 아니오, 쌍립 정부를 구함이 아니로되, 저 반신반의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한번 말하노니, 금일에 소위 합방론은 사실상으로 곧 합병이다. 합병을 당한 자 어찌 정부가 있으며 어찌 임금이 있으리오. 정부와 임금이 없으면 그 백성은 어떤 자의 백성이라 할런지 각각 생각이 있을진저.²⁹⁾

요컨대 『新韓民報』에서는 합방이 일본 우익과 일진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대등한 연합에 의해 한·일 제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며, 스웨덴과 노르웨이처럼 두 정부 사이에 동등권이 있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즉, 합방은 한 나라가 사라지고 정부와 임금이 사라지는 한쪽의 멸망을 의미할 뿐이었다. 모두가 예상하듯 병합이 단행된다면 통감부를 대신해 총독부가 들어서고 “한국이 열국에 대하여 체결한 조약을 일병 폐지하고 다만 일본 식민지와 영토에 대한 규제를 행할” 뿐임은 자명했다.³⁰⁾ 그럼에도

27) 김원용 저, 손보기 엮음, 2004, 『재미한인 50년사』, 해안, 339~343쪽.

28) 일진회의 정합방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韓明根, 2002, 『韓末 韓日合邦論研究』, 國學資料院.

29) “소위합방론”, 『新韓民報』(1910. 6. 22).

30) “합방후 도약예지”, 『新韓民報』(1910. 6. 29).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진회의 정합방문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질 뿐이 었지 『新韓民報』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표출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합방 반대성명을 통해 미주 한인의 항일 의지를 천명하였다. 같은 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1909년 9월 淸日協約의 체결로 인해 吉長鐵道가 연장되는 등 일본의 만주 진출이 가속화되자, 러시아는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일본을 견제 하고자 하였다. 한편, 만주에서의 세력확장을 노리고 있던 미국 역시 일본의 만주 진출이 달갑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³¹⁾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병합에 앞서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이익균점을 요구하는 미국의 개입과 淸의 이권회수 요구에 직면하여 타협책을 모색하였다. 7월 4일 체결된 제2차 러일협약은 미국의 만주정책에 대항하여 러일 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³²⁾이었다. 이 당시 조약문은 『新韓民報』에서도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① 만주 지역의 각국 철도의 개선과 정비를 위한 상호 협력, ② 기존에 체결하였던 조약과 만주의 현상유지 존중, ③ 침해사건 발생시 양국이 현상유지를 위한 수단방법을 협정한다는 것이었다.³³⁾ 3개조에 불과한 이 협약에서 한국의 병합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다.

러일 간의 협상소식에 대하여 미주 지역 한인 신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러일 간의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만주에 대한 양국의 기득권을 옹호할 방

31)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및 미국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조함.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지음, 김세민 옮김, 1994, 『近代韓日關係史研究』, 玄音社, 263~269쪽을 참조.

32)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1909~1910)」, 『韓國史研究』 145, 178쪽.

33) “電報: 露日新協約”, 『新韓民報』(1910. 7. 20). 국내의 경우 러일협약의 내용을 요약한 기사를 7월 14일에 소개하고 있다. 『皇城新聞』은 이로부터 이틀 후 雜報에 제2차 러일협약의 全文을 번역하여 게재하였다[“日露協約全文”, 『皇城新聞』(1910. 7. 16)].

법을 확립한 것”이었으나³⁴⁾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한반도 병합문제에 대한 유일한 견제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新韓國報』는 외신보도를 인용해 제2차 러일협약의 결과 “일본이 머지않아 정식으로 한국을 합병하는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 보았다.³⁵⁾ 『新韓民報』도 제2차 러일협약의 체결 동향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를 하였다.³⁶⁾ 여기에서도 일단 이 조약이 만주에서 러일 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이 만주에 욕심을 부리려 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는 차원에서 맺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이 머지않아 한국을 병합한다는 선언서를 세계에 공포하려 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³⁷⁾

한편으로는 제2차 러일협약의 체결을 한국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는 계기로도 파악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러일협약의 결과 만주와 극동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新韓民報』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는 미국 내 동향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미일 전쟁설은 1880년대 일본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을 잠식한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후로 미국이 만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개방정책과 충돌하게 되면서 확산되고 있었다.³⁸⁾ 또한 1910년에 들어서 미일 양국이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3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新韓民報』에도 보도되고 있었다.³⁹⁾ 이것은 물론 미국이 주장하였던 만주개방론이 일본의 이해와 상충하게 되면서

34) “俄日の新協約”, 『新韓國報』(1910. 6. 14).

35) “日俄新協約에 對한 法國新聞에 評論”, 『新韓國報』(1910. 7. 26).

36) 『新韓民報』, “로일양국 협약소식”(1910. 6. 1); “露日新協約의 內容”, “일로협약도인”(1910. 7. 6); “俄日協約의 關係”, “露日新協約의 反響”, “露日又結密約說”(1910. 7. 13); “露日新協約”, “英政界露日條約評”(1910. 7. 20).

37) “露日新協約의 反響”, 『新韓民報』(1910. 7. 13).

38) 김도훈, 2003, 앞의 논문, 131쪽.

39) 『新韓民報』, “일본의 對美反感”(1910. 3. 16); “미일전쟁 예비”(1910. 6. 1); “영인의 미일전쟁론”(1910. 6. 29); “일미전쟁론”(1910. 7. 6); “美日戰爭의 預言”(1910. 7. 13).

앞으로 양국 간의 충돌로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빈번하게 기사화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도한 『新韓民報』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장래에 충돌하게 된다면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던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에서는 제2차 러일협약과 관련된 동향을 수시로 보도하면서도 미주의 한인 신문들과 달리 일본이 곧 한국을 병합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두 신문은 1910년 5월 초반부터 7월 말에 이르기까지 러일협약 체결과 관련된 동향과 각국의 반응을 외신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었다. 외신보도는 주로 일본과 러시아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환영, 미국이나 독일의 반대 등의 분위기, 이에 대한 청국의 반응을 담고 있었다. 이들 신문의 보도내용은 대부분이 外信이나 電報항에 실려 있으며, 「日露協約內容」·「日露協約發表期」·「日露協約과 淸國」·「日露協約과 英紙」·「日露協約과 德國」·「日露協約과 米國」 등의 기사와 같이 사실관계의 전달이나 각국 언론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大韓每日申報』는 1910년 5월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발간되고 있던 『大阪每日新聞』의 「非露日同盟說」을 번역하여 別報에 게재하기도 하였다.⁴⁰⁾ 이 기사에서는 현재 유폐되고 있는 러일동맹설에 대하여 러시아 내 여론이 좋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 측이 유폐시키고 있다는 점을 러시아에서 발간되는 신문 기사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은 미일 간의 전쟁에 대비하여 러시아로부터 유리한 거점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일본의 이러한 러시아 접근 시도가 과연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다루지는 않았다.

일본의 병합 발표가 머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외 한인들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0년 7월 6일자 『新韓民報』의 기사에는 일본의 한국합

40) 『大韓每日申報』, “非露日同盟說”(1910. 5. 22); “非露日同盟說續”(1910. 5. 24).

방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이 모여서 반대결의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고국동포는 여전한 사실을 알되 일병의 압력에 놀리어 말 한 마디라도 반디하는 길을 었지 못하며 통감부는 각 신문을 속박하여 합병에 관계되는 기사와 일병의 슈상한 횡동을 일테 금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고로 향곡에 있는 인민은 전연히 이 일을 알지 못하니 비록 합병의 욕을 당홀지라도 입과 슈족을 놀닐 틈이 업게 되었스며 저 간홀한 일본은 세계 각국에 디혀야 합병은 한인의 소원 하는 바이라고 사람의 이목을 속히며 저의 횡하는 바인도정의에 어긋나는 참독잔혹한 횡위는 빅방으로 엄격하여 가련한 二千萬 한인은 죽어도 어느 마귀가 잡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억울히 당하는 실정을 생각함에 썩가 썰니고 가슴이 절히며 털억이 곳추서고 눈썸리가 쓰져지는지라⁴¹⁾

위의 기사는 일본의 압력과 언론통제 때문에 한국민들은 반대를 할 수 없고 현재 합방의 위기에 처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각국에 대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미화하는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합방에 반대하는 집회 기사와 아울러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위기가 닥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근일 시국 형편에 대하여 일노의 망담패설이 무소부지하니 대저 저 일노의 추악한 심장과 공교한 모계는 세인이 다 아는 바라. 더 말할 필요가 없으나 재류동포는 신중한 태도를 지키어 무근지설에 미혹지 말고 우리의 행할 의무만 힘써 행할 것이요 바람 부는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지 말지라. 이에 대하여 우리의 경고코자 하는 바는 마땅히 사물의 참된 것과 거짓 것을 온전히 분석하고 살펴 마땅히 행할 바만 취할 것이요 공연히 뜬말이나 지어내든지 헛된 일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이라

41) “合邦反對會決議”, 『新韓民報』(1910. 7. 6).

하노라.⁴²⁾

시국 형편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망담패설’과 ‘무근지설’에 불과하다며 뜬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각자 자신이 행할 바에 전념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망담패설’과 ‘무근지설’이 결국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던 조국의 멸망에 직면해 망국민의 정신적 공허함과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 선 분명한 독립의 전략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일작 31일 상항 발전에 왈 외양에 재류한 1만인 대한국민의 대표 80여인이 당지에 회동하여 일본 국기에 복종치 않을 것과 죽기를 아끼지 않고 독립전쟁을 일으키겠다 하였으니 장하다. 이 선언이여. 쾌하다 이 선언이여. 위싱턴 당시에 필라델피아 독립관에서 선언하는 포고문이 아닌가. 가부이 당시에 이탈리아 전국을 혼동하던 선전사가 아닌가. 이 로초차 썩은 한국이 다시 소생할 것이요 쓰러진 한민이 다시 일어날 것이로다. 장하다 이 선언이여. 쾌하다 이 선언이여. 한국 황제의 합병조약 체결을 공격하고 한국주권의 양여를 승인치 아니하였다 하니 이것이 신대한국 건설자의 모범적 언론이 아닌가 저 무도한 왜노는 한국 황제가 즐겨하는 바라하고 한국 황제가 합병한 공을 표하려고 혼장까지 주었으니 한국 인민은 황제의 뜻을 순봉하라는 포만무례한 망설을 발하나 금일 대한국민은 어제 망국민이 아니요 명일 신대한국 건설자라 어찌 옛날 포화무도 야만주권 하에 칩복하리오. 분발할지어다. 2천만 우리 민족아. 마음과 뜻을 합하여 독립개가를 화답하는 날까지 앞으로 감시다.⁴³⁾

『新韓國報』는 ‘한일병합’이 발표된 이후 일본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독립전쟁을 벌일 것이란 미주 한인 지도자들의 선언을 보도하였다. 미주 한인의

42) “日奴의 妄說에 對하여”, 『新韓國報』(1910. 7. 26).

43) “韓人의 舉義國民本位를 尊崇하면 興하고 君主本位를 尊崇하면 亡하는 것이니라”, 『新韓國報』(1910. 9. 6).

독립전쟁은 영국에 맞선 워싱턴의 독립전쟁에 비유되었다. 또한 망국민으로 전락해버린 미주 한인들의 정신적 공황을 메워 주기 위해, 미주 한인들이 망국민이 아닌 미래 ‘新대한’의 건설자임을 강조했다. 4천년 역사의 2천만 민족이 ‘倭奴’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주역은 고국 땅이 아닌 이역 만리 미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민족사의 새로운 주역들이 창조해야 할 ‘新대한’의 정체에 대하여 공화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國民本位를 숭상하면 興하고 君主本位를 숭상하면 亡하는 것”이라는 이 글의 제목은 그들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왕조에 대한 미련은 반만년 조국의 주권을 양도한다고 선언해버린 한국 황제의 포고와 함께 사라졌던 것이었다. 미주 한인의 눈에 비친 대한제국 황실은 나라의 명운을 두고 담판을 벌이는 와중에도 곧 사라져 버릴 황제의 존호를 대공작이 아닌 왕으로 격상시키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았다.⁴⁴⁾ 따라서 당면한 과제는 사라진 왕조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 無形의 국가를 상상하고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정부가 필요했다. 미주 한인들은 병합에 즈음해 이미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한 가정부(假政府는 公法之所許)를 실시함이 목하의 급무라”고 거듭 밝히고 있었다.⁴⁵⁾ 결국 1910년대 미주 한인들의 민족운동은 無形 國家論과 자치정부 수립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44) “왜노 사내[寺內正毅]가 공식으로 발표한 합병 협상담화 중에 기이한 감상이 있는 것은 성문신무하사 신성불가범한 대한민국 대황제 폐하의 태도라. 그 담화에 가로되 한국 황제와 태황제는 합병담판이 진행할 때에 협약조건에 대하여는 다 동의를 표하되 대공작의 존호를 올리겠다는 것은 용이하게 승낙치 아니하고 무슨 모양으로든지 왕의 칭호를 여하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천의를 순종하여 왕위를 올리기로 작정하였고 황실 제친왕들은 일본 공작의 지위에 두고 연금은 150만원을 공급하기에 이를 것이라 하고 모든 황족들은 어느 땅에서 살든지 자유로 하되 한국 내지에 유할 것이라 하고 일본이 합병을 발표하는 동시에 한국 인민의 조세를 면하고 경죄선고를 받은 죄수는 특사하고 공업과 학교를 장려하며 병원설비를 완전히 하며 빈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금 1,700만원을 한국에 송부하였다 하였더라”[“韓日合邦 後聞이라는 倭新聞의 報道—大韓大皇帝가 王位를 望한다는 報道”, 『新韓國報』(1910. 9. 13)].

45) “嗚呼舊韓已死矣”, 『新韓民報』(1910. 9. 21).

V. 맺음말

‘한일병합 100년’에 즈음한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 중 연구사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하였던 주제가 이른바 조약체결 절차상의 문제와 국제법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유무효론을 논한 연구성과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역사과정에 대한 해명이 유무효론에 관한 논쟁으로 논의가 집중될 경우 ‘한국병합’에 이르게 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해명의 공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한일병합’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의 문제로만 한정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시키면서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추구하였나 하는 의문을 해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한일병합’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적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비교 검토를 시도한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국병합’이 제국주의시대 열강의 세력분할의 대표적 사건이었음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인식이 당시 만주문제를 둘러싼 열강과 러시아, 일본 사이의 각축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1910년 7월에 체결된 제2차 러일협약과 ‘한일병합’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였다. 또 두 사건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인식을 다루었다. 특히 인식에 관한 부분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미주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던 『新韓國報』나 『新韓民報』와 같은 시기 국내 언론이 주요 사건의 그것을 비교 검토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통감부가 국내 언론에 적용하였던 신문지법과 보안법의 테두리 내에서 발행되었던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과 달리 미주에서 발행되었던 두 신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도와 논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국내 신문과 미주 신문의 보도 내용을 비교하는 가운데 비교적 인식의 정도가 달랐던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新韓民報』는 헤이그평화회의 이후 국내 의병기사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미국 내의 주요 기사로 태프트 신임 대통령의 취임과 신정부 장관 명단 등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도하였다. 대체로 태프트 정부의 정책이 루스벨트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약의 비준과 폐기절차와 관련해서는 행정부보다는 의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⁴⁶⁾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 의해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기존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파기를 의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조약관계는 유효하다. 또한 향후 정세의 변화에 의해 기존조약 체제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도 조약의 최종적인 승인과 파기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조약 관계가 폐기는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시사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하얼빈에서 발생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해 당시 국내에서는 각종 단체가 추도회를 개최하는 등 이토의 사망을 애도하는 분위기였고, 표면적으로 언론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미주에서 간행되었던 신문들은 국내의 여론과는 달리 안중근을 애국열사로 정당하게 평가하였고, 나아가 국제법에 입각한 재판절차를 통해 안중근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병합’에 대해 미주 한인들의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던 것은 1909년 초 부터였다. 미주 언론에서는 국내에서 유포되고 있던 일진회의 정합방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즉, 일진회의 정합방론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혹은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형태의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또한 1910년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제2차 러일협약에 대해서도, 러일 간의 조약 타결이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병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러나 『新韓民報』는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적 타협이 이후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적대적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관련 기사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었다.

46) “미국정체대강”, 『新韓民報』(1909, 2, 10).

끝으로 병합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미주 지역 신문은 망국민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 앞에 미주 한인들이야말로 장래 '新대한'의 건설주체임을 강조하였다. 이때 언급되고 있는 '新대한'의 정체는 1909년 1월경 순종 황제 순행시기에 나타나고 있었던 군주와 국가의 분리라는 차원을 넘어, 다시 말하면 왕조체제의 부활로서의 '新대한'이 아니라 공화제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자료〉

- 『大韓每日申報』
 『新韓國報』
 『新韓民報』
 『日本外交文書』
 『皇城新聞』

〈논저〉

- 구대열, 1986, 『제국주의와 언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도훈, 1999, 「韓末 韓人の 美洲移民과 民族運動」, 『國史館論叢』 83, 국사편찬위원회.
 김도훈, 2002, 「1910년 전후 미주지역 공립협회 · 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도훈, 2003, 「한말 · 일제초 재미한인의 민족운동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해안.
 김소영, 2010, 「순종 황제의 南 · 西巡幸과 忠君愛國論」, 『韓國史學報』 39.
 김원용 저 · 손보기 엮음, 2004, 『재미한인 50년사』, 해안.
 모리아마 시게노리[森山茂德] 지음 · 김세민 옮김, 1994, 『近代韓日關係史研究』, 玄音社.
 白東鉉, 2004, 「大韓帝國期 民族意識과 國家構想」,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석화정, 2004, 「리일협약과 일본의 한국병합」, 『歷史學報』 184.
 小川原宏幸, 2010, 『伊藤博文の韓國併合構想と朝鮮社會: 王權論の相克』, 岩波書店.
 신운용, 2007,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외 한인사회의 인식과 반응」,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8.
 신운용, 2009, 「안중근 의거의 국제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연구』 33.
 오인환 · 공정자, 2004, 『구한말 한인 하와이 이민』, 인하대학교출판부.
 이용창, 2003, 「‘伊藤博文追悼會’ 개최 전후 ‘사회세력’의 동향과 親日 정치세력의 형
 성」, 『史學研究』 69.
 이태진 · 사사가와 노리가츠 공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崔起榮, 1991, 『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 一潮閣.

- 최덕규, 2008,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1910)」, 『역사문화연구』 31.
-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1909~1910)」, 『韓國史研究』 145.
- 최덕수, 2007,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1899년)와 『독립신문』」, 『민족문화연구』 47.
- 최덕수, 2008,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1907)와 대한제국 언론의 세계인식-『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0.
- 최덕수 외, 2010,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아셈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2010, 『국치 100년, 국권상실의 정치외교사적 재조명 발표자료집』.
- 韓明根, 2002, 『韓末 韓日合邦論 研究』, 國學資料院.
- 韓相權, 2005, 「안중근 의거에 대한 미주 한인의 인식-《新韓民報》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3.
- 和田春樹 外 編, 2010, 『東アジア近現代通史2: 日露戰爭と韓國併合』, 岩波書店.

[ABSTRACT]

The Korean Newspapers' Recognition about the Great Powers Policy under the East Asia International Circumstance in 1909~1910

Choi, Deoksoo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characteristic of the event is not limited in Japanese expansion policy of colony but have to be understood in the view that the Great powers make balance of power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era through the annexatio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cedure of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focusing on two points; the change of Great power's East Asian policy and Korean people's recognition to the policy.

For that purpose, The paper analyze the Korean newspapers, *Hwangsung-sinmun* (*Hwangsung Newspaper*, 皇城新聞), *Daehan-mail-sinbo* (*The Korean daily News*, 大韓每日申報) which were under the pressure of Residency-General in peninsular and *Shinhanguk-bo* (*The United Korean News*, 新韓國報), *Shinhan-minbo* (*The New Korea*, 新韓民報) which were published in America.

First, I try to show differences of the Korean newspaper's recognition and response about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by Ahn Jung-geun. The reas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wspaper in and outside peninsula were how they recognize the Manchuria problem among the Great Powers like Russia, Japan.

Second, I review the relation of the second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10, concluded in July and the annexation of Korea in August of 1910. The two event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the world and also did to the Korean Newspapers. The Korean Newspapers published in America showed their analyze about the events and criticized the the Ilchinhoe(一進會) movement more strictly than the Korean Newspapers published in the circumstance of Press law in peninsular. They suggested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s neo-Korean polity and inspired the patriotism of Korean in America in the mood of annexation.

keywords

Ahn Jung-geun,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second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10, *Shinhanguk-bo*(The United Korean News), *Shinhan-minbo*(The New Korea)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각국 언론의 반응과 일본정부의 인식

-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

방광석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이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지역 및 미국, 프랑스 등 구미 각국의 반응과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한국병합’ 과정을 국제적 시야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한국병합’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일본의 침략정책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한일관계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일본정부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이미 한국을 식민지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호통치’를 통해 그 기반을 닦고 단계적으로 주권을 빼앗아 마침내 1910년 ‘한국병합’을 단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했으나 곧바로 ‘병합’할 의사는 없었는데, 고종의 헤이그밀사 사건과 의병투쟁 등 대한제국 왕실과 국민의 저항으로 ‘보호통치’가 파탄에 이르러 한

※ 투고일: 2010년 7월 8일, 심사일: 2010년 11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2월 2일.

국을 ‘병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또한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많은 역사서에서는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이 ‘한국병합’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¹⁾

이렇듯 기존연구에서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문제로 제한해서 파악하려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병합’이 열강의 묵인과 동의를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국제정치, 외교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 국가들은 과연 일본의 한국 침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병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이러한 측면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교문서 및 언론매체를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외무성 기록 문서번호 4.2.5 245-1~5)에 주목하였다.²⁾ 이 자료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과 관련해 일본정부에서 사건 관계자를 포함해 다방면에 걸쳐 수집, 보존한 방대한 사료군으로 매우 상세한 1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은 물론,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 상황, 관련 각국의 반응 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伊藤公爵遭難ニ關シ各國人ノ態度竝新聞論調」(245-2)에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과 일본의 한국지배에 관한 서양열강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신문기사 원문이 상당 분량 실려 있다. 또한 이 자료에는 해외 각국에 주재하는 일본 외교관들이 각국 정부의 반응과 정책을 조사, 수집한 외교문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일본교과서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 서술의 분석에 관해서는 신주백, 2009, 「한일 역사교과서는 안중근을 어떻게 기술해 왔는가(1945~2007) -伊藤博文 및 韓國併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참조.

2) 이 자료의 일부분(245-1~3)은 이미 자료집으로 간행된 바 있으나[『亞洲第一義俠安重根』(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XIII - XIV)1-3, 국가보훈처, 1995] 영인 상태가 좋지 않고 일본어 초서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일본정부가 한국지배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 국제적 동의를 중시했음을 감안할 때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그것을 일본정부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병합’과정 해명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각국의 신문과 잡지의 논조를 검토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³⁾ 일본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자료는 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자료를 중심으로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병합’ 과정의 해명에 일조하고자 한다.

3) 이상일, 2002. 3, 「안중근의거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신문 논조」,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0; 김춘선, 2005. 6,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위의 『안중근 연구의 기초』에 재수록); 신운용, 2009, 「안중근에 관한 신문 자료의 연구-『滿洲日日新聞』을 중심으로」, 『안중근 연구의 기초』;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박 벨라 보리소브나, 2009, 「안중근 의사의 위업에 대한 러시아 신문들의 반응」, 『안중근 연구의 기초』; 서용, 2009, 「중국에서의 安重根 의사에 대한 반응과 그 인식」, 『안중근 연구의 기초』 등. 이 가운데 이상일의 논문에서는 『亞洲第一義俠 安重根』에 실려 있는 일본외무성 자료 『伊藤公爵遭難ニ關シ各國人ノ態度並新聞論調』를 일부 인용하고 있으며, 신운용의 논문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 신문 외에 러시아어 신문과 미국 언론의 안중근 관련 기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4) 이 자료의 중요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으나(신운용, 2009, 위의 논문; 조광, 2000, 「안중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2집 참조), 일부 자료만 선별적으로 이용되었다.

II. 중국⁵⁾

안중근의 이토 저격사건 직후 해외 각지에 주재하는 일본 외교관으로부터 외무성으로 속속 보고가 들어왔다. 그 가운데 중국 각지의 신문 논조에 대한 보고가 비교적 상세하다.

상하이[上海] 총영사대리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상에게 보낸公信에는 현지 신문이 다수 발췌 첨부되어 있다.⁶⁾ 이 가운데 먼저 혁명당원인 위유린[于右任, 1879~1964]⁷⁾이 1907년 창간한 『神州日報』는 이번 사건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압적 지배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일본이 조선을 대우하는 것보다 고압적 強權이 심한 것은 없다. 그 반동이 마침내 飛彈의 一擲에 피를 뿌렸다. 우방의 원로가 우리 경내에서 죽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로 우방 사직의 臣의 죽음에 대해 청일 국교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⁸⁾며 일본의 한국지배를 비판하는 한편 일본 측을 배려하는 자세도 나타냈다.

또한 『申報』⁹⁾는 “이토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사람은 이를 애석해 했을 것이지만 한국인은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필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느꼈을 것이다. 조선인이 이토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5) 여기에서는 중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외에 홍콩과 하와이 중국어 신문의 반응도 포함시켰다.

6) 1909년 10월 28일 마쓰오카 요스케가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公信 426호 「伊藤公被害ニ對シ當地各新聞輿論」.

7) 중국의 정치가이자 언론인으로 1906년 일본에 유학하여 중국동맹회에 가입했고 이듬해 귀국해 『神州日報』, 『民呼日報』, 『民吁日報』, 『民立報』를 차례로 발행하여 청조를 비판, 혁명사상을 고취하였다. 국민정부 성립 후 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고 孫文이 죽자 당내 우파의 지도자로 활약하며 監察院院長 등 국민당 요직을 겸임했다.

8) 논설 “嗚呼強權之殷鑒”, 『神州日報』(10, 27).

9) 근대 중국에서 가장 발행기간이 길고 영향력이 컸던 신문의 하나로 정식 명칭은 申江新報. 영국인 무역상 Ernest Major가 1872년부터 창간해 1949년 폐간되었다.

아니다. 이토의 정책이 이미 완성을 본 오늘날 이를 빼앗을 시기는 이미 늦었다. 조선인 자객은 쓸데없이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토는 일본 유신의 창업자로서 일본에 있어서는 매우 큰 손실이다. 후계자를 찾으려 해도 얻기 어려울 것¹⁰⁾이라고 적으면서도,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토가 한국통감이 된 이후 한국경영에 열심히 종사하여 지금은 뒤를 돌아볼 염려가 없어졌다. 나아가 말머리를 돌려 만주로 향했다. 이것은 행정상의 의미가 없다고 자칭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지금 이토가 암살의 참사를 당한 것은 단지 조선을 병탄한 대가¹¹⁾라고 보았다. 즉,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을 통치해 그 대가로 이토가 사살되었다고 보았으며 일본의 만주침략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미 일본의 한국지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토를 죽인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견해가 눈에 띈다.

『民吁日報』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일본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다.¹²⁾ 주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토의 죽음은 東亞 정치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李鴻章과 이토는 동아시아의 두 명의 인재라고 칭해진다. 이홍장은 이미 몰락하여 동아시아의 위인이라 칭할 수 있는 자는 이토 한 명이었다. 우리는 이토가 세계의 위인이 되지 못한 것을 슬퍼한다. …… 우리는 일본인을 위해 말한다. 지난날 헤이그 사건은 국왕이 피한 것이지만 이번 일은 국민의 분노에서 나온 것이고 국왕은 모르는 바이다. 오늘날 일본이 조선을 대함은 영국이 인도를 대하고 유럽인이 유태인을 대하는 것보다 심하다. 우리들은 일본인의 애국심을 부러워한다. 청일·러일전쟁 때 일신을 희생하여 국리를 피함은 일본이 자주 전쟁에 승리한 이유이다.¹³⁾

안중근의 이토 사살을 일본의 혹독한 지배에 따른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고

10) “論日本伊藤公爵之被刺”, 『申報』(10. 27).

11) “聞伊藤被刺感言”, 『申報』(10. 28).

12) 『民吁日報』는 안중근 의거에 관한 기사를 무려 93회나 게재했다(김춘선, 2005. 6, 앞의 논문, 113쪽).

13) “聞伊藤公噩耗之雜感”, 『民吁日報』(10. 27).

일본의 한국지배는 영국의 인도 지배, 유럽인의 유태인 지배보다 심하다는 이러한 논조는 혁명파의 입장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수년 동안 전력을 기울여 조선을 경영하여 조선은 이미 [일본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이어서 전력을 다해 청국을 경영하려 한다. 이토가 이번엔 遼東에 온 의미는 東督[關東都督-필자주]을 철폐하고 조선통감의 권력을 확충하여 北京으로 진출해 청국의 내정고문이 되기를 바라는 데 있다. 즉 일본은 청국에 재정 감독을 파견하는 것을 발기했다. 지난날 일본이 처음으로 조선을 경영할 때, 즉 일한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주로 그 재정을 감독함으로써 국가행정의 기능을 장악하여 조선은 마침내 오늘날의 처지가 되었다. 이토가 죽었더라도 일본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에서 모두 일본의 극렬정책의 진행은 전부 이토의 손에서 나오고 이토가 주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토는 그 중에서 완진파이며 급진파가 뒤에서 그를 驅逐하려 한 것을 모른다. 일본이 조선에서 행한 일은 세계의 눈에서 보면 완전히 비인도적이고 처참 잔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국민은 통감정치가 실패했다고 통탄하며 이토를 배척했다.¹⁴⁾

일본은 이미 조선을 세력 하에 두었으며 앞으로는 중국에 손을 뻗쳐 침탈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이토는 일본정부 내에서 점진파에 속해 그가 죽었더라도 조선에 대한 기본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일본정부의 대외정책 측면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래 제국주의를 중국대륙에 뻗쳐 만주경영은 날로 진보하여 이번의 이토의 만주행 역시 일본국민 여론의 강박에 의한 것이다. 원래 이토는 점진주의를 취해 일본인으로부터 항상 고식수단, 무기력을 지적받아 고민 끝에 공혼을 세우려다 마침내 變死하였다. …… 일본은 중국을 잠식하려 하는 야심을 멈추고 동아 평화를 유지할 것을

14) 논설 “中國外交危機之愈迫”, 『民吁日報』(10, 31), 11월 1일 마쓰오카 요스케가 고 무라 외상에게 보낸 공신 433호에 실려 있다.

희망한다. …… 이토의 이번 만주여행은 정치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만주협약에 반대함에 따라 이토 일행이 조사를 통해 이를 반박할 재료를 찾으려는 것이다. 도쿄의 時事新報는 과거 관동도독부의 조직이 때때로 외국인 사이에 비난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번 이토의 사후 관동도독을 폐하고 한국통감의 권력을 만주에 확장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 …… 이번에 급파된 구라치[倉知] 씨는 전에 安東線 문제에 대해 자유행동을 주장한 사람이다. 일본정부가 그 정책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은 이것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¹⁵⁾

이토의 만주행은 대외팽창적인 일본 국내여론에 떠밀린 것이며 이토도 일본의 중국침략에 공헌을 세우기 위해 만주여행에 나섰다. 그리고 이토가 죽었더라도 일본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토의 사후 한국통감의 권력을 만주로 확장하려 한다는 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時報』¹⁶⁾는 社論을 통해 “33년 전 이토는 일개 유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功이 있고 이름을 얻어 70의 노령으로 떠나면 여행에 나서 순국하기에 이르렀다. …… 이토가 피격당한 하얼빈은 그 주권이 러시아로 넘어갔고 하더라도 엄격히 해석하면 이곳은 원래 청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遊歷하던 友邦의 원로를 우리 영토 내에서 잃었다. 제군은 이 일에 관해 과연 어떠한 감상을 갖고 있는가. 이번 여행이 아무리 정치상의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재무장관, 영국의 키츠너 장군과 함께 하얼빈에서 만났다. 영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할 것이 없다 해도 이토와 러시아 재무장관은 우리 만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토가 갑자기 변사를 당한 것은 어쩌면 양국의 국교에 큰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만주는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¹⁷⁾며 이토가 만주에 간 것은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한 것이며 이토의 죽음으로 인해 러일관

15) 논설 “論伊藤監國暗殺案”, 『民吁日報』(11, 2), 마쓰오카가 11월 5일 고무라 외상에 게 보낸 공신 443호 所收.

16) 1904년 상하이에서 狄楚靑에 의해 창간된 시사종합신문.

17) 社論 “論伊藤被戕事”, 『時報』(10, 28).

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1월 6일자 『新聞報』¹⁸⁾도 “論近日外交之危迫”이라는 논설에서 “지금 이토가 죽더라도 그 나라 사람은 모두 이토의 후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수상은 武斷내각을 표방하는 가쓰라 타로[桂太郎]가 아닌가? 포츠머스조약, 영일·불일·러일조약은 모두 이 가쓰라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중국병합을 유일한 主義로 삼고 있는 구라치[倉知], 이토의 뒤를 이어 조선 통감이 되었고 辣腕을 가진 소네[曾禰] 등은 모두 이토의 부하”라고 보도했다.¹⁹⁾ 즉, 이토가 죽어도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토의 후계자라며 일본의 중국 침략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인정하는 논조도 있다. 『時事報』는 논설을 통해 안중근에 의해 사살당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토는 구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정계에 투신한 지 50년, 일본을 세계 일등국으로 만들고 러일전쟁 뒤에는 한국통감에 임명되었으며 지금은 노구를 이끌고 만주로 가서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 영국의 키츠너 장군과 악수, 담소하면서 만주에 관한 중요사건을 해결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한인에 의해 쓰러졌다.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러일전쟁 후 維新의 원로들은 쇠퇴하고 機務에 관여하는 자는 모두 이토의 후계자이다. 때문에 지금의 일본은 이토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오쿠마[大隈重信]가 없더라도 괜찮다. 하물며 오쿠마는 여전히 건재하다.

조선에 관해서는 이토가 통감이 된 이후 외교, 재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를 양위시키고 일본인을 사법, 행정관리에 임명했다. 列國은 팔짱을 끼고 그 멸망을 관망했다. 한국을 멸망시킨 것은 이토가 아니라 조선 자신이다. 조선인은 이토를 암살하여 그 울분을 토했으나 조선에서 통감을 제거하고 한일협약을 파기하지는 못했다.

18) 1893년 상하이에서 중국 상인 장숙화와 영국 상인 A.W. Danforth에 의해 창간된 시사종합신문.

19) 『新聞報』(11, 8), 마쓰오카가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공신 448호 所收.

이토의 죽음으로 일본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조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국과는 매우 관련이 있다. 이 기회를 타 필시 열강이 청국 분할의 폭력을 드러낼 것이다. 일본은 이토 때문에 흥한다. 조선의 멸망은 이토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만주의 禍亂은 이토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고 청국 자신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구미 유학생 가운데 이토와 같이 우리의 위력을 높일 인물이 없음을 한탄한다.²⁰⁾

이토는 일본을 일등국으로 만든 유력자이지만 후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토가 죽더라도 일본에 큰 타격이 되지 못하며 결국 조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이 멸망하고 중국이 침략당하는 것은 이토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나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 언론에서 이러한 입장은 소수였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더 많았다.

이상과 같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관한 기사내용에 대해 상하이 총영사대리 마쓰오카 요스케는 중국 신문의 보도 논조를 평가해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상하이의 외국어 신문은 모두 큰 동정과 심각한 추도의 뜻을 표했으며, 일반 청국인의 감정은 매우 냉담한 반면, 『神州日報』, 『民吁日報』, 『新聞報』 등은 오로지 이토의 결점, 강권자의 말로를 지적하고 한인 '자객의 義烈'을 칭찬했다고 보았다. 특히 『民吁日報』는 프랑스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토에 대한 악평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²¹⁾

한편, 영국이 조차하고 있던 홍콩 신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1909년 10월 29일 홍콩 주재 총영사대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가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公信에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中國日報』, 『商報』, 『世界公益報』, 『寔報』 등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10월 28자의 『中國日報』²²⁾는 「이토, 러시아 재무장관과 동청철도에 관해 협의하려다 살해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20) 『時事報』(10, 28).

21) 10월 29일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公信 「伊藤公의 薨逝와 當地の 여론」.

22) 1900년 1월 홍콩에서 창간된 혁명파의 기관지이다.

일본은 이토를 만주에 보내 러시아 재무장관과 동청철도에 관해 협의하려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만주 분할의 방침에 따른 것은 분명하다. 이토는 일본의 元勳으로서 한국통감이 되자 교활한 수단으로 한국을 억압해 마침내 이를 노예로 삼고 침략방침을 만주와 중국 대륙으로 옮겨 安奉, 吉會 線路를 결정하였다. 일본의 군용철도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토가 죽지 않으면 동아태평은 없다. 과거 한국을 병탄하기에 앞서 이토를 보내 형세를 살피게 했다. 이번의 일 역시 한국에 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청국의 앞날과 매우 관계가 깊다. 그런데 이토가 죽어 청국 분할의 기회가 멀어진 것은 청국에게 행복이다. 일본의 청국 침략의 銳鋒은 반드시 頓挫될 것이다. 이토의 죽음을 통해 청국 瓜分의 화를 면했다.²³⁾

『中國日報』는 교활한 수단으로 한국을 억압한 이토의 죽음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이 좌절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일본 정국을 피상적으로 살핀 견해라 할 수 있다. 11월 5일자 『中國日報』는 또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 정무국장의 만주행은 사실은 이토의 뒤를 이어 러시아 재무장관과 상의하게 하기 위함인데 大臣級을 파견하지 않고 구라치를 파견한 것은 세인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구라치는 침략 강경파로서 일본정부가 침략할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을 만주교섭문제의 사절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구라치의 파견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商報』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면 반드시 암살이 수단으로 나온다. 오늘날 천하태평을 유지하려 한다면 나라의 강약을 따지지 말고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이토는 일본 유신의 원훈으로서 일본의 입헌제도를 성립시킨 것은 이토의 노력에 의한다. 조선이 일본의 版圖에 들어간 것 역시 이토의 경영에 의한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암살이라는 수단이다. 혁혁한 威武를 가진 주석이 하루아침에 필부의 손에 쓰러졌다. 이토가 한국인의 손에 쓰러진 것을 애석해한다”²⁴⁾고 하였으며, 『世界公益報』²⁵⁾는 “이토는

23) “伊藤與俄度支部尙書協議東清鐵路及其被殺”, 『中國日報』(10, 28).

24) “高麗人竟鎗斃伊藤”, 『商報』(10, 28).

일본에서 유일한 평화주의자이다. 이번에 이토의 죽음은 동아 정국에서 범상치 않은 큰 사건으로 이토가 없는 일본의 대청정책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²⁶⁾이라며 이토를 높이 평가했다.

『寔報』는 안중근의 이토 사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이 청국에서 일어났으므로 청일교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토는 일본 최고의 정치가이자 외교가로서 한국통감이 된 이후 착착 경영을 진척시켜 마침내 일장기 아래 한국을 ‘합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을 멸망시킨 것은 이토라고 생각한다. 한인이 일본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토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였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동청철도의 정거장이므로 보호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 그러나 하얼빈은 원래 청국의 영토이므로 청국 또한 보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인이 일부터 타국에서 암살을 해 타국의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것을 공리에 비추다면 칭찬할 일이 아니”²⁷⁾라며 안중근이 청국 영토에서 이토를 살해함으로써 중국에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했다.

『華字日報』도 “이토는 일본 유신의 원훈이며 동아의 위인”이라며 높이 평가한 다음, “그의 經國 사업을 보니 먼저 우리 청국을 물리쳐 臺灣을 할양받고 2억 냥을 배상하게 했다. 겉으로는 한인의 독립을 도우고 은밀히 이를 꾀해 마침내 통감이 되었다. 한인은 그의 위력을 두려워했지만 뜻밖에도 오늘 한인이 쓴 일발의 총성이 이토의 壯業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이 兇行은 공리에 반하고 치안을 방해하는 행동이므로 물론 이를 처벌함은 법률상의 문제이며 우리가 간섭할 것은 아니다. 애석하다 이토의 죽음, 두렵다 한인”²⁸⁾이라며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홍콩의 중국어 신문들은 일본이 한국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25) 1903년 鄭貫公에 의해 창간된 홍콩의 정치운동신문이다.

26) “伊藤之被刺及伊藤歿後與亞東時局之關係”, 『世界公益報』(10, 28).

27) “伊藤慘被韓人轟斃之關係”, 『寔報』(10, 28).

28) “論韓人鎗斃伊藤事”, 『華字日報』(10, 29).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과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와이에서도 이토의 저격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0월 28일 호놀룰루 주재 총영사 우에노 센이치 [上野專一]는 고무라 외상에게 기밀문서를 보내 하와이 거주 중국인과 한인의 언동을 보고하고 있다.²⁹⁾ 그 가운데 하와이 재류 청국인 가운데 루신[魯迅] 등 혁명파의 중국어 신문 『自由新報』는 사설란에 ‘과격하’ 논설을 실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세계상 대권력가이다. 러일전쟁 후 한국통감에 임명되어 수년 동안 한국을 경영하여 안정되었다. 일본은 야심이 큰 나라로 동서양에 영토를 확대하려고 한다. 조선은 이미 안전하게 일본인의 손아귀에 있다. …… 이토가 한국에 도착하자 한국은 멸망했다. 지금 이토가 남만주로 가면 중국은 제2의 조선이 되지 않으려 해도 마침내 멸망을 면할 수 없다. …… 조선은 동아의 하나의 소국일 뿐으로 토지가 좁고 인구도 많지 않다. 러일전쟁 후 전토가 이미 일본인에게 돌아갔고 일본인은 자주 한인을 살육하는 참상을 드러냈다. 외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이 참상을 목격하고 자주 신문지상에 보도했다. 이번에 한국의 지사가 이토를 죽였다. 이와 같은 장렬한 거사에 비해 우리 청국에 있어서 4천 년 동안 사적으로 원수를 갚은 적은 있지만 한 몸을 희생해 수 많은 인민의 자유를 얻으려 한 적은 없다. 한국 지사가 일발적중 이토를 쓰러뜨린 그 공적은 실로 현저하고 위대하다고 말할 것이다. …… 아아, 조선은 멸망하지 않는다. 조선인에게는 애국심이 있고 자유심이 있기 때문이다. 청국인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것인가.

이토는 ‘대정치가’이지만 일본의 야심을 대변하여 한국을 멸망시켰다고 보

29) 10월 28일자 機密信 29호 「伊藤公 凶報에 대해 하와이 거주 淸韓人의 언동 및 관헌의 의향 具報」 및 11월 2일자 機密信 30호 「伊藤公 凶報에 대해 하와이 거주 淸韓人의 언동 및 관헌의 의향 續報」. 이에 따르면 한인 조직으로는 敎報社가 號外를 발행하여 ‘과격하’ 논조를 나열하여 하와이의 한인을 선동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하와이의 여러 한인단체는 각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狂喜한 나머지 축하회까지 개최했다고 한다. 한인단체 가운데 특히 愛國協會는 한글로 비장한 격문을 보냈으며 목사 閔燦鎬는 교회당에 많은 신도를 모아 집회를 갖고 비분 언동으로 무지한 한민을 선동했다고 한다.

았으며 일본의 한국지배의 참상을 고발했다.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하여 쓰러뜨린 것을 ‘장렬’하고 ‘위대’하다고까지 표현하며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지 않는 중국인과 대비시키고 있다. 중국 본토의 신문 논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난하고 안중근의 행동을 찬양하고 있다.

III. 러시아

서양 각국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만주 이권을 놓고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이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하얼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이토 저격사건이 일어난 직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총영사 오시마 후지타로[大島富士太郎]는 고무라 외상에게 기밀서류를 제출해 러시아인 반응을 보고하고 있다.³⁰⁾ 오시마는 “러시아 국민과 각국 대표자는 모두 일본에 대해 동정적이고 이토의 사망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곳 지방 신문은 사건 전후의 상세한 보도를 신속히 하고 있지만 사실을 통해 논평하는 일 없이 모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파 신문 『다리요카야 오크라이나』에 기고한 친일주의 기고가 마트에 예프는 “이전부터 이토 공의 渡滿에 관해 러일관계 친선상 매우 기대된다는 내용을 기고했는데 이번에 訃報를 접했다. 이 偉人の 横死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자신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다. 이 흥한의 폭거는 한국 최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투서를 보냈다”고 한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곳 러시아 국민 및 각국 대표자는 모두 일본에 대해 동정적으로 老公爵의 사망을 애석해 하고

30) 10월 31일 발신 機密第71號 「伊藤公爵遭難ニ對スル浦潮官民ノ態度ニ關スル件」.

있다. 재류 한인 중 배일파는 이토 사망 소식을 접하고 다소 기뻐하는 자도 있으나 표면상 두드러진 영향은 없다”고 보도했다.³¹⁾

10월 29일자 『니콜리스크 우스리스크』는 사설에서 이토에 대한 평가와 사건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토는 신일본의 발전, 발흥에 대해 달리 비할 수 없는 공훈자이다. 일본을 개발한 원훈의 한 사람으로서 긴 정치 생활 가운데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에 의해 자국을 최우등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동시에 그는 청한 양국에 대해서는 일본세력의 확장정책의 주창자였기 때문에 淸韓人은 이토를 仇敵의 수괴로 생각했다. 러시아에 대해 이토는 진정한 親友의 한 명으로서 한 때 성립되려 했던 러일동맹의 발의자였으며 실제로 러일전쟁 이전에 사명을 띠고 러시아를 방문한 적도 있지만 러시아 외교 당국이 생각이 모자라 이를 거절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 이번의 슬픈 흥변으로 생길 각종 결과를 산정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러시아가 취할 태도에는 근신을 요하는 것이 적지 않다. …… 우리는 일본이 이 흥변을 이대로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음과 동시에 극동에 있어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이번 사건이 많은 결과를 배태할 것으로 생각한다.³²⁾

즉, 『니콜리스크 우스리스크』는 이토를 러일동맹을 발의한 친러파로 간주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이 대가를 치르겠지만 일본이 강경정책을 펴 소요 등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신문들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과 그 영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짧은 보도기사나 조의를 표시하는 내용 외에 안중근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도 많았다. 『하얼빈』 신문은 “한국인들의 조국을 노예화한 대가로 모욕을 당한 이들의 정확한 충알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31) 10월 29일 발신 公第156號 「伊藤公殺害事件ニ關スル露國新聞紙ノ報告ノ件」.

32) 11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오시마[大島] 총영사가 보낸 公信 278호.

정복자인 이토를 쓰러뜨렸다. …… 조국을 사랑했던 안중근의 성공적인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은 일본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보낸 정당한 경고”³³⁾ 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삶』 신문은 11월 8일자 기사를 통해 “이토는 한 국에서의 일본의 통치권에 대한 대가로 죽었다. …… 지금 일본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변방을 점령해야만 하고 새로운 테러행위를 기다려야만 한다”며 “일본의 침략은 계속 저항에 직면할 것”³⁴⁾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특명전권대사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는 고무라 외상에게 공문을 보내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 관한 러시아 각 신문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³⁵⁾

그에 따르면 먼저 『노위에 우레미야』 신문은 “이토를 살해한 가해 한국인이 일종의 우국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우국자의 소신에는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토의 살해로 조국을 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확신하지만 어리석다. 이토가 죽더라도 제2의 이토가 출현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이토는 러시아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는 일파의 정치가와는 정반대로 러시아와 일본의 접근을 열심히 주장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토의 죽음은 일본에 있어서 심대한 손실에 머물지 않고 극동 평화에 일대 손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며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한 것이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스톨리 핀 수상과 코코프체프 재무장관이 모토노 대사에게 보낸 弔電은 러시아 일반 사회의 의사를 잘 대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루스』 신문도 “이번 정치적 살해의 동기는 어쨌든 우리는 조선인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토 살해사건은 러일 국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가와카미[川上] 총영사가 재류 일본인을 모두 정거장에 입장시켰는데 범인인 한인이 이를 이용해 일본인

33)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 박 벨라 보리소브나, 2009, 앞의 논문, 370쪽에서 재 인용.

34)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 박 벨라 보리소브나, 2009, 앞의 논문, 372쪽에서 재 인용.

35) 10월 29일 러시아 주재 모토노[本野] 대사가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公信 156호.

에 섞여 입장해 흥행을 벌일 기회를 잡은 것이므로 러시아는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페테르부르크스키야 웨드모스치』 신문도 “이토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억압정책을 추진해 죽었다. 일본이 이토의 죽음에 의해 받을 손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제무시티나』 신문은 “가해자인 한국인은 일본이 조국에 가한 모욕을 분개하여 복수로서 이토를 살해했을 것이다. 살해 장소가 러시아 조차자인 만큼 러시아가 이번 사건에 무언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없다”며 안중근을 하얼빈역에 들여보내 이토를 저격하게 한 책임은 일본 측에 있으며 러시아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웨트』 신문은 “한 정치가를 살해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罪惡復讎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토의 죽음은 결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를 미치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장래 한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고, 『비루슈이야 웨드모스치』 신문은 “러일 양국의 정치가가 러일전쟁 후 처음으로 하얼빈에서 악수하고 평화의 목적에 공헌하려고 하던 때에 일본의 위인이 兇手에 쓰러졌다. …… 무엇보다 이 變事가 양국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협상의 개시를 지연시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토의 죽음은 단지 협상의 개시를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토의 죽음이 일본의 한 국지배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러시아의 언론은 극동 지역과 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논조에 차이가 보인다. 극동 지역 신문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의 대외침략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신문들은 안중근의 이토 저격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사건이 러시아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러시아 측에 사건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러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앞으로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IV. 구미 각국

일본정부가 안중근의 이토 저격사건에 대한 서양인의 반응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것은 일본의 외국인 거류지를 통해서였다. 1909년 10월 29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지사 스후 고헤이[周布公平]가 내무대신과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요코하마의 외국인은 이토가 ‘非命’에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추도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³⁶⁾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코하마 북스 오프 큐리어스』사의 한센 기자는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가 한국인에 암살당한 것을 보고 홍콩의 미국인 사이에서는 이토도 언젠가는 암살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이토가 사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요코하마 유나이티드 클럽의 외국인 회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한국 내 배일파에 대한 일대 소탕을 벌일 것이며 장래 일본의 滿韓정책의 시설에는 현저한 進運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평했다. 또한 외국인 여행객은 “이토의 죽음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일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토는 죽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인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차타드은행 부지배인 로버트슨 외 재류상인들은 경제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무언가 변화가 있겠지만 이 때문에 외국과 외교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요코하마 거류 외국인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대체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워싱턴 주재 임시대리대사 마쓰이 게이시로[松井

36) 神高秘收第2058號, 「伊藤公遭難ニ付テ在留外國人ノ感想ノ件」.

慶四郎]는 10월 27일 발간된 『워싱턴포스트』, 『더선』, 『뉴욕타임스』, 『뉴욕트리뷴』, 『시카고데일리트리뷴』 등 미국의 신문들은 상세하게 사건의 경과를 보도했다고 보고했다.³⁷⁾ 그에 따르면 미국의 각 신문은 이토의 업적을 소개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정부의 최근 사업인 한국경영은 이미 그 기초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점에 관해 별로 유감은 없다. 특히 이번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종래의 방침을 답습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은 미국 인사에게 안심과 만족감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토가 만주에 간 사명에 관해 각 신문은 여러 가지 억측을 포함해 러일 양국은 만주에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협정을 위해 러시아 당국과 회견하려 했는데 그 계획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시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10월 29일 시카고 주재 스키하라[杉原] 영사가 외무성에 보낸 公信의 첨부자료를 보면, 『시카고트리뷴』은 사설에서 이토를 ‘한국인의 최대 友人’이라고 말하고 또 일본에서 여러 건설적 사업을 칭찬하며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비견하였다. 또 헌법발포, 청일·러일전쟁 등에서의 공적을 언급하고 그의 대미정책은 평화적이고 우의적이었다는 것을 칭송했다. 나아가 “대한정책에 관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의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장래 더 한층 단호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은 이토의 생사로 인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만일 차이점이 있다면 수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논했다.³⁸⁾ 또 『뉴욕트리뷴』은 “이토는 한국을 야만의 지위에서 건져 내었는데 소위 한국의 애국자가 이토를 죽임으로 다시 이전의 야만 지위를 회복하고자 함이 아닌가”³⁹⁾라고 하여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과 관련해 미국 언론의 논조는 대체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이었으며 이토의 죽음으로 인해 일본의 한국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

37) 10월 30일 주미 임시대리대사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가 보낸 公信 186호.

38) 10월 29일 시카고 주재 스키하라 영사가 외무성에 보낸 公信 174호.

39) 신운용, 2009, 앞의 논문, 72쪽에서 재인용.

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만주에서 이권을 추구하려는 당시 미국정부의 대외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오스트리아헝가리국의 『타그브라이트』, 『프렘텐브라이트』, 『짜이트』 등 각 신문은 사실 및 보도기사를 통해 대체로 이토의 죽음을 동정하거나, 이토의 공적을 찬양하고 추도하는 보도를 내보냈다.⁴⁰⁾

이탈리아의 각 신문은 이토의 죽음을 매우 동정하고, 불행을 추도하며 이토의 생애와 사적을 기술했다. 그러나 이토의 죽음이 장래 일본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 불, 독, 러의 각 신문과 달리 한마디도 논평을 하지 않았다. 단지 한두 개 신문만이 앞으로 일본의 대한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토의 죽음이 러일간의 '앙당트' 성립을 일시 좌절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요컨대 이토가 이번 여행에서 러일문제에 관한 일종의 사명을 띠고 있었다고 추측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⁴¹⁾

이토의 죽음에 대한 스웨덴과 노르웨이 각 신문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이토의 죽음으로 對淸·對滿韓 정책 및 미국 등에 대한 外政의 방침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토는 일본이 러일전쟁 후 극동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등 각국 및 청국으로 하여금 의심과 걱정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장 온건하고 평화적인 외정방침을 취했다. 무엇보다 온화한 정치가의 대표자로 여겨지며 천황에게 가장 신임이 있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본에 대해 의심과 걱정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서술했다. 또 스웬 헤진 박사는 "이토는 한국에서 온화적 정책 실행의 주창자이며 실행자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大恩人이다. 한인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또 앞으로 무단파가 반동적 정책을 한국에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

40) 10월 30일 오쿠다[奥田] 임시대리대사가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公信 94호.

41) 11월 6일 이탈리아 주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대사가 보낸 公信 137호.

다”고 말했다.⁴²⁾

프랑스 언론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토의 사망 소식이 10월 26일 오후 4시경 하바스통신사를 거쳐 프랑스에 전해진 이후 각 언론매체에서 많은 기사를 내보냈다. 프랑스의 언론은 외국 사정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특히 동북아시아의 사정에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토의 조난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신문 가운데는 이토 공작을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 원수와 혼동해 그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이토[伊東] 해군중장과 혼동해 그의 딸의 결혼에 관한 장문의 기사를 실을 정도였다. 또 이토의 경력에 관해서는 영국의 신문이 도착할 때까지는 불완전한 자국의 백과전서 등에 의거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프랑스의 언론은 동북아시아의 사정에 매우 어둡고 일부 인사는 인도차이나의 장래를 걱정한 나머지 일본에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⁴³⁾

『르탕』, 『데바』, 『휘가로』, 『에코드파리』 등 프랑스의 각 신문과 잡지 『에코노미스트 유로페안』 등은 “이토의 위업에 대해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그의 한국경영이 평화적이고 온건했던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의 죽음은 일본만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대불행”이라고 진술했다. 또 월간지 『아지르 프랑세즈』에 게재한 논문에서 로베르 드케는 이토를 ‘시종 평화의 옹호자’라고 격찬한 다음 “일본의 정치조직 등을 상설하고 이토의 죽음이 장래 일본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애국파 및 식민파에 속하는 신문들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관해 “일본의 한국경영이 과격무단에 치우쳤다고 비난하고 이토가 한국인의 손에 쓰러진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토를 죽인 안중근을 가리켜 ‘애국자’, ‘복수자’, ‘헌신자’라고 칭하며 영웅시하고 있다. 러일전쟁 때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회당과 공산당 인사도 러일전쟁 후 일본이 文權을 가볍게 여기고 軍權만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 일본에 과거와 같은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토의 죽음뿐만 아니라

42) 11월 1일 스웨덴 주재 스키무라 도라이치[杉村虎一] 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機密信 13호.

43) 11월 18일 프랑스 주재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慎一郎] 대사가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機密信 31호 「이토 암살에 관한 프랑스의 여론추세 보고」.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동정심을 보이는 자의 비율은 적어졌다고 한다.⁴⁴⁾

유럽의 언론계는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무지하여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거나 피상적인 관찰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⁴⁵⁾ 일부 언론은 일본의 한국지배를 비판하고 안중근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으나 일본의 한국지배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중국 지역과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구미 각국의 반응과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을 신문논조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을 받은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이토를 죽인 안중근에 행위에 동조하는 한편, 이토가 죽었지만 일본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홍콩의 신문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억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토를 높이 평가하고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우려한 점에서는 중국 신문들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언론은 안중근의 이토 저격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토에 동정을 표하는 한편, 이 사건이 러시아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

44) 앞의 「이토 암살에 관한 프랑스의 여론추세 보고」.

45)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관해서는 서양열강 가운데 영국과 독일에서도 많은 신문보도가 있었지만 이 글에서 검토한 「伊藤公爵遭難ニ關シ各國人ノ態度並新聞論調」에는 영국과 독일의 반응을 알려주는 자료가 실려 있지 않아 따로 살펴보지 못했다.

에 사건의 책임이 러시아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러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앞으로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의 언론 논조는 대체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이었으며 이토의 죽음으로 일본의 한국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유럽의 신문들은 일부에서 일본의 한국경영을 비판하고 안중근의 행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무지하여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거나 피상적인 관찰이 많았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이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해외 언론은 이토가 죽었지만 일본의 한국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논조가 대세였다. 중국에서는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안중근의 행동에 크게 자극받아 외세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서양 각국에서는 일본의 한국정책에 대해 별다른 비판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이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서양 각국은 ‘한국병합’으로 나아가는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측 관변자료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과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에 관한 각국의 신문논조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자료를 수집한 일본 외교 당국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자료상의 문제점과 함께 각국의 반응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검토한 자료집에 실려 있는 자료 내용의 한계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국과 독일 등의 신문논조도 살피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 및 서양 각국에서 발간된 다양한 신문, 잡지기사에 대한 분석과 각국 외교문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사료〉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韓國獨立運動史資料』 제6, 7권, 국사편찬위원회.
- 琴秉洞 編, 1999, 『雜誌にみる近代日本の朝鮮認識』(전5권), 綠蔭書房.
- 김도형 편, 2008, 『大韓國人 安重根 자료집』, 선인.
- 김정명 편, 1965, 『日韓外交資料集成』, 巖南堂書店.
- 김정명, 1972, 『伊藤博文暗殺記錄-その思想と行動』, 原書房.
- 김창수 해설, 1995, 『亞洲第一義俠 安重根』 1~3, 국가보훈처.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1999, 『안중근의사자료집』, 국학자료원.
- 尙友唄樂部 山縣有朋關係文書編纂委員會 編, 2005~2007, 『山縣有朋關係文書』 1~3, 山川出版社.
- 小松綠 編, 1927, 『伊藤公全集』(전3권), 伊藤公全集刊行會.
- 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外務省記錄」4.2.5 245-1~5),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 1973~81, 『伊藤博文關係文書』(전9권), 塙書房.
- 일본 외무성, 1961~1963, 『日本外交文書』제42~44권, 日本國際聯合協會.
- 일본 외무성,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下, 原書房.
- 일본 외무성,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 春畝公追頌會 編, 1934, 『伊藤博文傳』下卷, 統正社.
- 海野福壽 編, 2004, 『(外交史料) 韓國併合 上-下』(전5권), 不二出版社.

〈단행본〉

- 山邊健太郎, 1966, 『日韓併合小史』, 岩波書店.
-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森山茂徳, 2002, 『日韓併合』, 吉川弘文館.
- 釋尾春苧 編, 1924, 『朝鮮併合史』, 朝鮮及滿洲社.
- 小松綠, 1920, 『朝鮮併合之裏面』, 中外新論社.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2009, 『안중근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2009,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 이성환·이토 유키오 편저, 2009,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 이태진,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 병합』, 지식산업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2002, 『안중근과 항일민족운동』, 국학자료원.
 海野福壽, 2001,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정재정 옮김, 2008,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海野福壽, 2004, 『伊藤博文と韓國併合』, 青木書店, 2004년.

〈논문〉

- 김춘선, 2005,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
 박수연, 1998, 「伊藤博文의 對韓政策」,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석화정, 2004, 「러일협약과 일본의 한국병합」, 『역사학보』 184.
 이상일, 2002, 「안중근의거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신문논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
 조광, 2000, 「안중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2집.
 최덕규, 2004, 「러일전쟁과 러일협상(1905-1910)」, 『아시아연구』 21.
 최문형, 1973, 「구미열강의 극동정책과 일본의 한국병합-1898년을 전후한 노일의 상호견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59.
 平田賢一, 1974, 「朝鮮併合と日本の世論」, 『史林』 57-3.
 韓明根, 2001, 「統監府시기 日帝의 侵略論」, 『國史館論叢』 90.

[ABSTRACT]

Reactions of Overseas to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and Japanese Government's Cognition: An Analysis about
Materials of The Diplomatic Record Office of Japan

Bang, Kwangsuk

This study examines the reactions of China, Russia, and the Western nations to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through their press editorials, so as to illustrate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regarding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e major source reviewed and analyzed is the 「伊藤公爵遭難ニ關シ各國人ノ態度並新聞論調」(245-2) 「Regarding Marquis Ito's accident, the attitudes and newspaper editorials of foreign powers」 included in the 「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Ministry of Foreign Affairs Document number 4.2.5 245-1~5) 「Marquis Ito's visit to Manchuria」 preserved at the Diplomatic Record Offi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sum, the Chinese press showed cold reaction to the death of Ito, or even expressed a sympathy with the An Chunggun's action, reflecting China's plight as a victim of Japanese aggression like Korea. It was also very suspicious of the aggressive intent of Japan's policy against China, which would remain unchanged regardless of the death of Ito. In the meantime, the newspapers published at Hong Kong, while admitting that Japan was oppressive to Korea, in general showed negative reaction to the An's assassination of Ito, to whom they awarded a high credit. Yet, they echoed the Chinese press's fear that

Japan would all the more aggressive toward China in the aftermath of this incidence.

The Russian press, while showing a sympathy with the An's action, still expressed the misgiving that the incidence might negatively affect the Russo-Japanese relation, because the incidence took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Russia. It tried to remain neutral and cautious, emphasizing that Russia had nothing to do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ce, and refraining from offering the clear prospect of Japanese foreign policy. The U.S. press was in general favorable to Japan, predicting no radical change in Japan's policy toward Korea. Some of European newspapers from Austria, Italy, Sweden, Norway, and France offered a sympathetic view of the An's action and criticized Japan's oppressive control of Korea, but most of them reported mistaken facts, or superficial observations owing to the lack of knowledge on East Asian politics.

The general consensus among the foreign press was that no radical change of Japan's foreign policy could be anticipated in the aftermath of Ito's death. The Chinese press with the same anti-Japanese sentiment like Koreans was greatly excited at the An's action, whereas the Western press was more or less silent in the criticism against Japan's policy toward Korea. In short, An Chunggun's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ad little impact on the Western perspective on Japan's policy toward Korea, which tacitly acknowledged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without any meaningful criticism.

keywords

An Chunggun Incidenc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Japan's annexation of Korea, Japan's foreign policy, Overseas press.

‘한국병합’에 대한 재한일본 언론의 동향

- 잡지 『朝鮮』을 중심으로 -

하지연 |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을 ‘보호국화’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 당시 곧바로 한국을 병합¹⁾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 투고일: 2010년 7월 8일, 심사일: 2010년 11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26일.

1) 일제의 한국강점을 지칭하는 용어는 ‘한일합방’, ‘한국병합’, ‘국권피탈’, ‘한국강점’, ‘식민지화’, ‘대한제국의 폐멸’ 등 다양하다. 이 용어들은 이 사태를 보는 논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태진은 일본의 한국강점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므로 ‘강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태진, 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7쪽) 海野福壽는 국권피탈 당시의 조약의 정식 명칭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었고, 당시 신문도 ‘한국병합’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국병합’을 쓰고 있다(海野福壽, 1995, 『韓國併合』, 東京: 岩波書店, 245~246쪽). 그러나 山邊健太郎이 일찍이 ‘병합’이라는 용어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한 바가 있다(山邊健太郎, 1996, 『日韓併合小史』, 東京: 岩波書店, 220쪽). ‘병합’이라는 용어는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倉知鐵吉이 치밀한 계산 아래 만들어낸 新造語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합방’이나 ‘합병’ 등의 용어는 마치 ‘일한 양국이 대등하게 합일한 것처럼 이해가 될 소지가 있었고, 그렇다고 ‘폐멸’이나 ‘식민지’ 같은 노골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멸’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그 어조가 너무 과격하지 않은 문자’를 선

첫째, 일본은 러일전쟁 후 일본의 만주에서의 독보적 세력화를 우려한 열강과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²⁾ 또한 적어도 협약이라는 형식을 갖추므로써 합법적으로 한국을 병합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했다.³⁾

둘째, 병합의 대상인 한국에서 을사조약 이후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던 항일의병 항쟁은 일제가 병합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한 큰 물리적 장애였다.

셋째, 잇따른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피폐화되었던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에서 병합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다.⁴⁾

그러나 1908년 7월 제2차 가쓰라[桂太郎] 내각(1908~1911)이 성립되자 일제의 한국병합은 적극화되었다. 표면적으로 점진적 병합론자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9년 5월 한국통감에서 경질된다. 결국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거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가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하면서 강제병합과 식민지 무단통치를 유감 없이 수행해가게 되었던 것이다.⁵⁾

일본은 한국병합 이전부터 병합의 정당성과 필연성, 합법성, 나아가 시혜성까지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 및 한국인에 대한 철저한 왜곡과 비하에

택하여 탄생한 것이 ‘병합’이었던 것이다. 이후 ‘병합’은 일본이 사용하는 公文書의 정식 호칭이 되었고, 역사 서술은 물론 일반에까지 정착되었다(이상, ‘한국강점’을 지칭하는 용어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鄭在貞, 2001, 「일제의 한국강점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참조). 본 연구에서는 ‘병합’이란 용어를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폐멸’, ‘국권피탈’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釋尾春菴, 1926, 『朝鮮併合史』, 京城: 朝鮮及滿洲社, 665쪽.
- 3) 한상일, 1980,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 까치, 164쪽; 小松綠, 1920, 『朝鮮併合之裏面』, 東京: 中外新論社, 61쪽.
- 4) 小森德治, 1928, 『明石元二郎』, 上, 臺灣日日新聞社, 301쪽; 釋尾春菴, 1926, 앞 책, 372~373쪽; 朝鮮總督府 編, 1970, 『朝鮮保護及び併合』(『朝鮮統治史料』 3, 東京: 韓國史料研究會), 162~164쪽.
- 5) 金翼漢, 2000, 「1910년 전후 山縣, 伊藤系の 對韓政策 기초와 종교정책」,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升味準之輔, 1988, 『藩閥支配, 政黨政治』,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森山武德, 1992, 『日韓併合』, 東京: 吉川弘文館; 大江志乃夫, 1992, 「山縣系と植民地武斷統治」, 『近代日本と植民地—統合と支配の論理』, 東京: 岩波書店; 大江志乃夫, 1992, 「植民地戰爭と總督府の成立」, 『近代日本と植民地—帝國統治の構造』, 東京: 岩波書店, 참조.

경주했다. 일본은 당시 식민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추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언론과 역사 분야에서였다. 즉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의 대외정책을 합리적이고 시혜적인 이미지로 메이크업하는 것, 역사를 통제함으로써 한국의 과거사 자체가 일본의 전유물이었음을 주장하고 유폐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추상적 전쟁은 정치·경제적 식민지화보다도 어렵고 전면적인 전쟁이었다. 피식민지의 역사를 전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과거를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식민주의 승리의 또 다른 관건이었다. “식민주의가 한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국의 과거사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길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한국 사회의 이미지를 유폐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그 일정 부분의 역할을 식민지 한국에서 담당한 주요 언론이 바로 『朝鮮』이었다.⁶⁾

이러한 병합 정당화 작업은 한국 내 일본 민간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졌고 이에 앞장선 것이 바로 한국 내 일본인 종합잡지 『朝鮮』이다. 『朝鮮』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가 정치·군사적 강제에 의한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집요하고, 필사적으로 그 병합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사와 한국인에 대한 폄하에 주력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한국병합의 불법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주제라고 본다. 또한 병합 이후 일제는 내선일체화·황국신민화 등의 동화정책을 통해 한국민족으로부터 지배·복종의 합의를 즉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⁷⁾ 이 동화와 차별이라는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식민지 정책논리를 역시 잡지 『朝鮮』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일제의 한국병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제의 침략정책과 합방 및 병합론에 관한 연구, 이토 히로부미 혹은 통감부의 병합정책 연구, 일제의 한국병합과정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일제의 한국병합

6) 앙드레 슈미드 저,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18~19쪽.

7) 정재정, 2001, 「일제의 한국강점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7쪽.

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한국강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약들에 대한 합병·불법, 정당·부당 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⁸⁾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한국병합에 대한 재한일본 언론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강동진은 『日本言論界의 韓國觀』과 『日本言論界와 朝鮮: 1910~1945』에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별 일본 내 유력 월간지(『太陽』, 『日本及日本人』, 『中央公論』)와 일간지에 나타난 병합론 및 식민통치론 등을 분석하여 이 시기 일본 언론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⁹⁾ 이규수의 경우 일본 내 종합잡지 『태양』을 중심으로 한국강점 직후 일본 지배체층의 인식을 연구하였다.¹⁰⁾ 또한 필자도 한국병합에 대한 일본 국내 잡지들의 동향을 종합잡지 『太陽』, 『日本及日本人』, 『中央公論』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¹¹⁾ 이들 연구들은 모두 일본 국내 잡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식민지화 이전부터 한국으로 이주해와 정착하고, 생계를 꾸려가던 재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재한 일본인 잡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병합 당시 1910년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었던 일본인 경영 신문 잡지는 신문 30紙, 잡지 4개지(誌)였다. 잡지 4개지의 매월 평균 발행부수를 보면 『朝鮮』이 2천 부(서울, 1908년 3월 창간), 『新半島』가 1,457부(서울, 1905년 3월 창간), 『滿韓之實業』이 6,114부(부산, 1905년 4월 창간, 1907년 12월까지 『朝鮮之實業』), 『大道』가 710부(서울, 1910년 10월)였다.¹²⁾ 이 가운데 발행부수가

8) 한명근, 2002, 『한말 한일합방론연구』, 국학자료원; 운노 후쿠주 저, 정재정 역, 2008,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정재정, 2001, 앞의 글;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외 다수.

9) 강동진, 1982, 『日本言論界의 韓國觀』, 一志社; 강동진, 1987, 『日本言論界와 朝鮮 1910~1945』, 지식산업사.

10) 이규수, 2006, 「한국강점 직후 일본 지배체층의 조선인식-잡지 『太陽』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11) 하지연, 2010, 「일제의 한국강점에 대한 일본 언론의 동향-일본잡지 『太陽』, 『日本及日本人』, 『中央公論』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2)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년도.

가장 많았던 『滿韓之實業』은 朝鮮(滿韓)實業協會를 기반으로 한 同協會의 기관지였고, 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된 것이었다.¹³⁾ 다음으로 『朝鮮』이 월 2천 부가량 발간되고 있었는데, 잡지 구성은 논설, 시사평론, 雜纂, 實業資料, 중요기사 등을 게재하였고, 연간 발행부수는 2만 2천 부로, 그 내역은 서울이 7천 부, 서울 이외의 한국에서 8천 600부, 일본 내지에서 7,200부, 타이완에서 840부, 청국에서 360부였다.¹⁴⁾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재한 일본인 잡지 『朝鮮』 및 이에 대한 편집, 경영, 주필을 담당했던 사쿠오 슌조[釋尾春苧 혹은 旭邦]에 대해서는 최혜주의 연구가 있고,¹⁵⁾ 또한 통감부 설치 이후 병합 직전 재한 일본인의 여론에 대한 연구로 樸羊信의 성과가 있다.¹⁶⁾ 이 연구들은 모두 『朝鮮』의 전반적인 논조 분석과 주필 사쿠오에 대한 연구이거나, 혹은 통감부 시기에 국한된 재한 언론의 전반적인 한국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성과¹⁷⁾들로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관한 인식을 다룬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朝鮮』에 나타난 재한 일본인들의 한국병합에 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朝鮮』은 1908년 3월 日韓書房 사주 모리야마 요시우[森山美夫]에 의해 월간, 日文으로 경성에서 창간되었다. 잡지의 편집 등 실제 운영은 主幹 기쿠

13) 木村健二, 1989, 앞의 글 참조.

14) 『韓國統監府統計年報』 1908년도.

15) 최혜주, 2008, 「잡지 〈조선〉에 나타난 일본인의 조선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5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최혜주, 2005, 「한말 일제하 사쿠오[釋尾旭邦]의 내한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6) 樸羊信, 2004, 「통감정치와 재한일본인」, 『역사교육』 90, 역사교육연구회.

17) 그 외 식민지 하 재한일본인들의 언론 활동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金圭煥, 1958,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言論および言論政策史」,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木村健二, 1989, 「在朝日本人のジャーナリズムの活動 - 『朝鮮(滿韓)之實業』を中心に」,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裏上龍平, 1996, 「近代日本の朝鮮認識 - 朝鮮保護政治期の雑誌出版物にみる日本人の朝鮮觀」,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緋陰書房; 山中速人, 1983, 「朝鮮〈同化政策〉と社會學的同化 - ジャーナリズムを通してみた」, 『關西學院大學社會學部紀要』 46; 김병하, 1972, 「開港期の居留日本人과 그 職業」, 『경희대학교논문집』 7; 박양신, 2003, 「19세기 말 일본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 177.

치 겐조[菊池謙讓]¹⁸⁾와 편집장 사쿠오가 담당했고 1909년 3월부터 모리아마는 日韓書房의 사업확대를 이유로 잡지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사쿠오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이 잡지의 발행처는 제3권 제2호(1909년 4월)부터 朝鮮雜誌社로 변경되었다. 초기 주간이었던 기쿠치는 잡지를 창간한 그 해 말부터 이미 글쓰기를 그만두고 있었으므로, 이 잡지의 실질적 편집과 운영은 새 주간 사쿠오에 의해 이루어졌다. 『朝鮮』은 1912년 1월(통권 47호)부터 『朝鮮及滿洲』로 改題하여 1941년 1월(통권 398호)까지 발간되어 일제 강점기의 최장수 종합잡지였다.¹⁹⁾

『朝鮮』은 1908년 9월 “제2권 제1호에 題하다”²⁰⁾에서 “本誌는 한인에게는 우리 일본제국 보호권의 진실한 의의를 논설한다. 또 세계에 대해서는 대한 정책의 변호 및 통감부 변호를 하겠다. 우리 일본 정부와 통감부에게 극력 곱음과 비평의 지위를 취하는 것이다.”고 했다. 즉, 『朝鮮』은 일본 정부와 통감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창간되었다고 할 것이다.²¹⁾

『朝鮮』을 비롯한 당시 민간 재한일본인들의 언론활동은 러일전쟁 후 활발해졌고, 관리를 제외한 일본 상인, 낭인, 藩民 등이 발언하는 장소,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란 성격을 갖고 있었다.²²⁾ 특히 『朝鮮』에는 일본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법조계 등 대표적 지식인들의 담론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인에 대한 멸시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朝鮮』의 논설과 기사들은 이 잡지를 접했던 일반 재한 일본인들의 한국인식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그 형성에도 지대한 영

18) 기쿠치 겐조에 관해서는 하지연, 2008, 「韓末·日帝 강점기 菊池謙讓의 문화적 식민 활동과 한국관」, 『동북아역사논총』 21, 동북아역사재단.

19) 『朝鮮』에 대해서는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편, 2004, 『개화기 재한일본인 잡지자료집: 朝鮮 1』, 동양학연구소, 해제 참고.

20) 『朝鮮』 제2권 제1호, 1908년 9월, 「第二卷の一號に題す」 1쪽.

21) 木村健二, 1989, 앞의 책, 154~155쪽.

22) 이치카와 마리에[市川まりえ], 2007, 「1905~1910년 在韓日本人 民間言論의 統監府 政治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3~34쪽.

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일제의 식민정책 입안에도 적극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²³⁾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朝鮮』이 창간된 1908년부터 병합 직후까지, 특히 잡지명이 『朝鮮及滿洲』로 바뀌고, 관심의 시야가 만주문제에까지 넓혀지는 1912년 이전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일본 국내 종합잡지 『太陽』, 『日本及日本人』, 『中央公論』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한 일본인 잡지 『朝鮮』과 논조가 어떤 차별성 혹은 동질성을 갖는가? 또 그 논리상의 차별성 혹은 동질성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기존 일본 국내 종합잡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병합’ 전 한국 통치론

1_ 통감정치 비판론과 즉각적 병합론

1) ‘한국본위주의’ 정책과 항일의병문제 비판

이토 통감의 재임시기는 재한 일본인 언론에 있어서 이른바 ‘언론개방주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통감부와 이토 통감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²⁴⁾ 특히 『朝鮮』의 「시사평론」, 「논설」, 「주장」에서는 이토 통감의 이른바 ‘온건’, ‘회유’, ‘한국본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우 왕성하게 계

23) 최혜주, 2008, 앞의 글, 80쪽.

24) ‘언론개방주의의 시대’는 金圭煥, 1958,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言論および言論政策史」,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에서 나온 말이다. 이토 통감시대를 지적한 것이다. 이토 통감시대 재한 일본인 언론에 대한 통제가 그 후의 曾禰, 寺内 통감시대와 비교하면 강력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한 일본인의 언론활동도 활발했다는 뜻이다.

재되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국제 외교관계 및 자국 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급진적인 對韓併合策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²⁵⁾ 이러한 정책실행에 적합한 인물이 이토였던 것이다.

이토는 점진주의에 입각한 장기적인 병탄책략의 논거로 ‘日韓一家說’과 ‘文化主義’를 제창하였다.²⁶⁾ 그는 한국이 사대주의적 태도를 일삼아 열강의 경쟁장이 되었으므로 한국이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이 때문에 개화자강을 통하여 독립을 열망하였던 애국계몽세력들도 제한적이거나 이토의 정책을 긍정하는 불철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²⁸⁾ 한국인들까지도 이토의 정책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에서 재한 일본인들이 통감부가 보호국 한국을 하루라도 빨리 식민지화하기는 커녕 이른바 ‘한국본위주의’ 또는 ‘문화주의’ 더 나아가 ‘자치주의’라는 통치정책을 표방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이 『朝鮮』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朝鮮』은 시사평론 「대한정책의 2대 경향에 관하여」에서 통감정치에 「帝國旨義」와 「同化旨義」의 2가지의 행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통감정치의 2대 경향이 있다. 하나는 帝國旨義를 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는 同化旨義를 주로 하는 것이다. 伊藤 통감의 정책은 극히 산만하여 때로는 2개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인데, 때에 따라 동화를 주장하고, 日韓共通의 정책을 하려고 하였다. 요컨대 伊藤 통감의 정책은 文物제도를 정비하고, 근세의 문명을 가능한 한 이 국토에 이식하려 하였고, 이 국민을 訓養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에 대하여 帝國旨義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은 가르치는 것은

25) 釋尾旭邦, 1926, 앞의 책, 665.

26) “韓國併合に至るまで”, 『賣買新聞』(1910, 8. 30).

27) 『日韓外交資料集成』 제6권 上, 金正明 편, 1965, 巖南書店, 484쪽; 釋尾旭邦, 1926, 앞의 책, 330~332쪽; 黑龍會, 1976, 앞의 책, 265쪽.

28) 樸秀妍, 1998, 「統監 伊藤博文의 對韓政策과 이에 대한 愛國啓蒙派의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47쪽.

할 수 없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 다수의 일본인을 이식시켜 일본국민의 이익을 확장한다면 통감정치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성장을 조망하고, 무용한 문명적 施政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국민을 위하여 그 권리를 존중하고, 그 이익을 보호하고, 그 세력을 증진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좋다고 할 것이다.²⁹⁾

이것은 이토의 ‘자치육성책’을 비판한 것이다. 분명하게 이등의 통감정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일본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이토의 정치가 한국인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관계없이, 그것을 한국인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帝國旨義’, 일본 본위의 정책을 실행하는 편이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朝鮮』은 창간호에서부터 「통감으로서의 이토 공을 논함」이란 글을 게재해 통감부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글에서 샤쿠오는 “일반 일본인에게 특별한 획득물이 없다면 어찌 오래도록 아름다운 모국을 등지고 이 韓土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인본위주의’에 입각한 통감부의 제 개혁이 실효성 있는 것이라면 한인들은 감사를 해야 할 것이나, ‘폭도’(의병: 필자)들이 끊이지 않으니 회유정책이 한국을 다스리는 최선의 길이 아님은 증명되었다고 지적했다.³⁰⁾

또한 샤쿠오는 이토가 한국본위주의를 우선함으로써 일본인의 발전과 식민적 경영을 뒷전으로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³¹⁾ 또 이토가 관리까지 한국인 중심으로 기용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토가 최후의 목적(한국병합: 필자)에 대해서도 실행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도 하였다.³²⁾ 이어 그는 이토가 한국인을 문명인으로서 취급하는 태도가 잘못이고, 한국에서는 폭도 봉기, 배일사상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 원인은 군대해산이라는

29) 時事評論, 「對韓政策の二大傾向に就て」, 『朝鮮』, 제2권 제1호, 1908. 9. 2~6쪽.

30) 釋尾旭邦, 1908. 3, 「統監としての伊藤公を論ず」, 『朝鮮』, 제1권 제1호, 30쪽.

31) 釋尾旭邦, 1908. 9, 「朝鮮に於ける我官民の反目」, 『朝鮮』, 제2권 제1호, 30~31쪽.

32) 釋尾旭邦, 1908. 3, 앞의 글, 29~31쪽.

실책에 있다고 하였다.³³⁾

같은 맥락에서 사쿠오는 이토가 “일본의 세력확대 문제를 나중으로 해서 한인 개발과 한인 회유문제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거나³⁴⁾ 혹은 “재한 일본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국에서 일본인의 발전을 뒤로 처리하고, 한국의 발전에 잠을 자는 것과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하고 (중략) ‘한국본위, 한인본위’를 통감정치の本義로 삼는다.”³⁵⁾라고 비판하였다. 또 그는 이토가 1905년 한일협약에서 외교권을 거두면서 동시에 내정권까지 빼앗지 않은 것은 보호국민을 우대한 정책이었다³⁶⁾고 하여 對韓강경책을 역설하였다. 계속해서 사쿠오는 이토 통감의 ‘한국본위주의’ 정치로 인해 재한 일본인들이 배한사상을 갖게 되었고,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배일사상을 강하게 품게 되어 ‘백년하청을 기다려도 일한 융합을 바랄 수가 없는 데도 과연 이토 통감은 여전히 ‘한국본위주의’를 주장할 용기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³⁷⁾ 그는 구체적으로 이토 통감의 실정을 대략 7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³⁸⁾

1. 한국 황실을 존중하여 한인에게 황실을 자각시켰다.
2. 한국인을 大臣, 장관으로 삼아 정무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3. 교육에도 관용주의를 취해 한인의 독립사상을 양성하였다.
4. 한인의 배일 행동에 대한 취체를 너무 관대하게 했다.
5. 쓸데없는 政費와 인간을 많이 써서 실무진행을 방해했다.
6. 형식을 중요시하여 실제의 치적을 돌보지 않았다.
7. 쓸데 없는 官衙部局을 설치하여 산업과 民利를 일으키는 데 냉담했다.

또한 사쿠오는 이토의 ‘한국본위주의’는 한국에 대한 열기를 냉각시켜 정부

33) 旭邦, 1909, 1, 「伊藤公の統監政治と韓國の現状」, 『朝鮮』 제2권 제5호, 31~36쪽.

34) 旭邦, 1909, 6, 「痛感の交迭と局面の展開」, 『朝鮮』 제3권 제4호, 46~49쪽.

35) 旭邦, 1909, 7, 「惜しまれざる伊藤統監の辭任」, 『朝鮮』 제3권 제5호, 2~3쪽.

36) 旭邦, 1909, 1, 위의 책, 31~36쪽.

37) 釋尾旭邦, 1909, 2, 「伊藤統監の方針演說」, 『朝鮮』 제2권 제6호, 63~69쪽.

38) 旭邦, 1909, 6, 앞의 글, 46~49쪽.

가 滿韓集注政策을 수립하게 만들고, 동척을 통해 한국 이주민에게 편의를 준 다해도 별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계에서도 한국 문제는 부차적 문제로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결국 한국 문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³⁹⁾ 샤쿠오는 한국을 시찰하고 돌아간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토 통감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비단 한 개인이나 특정 잡지의 의견만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씨는 통감정치를 평해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바로는 이토 공의 시정 방침과 실적에 대해서는 천하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우리 국민은 크게 이토 공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선 각지의 일본어 신문과 오사카 2대 신문은 물론 대부분의 도쿄 신문도 통감정치를 비난하는 것이 많다. 또 재한 유지자에게 들더라도 통감부에 대해 악감을 품는 자가 많다. 이것은 통감부의 관리가 재한 방인에게 불친절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⁴⁰⁾

기쿠치는 통감정치가 한국에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일본인이 제도, 법률, 사업을 일으켜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명시설 설치에 힘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한 다음 재한 일본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익을 보호할 것 그리고 재한 일본인의 세력증진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⁴¹⁾

‘히말라야 산인’이란 필명을 쓰는 논자는 이토 통감과 통감부 관리가 한국 본위주의를 주장해 일본인의 이해를 무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에서 ‘大和民族’

39) 旭邦, 1909. 4, 「朝鮮問題は在韓邦人にて解決せざるべからず」, 『朝鮮』 제3권 제2호, 58~59쪽.

40) 「朝鮮打より」, 1908. 7, 『朝鮮』 제1권 제5호, 77~78쪽.

41) 菊池長風, 1908. 9, 「時事評論 對韓政策の二大傾向に就て居留民長官選問題」, 『朝鮮』 제2권 제1호, 2~6쪽; 菊池長風, 1908. 6, 「帝國の保護政策は今日以上に變改するの必要なきや」, 『朝鮮』 제1권 제4호, 26~27쪽.

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⁴²⁾

익명의 한 기자는 이토가 일본인의 발전책을 강구하지 않고, ‘한국본위주의’를 실시하여 재한 일본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한인의 대부분은 일본의 보호권을 싫어해도 이토 공에 대해서는 결코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⁴³⁾ 결론적으로 『朝鮮』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당시 통감부의 이른바 ‘한국본위주의’ 통치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토에 대한 비판은 통감 사임과 교체 주장으로 이어졌다.⁴⁴⁾ 『朝鮮』은 오늘날의 일본을 만든 元勳인 이토가 만년에 실패의 역사를 만들지 말고 제국주의 실행에 용감한 인물에게 양보하여 혼돈된 통감정치의 국면을 바꾸라고 하였다.⁴⁵⁾

마침내 이토가 사임하고, 소네 부통감이 신임통감이 되면서 환영사도 발표되었지만, 곧 비판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가쓰라 내각 계열의 데라우치 신임통감이 부임하여 지금까지의 대한정책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며, 일본 본국이 보다 더 한국에 큰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기대심을 드러내고 있다.⁴⁶⁾

『太陽』도 1909년 5월 제15권 제6호에서 이토 통감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성토했고 있다. 대체로 이토의 정치가 한국에는 가당치도 않은 정책이므로 즉각적 병합을 주장한 것이다. 『日本及日本人』, 『中央公論』은 이토에 대한 논의가 『朝鮮』은 물론이고, 『太陽』에 비해서도 매우 적다. 기본적으로 『朝鮮』에 비해 일본 국내 잡지들은 상대적으로 통감정치가 자신들의 생계와 직접적 관련이 없었던 관계로 관련 기사의 수가 적거나 소략하고, 또한 논조 역시 크게 과격하지 않다. 그러나 통감정치에 대한 비판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같다.

42) ヒマラヤ山人, 1908. 6, 「罵倒録」, 『朝鮮』 제1권 제4호, 32~33쪽.

43) 一記者, 1908. 6, 「統監伊藤公の昨今」, 『朝鮮』 제1권 제4호, 33~34쪽.

44) 旭邦, 1909. 5, 「排日思想と排韓思想」(統監政治の副産物), 『朝鮮』 제3권 제3호, 44~48쪽; 旭邦, 1909. 6, 「韓國統監の交代」, 『朝鮮』 제3권 제4호, 2~4쪽.

45) 旭邦, 1909. 4, 「伊藤統監は果して辭任の意あるか」(吾人は辭任を勸む), 『朝鮮』 제3권 제2호, 55~58쪽.

46) 主張, 1910. 6, 「統監の交代」, 『朝鮮』 제28호, 2~4쪽; 主張, 1910. 6, 「統監交代と局面の轉回如何」, 『朝鮮』 제28호, 4~5쪽.

한편 일본 언론은 의병을 ‘폭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은 식민지 이전부터 한국에서 ‘식민자’, ‘종주국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통감부시기 재한일본인들은 항일의병의 활동으로 인해, 경제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았던 상황에서 통감부의 항일의병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때문에 항일의병에 관해 그 실태와 일본인들의 피해 상황,⁴⁷⁾ 그리고 그 구체적 진압방법 논의⁴⁸⁾에 관해서 『朝鮮』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朝鮮』의 의병 관계 기사는 통감부의 항일의병 대책에는 물론이고, 본국 일본에도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토 통감의 사임을 이끌어낸 원인이기도 했다. 『朝鮮』은 이토의 실정으로 인해 한국이 불경기에 빠졌고, 경기침체는 바로 ‘폭도’가 전국에 창궐하기 때문인데, 그 근본 원인이 이토의 의병에 대한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⁴⁹⁾

‘폭도’에 대한 인식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되어 있다. 즉, ‘폭도’는 단지 직업을 구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해집단이라고 하였고, 그 목적은 주로 공금약탈이며, ‘폭도’의 대부분이 가림주구를 집행하던 아전들이라고 왜곡하면서 강력하게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⁰⁾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는 ‘폭도’진압 방법으로 ‘① 한국인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공사를 개시하자. ③ 토벌대를 늘리자. ④ 당국자의

47) 「韓南各道の狀況」, 『朝鮮』 제1권 제4호, 1908. 6, 70~72쪽.

48) 石塚英藏(韓國統監府 參與官), 1908. 3, 「(韓國)暴徒問題に就て」, 『朝鮮』 제1권 제1호, 7~12쪽; 勿禁生, 1908. 6, 「韓國暴徒の野蠻なるは臺灣の生蠻に勝る」, 『朝鮮』 제1권 제4호, 55~60쪽; 翠山生, 1908. 7, 「暴徒は如何に邦人を悩ましめるか(二)」, 『朝鮮』 제1권 제5호, 56~59쪽.

49) 旭邦, 1909. 6, 「統監の交迭と局面の展開」, 『朝鮮』 제3권 제4호, 46~49쪽; 旭邦, 1909. 7, 「惜まれざる統監の辭任」, 『朝鮮』 제3권 제5호, 2~3쪽.

50) 曾爾, 1908. 6, 「暴徒に對する母國の觀察」, 『朝鮮』 제1권 제4호, 4쪽; 雲水萍客, 1910. 7, 「暴徒史論」, 『朝鮮』 제29호, 14~20쪽; 神穀卓男(忠北書記官), 1908. 4, 「暴徒鎮撫策」, 『朝鮮』 제1권 제2호, 16~18쪽; 石塚英藏(韓國統監府 參與官), 1908. 3, 「(韓國)暴徒問題に就て」, 『朝鮮』 제1권 제1호, 7~12쪽; 神穀卓男, 1908. 4, 「暴徒鎮撫策」, 『朝鮮』 제1권 제2호, 18~19쪽; 1909. 1, 「第六師團と暴徒討伐」, 『朝鮮』 제2권 제5호, 3쪽; 旭邦稿, 1909. 10, 「暴徒討伐の近況」, 『朝鮮』 제4권 제2호, 6쪽.

수완을 기대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충북 서기관 가미야 다쿠오[神穀卓男]는 둔전병 대책을 제시하였다. ‘폭도’의 대부분이 무지몽매하여 가담했기 때문에, 둔전병을 사방에 배치하는 것이 일본 세력 발전의 기초가 되고 한국개발과 한인 지도를 위해서도 큰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²⁾ 1909년 1월호 ‘시사평론’의 「제6사단과 폭도토벌」에서는 대만토벌에 경험이 많은 니시지마 스케요시[西島助義] 중장과 그의 부하장병을 동원하여 ‘폭도’를 진압시킬 것을 제안하였다.⁵³⁾ 샤쿠오 역시 새로 부임한 사단장 기고시 야스에[木越安綱]와 헌병대장 사카기바라[榊原]에게 진압을 촉구하였다.⁵⁴⁾ 한편 의병에 관해서는 『太陽』 외 일본 국내 잡지에서는 그 기사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한 일본인들의 생명 및 생계와 직결되는 의병 문제는 아무래도 『朝鮮』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재한 일본인 언론은 통감부와 이토의 태도가 우유부단하고, 한국에 대한 이토의 태도는 한국 본위이고, 한국인을 회유하며 온건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한 일본인 언론은 모두 자신의 생활보장과 이익확보를 제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발언한 것이며,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적당히 해석하였다. 통감부는 병합을 전제로 통감정책을 시행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보호통치’를 내세워야 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이미 자기들을 ‘중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했던 재한 일본인이 통감부와 이토 히로부미를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통감부의 대한정책과 『朝鮮』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朝鮮』은 한국에 있어서 ‘통감부의 체제 강화’를 근본적인 목표로 두고 통감부를 비판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한국의 식민지

51) 石塚英藏(韓國統監府 參與官), 1908. 3, 「(韓國)暴徒問題に就て」, 『朝鮮』 제1권 제1호, 7~12쪽.

52) 神穀卓男, 1908. 4, 「暴徒鎮撫策」, 『朝鮮』 제1권 제2호, 18~19쪽.

53) 旭邦, 1909. 1, 「第六師團と暴徒討伐」, 『朝鮮』 제2권 제5호, 3쪽.

54) 旭邦 稿, 1909. 10, 「暴徒討伐の近況」, 『朝鮮』 제4권 제2호, 6쪽.

화라는 그들의 침략목적 자체는 같았던 것이다.⁵⁵⁾ 그리고 통감부는 『朝鮮』이 통감부를 ‘한국본위주의적’, ‘온건적’이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방치함으로써, 재한 일본인의 병합 여론을 형성시키고, 그 세론이 다시 병합을 후원하는 한 요소가 되었던 면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통감부는 강경하게 병합론을 주장하는 재한 일본인의 언론을 단속할 필요가 없었다.⁵⁶⁾

이토 통감 사망 직후에도 『朝鮮』은 여전히 이토 통감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 1909년 10월의 이토 통감이 사망하자 『朝鮮』은 이토의 사망을 “배일사상의 狂犬”⁵⁷⁾이고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물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⁵⁸⁾

당시 재한 일본인들은 이토 통감을 일본인이 아니라 완전히 韓人化되었다고 할 정도까지 매도했고, 일본제국의 적이라고까지 규정하며 이토가 의도한 방향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 회유파인 이토를 죽인 한인에게 더 이상 회유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온화파인 이토를 죽인 한국인이 무단보호 정책을 일본제국에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까지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

“우리 일본제국민을 비롯해 우리 재한일본인은 伊藤公을 일본인이 아니고 완전히 한인화되었다고까지 매도하고, 심하게는 일본제국의 적이라고까지 규정하여 伊藤公의 의도를 의심할 정도였다. …… 지금 한국에 들도 없는 師友인 伊藤公을 죽인 한인의 심리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한국에서 한인의 회유를 대한정책의 묘책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회유파, 온화파의 거두 伊藤公을 살해한 한국인은 즉, 추상같이 강한 일본의 무단보호정치를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⁵⁹⁾

55) 이치가와 마리에, 2007, 앞의 글, 57쪽.

56) 이치가와 마리에, 2007, 앞의 글, 69~70쪽.

57) 旭邦, 1909. 11, 「噫伊藤公: 公を殺したるは排日の狂犬なり」, 『朝鮮』 제4권 제3호, 4~6쪽.

58) 旭邦, 1909. 11, 「噫伊藤公: 公は終に飼犬に咬まる」, 『朝鮮』 제4권 제3호, 2~4쪽.

59) 旭邦, 1909. 11, 「噫伊藤公: 伊藤公を殺すは韓國を亡ぼすものなり」, 『朝鮮』 제4권 제3호, 8쪽.

또 재한 일본인 언론은 배일사상을 암살자를 배출하는 근원지로 규정하면서 배일사상의 근절이 통감정치 선결문제라고 하였다.⁶⁰⁾ 이들은 안중근에 대해서는 주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허영심에 빠져 이토를 저격하였다고 보았고, 그런 행위가 오히려 한국의 운명을 더 단축시킬 것이라고 했다.⁶¹⁾ 결론적으로 『朝鮮』이 이토 통감을 ‘한국본위주의자’로 계속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토를 죽인 행위는 ‘언어도단이며 천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극악한 범죄행위로 결론지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이등 공의 은혜를 모르는 한인을 무단 보호로써 억압할 것’을 주장했다.⁶²⁾

『朝鮮』의 통감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론은 어디까지나 체제강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것이며, 당시 재한일본인과 통감부의 대립구조는 항일 언론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朝鮮』은 통감부를 비판하고 통감부와 대립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종주국’, ‘통치기구’인 통감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였다.

또 『朝鮮』의 통감부 비판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역설적으로 통감부의 대한정치가 ‘온건적’이고, ‘한국본위주의적’이라는 것을 내외에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재한 일본인의 통감부 비판을 통해 통감부의 온건함이 두드러지고, 이토 비판을 통해 이토는 용화파, 한국본위주의자라는 인상이 심어졌다.⁶³⁾ 『朝鮮』은 통감부의 통치정책을 비판하고, 그 정책을 대변하는 기관지와 대립하는 일종의 야당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⁶⁴⁾

2) 즉각적 병합론

1909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이토 전 통감 암살사건을 계기로 재한 일본인 사

60) 主張, 1909, 12, 「排日思想根絶の策をつべし」, 『朝鮮』 제4권 제4호, 4~8쪽.

61) 主張, 1909, 12, 鮎具房之助, 「韓人刺客に就きて」, 『朝鮮』 제4권 제4호, 29~32쪽.

62) 이치가와 마리에, 2007, 앞의 글, 72~75쪽.

63) 이치가와 마리에, 2007, 앞의 글, 76~77쪽.

64) 이치가와 마리에, 2007, 앞의 글, 80쪽.

회의 여론은 급속히 한국병합의 주장으로 경사되어 갔다.⁶⁵⁾ 이번 기회에 “일거에 한국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의 미지근하고 애매한 관계를 타파하여 당당하고, 명쾌하게 신국면을 타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라.”⁶⁶⁾고 외쳤다. 『朝鮮』은 즉각적 병합론과 점진적 병합론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즉각적 조기 병합론을 주장하고 있다.⁶⁷⁾

샤쿠오는 한국은 이미 러일전쟁으로 그 운명이 끝났고 합병은 다만 시기가 문제라고 했다.⁶⁸⁾ 또한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 자신이라는 억지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신라가 일본에 조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신공황후의 정벌이 없었을 것이고, 대원군이 메이지 정부의 사신을 욕보이지 않았더라면 사이고의 정한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국토를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민족인데, 이토 공이 암살당하는 것에 놀라 한국 문제에 고심하다가 결국은 고압주의와 무단주의가 힘을 얻어 병합의 논의가 정계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⁶⁹⁾고 하였다.

또 샤쿠오는 ‘이제는 논의의 시대가 아니고, 행동의 시대, 실행의 시대이다’라고 하여 명실공히 병합을 완성시킬 것을 제기했고⁷⁰⁾ ‘日本帝國朝鮮’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조속한 한국병합에 대한 기대감까지 드러냈다.⁷¹⁾

외무대신을 지낸 하야시도 사실상 병합 상태와 다름없으니 표면적으로도

65) 主張, 1909. 12, 「伊藤公の横死と朝鮮問題」, 『朝鮮』 제4권 제4호, 4쪽.

66) 主張, 1909. 12, 위의 글, 4쪽.

67) 조기병합을 주장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主張, 1910. 1, 「合邦問題」, 『朝鮮』 제4권 제5호, 4~6쪽; 旭邦稿, 1910. 3, 「朝鮮を亡ぼすものは誰か」, 『朝鮮』 제25호, 2~5쪽; 伯爵 林董, 1910. 4, 「日韓合併論に就て」, 『朝鮮』 제26호, 17~19쪽; 主張, 1910. 5, 「朝鮮合併論の前途」, 『朝鮮』 제27호, 2~4쪽; 主張, 1910. 5, 「曾禰統監の辭任説」, 『朝鮮』 제27호, 4~5쪽; 중의원의원 大内暢三, 1910. 5, 「對韓雜感」, 『朝鮮』 제27호, 11~15쪽.

68) 主張, 1910. 1, 「合邦問題」, 『朝鮮』 제4권 제5호, 4~6쪽.

69) 旭邦稿, 1910. 3, 「朝鮮を亡ぼすものは誰か」, 『朝鮮』 제25호, 2~5쪽.

70) 旭邦生, 1910. 4, 「朝鮮合併問題」, 『朝鮮』 제26호, 2~5쪽.

71) 旭邦生, 1910. 5, 「朝鮮合併論の前途」, 『朝鮮』 제27호, 2~4쪽.

속히 병합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 양국의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⁷²⁾

한편 한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 연구, 병합 방법 및 형태에 대한 논의, 병합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제시한 글도 있다. 그러나 다만 시기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이들 글 역시 기본적으로 병합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중의원 의원 오가와 헤키치[小川平吉]는 자신은 합병론자이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 사법기관의 설비나 교육 방면만이 아니라 급격한 변동에 대한 기타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대면서 지금은 합병론을 운운하기보다는 합병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⁷³⁾ 시계 노리오[重徳生]는 먼저 한인이 제국의 신민으로서 충분한 소질이 있는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병합의 원칙으로 일본어 사용 문제를 거론하였다. 즉, 한인에게는 이것이 거의 절망적이라는 것이다. 게으르며 아무런 수고도 되지 않는 이런 몽매한 민을 우리 국민 중에 들여놓으려 한다면 심하게 짐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⁷⁴⁾ 결국 시기상조론도 합병을 전제로 한 것에서는 즉각적 병합론과 궁극적 침략 목적 면에서 다를 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朝鮮』은 즉각적 병합론을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인식은 ‘종주국’, ‘통치기구’인 통감부의 편에 있었다.

2_ 종주국민의식과 척식경영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재한 일본인 사회가 확대,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⁷⁵⁾

72) 伯爵 林董, 1910. 4, 「日韓合併に就て」, 『朝鮮』 제26호, 17~19쪽.

73) 小川平吉, 1910. 5, 「故伊藤公の合併論と予の合併論」, 『朝鮮』 제27호, 9~10쪽.

74) 重徳生, 1910. 5, 「日韓合邦私見」, 『朝鮮』 제27호, 43~45쪽.

75) 朝鮮總督府, 1924, 『朝鮮に於ける内地人』, 3~4쪽. 재한 일본인 수의 추이를 보면,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의 9,354명에서 이듬해에는 12,303명으로 증가했고, 1903년의 29,197명에서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에는 42,460명, 1906년에는 83,31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00년대 들어서서 한국 이주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국공사, 농상공부의 기사 등 관변에서부터 한국으로의 이주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민간에서도 경제 잡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적 가치를 지적하는 글들이 서서히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들은 ‘미개지’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캐어낼 부의 원천이 있다고 사람들을 유도하였다.⁷⁶⁾ 한국으로의 척식론은 러일전쟁의 발발 이후 왕성하게 전개된다. 당시 최대 해상운수회사인 日本郵船會社 사장 곤도 렌페이[近藤廉平]는 향후 “조선을 인수해서 개발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세력을 부식하고, 우월한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특히 ‘토지개발’에 중점을 두었다.⁷⁷⁾ 야당의 원로 대정치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도 앞으로의 만주와 한국에 대한 방침으로서 ‘利源의 개발’, ‘富源의 개발’을 지적하였다.⁷⁸⁾ 한국 ‘개발론’은 명사들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각 경제단체에서 한국으로 시찰단을 파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⁷⁹⁾

그러면 이와 같이 러일전쟁 이후 급증한 재한 일본인은 일본에서 어떠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며, 무엇을 찾아서 한국에 건너온 사람들이었을까? 당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재한 일본인은 ① 어느 정도의 자본을 소유했거나 혹은 일확천금을 바라고 온 상인, ② 일본 정부가 본국의 인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살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해 한국으로 건너온 빈민층, ③ ‘조선낭인’으로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건너온 사람들, ④ 통감부 설치에 따라 관리로 건너온 사람들 등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직업으로 볼 때 가장 수가 많은 것은 상업을 목적으로 온 상인이었고, 이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져온 사람, 혹은 일본에서 자금을 잃고

76) 高崎宗司, 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80~84쪽.

77) 近藤廉平, 1904. 8, 「滿韓經營の要項」, 『太陽』 제10권 11호.

78) 大隈重信, 1905. 5, 「滿韓經營所見」, 『太陽』 제11권 7호.

79) 이에 대해서는 木村健二, 「明治期日本の調査報告書にみる朝鮮認識」, 宮嶋博史, 金容德 編, 2001,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I, 慶應義塾大學出版會; 박양신, 2004, 앞의 글, 157~160쪽, 참조.

새로운 전환기로 한국에 눈을 돌린 사람 등 여러 부류가 있었다.⁸⁰⁾

대체로 당시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들은 본국에서의 생계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곧 식민지가 될 신터전인 한국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기 위한 결단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온 절박한 처지의 사회빈곤층이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본국에서의 경제적 궁핍을 식민지가 될 한국에서 보상받고자 했고, 그 조급함과 절박함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러일전쟁 이후 재한 일본인 실업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선실업협회’가 결성되고, 이 협회 기관지로 『朝鮮之實業』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朝鮮』 역시 한국으로의 이민척식을 장려하여 보다 더 ‘일본의 세’를 넓히고,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각종의 시찰담, 경제정보 등을 매월 고정란으로 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당시 재한 일본인들은 ‘보호국’이기는 하지만 이미 ‘식민지’나 다름없으며, 일본은 그 ‘중주국’이라는 의식을 『朝鮮』에 그대로 표현해냈다. 병합 이전부터 ‘식민지’, ‘식민 경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이민자가 아닌 식민지 경영자였고, 한국은 외국이 아닌 새로이 확장된 일본, 즉 식민지였던 것이다.⁸¹⁾

『朝鮮』은 새로운 식민지 건설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척식경영론을 제시하고 있다.

80) 이치가와 마리에, 2007, 앞의 글, 13~16쪽; 김병하, 1972, 앞의 글, 365쪽. “당시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생계가 곤란한 실업자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험상인, 고리대금업자였으며,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물급 상인들이었다. 일본 정부는 澁澤榮一, 大倉喜八郎, 高順謙三 등의 거상들에게 자본과 선박을 대여하여 대한무역을 장려하였다.” 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한국에 건너온 상인이 여러 종류였다.

81) 旭邦, 1908, 10, 「竹越氏の韓國に於ける統監政治を読む」, 『朝鮮』 제2권 제2호, 9~13쪽.

“이토 통감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정치의 방침을 세웠고, 재한 일본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이를 개척하고, 경영하려는 경로를 취하고 있다.”

“그들(한국인: 인용자)은 상고 이래 강대국에 복종하는 것에 만족한 인민이므로, 일본제국은 모름지기 보호의 보장을 해주는 이외에는 오로지 일본제국 자신의 세력을 부식하고 개척,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 다수의 일본제국 국민을 이식하고, 일본제국 국민의 이익을 확장하면 그만이다.”⁸²⁾

통감부와 일본 정부에도 보호정치를 진행하면서 일본인의 이민을 추진하는 일은 중요하였다. 재한 일본인은 통감부의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후원과 특권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⁸³⁾ 재한 일본인들은 한국을 개척하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일본 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고 하는 식민자로서의 자부심을 주장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현재 일본의 세력을 부식한 자는 절대로 官이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 거류민의 힘이기 때문이다.”⁸⁴⁾

“나는 재한 일본인이 국민적 세력발전의 선구자, 세계적 확장의 勇者라고 믿는다. 선구자, 그리고 勇者인 재한일본인은 일본제국의 명예로운 존재이며, 한국민을 크게 구제한 사람들이다. 일본 국민이 한국에서 발전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당연한 일이고, 한인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발전하는 우리 국민의 急先鋒이다.”⁸⁵⁾

그리고 한반도의 개발에 대해 통감부의 관리뿐 아니라 일본에서 상인, 농민, 부랑자도 이주하여 국민적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⁸⁶⁾ 나아가 폭도와 배일사상의 만연을 이토 통감만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말 것과 일본 제

82) 「對韓政策に二大傾向について」, 『朝鮮』 제2권 제1호, 1908, 9, 3쪽.

83) 이치가와 마리에, 2007, 앞의 글, 51쪽.

84) 渡邊天倪, 1910. 7, 「日韓人士の政局觀」, 『朝鮮』 제29호, 29~35쪽.

85) 松本雅太郎, 1910. 6, 「韓國の於ける日本民族の發展」, 『朝鮮』 제28호, 12~18쪽.

86) 旭邦, 1908. 10, 「竹越氏の韓國に於ける統監政治を讀む」, 『朝鮮』 제2권 제2호, 9~13쪽.

국민 즉, 재한 일본인이 한반도에 대한 개발의 자각을 갖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⁷⁾ 이와 같이 재한 일본인의 한국개발에 대한 사명을 환기하는 논조를 통해 재한 일본인의 한반도 개발에 대한 열의와 중주국 의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일본의 세력을 키워 갈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에서 통감정치를 후원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해서 재한 일본인의 식민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통감정치의 후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⁸⁸⁾

한편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주인의식은 재한 일본인에게 ‘선진국민’, ‘중주국민’으로서 ‘한국의 개발과 한인 啓導의 임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朝鮮』은 “한국에 있는 우리 관민에게 고한다. 경들은 어떤 경우라도 일본제국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상실하지 말라. 선진국민, 중주국민의 정신, 태도를 잃지 말라”⁸⁹⁾고 하고 있다. 또 한반도는 이미 타국이 아니며 외지벌이 하는 타향이 아님을 인식하고, 각각 건전한 신일본을 건설할 각오로 국가적 발전과 자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⁰⁾ 이들의 ‘중주국민’ 의식은 통감부 당국자나 본국의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강했다.

더불어 『朝鮮』은 재한 일본인들에게 저열한 품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강조하면서 ‘중주국민’의 위상에 걸맞는 품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⁹¹⁾

賣淫과 같은 외설적인 습관, 도박, 외지에서서의 한탕주의로 인한 사기와 뇌물의 횡행 등은 당시 재한 일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추태였다. 그런데 재한 일본인들의 현실에서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본보다 열등하

87) 釋尾旭邦, 1908. 5, 「朝鮮に於ける日本人」, 『朝鮮』 제1권 제3호, 24~28쪽.

88) 旭邦, 1908. 10, 「竹越氏の韓國に於ける統監政治を読む」, 『朝鮮』 제2권 제2호, 9~13쪽.

89) 釋尾旭邦, 1908. 5, 「朝鮮に於ける日本人」, 『朝鮮』 제1권 제3호, 27~28쪽; 旭邦, 1908. 10, 「竹越氏の韓國に於ける統監政治を読む」, 『朝鮮』 제2권 제2호, 9~13쪽.

90) 釋尾旭邦, 1908. 11, 「聖旨と在韓邦人」, 『朝鮮』 제2권 제3호, 28쪽.

91)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논설, 기사로는 『朝鮮』 제1권 제2호, 「罵倒錄」; 『朝鮮』 제1권 제3호, 1908. 5, 「朝鮮に於ける日本人」; 『朝鮮』 제1권 제5호, 「朝鮮便り」; 『朝鮮』 제2권 제3호, 1908. 11, 「聖旨と在韓邦人」; 『朝鮮』 제2권 제4호, 「朝鮮に於ける風教問題」 등이 있다.

다고 판단한 한국에서 종주국민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기대감과 새터전으로 자리잡은 한국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보상심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그들의 한국에서의 정치·사회·경제적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었다. 그러니 이토 통감의 고도의 기만적인 보호국화 정책, 즉 ‘문화주의’ 통치를 이해하거나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고, 또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화 정책을 기다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능력도 없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한 시라도 빨리 가시적, 현실적, 직접적으로 병합을 강력히 요망했고, 官이 아닌 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대대적인 한국으로의 일본인 이민과 정착으로 그 세를 넓혀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러한 한국척식 경영론이 『朝鮮』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한국척식경영론을 둘러싸고, 재한 일본인의 생각과 일본 본국민,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후자의 견해로 오쿠마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사업경영에 대부분 실패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한인의 무지몽매, 도덕심 부족, 산림이나 전야의 미개함, 자본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본인을 보낼 때가 아니며, 상당히 수완이 좋은 경영자, 자본주, 교육가, 의사가 가야 할 때이며 사람보다는 자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²⁾

그러나 재한 일본인 언론을 주도하고 있던 샤쿠오는 오쿠마의 견해에 반박하면서 앉아서 천하를 말하는 사람이 왕왕 잘못하여 독단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즉, 일본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인과 실제로 한국에 이주해와 현실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선두에서 주도해 가던 식민자 일본인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샤쿠오는 한반도에 일본인을 이주시켜 일본세력을 하루라도 빨리 부식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⁹³⁾ 또 그는 병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척식에 의한 식민경영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이 토지에 상당한 부원이 있어 수백만의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하고,

92) 大隈重信, 1910. 3, 「對韓經營策」, 『朝鮮』 제25호, 9~11쪽.

93) 主張, 1910. 3, 「大隈伯の大韓經營策を讀む」, 『朝鮮』 제25호, 5~6쪽.

일본 민족이 수억만의 황색인종을 대표하여 백색인종과 싸우려면 세계를 상대로 신영토 개척에 종사해야 한다고 보았다.⁹⁴⁾ 그리고 일본 관민과 정부가 신영토의 경영이나 만한 이주의 실행에 냉담하고, 총독부는 단속만을 할 뿐 이주장려법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국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⁹⁵⁾

오쿠마의 경우 병합 이후에는 척식경영에 대한 견해가 좀 바뀌었다. 그는 병합은 세계 열강 사이에서 일본의 지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8만 2000여 리의 영토확장만이 아니라 일본 민족을 2,000만 정도 이주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일본에 미칠 이익은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이전의 자본투자 위주의 식민지 경영론에서 적극적 척식경영론으로 논지가 바뀌었다.⁹⁶⁾

그 외 아다치 겐조[安達謙藏]는 위압주의로 한인을 복종시키고, 교통기관을 완비하여 동척의 대활동을 가능케 해야 하며, 매해 10만 명씩 이주시킬 것을 제안하였다.⁹⁷⁾ 또 마쓰모토 마사타로[松本雅太郎]는 한국이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일본의 세계팽창을 위한 발판임을 주장하였고,⁹⁸⁾ 후쿠모토 지쓰난[福本日南]은 식민지의 치안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실패자나 전과자 등을 막지 말기를 바란다.⁹⁹⁾고 하여 부랑자, 범죄인의 한국 이주도 적극 주장하였다.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이주를 강조하던 『朝鮮』은 한국으로의 도한자를 위한 이주 정보로 각종의 통계 및 사업 안내, 한국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각지를 시찰한 뒤의 시찰기·여행기·견문록·등반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성공한 일본인 사업가들의 ‘성공담’, ‘분투록’을 취재하여 선전하고 있다. 특히 매호마다 ‘조선문답’과 실업자료에서는 한국에 관한 실질

94) 旭邦生, 1910. 9, 「朝鮮の經濟的價値」, 『朝鮮』 제31호, 6~8쪽.

95) 旭邦生, 1911. 4, 「盛に移住を獎勵し又内地人の發展策を講ずべし」, 『朝鮮』 제38호, 1~3쪽.

96) 大隈重臣, 1910. 9, 「世界に類無き日韓併合」, 『朝鮮』 제31호, 12~16쪽.

97) 安達謙藏, 1910. 6, 「韓國の發展策」, 『朝鮮』 제28호, 10~12쪽.

98) 松本雅太郎, 1910. 6, 「韓國に於ける日本民族の發展」, 『朝鮮』 제28호, 18~22쪽.

99) 福本日南, 1910. 7, 「植民政略に對する日本政府の愚方針」, 『朝鮮』 제29호, 71쪽.

적 이주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였다.¹⁰⁰⁾

진남포 신문의 주필 하세가와[長谷川華汀]는 滿韓 경영의 입장에서 진남포를 기점으로 만주 경영을 추진하여 일본의 세력범위를 확장해갈 것을 제시했다.¹⁰¹⁾ 또 ‘조선통’으로 유명한 시가는 한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소일본을 만들어 일본세력을 부식시켜야 한다고 보았다.¹⁰²⁾ 히말라야 山人이란 필명을 쓰는 논자도 한국에 일본세력을 부식시키려면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주시키고, 일본부락을 한 마을이라도 많이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은 걸식할 각오로 도한해야 하며 생활난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⁰³⁾

한편 한국강점 이후에도 일본인의 척식은 재한 일본인들에게는 그들 세력을 식민지 한국에서 보다 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기도 했으므로, 『朝鮮』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쿠오는 한국은 토지에 상당한 부원이 있어 수백만의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하고, 일본 민족이 수억만의 황색인종을 대표하여 백색인종과 싸우려면 세계를 상대로 신영토 개척에 종사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⁰⁴⁾

오카와 헤키치[小川平吉]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이상, 동화보다 척식문제가 무엇보다 급무라고 했다. 그는 교육문제나 산업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본인의 이주에 의해 산업도 교육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¹⁰⁵⁾

『名流談叢』의 「실업시찰단원의 눈에 비친 조선」은 신문사 주최의 실업시

100) 長谷川華汀, 1908. 10, 「餘の觀たる鎮南浦港」, 『朝鮮』 제2권 제2호, 58~62쪽; 「韓内地の視察」, 『朝鮮』 제1권 제4호, 1908. 6, 72~75쪽; 雲山生, 1909. 12, 「斯くの如き渡韓法は必ず失敗す」, 『朝鮮』 제4권 제4호, 68~72쪽.

101) 長谷川華汀, 1908. 10, 「餘の觀たる鎮南浦港」, 『朝鮮』 제2권 제2호, 58~62쪽.

102) 「韓内地の視察」, 『朝鮮』 제1권 제4호, 1908. 6, 72~75쪽; 志賀重昂, 1909. 1, 「韓半島における小日本の連絡」, 『朝鮮』 제2권 제5호, 10~12쪽.

103) ヒマラヤ山人, 1908. 11, 「朝鮮に職業を求むる母國の友へ」, 『朝鮮』 제2권 제3호, 81~82쪽.

104) 旭邦生, 1910. 9, 「朝鮮の經濟的價値」, 『朝鮮』 제31호, 6~8쪽; 旭邦生, 1911. 4, 「盛に移住と獎勵し又内地人の發展策を講ずべし」, 『朝鮮』 제38호, 1~3쪽.

105) 小川平吉, 1911. 3, 「其根本義を誤る勿れ」, 『朝鮮』 제37호, 5~7쪽.

찰단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자들을 초대하여 한국으로의 이주를 도모할 계획을 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¹⁰⁶⁾ 한편 우도세[愚堂生]는 '조선이 결코 樂土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마다 경저망동하는 것은 대금물'이라고 안이한 이주에 경고를 하고 있다.¹⁰⁷⁾

그 외 메카타 슈타로[目賀田種太郎]는 한국에서 경제의 기초를 건설하고, 산업을 일으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⁰⁸⁾ 또 중의원 의원인 오우치 조조[大内暢三]는 일본 내에서 한국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과세 문제로 정당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한탄했다. 즉, 재한 일본인과 본토 일본인 사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과세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⁰⁹⁾

다음으로 한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소개한 운산 세[雲山生]의 글이 있다. 그는 우선 한반도를 일본의 규슈나 홋카이도처럼 일본의 한 현으로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이 이주에 편리한 것은 기후, 지형, 내외의 정세, 풍토, 여행 일수, 수속이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¹⁰⁾

'성공담'과 '분투록'의 내용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도한하여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정보였다. 특히 무일푼으로 경성에서 제일 성공한 나카무라 사이조[中村再造(상업회의소회두, 기업회사사장)]가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알몸 하나로 날아온'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그는 나중에 만주식산 사장을 역임하였으므로 분명 그의 성공담은 '신영토 한국드림'을 조성하는 데 가장 좋은 사례였던 것이다.

106) 名流談叢, 1911. 4, 「實業視察團員の眼に映したる朝鮮」, 『朝鮮』 제38호, 27~29쪽.

107) 愚堂生, 1911. 4, 「餘の初めて見たる朝鮮」, 『朝鮮』 제38호, 56~60쪽.

108) 目賀田種太郎, 1910. 12, 「朝鮮の經濟界は建設すべき時也」, 『朝鮮』 제34호, 7~9쪽.

109) 中의원 의원 大内暢三, 1911. 4, 「在朝鮮の官民竝に内地人に對する希望」, 『朝鮮』 제38호, 9~12쪽.

110) 雲山生, 1909. 12, 「斯くの如き渡韓法は必ず失敗す」, 『朝鮮』 제4권 제4호, 68~72쪽.

또 매호마다 게재된 ‘조선문답’ 430개 내용을 보면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도한 수속방법과 여비 및 재한 일본인의 생활에 대해서이다. 특히 재한일본인의 생활 가운데 교육과 생활비 및 유망한 직업, 관리의 봉급과 임대료, 임금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전망과 유망한 사업전망은 어떠한지,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이 밖에도 동척 이민의 방법과 경지면적, 역둔토, 전국의 미간지 상황, 농업자 수, 수산업, 임업, 제조업 등에 관한 정보문기도 있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 전반에 관한 상황, 한국의 연중행사와 기후, 풍습 등이 이 잡지를 통해 소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¹¹⁾

Ⅲ. ‘한국병합’에 대한 논리

1_ 한국 역사 왜곡 및 한국인 멸시관

오쿠마는 ‘한일병합은 병합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옛날에는 同文同種의 종족이었다’ 라고 하면서 고대부터 한일 양국 간의 교류를 논거로 병합이 자연스러운 원상태로의 복귀라고 주장하였다.¹¹²⁾ 한국은 역사 이래로 한번도 독립국인 시기가 없었고,¹¹³⁾ 늘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이므로 현재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병합의 타당성을 주장한 글도 있다. 기본적으로 『朝鮮』은 한국이 후진 열등국가이므로 병합이 된 것이지 결코 병합이 불법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침략자의 자기합리론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에서는 국민의식이 비상하게 고양되기

111) 최혜주, 2008, 앞의 글, 108~113쪽.

112) 伯爵 大隈重信, 1910. 9, 「世界に類無き日韓併合」, 『朝鮮』 제31호, 12~16쪽.

113) 東西南北生, 1908. 5, 「日韓併合の理由」, 『朝鮮』 제1권 제3호, 6~9쪽; 主張, 1910. 1, 「合邦問題」, 『朝鮮』 제4권 제5호, 4~6쪽.

시작했다. 일본은 이 승리를 아시아의 야만·미개로 상징화되는 중국에 대하여 문명개화·진보로 진화한 일본의 승리로 의의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시아의 맹주로서 과잉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종래의 아시아적 봉건주의에 대한 경멸이었고, 그 질서의 부정으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멸시·비하·부정적 인식의 조장과 고착화로 이어졌다.¹¹⁴⁾

『朝鮮』은 1908년 6월 특집으로 「名士の韓人觀」¹¹⁵⁾에서 재한 일본인 명사들의 한국인관을 소개하고 있다.

통감부 번역관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는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하고, 문명인으로서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전혀 德義가 없는 동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조혼이라고 했다.¹¹⁶⁾

중의원의 의원 미쓰치 주조(三土忠造, 學部學政參與官)는 ‘대체로 인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다름은 없는데 금일에 보이는 것처럼 현격한 차이는 정치, 종교, 국세, 교육 등의 우연적인 다름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이 ‘의뢰심이 많고, 나태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의 상태와 사회조직이 나쁜 결과라고 하였다. 사회진화론의 법칙을 통한 악정의 결과라는 것이다.¹¹⁷⁾

한국법전조사고문 우메 겐지로(梅謙次郎)는 한국인 타락의 3대 원인으로 ‘惡政’, ‘早婚’, ‘濫突室’을 들고, 한국 민족은 중국인과 비교하여도 크게 열등하다고 하였다.¹¹⁸⁾

변호사 후지이 타로(藤井太郎)는 생활상에서의 한국인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허례를 장식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기만하여 수치심을 알지 못한다.
- 세력이 있는 곳에 힘을 다하여 아부하고,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다.

114)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朝鮮人像에 대해서는 南富鎮,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 勉誠出版, 2002, 참조.

115) 「名士の韓人觀」, 『朝鮮』 제1권 제6호, 1908. 8, 4~23쪽.

116) 위의 글, 1908. 8, 5~9쪽.

117) 위의 글, 1908. 8, 9~12쪽.

118) 위의 글, 1908. 8, 15쪽.

-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노력에 수반하지 않는 다대한 보수를 기대한다.
- 사회는 공존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상이 없고, 公德의 생각이 없다.
- 사람을 믿는 미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사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갚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

게다가 후지이는 한국인의 특징을 ‘여자와 소인의 짧은 부분을 구비하고, 이에 야수적 본능을 가미’ 한 자들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¹¹⁹⁾

1894년 서울에서 일어학교를 열었던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한국인의 부정적 특성으로 당쟁, 극단, 분쟁, 정권욕, 음험, 교묘함을 들었다. 그는 한국인이 5백년 당쟁에서 이러한 기괴한 성벽이 만들어져 허영심, 이기심, 부화뇌동, 잔인성이 국민성으로까지 진보되었다고 하였다.¹²⁰⁾

京城理事廳 이사관 미우라 야고로(三浦彌五郎)는 한국인에게는 교육이 불필요하다면서 교육은 하되 사역할 수 있는 식민지인으로서 차별교육 정도만 해야 한다고 했다.¹²¹⁾

중의원 의원 오우치 조조(大内暢三)는 ‘한국민에게는 식견이라는 것이 없고, 오로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일만 알고 있다. 망국의 백성은 판단력과 이해력도 없고, 나태하고, 노획하며, 교묘하다’라고 부정적 특성을 전부 나열하면서 비하하였다.¹²²⁾

『朝鮮』의 편집장 사쿠오는 한국인에 대해 ‘스스로 국가를 건설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고, ‘개와 돼지 같은 망국민’이라고 극도로 비하하고 있다.¹²³⁾

119) 앞의 글, 1908, 8, 18~19쪽.

120) 鮎貝房之進, 1909, 4, 「韓國の黨爭及黨爭より受けたる韓人の性癖」, 『朝鮮』 제3권 제2호, 25~29쪽.

121) 三浦彌五郎, 1908, 6,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韓人の特質」, 『朝鮮』 제1권 제4호, 8쪽.

122) 大内暢三, 1910, 5, 「對韓雜感」, 『朝鮮』 제27호, 11~15쪽.

123) 釋尾旭邦, 1908, 8, 「韓人論(上)」, 『朝鮮』 제1권 제6호, 24~29쪽.

우리 일본제국이 동양의 패권을 잡고, 황색인종을 지도하는 세계 일등국민의 반열에 있는 금일, 이 개, 돼지와 같은 망국민과 동일하게 취급된 것같이 불쌍한 형세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경영사업을 저해하는 폭도는 어떻게 토멸시킬 것인가. - 지금 자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화산 위에서 지는 것 같은 위험이 있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또 그는 ‘원숭이와 개의 민족이 인간이 되게 할 수 없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토인이 구미 백인의 가르침을 배워도 백인의 지능과 성격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한국인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다’고 하여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열등하다고까지 하였다.¹²⁴⁾ 계속해서 사쿠오는 한국인과 만주인을 비교하면서 ‘한국인이 가장 타락한 민족이며, 사회도덕이라는 것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사회적 公共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에게 과연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들에게 동정, 자비, 의리, 인정이란 관념이 없다’, ‘그들 사이에는 견고한 단결력이 없다’,¹²⁵⁾ ‘불결함이 불결함을 알지 못하고, 파렴치가 죄악이 됨을 이해하지 못하며, 근면역행을 모르고, 개선과 혁신의 관념이 결핍된 인종’이라고 하였다. 또한 ‘친구를 파는 것을 일상생활로 하고’, ‘인애와 측은지심이 없고’¹²⁶⁾ 라고 하여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 용어를 총동원하여 한국인을 폄하했다. 이러한 표현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 판단과는 무관한 지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욕설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朝鮮』은 「한국인을 가르쳐야 하나, 가르치지 말아야 하나」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하여 일본인 교육자,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한국인을 가르치는 문제에서 절망적이고, 교육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멸시론을 끌어내고 있다.¹²⁷⁾

124) 「はしがき」, 『朝鮮』 제1권 제2호, 1908. 4.

125) 旭邦生, 1910. 6, 「朝鮮雜話」, 『朝鮮』 제28호, 58~60쪽.

126) 主張, 1910. 9, 「朝鮮人とは如何なるものか」, 『朝鮮』 제31호, 8~9쪽.

127)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朝鮮』 제1권 제4호, 1908. 6. 4~10쪽;
「韓人は教ふべきか教ふべからざる乎」,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4~18쪽;

이러한 한국 멸시관은 더 나아가 열등한 한국인을 일본이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문명국의 신성한 의무로 포장되어 병합을 합리화시켰다. 또한 한국인 멸시관, 부정적 한국민족성론은 人種學과 인류학 혹은 역사학이라는 학문체계 가운데에 광범위하게 유입되어 과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국민족성’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부정적 한국인관은 식민정책에 반영되었고, 한국민족의 자기반성과 비하, 황국신민으로의 자기 개조를 위한 사상적 근거로서 이용되었던 것이다.¹²⁸⁾

한편 일본 국내 잡지들의 경우도 『朝鮮』과 그 논조는 대동소이하다. 즉, 한국역사의 왜곡과 한국민에 대한 멸시관을 바탕으로 병합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朝鮮』에서만큼 원색적이고 극단적 용어의 사용은 자제하고 있다. 특히 『中央公論』의 경우 문학박사이자 도쿄제국대학 교수로 일본 동양사학계를 지도하던 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글을 인용하여¹²⁹⁾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역사를 논하고 있다. 다분히 감정적으로 한국인 멸시관을 쏟아내고 있는 『朝鮮』과 비교했을 때 일본 국내 잡지들은 이른바 과학으로 포장된 학술이론이라는 적어도 객관적 위상을 내세워 억지 논리를 포장하고 있었다.

2_ 문명의 혜택으로서의 병합

『朝鮮』은 1908년 5월 논설 「日韓併合의 理由」¹³⁰⁾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립국인 적이 없었고, 국내적으로도 늘 무능한 왕실과 부패한 양반의 학정에 시달려 왔으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일본의 도움으로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침략에 의한 병합을 ‘문명의 혜택’ 내지 ‘천황폐하의 은공’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名士の韓人觀」, 『朝鮮』 제1권 제6호, 1908. 8, 4~23쪽.

128) 남부진, 2002, 앞의 글, 77쪽.

129) 『중앙공론』 제259호, 1910. 10.

130) 東西南北生, 1908. 5, 「日韓併合の理由」, 『朝鮮』 제1권 제3호, 6~9쪽.

大國이 소국을 합병하는 것은 세계의 보통으로, 우리나라가 한국을 합병하여 대륙의 위협, 활란, 침략을 막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3천년 전부터의 우리나라의 國是였다. 금년, 한국의 국정을 수중에 넣어 일본의 세력권에 들었다. 이름은 保護이고, 협약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물론 명실공히 일본의 것으로 합병하고, 이 나라의 왕실, 정부 및 인민을 지금보다 편안하게 할 방법이 좋다.

한인은 古昔부터 독립하는 것이 없는 인민이다. 또 국민적 성격을 발육한 것도 없는 인민이다. 그들은 대륙의 권력에 복종하여 속국민인 것에 만족하는 인민이 되었고, 독립국의 형세를 가지고 속방의 실질적인 보호국민으로서 기뻐하는 인민이고, 그들은 국방의 권력 없이 반독립의 상태를 좋아하는 인민이고, ……

왕실은 국민의 최상급에 있는 尊榮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통어하는 주권본체가 아니고, 近世의 왕실은 외척 및 양반의 정권을 授受한 시험 및 第所가 되었고, 국왕은 政令발포의 府이나, 정령발포의 本은 정권자가 되었고, 정부는 誅求의 府가 되어 仁政은 지방인민의 염원이 되었고, ……

그리하여 한국을 합병한다면 한국인은 일대 진보한 국민이 될 것이다. 합병한다면 그들을 압박하는 귀족, 호족, 폭도, 외국인이 없게 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능한 강국 하에 근세문명이 펼쳐진다면, 기술, 문예, 商工農에 있어서 큰 진보가 올 것이다. …… 일한 합병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이다.¹³¹⁾

요컨대 『朝鮮』은 권위 없는 한국왕실과 통치능력이 없는 정부의 악정, 忠勤을 장려하는 관념이 없는 인민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속방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아전인수격의 왜곡된 독단 아래, 일제의 한국병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병합은 한국인을 문명 위로 진화된 국민이 되게 하고 병합은 한국인의 행복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샤쿠오도 병합을 역사의 필연으로 간주하고 한국인이 열등국민을 벗어나서 세계 일등국민인 일본국민이 됨으로써 행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31) 東西南北生, 1908. 5, 앞의 글, 6~9쪽.

“이제야 일본의 보호 상태에서 더 나아가 합병하는 것은 일부러 말할 만한 큰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의 국정 민정과 역사 등이 갖는 필연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 조선이 일본에 합병될 때는 한인은 세계의 열등국민 상태를 벗어나고 세계 일등국민 일본 제국민의 명예 아래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일본의 仁政과 세계문명의 혜택을 받아 오래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연히 합병의 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는 오히려 그들이 이름을 버리고 實을 얻는 인류 최종의 행복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¹³²⁾

병합이 한국인에게 ‘인류 최종의 행복’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샤쿠오의 주장은 그 후에도 반복된다. 그는 러일전쟁으로 보호국이 된 시점에서 한국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한국과 일본의 병합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근대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상당한 명예이며 행복이라는 논리도 폄했다. 또 그는 병합으로 한국인이 오랜 학정과 악습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으니, 상당한 명예이고 행복이며 이제 ‘천황의 적자’가 될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한반도의 운명은 러일전쟁 결과 우리 일본제국의 보호권 내로 귀속되었다. 그때 이미 마지막 운명은 예상할 수 있었다. 오늘 합병될지 아니면 내일 합병될지 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 현재 조선은 支那의 지배에서 구출되어 극동의 군주국, 세계 일등국, 아세아의 패왕인 일본제국의 지배하에 있다. 근세의 문명에 화육되고 인정의 은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받아왔던 학정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상당한 명예이고 행복이지 않을까.¹³³⁾

“합병은 일한문제 최후의 종착점이고, 최종의 결승점이다. 일한 삼천년래의 애매한 관계는 이제 완전히 해결된다. 또 소위 동양평화의 발판은

132) 旭邦生, 1910. 3, 「朝鮮を亡ぼすもの誰か」, 『朝鮮』 제25호, 5쪽.

133) 旭邦生, 1910. 1, 「日本國民の使命」, 『朝鮮』 제23호, 2~4쪽.

이제 영구히 확고하게 되었다. …… 한국인의 다수도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일본천황의 赤子が 될 수 있다는 光榮을 기다리고 있다.”¹³⁴⁾

중의원 의장 하세바 준코[長穀場純孝]도 병합이 ‘차라리 한국인을 위하여 축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순박하고, 선량한 大和민족으로 세계에 등장하는 영예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명실공히 명예를 가질 수 있다¹³⁵⁾고까지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朝鮮』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한인은 병합으로 진보된 국민이 되므로, 병합은 역사적이고 자연스러운 역사단계이며, 오히려 한국인에게 행복이라는 식으로 정치·군사적 강점에 의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준 것이라고까지 선전하고 있다. 침략행위를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을 전혀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논리에서 당대 일본인들 사이에 만연한 대중적 제국주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주로 사쿠오의 논리를 실은 『朝鮮』에 비해 『太陽』 외 일본 국내 유력 잡지들은 하야시 다다스[林董]와 마쓰다 마사히사[松田正久] 등 일본 내 유력 지식인과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를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결국 기본적 내용은 ‘병합 시혜론’이란 점에서 『朝鮮』과 같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식민지 근대화론’, 더 나아가 ‘시혜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134) 主張, 1910. 8, 「合併か委任か」, 『朝鮮』 제30호, 2~5쪽.

135) 長穀場純孝, 1910. 9, 「寧ろ韓人の爲めに祝すべきなり」, 『朝鮮』 제31호, 17~19쪽.

IV. ‘한국병합’ 후 동화와 식민지 교육문제

1_ 동화론의 내용과 그 실제

1910년 8월 마침내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이 이루어졌다. 병합 이후 식민통치 방법을 둘러싸고 일본정부 및 식자층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바로 한국인을 천황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었다.¹³⁶⁾ 그 성패 여부가 바로 식민통치의 성패였던 것이다. 또한 그들이 당초부터 병합의 목적으로 삼았던 항구적이고도 영원한 식민통치는 ‘동화’를 전제로 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특히 일본어 교육, 종교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한국인 동화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동화의 대상으로 삼은 객체 즉, 한국은 그들의 시선에서는 분명히 내지가 아닌 식민지였고,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닌 식민지 ‘조선인’이었다. 그 근본적 인식 및 식민지 경영이라는 제국주의의 본질적 구조 속에 동화와 차별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공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코 합치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병합 전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조장·강화시켰던 한국 및 한국인 멸시관은 병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식민통치의 가장 기본적 논리인 ‘일선동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분히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되었다. 비하적 한국인 멸시관이 동화정책과 한국병합을 지지하는 ‘일선동조론’과 상치되기 때문이었다. 즉, 한국인의 말할 수 없이 많은 악덕과 부정적 측면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同祖를 갖고 있는 형제 관계의 일본인의 성질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자가당착의 모순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한국인의 악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악정과 실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왜곡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논리이다. 그래서 그 같은 악덕의 근원이 ‘이씨 조선’의 악정에 있고, 지배계급인 양반의 주자학적인 사상에

136) 旭邦生, 1910. 9, 「稍稍理想に近き韓國の併合」, 『朝鮮』 제31호, 3~5쪽.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여 ‘일선동조론’에 의한 동화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동화된다면 중세와 근세의 失政에 의하여 크게 변질된 한국인의 성질이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이다. 즉, 한국병합이 일본과 한국이 同文同種을 이루고 있었던 고대로의 복귀이고, 한국인은 동화에 의하여 원래의 좋은 성질을 찾을 것이라는 논리이다.¹³⁷⁾ 이 동화의 논리는 한국병합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시점부터 활발하게 논의된다.

이렇게 병합 직전부터 그간 일본에 의하여 조장·강화되었던 한국인의 부정적 성벽은 한국인이 同祖인 일본인에게 동화된다면 고쳐질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뒤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교육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되었다.

2_ 식민지 교육과 동화

『朝鮮』은 1908년 6월 「한국인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지 말 것인가」¹³⁸⁾에서 한국인 교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견들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교육에 의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더라도 그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을 교육시키되 차별교육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논리는 식민통치 내내 ‘동화’와 ‘차별’이 공존하며 두 상반된 정치논리가 교묘하게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통치논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 통치자인 일본의 편익에 따라 때로는 ‘동화’의 논리가 강조되고, 때로는 ‘차별’의 논리가 앞서 나올 수 있는 매우 가변적이고도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통치논리로 자리잡은 것이다.

먼저 고사가 고마타로[香阪駒太郎, 韓國法務院長]는 ‘우주간의 생성된 인류에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民은 단연코 없다. 한국, 한국인이 금일 상태에 빠진 원인은 폭정 군주, 부패한 관리가 민중을 수백년 유형무형으로 가렵주

137) 남부진, 2002, 앞의 글, 39쪽.

138) 「韓人は教ふべきか教ふべからざる乎」,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4~18쪽.

구, 압박한 것이고, 그 때문에 가르칠 만하지 않은 민이 된 최대 원인인 것이다’라고 했다.¹³⁹⁾

또 경성주재 변호사 다카하시 쇼노다스케[高橋章之助]도 ‘한인이 금일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爲政의 방침으로 얻은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관헌이 가렴주구의 악폐를 하는 것을 두절하고, 생명 재산의 안정을 보호’¹⁴⁰⁾한다면 한국인의 성정도 변화한다고 논하고 있다.

한국인을 가르치는 데 시점과 사람 및 법을 고찰해야 한다고 한 논자도 있다. 오야 곤페이[大屋權平, 한국철도관리국장, 공학박사]는 ‘한국인은 여성적이고 소인의 기질을 갖고 있는 자’로, 이것을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가르쳐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일본인이 다수 이주하는 것과 다음으로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입할 때 君子의 풍을 갖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¹⁴¹⁾라고 하였다.

마스토 쓰루기치[増戸鶴吉, 漢城師範學校學監]도 스스로의 경험에서 ‘한국인은 교육하는 데 힘이 들므로 적당하게 의리를 둘러싸고, 은혜를 아는 정도로만’¹⁴²⁾ 교육하라고 하였다. 또 가미야 기야마[神穀鬼山, 충청북도 서기관]도 식민지 경영과 수탈에 적당한 정도의 기본 실업교육만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¹⁴³⁾

후루카와 마쓰노스케[古河松之助, 韓國警視廳翻譯官]는 한국인의 잘못된 성벽이라고 하여 무려 13가지에 달하는 부정적 특성을 나열하면서 한국인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¹⁴⁴⁾

총체적으로 이 특집 앙케트에서는 한국이 문화, 문명의 수준이 낮아,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문명화, 즉 일본인으로 동화시켜야 한다고 문명론적 시혜론 차원에서 한국인의 동화를

139) 「教ふべからざる民無」, 『朝鮮』 1908. 7. 제1권 제5호, 7~8쪽.

140) 「施政の改善行はるれば立派に教ふべき人種なり」,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13쪽.

141) 「韓人を教ふるは時と人にとに待つ」,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8쪽.

142) 「敢て編輯長足下に問ふ」,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16~17쪽.

143) 「是非共教へざるからず」,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11~12쪽.

144) 「韓人は教へらるを欲せず」,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14~16쪽.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시키되 적당한 실업교육만을 시켜야 한다는 ‘차별’을 전제로 한 ‘동화’를 기본적인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편 사쿠오는 「한인교육에 관하여」¹⁴⁵⁾라는 글에서 한국인은 ‘이해력이 결핍되어 있고, 그에 비하여 암기력이나 기계적 학술에는 통하여 쉬운 성질’의 사람들로 실용적 인물로 양성할만한 적당한 학과 즉, 수학, 農商工科 등을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법령이 과연 한국인의 성정이나 습관, 人文 정도, 인격 정도에 합당한 것인지, 또한 그들을 문명으로 이끌어 문명인화하는 길인지 심히 의문’¹⁴⁶⁾이라고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식민지 종주국으로서의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던 사쿠오는 이미 병합 이전부터 한국인을 식민지 수탈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적당한 실용교육을 통한 일본의 이익증대를 주장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동화’란 ‘차별’을 기본 전제로 한 ‘차별적 동화’였던 것이다.

병합 이후에도 사쿠오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한국이 ‘중세 이전의 상태에 정체되어’ 있다는 정체론을 들어 결코 동화가 쉽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¹⁴⁷⁾ ‘동화와 차별’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다치는 ‘소학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어 보급을 도모’하고, ‘동화를 방해하는 배일의 역사적 기념물을 제거해야하며, ‘한국인의 사대사상을 동화에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¹⁴⁸⁾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는 일본인이 한국을 어리석다고 속이지 말고, 약하다고 모욕하지 말고, 실제 동포라는 생각을 갖고 포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¹⁴⁹⁾ 사사키 야스고로[佐佐木安五郎]는 ‘조선 통치는 법률을 가지고 간섭하고, 일본에 동화된 자에게 학위를 주는 동시에 동화에 반대하는 자는 준 명예를 박탈하는 신상필벌의 방법을 동원’

145) 「韓人教育に就て」, 『朝鮮』 제1권 제5호, 1908. 7, 20~23쪽.

146) 釋尾旭邦, 1908. 8, 「韓人論(上)」, 『朝鮮』 제1권 제6호, 28쪽.

147) 旭邦生, 1910. 10, 「總督政治の方針を論ず」, 『朝鮮』 제32호, 1~6쪽.

148) 安達謙藏, 1910. 10, 「朝鮮財政問題と鮮人同化策」, 『朝鮮』 제32호, 11~14쪽.

149) 島田三郎, 1910. 11, 「朝鮮統治策」, 『朝鮮』 제33호, 9~11쪽.

할 것을 논하고 있다.¹⁵⁰⁾

오쿠마와 하야시도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동문동종의 같은 민족이므로 ‘이제 일본이 정복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무지몽매하다고 한국인을 노예취급하고, 박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동화사업도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¹⁵¹⁾ 오쿠마의 경우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게 되면 합병의 진실된 목적이 달성되고, 동화가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¹⁵²⁾

李王職 次官 고미야 미오마쓰[小宮三保松]는 ‘한국인을 총량한 신민으로 동화하는 데는 친절이 제일이다. 그들이 호랑이, 승냥이 같은 맹수라고 하더라도 사육자에 대해서는 禍心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¹⁵³⁾

總督府 視學官 이시다 신타로[石田新太郎]는 한국인이 대만인보다 교육 열이 높고, 기억력이 좋으며, 비교적 근면하므로, 동화는 대만인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계획적인 총독부의 교육시책이 제대로 시행될 기반부터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¹⁵⁴⁾

결국 『朝鮮』의 기본적 논리는 식민통치의 궁극적 목표인 ‘동화’의 실현 수단으로서 한국인을 총량한 신민으로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일본인과의 ‘차별’을 전제로 한 식민지 교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0) 佐佐木安五郎, 1911. 5, 「朝鮮統治私議」, 『朝鮮』 제39호, 8~13쪽.

151) 大隈重信, 1910. 9, 「世界に類無き日韓併合」, 12~16쪽; 앞의 글, 제31호, 1910. 9, 林董, 「韓國併合と朝鮮人同化策」, 『朝鮮』 제31호, 16~17쪽.

152) 大隈重信, 1911. 1, 「朝鮮人を如何に教育すべきか」, 『朝鮮』 제35호, 21~25쪽.

153) 小宮三保松 李王職次官, 1911. 9, 「併合の目的は同化に在り同化せんとせば先づ彼我親善融和せざるべからず」, 『朝鮮』 제43호, 9~12쪽.

154) 石田新太郎 總督府視學官, 1911. 9, 「同化策より見たる臺灣人と朝鮮人」, 『朝鮮』 제43호, 12~14쪽.

V. 맺음말

일본인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한국에 건너오기 시작하여 러일전쟁과 1905년 11월의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급속히 그 수가 증가했다. 대륙팽창을 도모하던 일본 정부는 ‘보호국’이 된 한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일본인의 渡韓을 지원했다.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 가운데에는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상당수에 달했는데 이들은 이민자인 동시에 한국인에게 있어서 ‘식민자’, ‘종주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했고, 통감부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러일전쟁 종결로부터 시작된 통감부 정치는 명목상 한국을 ‘병합’한 것이 아니고 ‘보호’한다는 입장이었다. 통감부의 이러한 점진적 병합책 내지 보호국정책과 재한 일본인들의 즉각적 병합론은 심한 마찰을 빚었다. 재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는 물론, 종주국민으로서의 확실한 지위 확보를 위해 통치기관인 통감부에 자기 의견을 표현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신문, 잡지 등 언론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한 일본인들의 종합잡지 『朝鮮』이다.

대다수가 본국에서 사회적 저변에 위치해 있던 재한 일본인은 본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 이에 두 가지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본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겠다는 의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식민지’에서 ‘종주국민’으로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식이다. 그 결과 본국에서 받았던 억압과 차별을 ‘식민지’에서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¹⁵⁵⁾

재한 일본인들의 일본 본국민에 대한 열등의식과 한국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한국인에 대한 차별, 즉각적인 한국병합, 일본인 위주의 식민지정책을 강력

155) 박양신, 2004, 앞의 글, 178쪽.

하게 주장하는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심리적 배경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朝鮮』이었던 것이다.

『朝鮮』에서는 ‘한인본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통감부의 점진적 병합론을 비판하였고, 아울러 재한 일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항일의병을 ‘폭도’로 규정하여 이를 강력하게 진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朝鮮』은 한국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가 고대에는 원래 일본과 조상이 같았다는 同文同種의 논리를 펴면서 병합은 본래의 역사로의 회귀라고 불법적 강점을 합리화시켰다. 또 한국인에 대한 멸시관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고, 뒤떨어지고 낙후된 낙오자 국가를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일본이 끌어안아 천황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므로, 병합은 차라리 한국에 행복이라는 논리로 그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시켰다.

병합 이후에는 통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되 절대로 동등한 권리를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차별’을 전제로 하여 ‘동화’와 ‘차별’이라는 전혀 상반된 논리를 교묘하게 합쳐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는 통치 방법론도 소개하고 있다.

결국 『朝鮮』은 병합 이전부터 한국에서 이미 식민자로 군림했던 재한 일본인들의 즉각적 병합에 대한 절실한 바램과 그들의 종주국민으로서의 권리주장, 한국에서 통치자로 군림하기 위한 한국인 멸시관, 통치의 편리를 위한 ‘동화와 차별’의 논리를 고스란히 여과 없이 담아낸 당대 일본인들의 여론이었다. 그들 재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은 식민지 시기를 통해 심화되고, 고착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병합을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화의 논리였고, 침략자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조작이론이었다.

문제는 이 범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자기합리화론이 제국주의 정서가 팽배하고, 그 침략이 이루어졌던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새 역사교과서』의 底本으로 출판하여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국민의 역사』에서 한국강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에

서도 알 수 있다.

1910년 일한병합은 여기까지 오면 당시로서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상하다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세계로부터는 당연하다고 보여진 조치였다고조차 말할 수 있다. 병합은 국제법상의 <강제>는 아니다. 타국으로부터 맹렬히 반대를 받은 히틀러의 체코 및 오스트리아 병합, 소련의 발트 삼국병합과는 성격을 달리했다. 세계는 그 당시 일한병합을 아시아의 평화에 최상책으로서 지지했던 것이다.

나는 나쁜 일을 했다고 일본인이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조선인과 대화를 할 때에도 머리부터 당시의 국제정세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條理에 관련한 역사이해에 도덕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 우리들은 아무것도 나쁜 일은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역사의 필연으로서 일어난 먼 과거의 일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사죄할 필요도 없다. 잠자코 있어야 한다.¹⁵⁶⁾

이러한 주장은 ‘합법적이기는 하나 도의적으로 부당했다’고 하는 논리와는 또 다른 유형이다. 말 그대로 합법·유효·정당론으로 강점 당시부터 일본인들이 극구 강조하던 병합 시혜론, 정당화론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인정으로 바뀐 후 출간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후쇼샤 간행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¹⁵⁷⁾

…… 러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한국통감부를 두고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였다. 이것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정책으로서 구미열강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었다. 한국병합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는 데 필요하였으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드시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실행된 당시로서는 국제관계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156) 西尾幹二, 1999, 『국민의 역사』, 東京: 産経新聞ニユースサービス, 534, 720, 722쪽 (정재정, 2001, 앞의 글, 31~32쪽에서 재인용)

157)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편, 2002, 『역사교과서』, 후쇼샤, 242쪽.

이렇게 침략행위에 대한 정당화론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불편했던 기존의 한일관계 해소와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양국관계의 수립에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 불법·부당한 강점 행위에 대한 합리론은 20세기 초 일본의 한국강점 이전부터 형성되어 현재 일본 및 한국의 일부 학계의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일본인들의 역사의식 속에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한일 간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이 문제는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는 중요 테마로서 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과 일본 간의 과거사 해결문제에서도 역시 제일의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연구자의 국적이나 처지에 따른 한국병합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한일 외교관계와 당사국의 정치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부록

종합잡지 『朝鮮』(京城: 日韓書房, 1908년 3월 창간~1911년 12월(통권 46호))의
한일병합관계 기사 목록

(병합 전후 통감부 통치방식, 伊藤 통감, 병합 및 한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으로의 척식장려
를 위한 소개담 기사 포함)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1	時事評論	暴徒の現状	제1권 제1호	1908년 3월	1~2쪽
2	石塚英藏 (한국통감부 參 與官)	(韓國)暴徒問題に就て	제1권 제1호	1908년 3월	7~12쪽
3	曾禰荒助 (副統監)	韓人開發の方法に就て	제1권 제1호	1908년 3월	17~18쪽
4	井上雅二 (宮内府書記官)	第二十世紀初頭における列 強植民地の現況と其の盛 衰の原因	제1권 제1호	1908년 3월	20~23쪽
5	釋尾旭邦	統監としての伊藤公を論ず	제1권 제1호	1908년 3월	29~31쪽
6	旭邦生	曾禰統監を訪ふの記	제1권 제1호	1908년 3월	55~57쪽
7	ヒマラヤ山人	罵倒録	제1권 제1호	1908년 3월	61~64쪽
8	菊池長風	韓の南北に於ける拓植の狀 態	제1권 제2호	1908년 4월	12~14쪽
9	神穀卓男	暴徒鎮撫策	제1권 제2호	1908년 4월	16~18쪽
10	釋尾旭邦	韓人の如何に日本を見るか	제1권 제2호	1908년 4월	23~27쪽
11	ヒマラヤ山人	罵倒録	제1권 제2호	1908년 4월	49~52쪽
12		伊藤統監の歸任	제1권 제3호	1908년 5월	1~6쪽
13	東西南北生	日韓併合の理由	제1권 제3호	1908년 5월	6~9쪽
14	市井散人	如何に韓人を教育すべきか	제1권 제3호	1908년 5월	9~10쪽
15	釋尾旭邦	朝鮮における日本人	제1권 제3호	1908년 5월	24~28쪽
16	ヒマラヤ山人	罵倒録	제1권 제3호	1908년 5월	28~30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17	釋尾旭邦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はしがき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4~5쪽
18	曾禰副統監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韓人を導くに法あり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5쪽
19	鶴原總務長官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韓の自然と韓人性情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5~6쪽
20	加藤増雄 (前韓國宮中顧問官)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階級的?風を打破せよ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6쪽
21	本宿家全 (善隣商業學校長)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韓人の能力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6~7쪽
22	鮎具房之進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韓人は殆ど教ゆべからず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7~8쪽
23	三浦彌五郎 (京城理事官)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韓人の特質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8쪽
24	런던, 차이나, 엑스프레스	韓人は教ゆべきか教ゆべからざる乎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9~10쪽.
25	村上又二郎 (在韓農學士)	朝鮮植民策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14~16쪽.
26	菊池長風	帝國の保護政策は今日以上に變改するの必要なきや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26~27쪽
27	釋尾旭邦	朝鮮の耶蘇教と排日思想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28~31쪽
28	ヒマラヤ山人	罵倒録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32~33쪽
29	勿禁生	韓國暴徒の野蠻なるは臺灣の生蠻に勝る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56~60쪽
30		韓國各道の狀況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70~72쪽
31	志賀重昂	韓内地の視察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72~75쪽
32		暴徒に對する母國の觀察	제1권 제4호	1908년 6월	4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33		韓人は教ふべきか教ふべからざる乎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4~5쪽
34	高橋亨(韓國高等學校學監)	韓人は教ふるを得べし而も容易なりとは言はず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6쪽
35	田中玄黃 (官立漢城外國語學校教授)	教ふべき方法の研究を要す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6쪽
36	清水文之輔 (十八銀行京城支店支配人)	研究ノ必要なる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6~7쪽
37	峯岸繁太郎 (京城新報社長)	餘は教ふべからずと雲ふ論者なり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7쪽
38	香阪駒太郎	教ふべからざる民無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7~8쪽
39	大屋權平(韓國鐵道管理局長工學博士)	韓人を教ふるは時と人とに侍つ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8쪽
40	鹽川一太郎 (慶尙北道書記官)	教ふるに法あり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9~11쪽
41	神穀鬼山(忠清北道書記官)	是非共教へざるからず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11~12쪽
42	佐藤寬(義親王顧問)	教ふべしと雲ふも不可, 教ふべからずと雲ふも不可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12~13쪽
43	高橋章之助 (辯護士)	施政の改善行はるれば立派に教ふべき人種なり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13쪽
44	古河松之助 (韓國警視廳翻譯官)	韓人は教へらるを欲せず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14~16쪽
45	增戶鶴吉(漢城師範學校學監)	敢て編輯長足下に問ふ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16~17쪽
46	戸葉民堂 (大韓日報主幹)	韓人教ふべからず教ふべし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17~18쪽
47	釋尾旭邦	韓人教育に就て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20~23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48	村上又二郎	朝鮮植民政策論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31~35쪽
49	ヒマラヤ山人	罵倒錄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35~37쪽
50	翠山生	暴徒は如何に邦人を惱まし あるか	제1권 제5호	1908년 7월	56~59쪽
51		名士の韓人觀	제1권 제6호	1908년 8월	4~23쪽
52	釋尾旭邦	韓人論(上)	제1권 제6호	1908년 8월	24~29쪽
53	木堂生	韓國保護の要義を論ず	제1권 제6호	1908년 8월	29~30쪽
54	ヒマラヤ山人	時事十題: 桂内閣と朝鮮	제1권 제6호	1908년 8월	33~39쪽
55		名士の韓人觀	제2권 제1호	1908년 9월	13~23쪽
56	釋尾旭邦	朝鮮における我官民の反目	제2권 제1호	1908년 9월	24~31쪽
57	梅謙次郎 (法學博士)	民長官選問題に就て	제2권 제1호	1908년 9월	31~32쪽
58	ヒマラヤ山人	民長官選問題に現はれたる 京城居留民團議員	제2권 제1호	1908년 9월	42~43쪽
59	古河甘笑	韓國の弊風(一)	제2권 제1호	1908년 9월	50~55쪽
60	旭邦	竹越氏の韓國に於ける統監 政治を讀む	제2권 제2호	1908년 10월	9~13쪽
61	ヒマラヤ山人	副統監としての曾爾荒助 子	제2권 제2호	1908년 10월	36~38쪽
62	古河甘笑	韓國の弊風(二)	제2권 제2호	1908년 10월	49~52쪽
63		大陸問題と對韓政策	제2권 제3호	1908년 11월	1~9쪽
64	旭邦	聖旨と在韓邦人	제2권 제3호	1908년 11월	26~28쪽
65		伊藤統監の歸任と政界	제2권 제5호	1909년 1월	2~3쪽
66		第六師團と暴徒討伐	제2권 제5호	1909년 1월	3쪽
67	松井茂(韓國警 務局長)	韓國の警察に就て	제2권 제5호	1909년 1월	12~14쪽
68	村上又二郎 (農學士)	朝鮮植民政策論	제2권 제5호	1909년 1월	18~21쪽
69	旭邦	伊藤公の統監政治と韓國 の現状	제2권 제5호	1909년 1월	31~36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70	一記者	朝鮮問答	제2권 제5호	1909년 1월	111~113쪽
71	伊藤博文(韓國 統監公爵)	韓國民に告ぐ	제2권 제6호	1909년 2월	14~16쪽
72	村上又二郎 (農學士)	朝鮮植民政策論	제2권 제6호	1909년 2월	19~27쪽
73	旭邦	伊藤統監の施政方針演說	제2권 제6호	1909년 2월	63~69쪽
74	一記者	朝鮮問答	제2권 제6호	1909년 2월	99~101쪽
75	松井茂(朝鮮內 部警務局長統 監府參與官)	韓國警察に就て	제3권 제1호	1909년 3월	16~20쪽
76	鮎貝房之進	韓國における黨爭及黨爭より受けたる韓人の性癖	제3권 제1호	1909년 3월	43~48쪽
77	一記者	朝鮮問答	제3권 제1호	1909년 3월	97~99쪽
78	無名子	統監定置は東洋本位なり.	제3권 제2호	1909년 4월	8~9쪽
79	松井茂(朝鮮內 部警務局長統 監府參與官)	韓國警察に就て	제3권 제2호	1909년 4월	10~15쪽
80	鮎貝房之進	韓國における黨爭及黨爭より受けたる韓人の性癖	제3권 제2호	1909년 4월	25~29쪽
81	旭邦	伊藤公は果して辭任の意あるか(吾人は辭任を勸む)	제3권 제2호	1909년 4월	55~58쪽
82	主張	朝鮮問題は在韓邦人にて解決せざるべからず	제3권 제2호	1909년 4월	58~59쪽
83	一記者	朝鮮問答	제3권 제2호	1909년 4월	99~102쪽
84	旭邦	排日思想と排韓思想(統監政治の副産物)	제3권 제3호	1909년 5월	44~48쪽
85	一記者	朝鮮問答	제3권 제3호	1909년 5월	82~83쪽
86	一記者	韓國統監の交代	제3권 제4호	1909년 6월	2~4쪽
87	加藤増雄	我輩の韓國觀	제3권 제4호	1909년 6월	7~11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88	旭邦	統監の交迭と局面の展開	제3권 제4호	1909년 6월	46~49쪽
89		統監の交迭に對する世評	제3권 제4호	1909년 6월	54~56쪽
90	韓國企業會社 專務取締役 和田常一氏談	實業家としての成功の秘訣	제3권 제4호	1909년 6월	76~77쪽
91	一記者	朝鮮問答	제3권 제4호	1909년 6월	83~84쪽
92	時事評論	惜まざる伊藤統監の辭任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2~3쪽
93	時事評論	歡迎されたる曾禰新統監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4쪽
94	時事評論	局面多少展開せん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4~5쪽
95	時事評論	母國の朝鮮觀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5~6쪽
96		曾禰新統監の對する世論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8~10쪽
97	村上又二郎 (農學士)	朝鮮植民政策論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25~27쪽
98	京城企業會社 長 山口太兵衛氏談	成功の秘訣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67~68쪽
99	一記者	朝鮮問答	제3권 제5호	1909년 7월	76~77쪽
100		暴徒の討伐	제3권 제6호	1909년 8월	5~6쪽
101	村上又二郎 (農學士)	朝鮮植民政策論	제3권 제6호	1909년 8월	20~23쪽
102	ヒマラヤ山人	統監曾禰荒助子を論ず	제3권 제6호	1909년 8월	54~58쪽
103	一記者	朝鮮問答	제3권 제6호	1909년 8월	81~82쪽
104	村上又二郎 (農學士)	朝鮮植民政策論	제4권 제1호	1909년 9월	16~20쪽
105	一記者	朝鮮問答	제4권 제1호	1909년 9월	79~81쪽
106		暴徒討伐の近況	제4권 제2호	1909년 10월	6쪽
107	蜷川新(法學士)	各國の被保護國に對する態度に就て	제4권 제2호	1909년 10월	8~10쪽
108	村上又二郎 (農學士)	朝鮮植民政策論	제4권 제2호	1909년 10월	12~14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109	十一味生	成功談	제4권 제2호	1909년 10월	63~65쪽
110		朝鮮問答	제4권 제2호	1909년 10월	66~67쪽
111	時事評論	噫伊藤公: 公は終に飼犬に 咬まる	제4권 제3호	1909년 11월	2~4쪽
112		噫伊藤公: 公を殺したるは 排日の狂犬なり	제4권 제3호	1909년 11월	4~6쪽
113		噫伊藤公: 伊藤公の横死と 對韓政策の發展	제4권 제3호	1909년 11월	6~7쪽
114		噫伊藤公: 伊藤公を殺すは 韓國を亡ぼすものなり	제4권 제3호	1909년 11월	8쪽
115	村上又二郎 (農學士)	朝鮮植民政策論	제4권 제3호	1909년 11월	19~23쪽
116		朝鮮問答	제4권 제3호	1909년 11월	70~72쪽
117	主張	伊藤公の横死と朝鮮問題	제4권 제4호	1909년 12월	2~4쪽
118	主張	排日思想根絶の策を立つ べし	제4권 제4호	1909년 12월	4~8쪽
119	主張	京城の民長問題	제4권 제4호	1909년 12월	8~9쪽
120	鮎具房之進	韓人刺客に就きて	제4권 제4호	1909년 12월	29~32쪽
121	雜纂 (某大官談)	伊藤公の對韓方針	제4권 제4호	1909년 12월	61쪽
122		朝鮮問答	제4권 제4호	1909년 12월	97~99쪽
123	主張	日本帝國國民の使命	제4권 제5호	1910년 1월	2~4쪽
124	主張	合邦問題	제4권 제5호	1910년 1월	4~6쪽
125	城南隱士	合邦雜說	제4권 제5호	1910년 1월	66~67쪽
126		朝鮮問答	제4권 제5호	1910년 1월	99~101쪽
127	시사평론 (旭邦)	曾禰統監と行政改革案	제4권 제6호	1910년 2월	1~4쪽
128	시사평론 (旭邦)	滿鐵中立問題と朝鮮	제4권 제6호	1910년 2월	4~5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129	시사평론 (旭邦)	朝鮮問題と帝國議會	제4권 제6호	1910년 2월	5~6쪽
130	시사평론	日本人の賊	제4권 제6호	1910년 2월	8쪽
131		對韓政策	제4권 제6호	1910년 2월	9~13쪽
132	一記者	朝鮮問答	제4권 제6호	1910년 2월	98~99쪽
133	主張	朝鮮を亡ぼすものは誰か	제25호	1910년 3월	2~5쪽
134	主張	大隈伯の大韓經營策を讀む	제25호	1910년 3월	5~6쪽
135	伯爵 大隈重信	大韓經營策	제25호	1910년 3월	9~11쪽
136		朝鮮問答	제25호	1910년 3월	95~96쪽
137	主張(旭邦生)	朝鮮合併問題	제26호	1910년 4월	2~5쪽
138	思潮	朝鮮人の最近思潮と傾嚮	제26호	1910년 4월	9~12쪽
139	渡邊天倪	朝鮮人士の對日感想	제26호	1910년 4월	13~15쪽
140	伯爵 林董	日韓合併論に就て	제26호	1910년 4월	17~19쪽
141		朝鮮問答	제26호	1910년 4월	88~89쪽
142	主張(旭邦生)	朝鮮合併論の前途	제27호	1910년 5월	2~4쪽
143	主張(旭邦生)	曾禰統監の辭任說	제27호	1910년 5월	4~5쪽
144	小川平吉	故伊藤公の合併論と子の合併論	제27호	1910년 5월	9~10쪽
145	중의원 의원 大内暢三	對韓雜感	제27호	1910년 5월	11~15쪽
146	渡邊天倪	合邦問題と外交團	제27호	1910년 5월	38~39쪽
147	東京 重徳生	日韓合邦私見	제27호	1910년 5월	43~45쪽
148		朝鮮問答	제27호	1910년 5월	76~77쪽
149	主張	統監の交代	제28호	1910년 6월	2~4쪽
150	主張	統監交代と局面の轉回如何	제28호	1910년 6월	4~5쪽
151	三宅雄次郎 (文學博士)	植民地としての滿韓	제28호	1910년 6월	7~10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152	安達謙藏 (衆議院議員)	韓國の發展策	제28호	1910년 6월	10~12쪽
153	松本訝太郎	韓國に於ける日本民族の發展	제28호	1910년 6월	12~18쪽
154		朝鮮問答	제28호	1910년 6월	96~99쪽
155	雜纂 邦旭生	朝鮮雜話	제28호	1910년 6월	58~60쪽
156	主張 邦旭生	第三世統監の施政方針如何	제29호	1910년 7월	1~6쪽
157	伯爵大隈重信	對韓政策及所感	제29호	1910년 7월	11~14쪽
158	雲水萍客	暴徒史論	제29호	1910년 7월	14~20쪽
159	渡邊天人+兒	日韓人士の政局觀	제29호	1910년 7월	29~35쪽
160	福本日南 (衆議院議員)	植民政策に對する日本政府の愚方針	제29호	1910년 7월	71쪽
161	一記者	ヨボ政客の昨今	제29호	1910년 7월	72~75쪽
162		朝鮮問題	제29호	1910년 7월	105~109쪽
163	主張	合併か委任か	제30호	1910년 8월	2~5쪽
164	主張	統治策革新の方針如何	제30호	1910년 8월	5~6쪽
165	伯爵大木遠吉	餘の對韓政策	제30호	1910년 8월	9~12쪽
166	衆議院議員 島田三郎	韓民をして謳歌せしめよ	제30호	1910년 8월	12~14쪽
167	旭邦生	山縣副統監と語る	제30호	1910년 8월	46~49쪽
168	旭邦生	稍稍理想に近き韓國の併合	제31호	1910년 9월	3~5쪽
169	主張	朝鮮の經濟的價値	제31호	1910년 9월	6~8
170	主張	朝鮮人とは如何なるものか	제31호	1910년 9월	8~9쪽
171	백작 大隈重信	世界に類無き日韓併合	제31호	1910년 9월	12~16쪽
172	백작 林董	韓國併合と朝鮮人同化策	제31호	1910년 9월	16~17쪽
173	衆議原義長 長穀場純孝	寧ろ韓人の爲めに祝すべきなり	제31호	1910년 9월	17~19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174	力行教會牧師 島貫兵太郎	韓國併合と宗教問題	제31호	1910년 9월	19~24쪽
175	城南隱士	宗教政策と朝鮮人	제31호	1910년 9월	24~26쪽
176		名士と朝鮮觀	제31호	1910년 9월	49~70쪽
177	旭邦生	明石警務總長と語る	제31호	1910년 9월	71~73쪽
178	旭邦生	小宮前宮內府次官を訪ふ	제31호	1910년 9월	73~75쪽
179		朝鮮問答	제31호	1910년 9월	97~99쪽
180		寺內統監の論告	제31호	1910년 9월	102~103쪽
181	附錄	朝鮮に於ける内地人の勢力 と其分布狀態	제31호	1910년 9월	26~43쪽
182	旭邦生	總督政治の方針を論ず	제32호	1910년 10월	1~6쪽
183	主張	朝鮮總督府官制の發布	제32호	1910년 10월	6~7쪽
184	主張	寺內總督と對言論政策	제32호	1910년 10월	7~8쪽
185	중의원 의원 安達謙藏	朝鮮財政問題と鮮人同化 策	제32호	1910년 10월	11~14쪽
186	法學士 吉松 憲郎	新附國民の天職	제32호	1910년 10월	14~15쪽
187	東京支局 難 波可水	東京の合邦祝	제32호	1910년 10월	50~51쪽
188	主張(旭邦生)	朝鮮人を如何に教育すべき か	제33호	1910년 11월	2~6쪽
189	主張(旭邦生)	友に與へて朝鮮の近事を語 る	제33호	1910년 11월	6~8쪽
190	島田三郎 (중의원 의원)	朝鮮統治策	제33호	1910년 11월	9~11쪽
191	難波生 (東京支局)	名士と朝鮮問題	제33호	1910년 11월	42~46쪽
192		朝鮮問答	제33호	1910년 11월	80~84쪽
193	主張	筆禍頻りに到る	제34호	1910년 12월	2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194	主張	寺內總督及明石警務總長 に與ふ	제34호	1910년 12월	3~5쪽
195	男爵 目賀田 種太郎	朝鮮の經濟界は建設すべき 時也	제34호	1910년 12월	7~9쪽
196	중의원 의원 中村彌六	意志の疏通を主とせよ	제34호	1910년 12월	9~11쪽
197	加藤増雄	朝鮮問題所感	제34호	1910년 12월	11~12쪽
198	警視 今村靱	警察より觀たる朝鮮人	제34호	1910년 12월	28~33쪽
199	일본여자대학 櫻風會 小橋 三四子	朝鮮見たまの記	제34호	1910년 12월	37~39쪽
200		朝鮮問答	제 34회	1910년 12월	51~56쪽
201	主張	初めての元旦	제35호	1911년 1월	2~4쪽
202	主張(旭邦生)	友に與へて朝鮮の近事を語 る	제35호	1911년 1월	4~6쪽
203	법학박사 松井茂	朝鮮內務行政の發展は刻 下の急務也	제35호	1911년 1월	9~12쪽
204	伯爵 大隈重 信	朝鮮人を如何に教育すべき か	제35호	1911년 1월	21~25쪽
205		朝鮮問答	제35호	1911년 1월	88~93쪽
206	主張(旭邦生)	朝鮮人を如何に教育すべき か	제36호	1911년 2월	2~6쪽
207	主張(旭邦生)	友に與へて朝鮮の近事を語 る	제36호	1911년 2월	8~10쪽
208	加藤増雄	移民地としての朝鮮	제36호	1911년 2월	42~43쪽
209	중의원 의원 澤柳政太郎	〈朝鮮〉と雲ふ名に就いて	제36호	1911년 2월	43~44
210	법학박사 高橋作衛	醜業婦と領事館	제36호	1911년 2월	44~45쪽
211	取調局事務官 鹽川一太郎	地方視察談	제36호	1911년 2월	45~46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212	고등법원장 渡邊帳	信仰と朝鮮人	제36호	1911년 2월	46~47쪽
213		朝鮮問答	제36호	1911년 2월	81~85
214	時事(旭邦生)	友に與へて朝鮮の近事を語る	제37호	1911년 3월	1~4쪽
215	衆議院議員 小川平吉	其根本義を誤る勿れ	제37호	1911년 3월	5~7쪽
216	官立外國語學 校長 田中玄 黃	學校教育の狀態と朝鮮人 學生の思潮	제37호	1911년 3월	8~10쪽
217	朝鮮總督府 警視 今村軫	警察より見たる朝鮮人(承 前)	제37호	1911년 3월	20~22쪽
218	愚堂生	餘の初めて見たる朝鮮	제37호	1911년 3월	41~45쪽
219		朝鮮問答	제37호	1911년 3월	57~64쪽
220	旭邦生	盛に移住と獎勵し又内地 人の發展策を講すべし	제38호	1911년 4월	1~3쪽
221		朝鮮移住の好望	제38호	1911년 4월	3~4쪽
222	중의원 의원 大内暢三	在朝鮮の官民竝に内地人 に對する希望	제38호	1911년 4월	9~12쪽
223	名流談叢	實業視察團員の眼に映し たる朝鮮	제38호	1911년 4월	27~29쪽
224	愚堂生	餘の初めて見たる朝鮮	제38호	1911년 4월	56~60쪽
225		朝鮮問答	제38호	1911년 4월	82~85쪽
226	旭邦生	言論界の恐慌	제39호	1911년 5월	1~3쪽
227	主張	言論取締に明石警務總長 の一顧を促す	제39호	1911년 5월	3~5쪽
228	主張	萬機を公論に決せよ	제39호	1911년 5월	5~6쪽
229	중의원의원 佐佐木安五郎	朝鮮統治私議	제39호	1911년 5월	8~13쪽
230	北村愚堂	子の見たる朝鮮	제39호	1911년 5월	49~53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231		朝鮮問答	제39호	1911년 5월	68~74쪽
232	旭邦生	寺内總督に奉る書	제40호	1911년 6월	1~6쪽
233	一記者	内田良平君と語る	제40호	1911년 6월	27~29쪽
234		朝鮮問答	제40호	1911년 6월	72~76쪽
235	今村勲	朝鮮の内地人には重犯罪 は少ない	제41호	1911년 7월	48~49쪽
236		朝鮮問答	제41호	1911년 7월	78~83쪽
237		朝鮮問答	제42호	1911년 8월	78~81쪽
238	旭邦生	併合一週年の朝鮮	제43호	1911년 9월	1~4쪽
239	李王職次官 小宮三保松	併合の目的は同化に在り 同化せんとせば先づ彼我親 善融和せざるべからず	제43호	1911년 9월	9~12쪽
240	總督府視學官 石田新太郎	同化策より見たる臺灣人と 朝鮮人	제43호	1911년 9월	12~14쪽
241	總督府警視	警察より見たる朝鮮人	제43호	1911년 9월	32~33쪽
242	北村愚堂	予の見たる朝鮮	제43호	1911년 9월	60~62쪽
243		朝鮮問答	제43호	1911년 9월	83~91쪽
244	旭邦生	客に朝鮮の近事を語る	제44호	1911년 10월	1~6쪽
245		朝鮮問答	제44호	1911년 10월	85~87쪽
246	主張	朝鮮人同化論と名士	제45호	1911년 11월	2~9쪽
247	旭邦生	朝鮮人の同化力	제45호	1911년 11월	10~13쪽
248	高等師範學校 教諭 林泰輔	朝鮮人は日本文明と同化 の能力あり	제45호	1911년 11월	19~21쪽
249	鬱文館中學校 長 棚橋一郎	朝鮮人教育の根本義は同 化に在り	제45호	1911년 11월	21~22쪽
250	法學士 工藤 忠輔	新領土に於ける教育家と法 曹	제45호	1911년 11월	22~24쪽
251	旭邦生	世に忘れられたる新侯爵樸 泳孝氏を訪ふ	제45호	1911년 11월	40~42쪽
252		朝鮮問答	제45호	1911년 11월	83~88쪽

연번	저자 (기고자)	제목	권호	발행 연월	비고
253		朝鮮問答	제46호	1911년 12월	2~6쪽
254	總督府內務部 學務局 石田 新太郎	朝鮮人教育の主眼	제46호	1911년 12월	14~15쪽



참고문헌

〈사료〉

『朝鮮』, 京城: 日韓書房.

琴秉洞, 1999, 『(資料) 雜誌にみる近代日本の朝鮮認識, 1~5』, 東京: 緑陰書房.

海野福壽, 2004, 『(外交史料) 韓國併合, 上, 下』, 東京: 不二出版.

한국학문헌연구소, 1984,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6(정치편) - 朝鮮の保護及び併合』, 아세아문화사.

小松綠, 1920, 『朝鮮併合之裏面』, 東京: 中外新論社.

〈연구논문〉

琴秉洞, 1995, 「乙巳保護條約の強制調印と問題點」, 『日韓協約と韓國併合』, 東京: 明石書店.

김익한, 2001, 「1910년 전후 산현, 이등계의 대한정책기조와 종교정책」,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이치가와 마리에[市川まりえ], 2007, 「1905~1910년 在韓日本人 民間言論의 統監府 政治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논.

이규수, 2006, 「한국강점 직후 일본 지배계층의 조선인식 - 잡지 『太陽』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이태진, 1996,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한국병합 불성립을 논함」, 『한국사시민강좌』 19집, 일조각.

정재정, 2001, 「일제의 한국강점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최혜주, 2008,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최혜주, 2005, 「한말 일제하 사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명근, 2000, 「통감부 시기 일제의 침략론 - 병합론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0집, 국사편찬위원회.

裏上龍平, 1996, 「近代日本の朝鮮認識 - 朝鮮保護政治期の雑誌・出版物にみる日本人の朝鮮觀」,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緑陰書房.

- 荒木和博, 2002, 「韓國で出版された日韓併合を祝福する本の衝撃」, 『正論』 358, 東京: サンケイ新聞社.
- 荒木和博, 2002, 「日韓併合の再評價なくして韓國の未來はない」, 『現代코리아』 422, 現代코리아研究所, 東京.

〈연구서〉

- 강동진, 1987, 『일본 언론계와 朝鮮: 1910~1945』, 지식산업사.
- 강동진, 1982, 『일본 언론계의 한국관』, 일지사.
- 박양신, 2004,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교류』, 국학자료원.
- 윤노 후쿠주, 2008, 정재정 역, 『한국병합사 연구』, 논형.
- 윤노 후쿠주 저, 1995, 연정은 역, 『일본의 양심이 본 한국병합』, 새길.
- 이규수, 2007, 『제국 일본의 한국인식 그 왜곡의 역사』, 논형.
- 이태진 편, 2001,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 이태진, 2009, 『한국병합과 현대: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 한명근, 2002, 『한말 한일 합방론 연구』, 국학자료원.
- 나가미네 시게토시, 1997, 『雜誌と讀者の近代』, 東京: 日本エディタースケール 출판부.
- 南富鎮, 2002,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 勉誠出版.
- 古屋哲夫, 1996,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緑陰書房.
- 森山茂徳, 1992, 『日韓併合』, 東京: 吉川弘文館.
- 釋尾春苧, 1926, 『朝鮮併合史』, 京城: 朝鮮及滿洲社.
- 小松綠, 1920, 『朝鮮併合の裏面』.
-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 海野福壽 外, 1995, 『日韓協約と韓國併合-朝鮮植民地支配の合法性を問う』, 明石書店, 東京.

[ABSTRACT]

A Tendency of Japanese Public Opinion ‘Magazine *Joseon*’ in contrast to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Ha, Jiye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recognition about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demonstrated in the Magazine *Joseon*.

Magazine *Joseon* was published in 1908 by Japanese with a view to assimilating the Koreans into the Japanese culture so that the Japanese could advance into Korea.

After the Protectorate Treaty of November 1905, Japanese residents in Korea regarded protectorate Korea as nearly colony. And they placed themselves on the position of the people of the governing country and apparently revealed the consciousness of superiority to Koreans. This consciousness of Japanese residents, Magazine *Joseon* in Korea led to the criticism of the policy of Resident-General. They criticized that the policy of Residency-General is centered on Korea.

Magazine *Joseon* asked more powerful control to Korean resistances against Japan & Japanese. And Magazine *Joseon* insists immediate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lso, Magazine *Joseon* claimed that the ‘legitimacy’, ‘Justification’, even though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by force is ‘Inevitable’. It was based on contempt for Korea & Koreans. And Magazine *Joseon* distorted Korean History, especially the ancient

history, and asserted that the Korea & Korean have no experience of Independence in history.

So, Magazine *Joseon* asserted ‘Assimilation’ & ‘Discrimination’ which were also ruling theory by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Imperialism assimilated Korean to Japanese but it was not equalit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keywords

Residency-General,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Ito Hirofumi, Recognition on Magazine *Joseon*, Assimilation, Discrimination.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에 관한 청 정부의 인식과 대응

취안허슈[權赫秀] | 중국 요녕대학 역사문화학원 교수

I. 머리말

1910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강제병합은 오로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및 세계역사에 중차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및 일본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유지해온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지정학적 재난이었다. 한반도와 바로 인접해 있는 만주 지역을 발상지로 한 당시 중국 청 정부에 있어서 대한제국의 망국으로 말미암아 한중 두 나라의 국경이 곧바로 중일 두 나라의 국경으로 바뀌어지면서 청 정부 지배층의 핵심인 만주귀족의 본고장에 해당하는 만주 지역 및 중국본토에 대한 일본의 침략위협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중대한 위기로 나타났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대하고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이웃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 무렵 청

※ 투고일: 2010년 7월 8일, 심사일: 2010년 11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26일.

정부 지배층은 물론 중국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복잡한 인식과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학계의 전문연구는 20여 년 전 張存武의 단편논문밖에 찾아볼 수 없는데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 정부의 한국병합 관련 입수채널 및 그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통보방식과 내용 그리고 청 정부 지배층의 관련인식과 대응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위 문제에 대한 진일보 연구에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한다. 청 정부가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 그 이듬해인 1911년에 곧바로 신해혁명에 의해 멸망된 사실을 감안할 때 “殷鑒不遠，在夏後之世”(『詩·大雅·蕩』)라는 중국 고전의 교훈처럼 바로 1년 전 이웃나라 대한제국의 망국에 대한 청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한중관계사는 물론 근대 중국역사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청 정부의 한국병합 관련 정보의 입수 채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일전쟁 직후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이 일본의 피보호국으로 전락하면서 1899년 이래 전개되어온 한중 두 나라의 公使級 외교관계는 곧바로 단절되고 한중 두 나라 사이에는 영사관계밖에 남지 않았다.²⁾ 따라서 1910년 당시 청 정부는 일본의 한국병합 관련 정보를 주로 서울과 도쿄 두 채널을 통해 입수하였는데 그중 공식적인 그리고 보다 확실한 소식원은 서울주재 총영사가 아닌 도쿄주재 주일공사 채널로 되었던 것은

1) 張存武, 1987, 「中國對於日本亡韓的反應」, 張存武,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382~407쪽.

2) 러일전쟁 후 한중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權赫秀, 2005, 『日俄戰爭對近代中韓關係的影響』, 『近代史研究』 第6期; 권혁수, 2007,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혜안, 335~360쪽 참조.

당시 한중일 3국의 상호관계상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 정부 측 외교사료에 의하면 일본의 한국병합 움직임에 대한 최초의 공식 보고는 청 정부 주일공사관에서 제출하였는데 1910년 6월 27일에 작성하여 7월 7일에 청 정부 외무부로 접수된 보고서에서 駐日代辦 吳振麟은 일본 정부의 한국병합 관련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³⁾

한일합방 설은 이등박문이 피살된 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 내 '日本黨'의 두목인 宋秉畷이 먼저 공개적으로 제안하였고 그 배후에는 분명 일본인의 사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제안은 곧바로 도쿄로부터 적극 호응을 얻었다. 일본 정부는 明治 초년 '廢藩置縣'의 방법을 참조하여 한국의 황실 및 귀족들에 대한 대우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러시아, 독일 및 미국 등 관련국가도 각각의 사정상 반대 의사가 없으므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 않다. 현재 가쓰라 수상까지 한일합방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 拓殖局에서 발표한 官制에서 조선을 대만 및 사할린[樺太]과 함께 제1조항에 넣어둔 것으로 보아 아마 합병의 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일전쟁 후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내세웠고 러일전쟁 후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약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제는 조선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한다. 明治 이래 먼저 琉球를 滅하고 이어서 대만을 할양하고 또 이어서 樺太를 할양하였는데 이제 또 조선을 병합하려고 하니 앞으로 일본의 雄心이 과연 조금이라도 수그러들 것인지 실로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 요컨대 저들이 한 걸음 한걸음씩 나오고[得步進步] 있으니 미래의 대비책을 강구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일 두 나라의 외교사 관련기록에 의하면 오진린은 주일공사 胡惟德이 같은 해 6월 7일에 이임한 뒤 신임공사 汪大燮이 같은 해 8월 6일 부임하기 전까

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10卷,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7102~7103쪽; 王彥威 纂輯, 王亮 編, 1934, 『清宣統朝外交史料』 卷16, 北平: 清外交史料編纂處, 19~20쪽.

지 2등참사관(二等參贊) 신분으로 공사대리(代辦)직을 맡고 있었다.⁴⁾ 일본유학생 출신으로 가히 일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진린⁵⁾의 상기 보고내용은 한일합방 관련 일본 정부의 움직임 및 열강의 태도를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하고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청 정부 외무부가 위와 같은 보고내용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시하였다는 사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만큼 청 정부에서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처음부터 부족, 심지어 결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오진린의 상기 보고 내용은 한일합방 2개월 전에 청 정부로 보고된 한일합방 관련 최초의 확실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한일합방에 관한 청 정부의 주요 정보원이 서울주재 청 정부 외교관이 아닌 도쿄주재 공사관이었던 것도 역시 러일전쟁 후 새롭게 변화된 한중일 3국 관계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당시 한국주재 청 정부 최고급 외교관인 總領事 馬廷亮은 같은 해 7월부터 한일합방 전까지 외무부로 모두 두 건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⁶⁾ 그 내용은 각각 한일 경찰권 관련 협정에 관한 것과 일본 통감부의 한중국 경범죄문제 대책관련 보고로서 한일합방에 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물론 그 원인은 서울주재 청 정부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한국에서 일본 통감부의 엄중한 보도통제⁷⁾ 그리고 서울과 도쿄주재 외교관 직급의 차이 등 객관적 요소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울주재 총영사 마정량은 합병조약이 공식 체결된 지 6일 후인 8월 28일에야 일본통감부 외사부장 고마쓰 로쿠[小松綠] 명의로 된 영문서신을 통해 합병조약의 체결소식 및 합병조약과 일본천황의 조서 등 서류를 통보받고 그 내용을 청

4) 外務省 編纂, 196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 東京: 原書房, 附表, 55쪽;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 福建師範大學歷史系 合編, 1985, 『清季中外使領年表』, 北京: 中華書局, 29쪽.

5) 吳振麟의 일본유학 배경에 관하여 呂順長, 2001, 『清末浙江與日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2쪽 참조.

6)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10卷, 7101~7102쪽, 7104~7105쪽.

7) 元노 후쿠주[海野福壽] 저, 鄭在貞 역, 2008,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476쪽.

정부 외무부로 타전하였으며⁸⁾ 뒤이어 통감부의 기관지 『京城日報』 8월 29일자에 발표된 관련내용과 대조하여 합병관련 문서를 번역하여 청 정부 외무부로 공식 보고하였다.⁹⁾ 훗날 청 정부 외무부의 전보내용에 의하면 마정량이 8월 26일에도 외무부로 타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¹⁰⁾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병합 실행에 관한 보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마정량이 일본 통감부의 통보문서를 접수한 시점과 일치한 8월 28일 오후에 주중 일본공사 이주인 히코치키[伊集院彦吉]가 이미 청 정부 외무부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병합 소식을 공식 통보하면서 합병조약 및 일본천황의 조서 원본을 전달하였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마정량의 위와 같은 보고내용은 일단 시간상 늦어졌고 또한 그가 일본어본 및 영문 번역본의 내용을 재번역하여 보낸 합병조약 및 일본천황 조서의 내용 역시 그 정확성 면에서 이주인 공사가 직접 전달한 관련문서의 원본에 비해 훨씬 부족하였다.¹¹⁾ 위와 같은 사실은 당시 서울주재 청 정부 총영사관이 일본 정부의 한국병합 관련 움직임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장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청 정부 외무부로 제때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청 정부에 일본 정부의 한국병합 관련 움직임을 보고한 제3의 채널은 바로 그 무렵 일본을 방문 중인 考察海軍大臣 載洵貝勒이었다. 청나라 최고 통치집단인 만주족 황실 愛新覺羅 가족 출신으로서 光緒皇帝의 동생 載洵은 당시 郡王銜貝勒으로서 이번의 해군고찰 뒤 1910년 12월에 곧바로 청 정부 海軍大臣으로 발탁되면서¹²⁾ 청 왕조 말기 황실 귀족집단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약하였다. 당시 마침 일본을 방문 중이던 그는 한국병합에 관한 일본 정부의

8) 『清宣統朝外交史料』 第16卷, 22~26쪽.

9)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10卷, 7113~7115쪽.

10) 『清宣統朝外交史料』 第16卷, 26쪽.

11)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10卷, 7109~7111쪽, 7113~7115쪽.

12) 魏秀梅 編, 1977, 『清季職官表 附人物錄』(下),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叢刊(5), 乙編 人物錄, 197쪽. 여기서 만주어의 중국식 음역인 '貝勒'이란 청 왕조 시기 만주귀족에게 주는 爵號의 명칭으로서 親王, 郡王 다음 단계에 속하는데 載洵은 '郡王銜貝勒'으로서 즉 제2단계인 郡王의 대우를 받는 貝勒이었다.

움직임을 직접 견문하면서 청나라의 내외통치에 미치게 될 영향을 크게 걱정하게 되었는데,¹³⁾ 한일합병조약이 공식 발표되기 사흘 전인 8월 26일에 재순은 청 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軍機處로 타전하여 한일합병 관련 소식을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¹⁴⁾

“일본은 이미 韓國併呑을 실행하였고 한국황제는 李王으로 폐하게 되면서 그 토지를 전부 일본에 바쳤는데 이에 반대하는 韓人들은 모두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심지어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소식도 전달하지 못하게 한다. 대체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을 떠난 뒤 이미 (일본군) 師團을 몰래 파견하여 미리 모의하고 협박해 온 것으로서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지금 알아본 데 의하면 日人이 장차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大舉動이 있을 것인즉 危急存亡이 間髪에 걸려 있다. 我國이 만약 庶政을 더 이상 개혁하지 않고 시급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覆轍을 밟게 될 것으로 걱정되니 눈앞으로 다가온 화 때문에 두렵고 절박하기가 그지없다. 載洵은 (한국병합에 대한) 見聞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陳言하니 대신 上奏해 주기 바란다.”

실제로 청 정부 최고 통치집단 내부에서 載洵은 한국병합의 실행 현장인 일본 도쿄에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타전내용은 한국병합 실행 직후 청 정부로 최초 보고된 한국병합 관련 소식이었다. 또한 그가 황실귀족 신분으로 청 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軍機處로 직접 타전하면서 청나라 황제에게 대신 上奏해주도록 명백히 요구하였으므로 당시 청 정부 권력의 최고 핵심층으로 한국병합 관련 사실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얼마 뒤 재순은 다시 일본에서 청 정부로 타전하여 한국병합과 관련한 국제정세 특히 청나라에 대한 침략위험을 분석하면서 청 정부의 내정개혁을 적극 촉구하였는데 훗날 중국 언론에 알려진 그 타전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¹⁵⁾

13) 『申報』宣統二年七月二十七日(1910. 8. 31) 第3版.

14) 『清宣統朝外交史料』卷16, 18쪽.

15) 『申報』宣統二年八月七日(1910. 9. 10) 第3版.

“러일협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한일합병이 이루어졌으니 러일 두 나라의 욕심이 이대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만주와 몽골의 위험은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유럽 열강도 반드시 利益均霑을 내세워 더욱 날뛰는 것이니 우리의 동남 및 서남 지역 各省마저 따라서 動搖할 것으로 걱정된다.”

말하자면 재순은 한국병합으로 드러난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야욕이 중국의 만주 및 몽골 지역에 미칠 영향 및 그에 따른 도미노 효과에 의한 유럽열강의 중국 동남과 서남 지역 침략위협을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청 정부의 외교적 대비 특히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요컨대 재순의 경우 그 직책상 한국병합 및 그와 관련된 중일관계에 관한 특별한 책무가 없었지만 만주황실귀족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특수신분상 무엇보다도 한국병합이 청 정부 내외통치 특히 만주황실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그의 심각한 걱정은 주일 공사관의 보고 등 일반적인 정부 채널과 달리 청 정부의 권력핵심인 만주황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순이 공식적인 외교채널에 앞서 청 정부로 한국병합에 관한 소식을 최초로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병합 관련 움직임을 직접 견문할 수 있었던 유리한 조건 외에 그의 일본 방문 당시 한국유학생들이 그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한국병합의 부당성 및 청 정부의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였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¹⁶⁾

요컨대 청 정부의 경우 한국병합 당시 서울 및 도쿄 주재 외교관을 통해 공식 채널 및 재순과 같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병합에 관련 정보를 나름대로 입수하였는데 당시 서울주재 총영사관에서 제때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 및 보고하지 못하였던 반면 주일공사관에서는 일찍부터 일본의 한국병합 관련 움직임을 보고해왔고 마침 일본 방문 중인 해군고찰대신 재순 역시 한국병합 관련 소식을 직접 청 정부 근거처로 보고하면서 청 정부의 대책 마련 및 내정개혁을 촉구하였다. 문제는 위와 같은 여러 채널에 의해 입수된 한국병합 관련 정보가

16) 『大公報』宣統二年十月十二日(1910. 11. 13).

즉시적이고 충분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은 청 정부의 관련 대응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 정부는 결국 외교적 채널을 통한 일본 정부의 공식통보에 의해 한국병합에 관한 정확하고 권위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Ⅲ. 일본 정부의 공식통보 방식과 내용

일본학자 운노 후쿠주[海野福壽]에 의하면 ‘일본이 근대국가 한국을 소멸시켜 식민지로 만드는 병합을 여러 나라가 승인할지 여떨지는 일본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였다.¹⁷⁾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러시아, 영국, 미국 등 관련국가의 사전승인 또는 묵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경주하였으며¹⁸⁾ 그중에는 중국 청 정부와의 관계 정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 청 정부와 간도문제를 비롯한 만주 현안문제를 외교적 타협한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¹⁹⁾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합병조약을 공식조인하기 전에 이미 러시아와 영국 정부로 위와 같은 계획을 사전 통보하였고 또한 조인 전날인 8월 21일에 주영 및 주러 대사를 통해 각각 영국과 러시아 정부에 합병조약이 곧바로 조인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밀히 전달해주었다.²⁰⁾

이어서 8월 22일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기타 국가 주재 일본 외교대표들에게도 합병조약이 하루이틀 사이에 조인될 것이므로 각국 정부로 통보할 준비

17) 『한국병합사연구』 437쪽.

18) 『한국병합사연구』 437~444쪽.

19)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崔長根, 1998, 『韓中國境問題研究－日本の領土政策史的考察』 백산자료원, 367~370쪽;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1909~1910)」, 『한국사연구』 145호 참조.

20) 外務省 編纂,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680쪽; 『한국병합사연구』, 475쪽.

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지만 유독 청나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각별한 보안자세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학자 운노 후쿠주는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가 합병조약 하루 전인 8월 21일에 전보를 통해 일본 정부 재외 외교사신들에게 합병조약의 조인이 끝나는 대로 청나라를 포함한 기타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로 통지하도록 훈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¹⁾ 그러나 그가 제시한 유일한 근거자료인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의 680~684쪽에 수록된 주영공사 가토 다키아키[加藤高明]에게 보낸 고무라 대신의 전보훈령에는 영국 및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 11개 국가만 언급하였고 청나라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통보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 외에 ‘조인이 끝나는 대로’ 통보하라는 구체적인 시점에 관한 지시내용도 없었다.

반면에 청나라에 관한 내용은 곧이어 같은 책 685쪽에 수록된 주중공사 이주인 히코치키[伊集院彦吉]에게 보낸 고무라 외무대신의 전보에서 별도로 언급되었다. 바로 합병조약 조인 하루 전인 8월 21일에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는 주중공사 이주인에게 보낸 전보에서 영문과 일본어로 된 합병조약 및 일본 정부의 합병관련 대외선언문을 첨부하여 일단 청 정부에 통보할 준비를 갖추되 당분간 비밀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²²⁾ 그리고 이를 뒤인 8월 23일에 고무라 외무대신은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에게 보낸 전보에서 특히 청나라에 대하여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조약 발표의 전날에 통고해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혀두었는데²³⁾ 그만큼 당시 일본 정부가 청나라에 대해 각별히 비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8월 27일 고무라 외무대신은 다시 주중공사 이주인에게 타전하여 한국병합조약의 내용과 함께 발표될 일본천황의 조서 내용을 통보해주었다.²⁴⁾ 요컨대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에 통보한 것과 달리 청 정부에 대한 공식통보의 날짜를 병

21) 『한국병합사연구』 475쪽.

22)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684~685쪽.

23)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691쪽.

24)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702쪽.

합조약의 조인 다음 날인 8월 23일이 아니라 병합조약 및 관련문서를 일괄적으로 공개 발표하는 8월 29일 하루 전인 8월 28일로 사전에 지시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8월 28일 오후에 주중공사 이주인은 통역관을 대동하고 청 정부 외무부를 방문하여 한국병합 사실을 통보하면서 병합조약 및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선언문을 함께 전달하였는데 당시 청 정부 外務部尙書兼會辦大臣 鄒嘉來 및 右侍郎 曹汝霖과 대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²⁵⁾

이주인: 일본에 수재가 일어났을 때 귀국 황제께서 內帑金을 助賑해 주어 깊이 감사한다. 이에 우리나라 황제의 전보 및 외무대신의 훈령을 전달하니 귀국 황제에게 上奏해주시기 바라는데 바로 日韓合併에 관한 중대한 사건을 귀국 정부에 통보하기 위함이다. 이 일은 벌써 오래 전부터 유래되었는데 4년 전에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일본은 한국의 내정을 改良하기 위해 사법과 兵政 및 경찰 등 권한을 모두 직접 장악하였다. 그러나 몇 해 동안 진보가 매우 느리고 또한 지방에서 자주 불안한 일들이 있어 보호의 책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한 합병의 실행을 決意하여 영원히 평화를 지키려고 한다. 이미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였고 내일 곧바로 발표하게 되며 향후 여러 나라와 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일괄 폐지되고 조계지 내부 사무 등 각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治外法權과 경찰 외에 일단 모두 현상을 유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일본 정부의) 선언서에서 이미 밝혀두었으니 이에 조약과 선언서의 내용을 미리 전달한다.

鄒. 曹:²⁶⁾ 조약과 선언서는 王爺, 中堂²⁷⁾에게 올리도록 하겠다. 한국이 일본과 합병하여 각국과 체결한 조약을 모두 폐기하게 되면 향후 각국과 조선의 통상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무엇에 근거

25) 『淸季中日韓關係史料』 第10卷, 7107~7108쪽, 7109~7111쪽. 이주인 공사와 청 정부 외무부의 대담내용은 『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되지 않았다.

26) 『淸季中日韓關係史料』에서는 그냥 “답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청나라 관료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아 직급상 상관인 鄒嘉來가 주로 대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여기서 ‘王爺’는 外務部總理大臣으로 있던 慶親王 奕劻을 가리키며 ‘中堂’이란 署 外務部會辦大臣으로 있던 文華殿大學士 世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인가?

이주인: 당분간 과거의 방법대로 할 것이지만 그것을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鄒. 曹: 중국과 한국은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상황과 다른데 향후 중한 국경의 여러 문제 예컨대 延吉特別辦法 같은 것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주인: 물론 중일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국이 곧바로 일본이므로 본래의 (한중)국경 지방에서 (위와 같은 사정 변화를) 잘 모르거나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귀 정부에서 사전에 주의시켜주기 바란다.

鄒. 曹: 서로가 잘 유지한다면 오해가 있을 수 없으니 양측 모두 잘 주의하기 바란다.

이주인: 근래 (중국의) 신문에서 늘 추측성 언론이 많은데 예컨대 어제 북경의 英文日報 논설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 각국에서 이 신문을 귀 외무부의 준기관지(半機關紙)로 간주하고 있으니 특히 신중해야 하며 선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한합병이 러일협약 뒤에 이루어졌기에 흔히 러일밀약의 결과로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일은 일찍부터 결정되었던 것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여태 발표하지 않은 것 뿐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정은 이미 일본에 의해 장악되었으므로 합병조약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대신은 일한합병이 (일러)협약과 결코 관계가 없음을 특별히 다시 성명하오니 귀국에서도 결코 의심하지 않기 바란다.

鄒. 曹: 신문의 내용은 믿을 수가 없다. 어제 날짜 英文日報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신문을 우리 외무부의 기관지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 신문은 우리 외무부의 일을 전혀 모르면서 늘 헛소문만 내고 있어 실로 가소롭다.

여기서 이주인 공사는 일본 정부의 훈령에 따라 청 정부 외무부로 한일합병의 사실을 통보하고 합병조약과 일본 정부 선언서 등 관련문서의 일본어 및 영문 본을 전달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일본의 한국병합으로 말미암아 한중 국경문제가 이제부터 한일 국경문제로 전환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한중 국경 지역 청나라 지방관원의 몰이해 또는 오

해가 없도록 청 정부에서 주의시켜 주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한일합병 문제에 대한 청나라 언론의 논평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특히 청 정부의 관변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의 극단적인 논평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셋째로 한일합병과 러일협약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특별히 밝혀두었다.

위의 세 가지 문제는 사실 모두 한일합병이 한중관계 및 중일관계에 미칠 영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실제로 한중 국경문제는 한일합병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중일 국경문제로 바뀌어지면서 그 후 중일 두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현안문제로 발전되었고 그 후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가 대륙정책을 추진하면서 만주 지역을 포함한 중국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과 후방기지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한일합병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많은 보도와 논평을 발표하여 중국 정부 및 국민의 경각심과 분발을 호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과 간섭은 당시 중일관계의 상황 및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의 속성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서 한일합병과 러일협약의 무관함에 관한 이주인 공사의 특별성명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외교적 사기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훗날 밝혀진 제2차 러일협약 및 밀약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병합에 대한 러시아의 묵인뿐만 아니라 공식동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²⁸⁾ 그러한 의미에서 “3국 간섭에 의한 遼東返還 이래 日韓關係는 결과적으로 日露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²⁹⁾라는 일본 학계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어서 8월 28일 한일합병조약이 공개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난 8월 29일에 고무라 외무대신은 이주인 공사에게 타전하여 합방조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한국 내 대사면 및 조세감면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고 또한 한국합병 후 한국의 칭호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변화된 내용을 통보하였다.³⁰⁾

28)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朝鮮植民地と國際關係』,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48쪽; 崔文衡, 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359~360쪽.

29) 信夫清三郎 編, 1974, 『日本外交史』上册, 東京: 毎日新聞社, 241쪽.

30)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703쪽.

첫째, 韓國은 이제부터 朝鮮으로 부른다.

둘째, 조선에 朝鮮總督府를 설치한다.

셋째, (조선)統監府 및 소속 官署는 당분간 그대로 存置하며 조선총독의 직무는 (조선)통감이 맡는다.

넷째, 여권과 관련하여 종래의 韓人專用旅券을 廢止하고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內地人と 동일하게 취급한다.

한국합병과 관련하여 주중공사 이주인이라는 외교적 채널을 통한 일본 정부의 공식통보는 이로서 마무리되었는데 그 수준과 내용 면에서 모두 당시 일본 정부가 청 정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직접적인 통보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주인 공사가 직접 전달한 합병조약 및 일본 정부 선언서의 일본 어본 및 영어 번역본은 당시 청 정부가 입수한 관련문서 중에서 신빙성과 정확성이 최고수준인 공식 원본 문서(official and original text)로서 그 권위적 측면에서 다른 채널로 입수한 문서를 훨씬 능가하였다.

바로 이주인 공사가 청 정부 외무부를 방문하던 8월 28일에 청 정부 주한 총영사 馬廷亮도 일본통감부 외사부장 고마쓰가 보낸 영문서신을 접수하였는데³¹⁾ 그 내용인즉 한일합병조약이 지난 22일에 조인되었고 29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므로 그 조약 및 일본 정부의 선언문의 영역본을 첨부해 보내면서 당분간 비밀을 유지해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마정량은 위와 같은 요지를 일단 청 정부 외무부로 타전하여 보고하였고 그 다음 날인 8월 29일자 『京城日報』에 발표된 병합조약 및 ‘勅詔’ 내용과 대조하여 번역한 뒤 다시 자세한 보고서를 외무부로 발송하였다. 여기서 마정량은 병합조약 관련 詔書에서 한국과 각국이 체결한 조약을 폐지하고 영사재판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청 정부 주한 총영사관의 존립과 직접 관련되고 또한 서울과 인천 등 개항장의 중국 조계지에 설치된 중국인 “巡警”의 존폐 여부도 문제가 된다면서 외무부의 대책지시를 요청하였다. 당시 중국 언론에 이미 주한총영사관의 철폐를 요구하는 주

31)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10卷, 7113~7115쪽.

일공사관의 전보내용이 기사화된 점을 감안할 때³²⁾ 마정량의 위와 같은 걱정은 단순한杞憂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마정량이 8월 29일자 한국 정부 『官報』에 합병조약에 발표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분명 잘못된 보고내용으로서 사실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정부의 8월 29일자 『官報』에 합병조약 및 관련문서가 동시에 발표되고 또한 즉일 발효되었다.³³⁾

위와 같은 사실은 일본의 한국병합 움직임에 대한 청 정부 주한 총영사관의 정보수집 능력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청 정부 주한 총영사관을 통한 합병사실 및 관련문서의 통보는 결국 일제의 준(?)식민통치 기관인 조선통감부의 외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격과 수준에 있어서 북경주재 일본공사관 채널에 비해 훨씬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병합에 관한 소식 및 관련문서를 모두 각국 주재 일본공사관 채널을 통해 각국 정부로 통보하였던 반면 일본주재 각국 공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 정부 주일공사관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청 정부에 대한 공식 통보채널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한국병합에 대한 청 정부 지배층의 인식과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 정부 외무부 당국자는 8월 28일 오후 이주인 공사를 통해 한국병합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통보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반면 오로지 그와 관련된 자국의 이권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그 다음 날인 8월 29일에 청 정부 외무부가 주한 총영사 마정량에게 보낸

32) 홍콩 『華字日報』 宣統二年九月三十日(1910. 10. 15).

33) 『한국병합사연구』 473쪽 주 204. 일본의 경우 1910년 8월 29일자 『官報』 號外에 발표되었고 한국의 경우 같은 날 『官報』에 발표되었다.

전보에서 8월 28일 오후 이주인 공사의 방문통보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 조약이 선포되어 各國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該約宣布, 各國如何應付, 我亦一律辦理)”는 방침을 지시한 것은³⁴⁾ 바로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에 대한 청 정부의 무기력한 불간섭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청 일전쟁 직후 체결된 중일 시모노세키조약의 제1조 항이 바로 한국의 “完全無缺한 獨立自主”를 보장하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청 정부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에 대하여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병합 당시 청 정부가 항의는 커녕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청 정부의 내외정세가 위급하여 한국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한국병합 1년 뒤에 청나라가 곧바로 멸망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학자 徐萬民은 청 정부의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처리한다”는 태도는 결국 “멸망 직전의 정권의 일본의 한국 멸망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이라고 혹평하였다.³⁵⁾

이주인 공사의 방문 당시 청 정부 외무부 당국자들이 특히 한중통상문제 및 한중 국경문제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였던 것처럼 위 두 문제는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청 정부가 크게 걱정하는 현안문제였다. 따라서 8월 29일 마정량에게 위와 같은 전보훈령을 보낸 뒤 청 정부 외무부는 그 다음날인 8월 30일에 곧바로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북 지역의 지방관 東三省總督 錫良 및 吉林巡撫 陳昭常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병합 후 한중 국경문제에 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³⁶⁾

“일한합병조약이 이미 선포되고 일본공사가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延吉條款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聲明한 이상 마땅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合併하여 과거 한국과의 국경이 오늘날 일본과의 국경으로 되었으니 상황이 변한 만큼 대처 방

34) 『清宣統朝外交史料』 卷16, 26쪽.

35) 徐萬民, 1996, 『中韓關係史』(近代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53쪽.

36)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10卷, 7112쪽.

법도 달라야 할 것인즉 국경 지역 각 지방에서 교섭사건 및 邊界의 往來人民에 대하여 각별히 신중하게 처리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外務部尙書兼會辦大臣 鄒嘉來는 한일합병조약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로 한국병합의 실현에 대한 축하 전보를 보내자고 제안하였지만 外務部總理大臣으로 있던 慶親王 奕劻은 일단 과거의 관례를 찾아보고 검토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宣統皇帝 溥儀의 생부인 攝政王 醇親王 載灃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지만³⁷⁾ 중일 두 나라의 관련 외교문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일본 정부에 축하의 전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병합조약이 발표된 지 이틀 뒤인 8월 31일에 청 정부 외무부로 ‘朝鮮國會’ 명의로 된 전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³⁸⁾

“북경 外務部大臣 앞. 朝鮮國會가 일본의 朝鮮併呑으로 말미암아 公理를 伸張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歐美列強 및 中國에 보내는 전보: 우리 韓人에게 있어서 일본은 실로 가장 痛恨스러운 원수로서 포악하게 조약을 거둬 위반하고 또한 公法을 지키지 않고 公理를 멸시하는 등 이루 말로써 형용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은 (한국) 병탄을 실행할 것이라고 여러 나라로 통보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朝鮮人들의 의사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포악한 수단으로 우리나라 및 우리 韓人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오로지 오늘날 평화적 국면을 크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또한 무리한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평화의 국면을 수호하기 위하여 귀국에서 公法과 公理에 근거하여 일본의 조선병탄을 나서서 간섭해주시기 바라는데 조선과 각국의 國交가 늘 和好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귀국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 이른바 ‘朝鮮國會’가 도대체 어디에서 설립된 어떤 단체인지 그리

37) 『申報』 宣統二年七月三十日(1910. 9. 3) ‘專電’.

38) 『清宣統朝外交史料』 卷16, 27쪽.

고 위 전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청 정부 외무부로 타전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불분명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보의 첫 부분에서 '구미열강 및 중국에 보내는 전보'라고 밝힌 점으로 보아 청 정부뿐만 아니라 구미열강 정부에도 모두 보냈던 일종의 通電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보의 내용 중 한국병합의 부당성 및 일본의 포악성을 폭로하면서 오로지 '우리나라' 및 '우리 韓人'들만 언급하였을 뿐 대한제국 황제 및 황실에 대한 내용은 한 마디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일단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비밀 외교 노력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서 대한제국과 황실의 부흥을 주장하는 정치세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전보내용 중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병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로 통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한국병합 실행 직전에 이미 위와 같은 전보를 여러 나라 정부로 속속 타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주장을 갖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력이 당시 한국 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 정부가 국외중립선언에 관한 外交通電을 멀리 중국 芝罘에 가서 비밀리에 타전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³⁹⁾ 일본통감부의 철저한 치안통제 속에서 당시 한국 내에서 위와 같은 타전을 발송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공화민주사상의 상징인 '국회'라는 명칭으로 결성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通電을 세계 각국 정부로 직접 타전할 수 있는 세력과 단체는 대한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도 아닌 구미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으로 1909년 2월 미국에서 창립되어 훗날 미주 지역 대표적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로 성장한 '國民會'로 일단 추정해본다.⁴⁰⁾ 물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유력한 사료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國會'와 '國民

39) 樸熙琥, 1994,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宣言始末』, 『국사관논총』 제60집; 권혁수, 2007,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341~346쪽.

40) 주요한, 1992, 『도산 안창호』, 세명문화사, 102~105쪽.

會'의 명칭이 매우 흡사한 점도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 정부 외교문서 등 문헌에서 위 전보와 관련한 더 이상의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 정부 외무당국 및 중앙 정부에서 위 전보의 구원요청을 그대로 무시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청 정부의 한국병합 관련 인식과 대응에 아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위 전보가 일제의 강제병합에 관한 한국 국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청 정부로 직접 전달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그러한 사실 자체가 당시 멸망 직전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청 정부 지배층에게도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해 9월 초 청 정부 신임 주일공사 汪大燮⁴¹⁾도 일본의 한국병합이 중국 만주 지역의 정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주문을 제출하였다.⁴²⁾ 당시 청 정부 외무부에서도 만주 지역의 안전문제 특히 만주 지역 거주 한국인 문제를 걱정하면서 吉林巡撫 陳昭常에게 타전하여 長春, 琿春, 延吉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한국병합 반대 움직임에 각별히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고⁴³⁾ 심지어 연길 등 지역 거주 한국인들의 한국병합 반대 움직임을 엄중 단속해줄 것에 관한 일본공사 이주인의 요청마저 받아들여기로 결정하였다.⁴⁴⁾ 그리고 한국병합이 실행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중국국적 가입을 신청하는 한국인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자 청 정부 民政部에서는 한국인의 중국국적 가입문제가 자칫하면 일본과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에서 특별히 심사를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청나라 국적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도록 지시하였다.⁴⁵⁾

41)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下, 附表, 55쪽; 『淸季中外使領年表』, 29쪽.

42) 『大公報』 宣統二年八月八日(1910. 9. 11).

43) 『大公報』 宣統二年八月九日(1910. 9. 12).

44) 『大公報』 宣統二年八月九日(1910. 9. 12).

45) 『大公報』 宣統二年九月七日(1910. 10. 9). 만주 지역 한국인의 국적문제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劉秉虎, 2001, 「在滿韓人の國籍問題研究(1881~1911)」,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외무부를 비롯한 청 정부 관련부처의 위와 같은 인식과 대응이 다분히 즉시적이고 사무적인 구체적 차원이라면 청나라 최고 지배층인 만주황실의 인식과 대응은 훨씬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특히 청일전쟁 및 義和團의 난을 통해 잃어버린 민심과 중앙집권력을 회복하려고 최후의 노력을 경주하던 청 정부는 그 무렵 바깥으로 혁명세력의 反淸운동과 입헌세력의 헌법제정 요구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洋務自強運動 및 '新政'을 통해 급속 성장한 漢族 출신의 지방관료들에 의해 장악된 지방권력의 분권화 움직임에 흔들리면서 만주족 중심의 정치사회 지배체제 및 중앙정부의 국정장악력 모두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⁴⁶⁾ 특히 청나라 황실의 만주귀족 집단에 있어서 가까운 이웃 나라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되면서 한국황실이 몰락된 사실은 결코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청 왕조 및 청나라 황실의 흥망과 존속에 대한 걱정으로 곧바로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당시 중국 언론에서도 자주 기사화될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시 宣統皇帝 溥儀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의 생부인 醇親王 載灃이 監國攝政王을 맡고 있지만 청나라 황실의 최고 권력자는 황태후의 신분으로 垂簾聽政하고 있는 隆裕太后 那拉氏이었다. 한국병합이 발표된 직후 隆裕太后는 紫禁城의 寧壽宮에서 특별히 섭정왕을 불러 한국병합의 경위 및 한국 망국 후의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한다.⁴⁷⁾

“三韓은 정말로 망하였구나. 우리나라가 스스로 돌볼 겨를도 없으니 결코 상관할 수는 없지만 외국사람들이 우리의 변경 지역을 날로 노리고 있으니 반드시 조정의 신하들과 더불어 대비책을 잘 마련하여 추후의 손실도 없도록 해야 한다.”

46) 任桂淳, 2000,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858~683쪽; 薑玼亞, 2009, 『문명제국에서 국민 국가로』, 창비, 231~255쪽.

47) 『大公報』 宣統二年八月十八日(1910. 9. 21).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청나라 황실의 최고 권력자로서 대한제국 및 한국 황실의 몰락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은 隆裕太后的 마음이 각별하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으며 또한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스스로 돌볼 겨를도 없으니 결코 상관할 수 없다(我國自顧不遑, 斷難幹預)”는 주장은 앞서 청 정부 외무부의 공식입장과 일맥상통하였다. 실제로 한국병합에 관한 일본 측의 공식통보를 받은 직후 청 정부는 8월 28일과 29일에 연속 군기처 및 각 부 대신들의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대책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한일합병 및 러일협약의 체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고 필요할 경우 어느 열강국가와 조약을 체결하여 대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⁴⁸⁾ 여기서 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열강국가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청 정부 최고 통치집단 내부에서 한국병합의 외교적 파장 특히 청나라의 국토안전을 크게 걱정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그 무렵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 정부는 일찍 1897년 대한제국의 건립 때부터 이미 한국이 조만간 일본에 의해 보호되고 나아가서 병탄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한국병합의 소식에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처음부터 반대해 오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⁴⁹⁾

한일합병조약 발표 직후 청 정부 황실의 어느 귀족이 한국의 망국과 관련하여 攝政王 醇親王 載灃에게 매우 침통한 언어로 陳言하자 섭정왕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아래 없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⁵⁰⁾ 또한 攝政王 자신도 한일합병이 발표된 후 조정 대신들에게 향후 외교문제의 처리에 각별히 신중하고 내정 사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돈하면서 특히 민심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는데⁵¹⁾ 바로 대한제국의 망국 비극의 교훈을 나름대로 섭취하려는 자세였다. 그리고 섭정왕은 일본의 한국병합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적지 않다면서 조정 대신들에

48) 『大公報』宣統二年七月二十九日(1910. 9. 2).

49) 『時報』宣統二年七月二十六日(1910. 8. 30).

50) 『申報』宣統二年八月二日(1910. 9. 5) ‘專電’.

51) 『申報』宣統二年八月七日(1910. 9. 10) ‘專電’.

게 언론을 크게 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반드시 위아래가 한마음이 되어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보수적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개원을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⁵²⁾ 그러한 의미에서 청 정부가 한국병합 발표 한 달 뒤인 10월 3일에 헌법제정을 위한 자문기구인 資政院을 개설하고 곧이어 두 달 뒤인 11월 4일에 9년의 헌법제정 예비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는 등 입헌군주제 실행과정을 다그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청 정부 내부의 여러 원인 외에도 한국병합의 충격 역시 한몫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제의 한국병합으로 말미암아 본래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이 곧바로 일본제국의 영토와 직접 연결되면서 일제의 침략위협에 대한 동북지역 청 정부 관원들의 위기의식을 크게 고조시켰다. 청 정부의 경우 러일전쟁 직후 만주귀족의 본고장인 만주 지역에서도 ‘신정’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일단 만주인과 漢人 등 기타 민족의 분할통치를 원칙으로 하는 ‘旗民二元行政體制’를 폐지하고 盛京將軍을 東三省總督으로 바꾸고 아울러 盛京, 吉林, 黑龍江 3將軍을 철폐하는 대신 奉天, 吉林, 黑龍江 3개 行省을 새롭게 설치하였다.⁵³⁾ 제2대 東三省總督으로 1910년 5월부터 奉天巡撫직까지 겸하고 있는 錫良은 몽골족 출신으로 進士 급제하여 줄곧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로서 청 정부 지배층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⁵⁴⁾ 당시 만주 지역 최고지방관으로서 한국병합에 대한 그의 위기위식은 당연히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錫良은 한국병합 직후 奉天으로부터 上京하여 8월 28일과 29일 한국병합 관련 중앙정부의 대책회의에 직접 참가하였고⁵⁵⁾ 북경에 도착한 뒤 두 번이나

52) 『申報』 宣統二年八月十五日(1910. 9. 18) “專電”.

53) 薛虹, 李澍田 主編, 1991, 『中國東北通史』,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517~522쪽; 王魁喜 외, 1984, 『近代東北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317~323쪽; 佟冬主編, 2006, 『中國東北史』(修訂版), 第五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445~447쪽.

54) 錫良에 관한 연구는 王光磊, 2009, 「晚清重臣錫良述評」,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참조.

55) 『大公報』 宣統二年七月二十九日(1910. 9. 2).

隆裕太后的 부름을 받고 한국병합에 관한 대책을 직접 건의하였다.⁵⁶⁾

한편 錫良은 그 무렵 청 정부에 한국병합 후의 대책에 관한 상주문과 보고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당시 청 정부내에서 한국병합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논의해온 고위관료였다. 같은 해 9월 16일에 석량은 청 정부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롭게 입수한 일본 정부의 만주침략 움직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달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병합한 뒤 곧바로 만주 지역을 '제2의 조선'으로 '經營'할 계획을 세우고 '滿韓鐵道'의 통일 및 만주 지역에 대량 이민을 통한 '植民政策'을 추진하려고 하니 중국인의 대량이주 및 실업 육성을 통해 자주적 실력을 조속히 육성시키는 한편 미국 및 독일 정부와 교섭하여 일본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⁷⁾ 9월 21일 吉林巡撫 陳昭常⁵⁸⁾도 외무부로 타전하여 한국병합 후 延吉 지역 거주 한국인 몇천 세대가 중국국적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의 간섭을 우려하여 해당 지방관청에서 비밀리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고,⁵⁹⁾ 9월 24일자로 외무부에 접수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병합되었으므로 차제에 1909년 11월 일본과 체결한 『中韓界務條款』(즉 『간도조약』)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먼저 한중 국경선에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자고 건의하였다.⁶⁰⁾ 이처럼 청나라 동북 지역의 관원들에게 있어서 한국병합의 파장은 무엇보다도 한중 국경 지역의 안전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이었다.

陳昭常의 직속상관인 東三省總督 석량도 같은 해 9월 23일에 청 정부 외무부로 비밀 입수한 일본 정부의 대중국 정책관련 기밀문서를 전달하였고⁶¹⁾ 10월 1일에도 외무부로 한국병합 후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자료를 전달하면서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병합으로 야기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통일적

56) 『時報』宣統二年八月三日(1910. 9. 6).

57)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10卷, 7129쪽.

58) 陳昭常에 관한 연구는 蘇久靑, 2006, 「陳昭常在清末吉林的內政外交活動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참조.

59)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10卷, 7129쪽.

60)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10卷, 7131~7132쪽.

61)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10卷, 7129~7130쪽.

인 植民政策을 실행하여 東三省의 財力を 흡수함으로써 高麗의 經營을 補助하며 또한 東三省 변방의 韓國僑民들을 이용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⁶²⁾ 그 후에도 석량은 청 정부 외무부에 각각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0일, 11월 11일자로 접수된 보고서를 통해 한국병합 관련 일본 정부의 동향에 관한 정보자료를 속속 전달하였고 특히 동북 지역 거주 한국인들이 장차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청 정부의 '韓僑' 문제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하였다.⁶³⁾ 고위관료로서 황제에게 직접 상주문을 올릴 수 있는 석량은 위와 같이 외무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또한 황태후와 황제에게 올리는 상주문을 통해 청 정부 최고통치층으로 한국병합에 관한 자신의 인식 및 대책을 직접 건의하였다.

같은 해 10월 16일 석량은 상주문을 올려 한국병합에 따른 만주 지역의 위급한 정세를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⁶⁴⁾ 여기서 석량은 먼저 일본과 러시아가 중국 동북 지역을 저들의 '식민지처럼 간주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 近日에 (러일)협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日韓이 合邦되면서' 침략의 야욕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급히 侵略主義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최근에 방금 한국을 병탄하여 財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야욕을 크게 떨치지 못한 것인즉 조금만 더 지나서 朝鮮全境에 대한 布置가 대략 완성되면 반드시 서쪽으로 진출하여 (우리의) 吉林, 奉天을 차지하고 順天과 直隸를 엿볼 것이며 러시아의 경우 蒙古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손아귀에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바로 위와 같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석량은 당시 만주 지역의 위급한 정세를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호소하였다.

“(지금) 四方으로 위기에 직면한 東省에서 일단 禍端이 일어나면 조선

6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10卷, 7136~7139쪽.

63)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10卷, 7139~7169쪽.

64) 中國科學院歷史研究所第三所 主編, 1959, 『錫良遺稿, 奏稿』 第二冊, 北京: 中華書局, 1233~1235쪽.

과 같은 결과가 곧바로 만주에 닥칠 것이니 이 지방의 萬裏가 넘는 版圖에 천백만이 넘는 인민들을 모두 버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또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저항하여 저들의 음모가 실현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陪都(청 왕조의 발상지인 奉天을 가리킴)를 지키지 못한다면 京師(청나라 수도 북경을 가리킴) 또한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붕괴와 와해가 바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으니 생각하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에 석량은 시급히 수천만 원의 외채를 조달해 각각 1000발의 총탄을 갖춘 30만 자루의 보충을 즉각 구입하여 만주 지역의 군비태세를 강화하자고 건의하였다. 물론 그가 제시한 대책 자체가 당시 청 정부의 내외 상황 특히 파탄 직전의 재정 형편상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한국병합으로 말미암은 중국만주 지역의 위급상황과 관련하여 청 정부 최고 지배층으로 제기된 가장 솔직하고도 충격적인 보고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앞서 9월 25일 청 정부에서 한일합병에 의해 만주 지역의 정세가 더욱 위태로워졌으므로 정책의 큰 변화를 통해 ‘救亡圖存’해야 한다는 熊希齡의 상주문⁶⁵⁾을 內外重臣들에게 내려 주면서 특히 석량에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석량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11월 27일에 상주문을 올려 자신의 견해를 자세히 보고하였다.⁶⁶⁾ 여기서 석량은 熊希齡이 제시한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대체로 찬성하면서 무엇보다도 ‘개방주의’ 원칙에 따라 만주 지역의 이권을 열강에 개방함으로써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12월 7일 석량은 다시 상주문을 통해 제2차 러일협약 및 일본의 한국합병 등 시국의 변화에 따라 이듬해에 곧바로 국회 개원을 요청하는 奉天省 각계 대표의 요구내용을 직접 전달하면서 청 정부에서 밑으로부터의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일단 민심을 잃어버릴 경우 동북 지역도 곧바로 망국한

65) 熊希齡의 위 상주문은 그의 文集인 林增平, 周秋光編, 1985, 『熊希齡集』上册, 長沙: 湖南人民出版社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66) 『錫良遺稿, 奏稿』第二冊, 1240~1242쪽.

조선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⁶⁷⁾ 석량과 같은 청 정부 최고 통치층의 깊은 신임을 받은 유력한 지방 고위관료의 위와 같은 강력한 입장은 청 정부가 이듬해인 1911년에 국회의 개원 및 내각의 설립을 허락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자국요소가 바로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제병합 사실이었던 것 역시 자명한 일이었다. 실제로 당시 중국주재 외국 외교관들 중에서 청 정부가 과연 대한제국의 망국의 교훈을 제대로 섭취할 경우 입헌정치의 발전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⁶⁸⁾

V. 맺음말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에 앞서 청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간도문제를 비롯한 만주 현안에 관한 외교적 교섭과정에서 1909년 3월 초 회담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헤이그 국제재판소에 간도문제의 중재요청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간도문제의 국제분쟁화를 적극 시도하였다. 이에 청일전쟁 직후 3국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본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야마카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비롯하여 간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여 만주 현안문제를 타결함으로써 차차 한국병합의 큰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결국 일본 정부는 간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전제하에서 청 정부와 같은 해 9월 『간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 정부의 간도문제 대응책은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에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근대 이래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의 상호

67) 『錫良遺稿. 奏稿』 第二冊, 1262~1263쪽.

68) 『大公報』 宣統二年八月六日(1910. 9. 9).

연동성의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8월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이 실시될 무렵 청 정부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웃 나라 대한제국의 비극적 종말로 커다란 충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양한 인식과 반응을 보여왔다. 당시 청 정부는 주일공사관, 서울주재 총영사관 및 마침 일본을 방문 중인 해군고찰대신 載洵 등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에 관한 정보를 나름대로 입수하고 있었지만 내외적으로 심각한 통치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 역시 한국 내에서 철저한 언론통제 및 보안유지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채널을 통한 공식 통보과정에서도 청 정부에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주중공사 이주인을 통해 한국병합 관련 소식 및 관련문서를 공식 통보하였다. 이에 청 정부 외무부는 “各國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는 소극적인 불간섭 및 수용자세를 보였고 당시 청나라 최고 통치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隆裕太后 역시 “우리나라가 스스로 돌볼 겨를도 없으니 결코 상관할 수 없다”고 실토하였다. 따라서 청 정부는 구미열강 및 중국 정부의 외교적 도움을 호소하는 ‘朝鮮國會’의 通電 내용을 그대로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북 지역의 안전을 위해 중국 거주 한국인들의 반대 움직임을 단속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였다.

한편 청 정부는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으로 말미암아 한중 두 나라의 국경이 곧바로 중일 두 나라의 국경으로 바뀌어진 상황을 크게 걱정하였고 특히 동북지역 지방관인 東三省總督 錫良과 吉林巡撫 陳昭常 등은 국경 지역의 안정 및 한국인 단속에 관한 대책을 적극 제시하면서 한국인의 중국국적 가입문제 및 일본의 중국 동북 지역 침략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 주장하였다. 반면에 대한제국의 비극적 종말은 한창 헌법제정 및 내각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던 청 정부 지배층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는데 당시 중국 언론은 물론 지배층 내부에서도 헌법제정 및 국회개원의 조속한 실행을 적극 촉구하였으며 결국 그 이듬해에 청 정부가 위와 같은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한 것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이 가져다준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왕조는 바로 그 이듬해에 일어난 신해혁명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는데 비록 두 나라 두 제국의 멸망 방식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호 영향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아시아 근대역사의 상호 연동성을 입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 薑珍亞, 2009,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 권혁수, 2007,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해안.
- 윤노 후쿠주[海野福壽] 저, 鄭在貞 역, 2008,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任桂淳, 2000,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 야마베 겐타로 저, 安炳武 譯, 1982, 『한일합병사』, 범우사.
- 주요한, 1992, 『도산 안창호』, 세명문화사.
- 崔長根, 1998, 『韓中國境問題研究-日本の領土政策史의 考察』, 백산자료원.
- 崔文衡, 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 樸熙琮, 1994, 『大韓帝國의 戰時局外中立宣言始末』, 『國史館論叢』 제60집.
- 劉秉虎, 2001, 「在滿韓人の 國籍問題研究(1881~1911)」,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1909~1910)」, 『한국사연구』 1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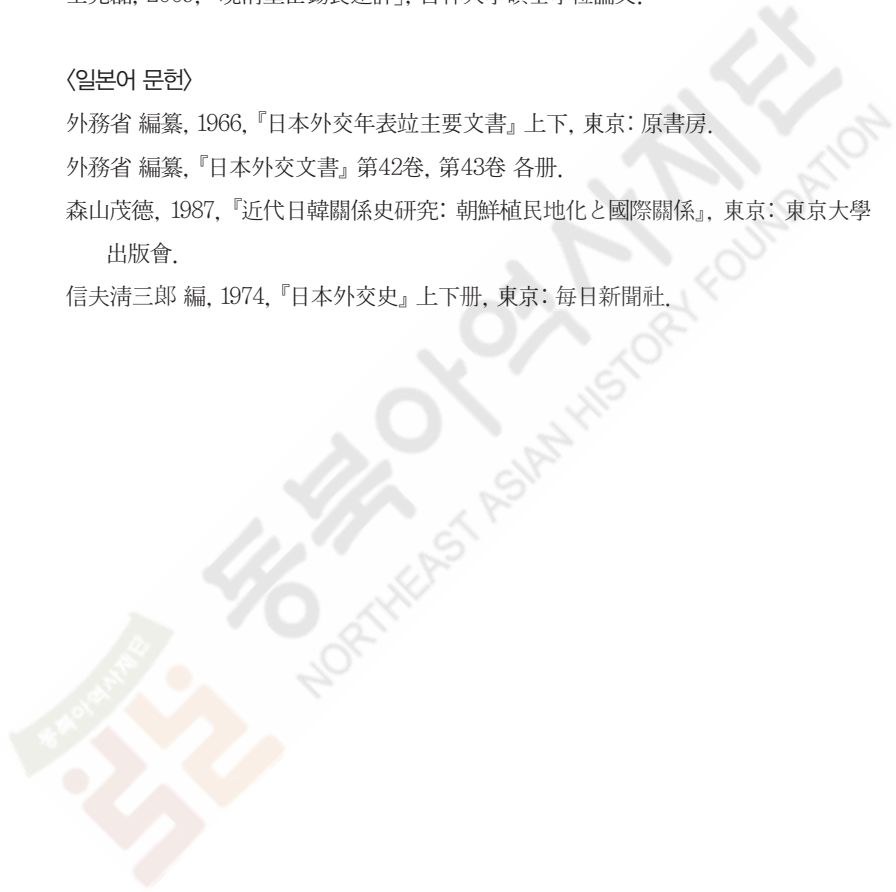
〈중국어 문헌〉

- 『大公報』 1910年 8~9月.
- 『申報』 1910年 8~9月.
- 『華字日報』 1910年 8~9月.
- 佟冬 主編, 2006, 『中國東北史』(修訂版),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徐萬民, 1996, 『中韓關係史(近代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薛虹, 李澍田 主編, 1991, 『中國東北通史』,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呂順長, 2001, 『清末浙江與日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王魁喜 외, 1984, 『近代東北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王彥威 纂輯, 王亮 編, 1934, 『清宣統朝外交史料』 24卷, 北平: 清外交史料編纂處.
- 魏秀梅 編, 1977, 『清季職官表』 上下,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林增平, 周秋光 編, 1985, 『熊希齡集』 上冊,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 中國科學院歷史研究所第三所 主編, 1959, 『錫良遺稿』 奏稿 2冊, 北京: 中華書局.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1卷, 臺北.

- 權赫秀, 2005, 『日俄戰爭對近代中韓關係的影響』, 『近代史研究』 第6期.
- 蘇久青, 2006, 「陳昭常在清末吉林的內政外交活動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張存武, 1987, 「中國對於日本亡韓的反應」,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王光磊, 2009, 「晚清重臣錫良述評」,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일본어 문헌〉

- 外務省 編纂, 1966, 『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上下, 東京: 原書房.
- 外務省 編纂, 『日本外交文書』 第42卷, 第43卷 各冊.
-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朝鮮植民地化と國際關係』,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信夫清三郎 編, 1974, 『日本外交史』 上下冊, 東京: 毎日新聞社.



[ABSTRACT]

A Study on Q'ing Government'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Annexation of Korea Empire in 1910

Quan, Hexiu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was undoubtedly a significant catastrophic geopolitical event for the Qing government. In other words, China as a neighbor, had been impacted directly and profoundly by this event. In that time, the Qing government failed to find out the relevant information on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advance. And besides, the Japanese government concealed the information deliberately from the Qing government. As a result, the Qing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recognize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and to take non-interference position. In other words, the Qing government was simply concerned with national interests that related to border security problems, but didn't response the aid request of the politics forces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 Korea Empire and the Chosŏn dynasty's subjugation, had a major impact on the Qing government. Thereupon, in the following year, Qing government agreed to implement th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measures.

keywords

the Korea Empire, the annexation, Japan, Qing government, Response

특집 2

18세기 말~19세기 전반 일본의 대외관 연구



서문

본 기획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일본의 대외관을 다룬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대외관이나 에도시대의 대외관을 다룬 논문집은 적지 않게 있으나,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논문집을 구성한 것은 국내에는 물론 일본에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특집의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인가가 문제일 텐데 이 시기가 일본 대외관의 전환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의 대외관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것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18세기 말에 그 원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시각이다. 그 내용은 '위기감과 그에 대한 대응'이고 그 위기감의 가상 세력은 서양이라는 점에서 18세기 말 이후와 근대 일본의 대외관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17세기 전반 이른바 '쇄국체제'가 완성되면서 일본인에게 대외 위기감은 사라졌다. 도쿠가와 시대 초기 일본인들은 명을 무너뜨리고 충격적으로 등장한 청이 혹시 일본열도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했으나 그 이후로는 주변 지역 어디에도 도쿠가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세력은 없었다. 청과 네덜란드 상인과의 무역은 나가사키[長崎]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몇 십년 만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조선통신사를 통해 조선과의 우호관계는 지속되었다. 하물며 남방의 류큐나 북방의 예조를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도쿠가와 일본의 태평시대를 흔들기 시작한 것은 인근세력이 아니라 서양세력이었고, 그 선구를 이룬 것은 1790년대 이후 러시아의 북방 지역 진출이었다. 그 이후로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60년간 러시아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일본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게 된다.

본 특집의 신동규, 류미나의 논문은 18세기 말 러시아의 진출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다룬 글들이다. 러시아인들이 쿠릴 열도 북단과 마주하고 있는 캄차카에 기지를 건설하고 쿠릴 열도와 사할린 등지에서 아이누인들과 활발하게 교역하게 되고 급기야는 1792년 러시아 황제의 사절단이 에조치[蝦夷地: 지금의 홋카이도]에 와서 일본과의 교역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에도의 지식인들은 크게 동요했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것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일본영토를 침략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국방위기를 호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의도는 단지 무역일 뿐이며, 이를 방지했다가는 일본 국익에 큰 손해가 생길 것이고, 에조 지역과 아이누도 러시아의 휘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인식이다. 본 특집의 두 논문은 모두 후자의 인식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다룬 것이어서 전자의 견해를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여기서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전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海國兵談』]와 후지타 유키쿠[藤田幽谷, 『正名論』]이다. 하야시는 런던의 템스 강이 일본 앞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기선의 발명으로 서양은 항해를 자유자재로 한다. 이로 인해 일본이 섬나라인 조건은 과거에는 국방에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이제는 국토의 사방에서 해상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악조건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현재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등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과 군사기술의 증강을 강하게 촉구했다.

후지타는 러시아의 영토침략 야욕을 간과하는 것은 마치 불에 타는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태연해 하는 것과 같으며 국내 민심의 일치단결을 통해 이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군사력 증강과 정치적 단결이라는 서로 다른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러시아가 무역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국방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했다.

그러나 당시 객관적으로 볼 때 캄차카에 겨우 이주기지를 설치한 러시아인들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 주장은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의 무역에 대한 대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결국 막부정책을 움직였던 것이다.

본 특집에서 다루고 있는 구도 헤이스케[工藤平助]와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는 러시아 또는 그 밖의 국가들과의 해외무역을 국가가 장악하여 거기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통상부국 노선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조치에 대한 탐험과 개발, 지역 정보 수집, 아이누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에조치에 대한 막부의 직접 지배를 촉구했다.

신동규의 논문은 구도가 러시아[赤蝦夷]와 에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무역과 에조치 탐험·개발을 주장했으며, 이것이 당시 막부의 다누마[田沼]정권에 수용되어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밝혔다. 구도는 러시아와 무역을 하게 되면 저 멀리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가격경쟁이 벌어져 일본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고, 또 에조치의 금·은·동을 채굴하여 이 무역에 충당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의 남단과 북단에서 벌어지는 무역을 시야에 넣고 일본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역 주장은 당시 막부의 쇄국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결국 실현되지 못하지만 탐험대 파견과 에조치 직할화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진행되어 막말기에 에조치는 완전히 직할화되기에 이른다.

류미나의 논문은 러시아가 영향력이 확고해지기 전에 북방의 도서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혼다 도시아키의 ‘속도 개업론(屬島開業論)’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 이 논문의 독특한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혼다에게 러시아가 단지 경계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에조 교역의 모델’로서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혼다가 기억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즉 에도시대에는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혼다가 메이지시대에 들어와 연구자의 관심을 받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연구자들의 혼다인식에 근대 일본의 아시아팽창주의의 영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혼다인식에 이 시기 연구자들의 프리즘이 개재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최은석의 논문은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라는 독특한 사상가의

대외관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박훈, 2008, 「18세기 말~19세기 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동양사학 연구』 104)에서 여러 명의 사상가들의 대외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거기서 검출된 해외팽창론적 대외관의 범주에 사토의 『混同秘策(혼동비책)』을 넣은 바 있다. 최은석은 『혼동비책』이 해외팽창론적 저작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 책의 전후로 나온 저작들을 함께 검토하여 『혼동비책』을 제외하고는 사토의 대외관이 팽창론적이라기보다는 만국대치의 상태를 전제로 한 일본방어에 주안점이 있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토가 해외침략을 주장한 목적은 외국백성에 대한 구제의 사상이 그 배경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히라타국학과의 관련 등 좀 더 풍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겠으나 경청할 만한 흥미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논문에 의해 사토 노부히로 대외관의 전모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것은 본 기획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훈의 논문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대외관을 검토하고 있다. 오랫동안 쇼인은 양이론의 대표로 강렬한 배외주의와 아시아 침략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의 연구는 쇼인이 일방적인 배외주의자가 아니라 서양열강과는 국가 간 대등관계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의 저서 『外蕃通略(외번통략)』의 분석을 통해 쇼인이 동아시아 외교의 ‘敵體(국가 간 대등한 외교관계)’ 개념을 원용하여 서양과의 대등관계를 옹호했다는 것이다. 한편 쇼인이 전쟁보다는 적극적으로 개항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고, 그가 침략론을 주장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박훈은 쇼인이 일방적인 배외주의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무역과 개항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여 서양과의 대등한 조약체결을 지지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가 『외번통략』을 통해 구상하였던 이상적인 외교 상태는 쇼군 정부와 서양 정부와의 ‘敵體’이지 천황과 외국 원수와의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다. 일본은 쇼군 위에 천황이 군림하므로 결국 일본은 서양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쇼군 정부가

외교주체이므로 이를 서양 각국에 승인시킬 수는 없으나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서양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서양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서 오는 콤플렉스를 보상받는 대상이 아시아였고, 아시아에 대한 침략적 태도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허지은의 논문은 46년간 조선어통사로서 쓰시마, 조선, 나가사키 등지에서 근무한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미간행 초서사료 『通譯酬酢(통역수작)』 중 「外國之部」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오다의 대외관은 앞에서 소개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강한 위기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가 조선-쓰시마-나가사키라는 공인된, 안정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 또 하나는 『통역수작』이 1831년에 쓰여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 시점은 18세기 말 이래의 러시아의 위협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아직 아편전쟁이 터지기 전이어서 일본인의 대외 위기의식이 가장 약해지던 때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선 해안의 이국선 출몰과 조선 내의 기독교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 조선이 만반의 대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몽골이 일본에 침입했을 때 조선을 경유한 루트에 대해 집요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역시 일본의 국방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논문은 또한 이러한 쓰시마의 조선어통사가 축적한 조선에 대한 정보가 메이지 정부에 계승되어 메이지 초기 조선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풍부한 사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살펴본 이 시기의 일본 대외관의 특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렬한 위기의식, 혹은 과장된 위기의식이다.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서양 열강의 진출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를 군사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근거가 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논자들은 마치 영국이나 러시아가 당장이라도 남북으로 일본열도를 침공할 것처럼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당시 중국이나 조선이 러시아의 진출에 대해 이런 유의 위기의식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런 과장된 위기의식은 주지하듯이 막말기를

거쳐 근대 일본, 나아가 현재의 일본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은 앞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국방위거나 해외무역에 따른 국익의 증대 등을 강조하다 보니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과 타국과의 경계가 점점 선명해진다는 사실이다. 타자인식이 자기인식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일본이 그토록 신속하게 내셔널리즘을 수용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 특집에서 다룬 대외관이 18세기 말~19세기 전반 일본인의 그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수파는 여전히 현재의 태평성대가 지속되리라고 믿었고, 대외적 갈등은 일시적이며 봉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본 특집에서 소개한 대외관은 사회주류에서 소외된 자들의 엉뚱한 애기가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받아들여진 ‘강력한 소수파’였다. 그리고 이윽고 아편전쟁 이후 이들의 대외관이 현실성을 띄게 되자 대외관의 헤게모니를 장악해갔다.

본래 막말 정치사가 전공인 필자가 일본의 대외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가에 꽂혀 있던 혼다 도시아키의 저작을 우연히 열어보고서였다. 『西域物語(서역물어)』, 『經世秘策(경세비책)』 등 흥미진진했다. 이에 자극받아 사토 노부히로의 저작들을 아울러 읽어봤다. 그러는 중에 그동안 메이지유신 이후의 대외인식이라고만 여겨져왔던 요소와 틀이 이미 18세기 말, 19세기 전반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던 2008년 당시 필자는 국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일본사 연구자가 6~7명이나 포진해 있었다. 이 연구자들과 매주 한 번 모여 혼다 도시아키를 함께 강독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사업 공모에 ‘메이지유신 이전의 대외관’이라는 이름으로 응모해 선정되었다. 강독회까지 합치면 이 특집이 나오기까지 2년을 훌쩍 넘긴 셈이다.

그동안 이 연구사업의 담당자였던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원우 연구위원은

강독회에도 자주 참석하여 우리의 연구를 독려, 또는 감시(?)해주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연구의 미진한 점을 채워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또 같은 재단의 서현주 연구위원은 우리 연구가 특집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었다. 감사드린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박 훈



『赤蝦夷風說考』와 에도막부[江戸幕府]의 북방인식

신동규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I. 머리말

에도시대[江戸時代] 전기는 3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에 의해 이른바 ‘鎖國’[海禁]이라는 대외통제책의 실시와 함께 막번체제(幕藩體制)도 안정기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해외와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시킨 것은 아니었다. 즉, 나가사키[長崎]에서의 중국과 네덜란드, 사쓰마[薩摩]에서의 류큐[琉球], 쓰시마[對馬]에서의 조선, 마쓰마에[松前]에서의 아이누 관계라는 ‘4개의 창구[四つの口]’를 통해 외교와 무역을 유지·통제함과 동시에 이곳을 통한 해외정보의 입수에 노력하면서 막부는 능동적인 외교관계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후반에 들어와 러시아의 남하로 인해 일본은 에조치[蝦夷地, 현 北海道]¹⁾에서의 외교문제로 서서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

※ 투고일: 2010년 9월 28일, 심사일: 201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26일.

1) 가이호 미네오[海保嶺夫]에 의하면, ‘蝦夷’는 ‘에미시’ 또는 ‘에조’라고 읽는데, ‘에미

다. 대표적인 것이 1778년에 러시아인이 히가시에조치[東蝦夷地]의 네무로(根室, 이 글의 지명에 대해서는 본문 끝의 <그림 1>과 <그림 2>를 참조) 동북쪽에 위치한 노카맷프(ノッカマップ), 1779년에는 남동부에 위치한 앓케시(厚岸)에 들어와 마쓰마에번(松前藩)에 대해 통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마쓰마에번은 국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다.²⁾ 이 사건에 대해서 즉시 막부가 어떤 대응책을 실시한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에조치는 17세기 이래로 일본인의 진출 및 강력한 막번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막번체제에 편입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에³⁾ 막부에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북방 지역, 특히 에조치에 대한 막부와 일본지식인의 관심은 ‘鎖國(海禁)’체제라는 에도막부의 전통적 외교통제의 관점에서 시대적 위기감으로 표출되어 각종 문헌으로 출판되었고, 이른바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북방 문헌의 봄’⁴⁾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러시아의 남진과 에조치 진출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한 지식인은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센다이번(仙台藩)의 의사 구도 헤이스케[工藤平助, 1734~1800]였다. 그는 1781년에 러시아의 남진과 에조치 진출에 대한 위기감을 『赤蝦夷風說考』⁵⁾로 작성하였는데, 이 저서

시는 고대(7~11세기) 이래 나라와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에 복종하지 않은 동북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고, ‘에조’는 확실하게 12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해 아이누만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하며, ‘에조치[蝦夷地]’라는 용어는 아이누의 봉기였던 ‘샤크샤인의 난’(1669~1672) 전후부터 사용된 용어라고 한다. 海保嶺夫, 2006, 『エゾの歴史 - 北の人々と「日本」』, 講談社, 13~14쪽.

- 2) コラー・スサネ, 2004, 「安永年間のロシア人蝦夷地渡來の歴史的背景」, 『スラヴ研究』, 51號, 北海道大學スラヴ研究センター, 409~410쪽.
- 3) 이계항, 2009, 「에도[江戸]막부의 대외관계 형성과정」, 『한국학연구』 2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57쪽.
- 4) 和田敏明, 1978, 「鎖國の夢を破った古典的三名著」,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巻)』, 叢文社, 7~8쪽. 여기서 와다 도시아키는 “(이 저서들은) 당시 世論의 계발에 도움이 되었고 幕閣의 북방경영에도 크게 공헌했다.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들 저자가 친구, 친족, 사제관계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상호 가르침을 받고 장려·자극을 받아 바야흐로 諸家が 일체를 이루어 ‘북방 문헌의 봄’이 출현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 5) 『赤蝦夷風說考』는 현재 그 사본이 日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蝦夷地一件』에

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은 1781년에, 상권은 1783년에 집필하여 완성된 것이다. 상권에서는 러시아의 무역진출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나가사키[長崎] 등의 무역지와 관련해 에조치의 금은광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하권에서는 네덜란드 서적의 지식을 토대로 러시아의 역사와 현황 및 에조치의 지리정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상권에서는 에도막부 최초로 에조치에 대한 위기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러시아의 남진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을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赤蝦夷風說考』의 제안은 당시 로주[老中]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에 의해 수용되어 막부 내부에서 에조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탐험대가 파견될 정도로 일본의 에조치 개발과 북방진출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크다. 물론, 다누마 정권의 실각과 뒤를 이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에 의한 북방정책의 백지화로 인해 실패로 끝났지만, 기쿠치 이사오[菊池勇夫]가 말한 바와 같이 『赤蝦夷風說考』는 러시아 남진에 대해 방비를 주장한 효시이며,⁶⁾ 이후 하야시 시헤이[林子

收錄, 청구번호: 178-0184)에 소장되어 있으며, 日本國會圖書館과 天理大學圖書館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赤蝦夷風說考』의 출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大友喜作 解説校訂, 1943, 『北門叢書(第1卷)』, 北光書房(1972년에 國書刊行會에서 재간행); 寺澤一 編集, 1978, 『赤夷動靜·赤蝦夷風說考·三國通覽圖說-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叢文社; 井上隆明, 1979, 『赤蝦夷風說考』, 教育社新書. 본고에서 사용한 『赤蝦夷風說考』는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을 토대로 이노우에 다카야키[井上隆明]의 출판물을 참조했다. 사본 중에는 『加摸西葛杜加國風說考』라는 서명도 있는데 ‘加摸西葛杜加’는 감차카를 말하며, 『魯西亞略說』 등의 명칭도 있다. 후에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德內]가 『別本赤蝦夷風說考』를 저술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의 저서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赤夷動靜』, 『三國通覽圖說』도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에 수록된 것임을 밝혀둔다.

- 6) 菊池勇夫, 1995, 『海方と北方問題』, 『岩波講座-日本通史14』, 岩波書店, 223~224쪽. 기쿠치는 일본의 에조치 진출의 일단을 인물사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에 대한 방비를 주장한 효시로서 구도 헤이스케[工藤平助], 에도로후島·우루프島에 건너가 러시아인의 지시마[千島] 남하의 실정을 처음으로 조사한 탐험대로서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德內], 에도로후島의 경영에 노력해 북방경비와 에조치 개발에 공적이 있다고 여겨지는 곤도 주조[近藤重藏], 가라후토·흑룡강(아무르 강) 하류 지역을 탐험하고 마미야[間宮] 해협을 발견자가 된 마미야 린조[間宮林藏]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종래의 구도에 대한 평가에서 『赤蝦夷風說考』에 보이는 그의

平],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 등 에도시대 海防論의 선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하야시의 북방인식과 海防論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하야시가 저술한 『海國兵談』의 서문을 구도가 작성했다는 사실로부터도 구도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과거 20여 년간에 걸친 근세사 분야에서 에조치에 대한 연구 동향의 특징은 전통적인 '開拓史觀'에서 탈피해 홋카이도[北海道]를 무대로 한 歷史事象을 일본의 중세·근세사회의 모습과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모습과의 관련성에서 이해하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행해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적·양적인 발전을 이룩했다⁷⁾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패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역사인식에서 北進이나 國防에 대한 공헌도로 평가해왔던 '북방사관(北方史觀)'의 속박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는지 상당히 위태롭다는 비판적 견지 위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단일민족사관의 비판과 함께 선주민족인 아이누 민족을 역사 주체로서 대치시키는 관점이 힘을 얻어 '북방사상(北方事象)'의 점검과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⁸⁾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 속에서 본고에서 테마로 삼고 있는 구도 헤이스케와 『赤蝦夷風說考』는 일본의 북방진출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평가를 받아왔으나, 거의 대부분은 북방진출, 또는 에조치와 幕藩制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서 소개·이용되고 있었을 뿐 『赤蝦夷風說考』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구도의 견해와 더불어 막부 내부에서의 에조치 개

북방에 대한 관심이 항상 클로즈업되어 왔지만, 한편에서는 1783년에 로주 다누마에게 올린 上書로서 『報國以言』을 기초하여 나가사키 무역의 시정(동무역의 통일화, 밀무역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다누마시기에 보이는 구도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는 『赤蝦夷風說考』과 『報國以言』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행해지고 있다(矢嶋道文, 2002, 「工藤平助國益思想の再評價-『報國以言』を中心に」, 『日本思想史學會2002年度大會-「大正思想史の諸問題」』 발표문).

7) 榎森進, 1997, 『北海道近世史の研究-増補 改訂』, 北海道出版企劃センター, 495쪽.

8) 菊池勇夫, 1995, 앞의 글, 224쪽.

발론이 변화된 과정, 탐험대의 파견과 관련된 변화를 상세히 비교·검토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赤蝦夷風説考』와 더불어 그 직후에 파견된 탐험대의 조사보고서인 『蝦夷拾遺』, 탐사 중지령과 처벌 및 막부의 변동을 기록한 『蝦夷地一件』의 내용을 발췌 수록한 이노우에 다카아키[井上隆明]의 『赤蝦夷風説考』⁹⁾는 당시 에조치에 대한 막부의 움직임에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사료를 한 권에 수록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대표적 연구로서 이와사키 나오키[岩崎奈緒子]의 연구가 있다. 이와사키는 『赤蝦夷風説考』의 원래 명칭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家에 소장되어 있던 사본 『加模西葛杜加國風説考』라는 명칭이며, 이 책이 저술되었던 당초에는 「世界圖」와 「蝦夷圖」 2장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함과 동시에 이 지도가 막부의 세계인식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¹⁰⁾

한편, 한국에서 변정민이 「18세기 후반 幕府의 蝦夷地 개발정책」¹¹⁾이라는 석사논문에서 구도 헤이스케와 하야시 시헤이의 '건의서'를 비교하여 일본의 에조치 개발을 고찰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보다도 『赤蝦夷風説考』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많은 참조가 되었다. 다만, 구도의 견해를 에조치에 대한 국방문제로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 구도의 중요인식으로서 누케니(밀무역)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막부가 구도의 견해를 받아들여 본토의 피차별민을 에조치에 이주시켜 개발하려는 정책 등의 변화가 존재함에도 막부의 에조치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도의 견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하야시는 결국 막부에 의해 사형을 당하고 있어 그의 견해

9)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10) 岩崎奈緒子, 2006, 「『赤蝦夷風説考』再考」, 『北海道・東北史研究』 3, 北海道・東北史研究会編; 岩崎奈緒子, 2006, 「史料紹介: 天理大學付屬天理圖書館所藏『加模西葛杜加國風説考』」, 『北海道・東北史研究』 3, 北海道・東北史研究会編; 岩崎奈緒子, 2009, 「『加模西葛杜加國風説考』の歴史的意義」, 九州史學研究会編, 『境界からみた内と外』, 岩田書院.

11) 변정민, 2008, 「18세기 후반 幕府의 蝦夷地 개발정책」,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를 막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견해를 달리하지만, 구도의 견해와 하야시의 ‘海防’론을 비교·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 『赤蝦夷風說考』를 언급한 연구들이 보이고 있지만,¹²⁾ 이러한 연구들은 『赤蝦夷風說考』를 통한 구도의 북방인식을 비롯해 그로부터 시작된 막부의 탐험대 파견, 그리고 마쓰다이라 사다노부 정권에 의한 북방계획의 폐기와 막부의 북방인식 변화 및 전개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赤蝦夷風說考』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赤蝦夷風說考』에 기술된 구도의 북방인식의 내용과 그러한 인식이 당시 일본의 어떠한 상황을 반영하고 무엇에 영향을 끼쳤는가? 둘째는 다누마 정권에서 계획한 에조치 개발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일본사에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는 다누마 정권의 몰락에 의한 에조치 개발의 좌절 이후, 일본에서 에조치에 대해 어떠한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에조치의 幕領化(1799) 이전까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 글 전체에서 『赤蝦夷風說考』의 역사적 의의와 에조치에 대한 일본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이 글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12) 高倉新一郎, 1966, 『蝦夷地-日本歴史新書』, 至文堂, 111~116쪽; 石川猶興, 1987, 「記傳を歩く(28)-工藤平助著「赤蝦夷風說考」-前人未踏の蝦夷地開發論」, 『農政調査時報』 373, 全國農業會議所; Brett Walker, 2007, 『蝦夷地の征服 1590~1800』, 北海道大學出版會, 207·213쪽; アニック・ホリウチ, 2009, 「近世日本の知のネットワーク-魯西亞(ロシア)関連の言説を通して」, 『比較日本學學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5, お茶の水女子大學比較日本學教育研究センター, 127쪽.

II. 工藤平助의 북방인식과 蝦夷地 대책

1_ 러시아의 남하와 工藤平助의 북방인식

18세기 이후 일본은 이른바 ‘4개의 창구’ 설정에 의한 외교관계가 완전히 정착함에 따라 일본사상 유례 없는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방의 러시아에서는 중국과 국경분쟁을 종결시킨 1689년의 네르친스크조약 이후, 러시아의 毛皮獸 수렵자들이 북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쿠릴 열도(지시마[千島] 열도)의 탐험을 시작하였고, 17세기 말에는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와 캄차카 반도 주변에 살고 있던 캄차달족과 지시마의 아이누로부터 ‘사쿠’라는 일종의 공납으로 징수한 모피를 거래하기 위해 캄차카에 출장소를 건설하고 있었다.¹³⁾

더욱이 18세기 초엽 표트르 대제 때에 들어와 1705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에 일본어학교를 개설하였고, 1738~1742년 사이에는 일본 근해에 탐험대를 파견하는 등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754년부터는 표류해온 일본인으로부터 일본에 좋은 항구가 있다는 소문을 비롯해 이르쿠츠크(Irkutsk)에 있는 일본인 교사로부터는 지시마의 여러 섬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 나아가 그 섬들을 영유한다면 일본과의 교역관계를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면서¹⁴⁾ 적극적으로 일본으로의 남진을 도모하고 있었다. 정보를 전해준 일본인에 대해서는 기자키 료헤이[木崎良平]의 매우 상세한 연구¹⁵⁾가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13) プレット・ウォーカー, 秋月俊幸 譯, 2007, 『蝦夷地の征服 1590~1800』, 北海道大學出版會, 204쪽.

14) コラー・スサンネ, 2004, 앞의 글, 391·399쪽. 한편, 러시아의 캄차카 주변에 대한 탐험대 파견은 17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18세기 초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大熊良一, 1972, 「ロシア人による北方海域探險の歴史」, 『幕末北方關係史攷』, 北方領土問題對策協會, 114~118쪽.

15) 木崎良平, 1991, 『漂流民とロシア-北の黒船に揺れた幕末日本-(中公新書 1028)』, 中央公論社, 1~24쪽.

움직임은 예카테리나 2세가 1762년에 즉위하면서 더더욱 체계화되었고, 특히 1764년에 러시아의 海運省에 북태평양의 섬들에 대한 조사와 개발을 위한 탐험대의 조직을 칙명으로 내리면서 본격화되었다.¹⁶⁾

이렇게 18세기 중후기 무렵부터 일본 북방으로의 러시아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에조치에 대한 막부의 대응은 전통적인 형태로서 마쓰마에번[松前藩]에 의한 ‘委任’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막부권력 자체가 에조치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었다.¹⁷⁾ 그러던 중 1771년에 ‘한벤고로 사건’이 발생해 에조치 문제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헝가리 출신의 남작 베노후스키(M. A. A. Benyovzky)가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다가 캄차카에서 도망쳐 아마미오 오시마[奄美大島]에서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장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의 일본침략을 경고한 사건¹⁸⁾이다. 여기서 ‘한벤고로’의 명칭은 오스트리아의 군인으로 위장한 베노후스키가 독일풍의 이름으로 네덜란드 상관에 편지를 보냈

-
- 16) コラー・スサンネ, 2004, 앞의 글, 396쪽. 코라 스산네의 연구에 의하면, 예카테리나 2세 때에 예카테리나號(1774, 破船), 니콜라이號(1775, 破損), 나탈리아號(1777[歸帆]・1778[破損] 2회)에 의한 에조치 탐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17) 菊池勇夫, 2002, 『外壓と蝦夷地支配』, 紙屋敦之・木村直也 編, 『海禁と鎖國』, 東京堂出版, 391쪽; 菊池勇夫, 1995, 앞의 글, 225쪽 참조. 참고로 『外壓と蝦夷地支配』는 1979年度 歴史學研究會大會報告 논문임(菊池勇夫, 1979, 『歴史學研究—世界史における地域と民衆』 別冊特集, 歴史學研究會 編, 青木書店).
- 18) 芳賀徹譯, 1982, 『日本人の西洋發見』, 中央公論社, 44~54쪽. 특히, 『日本人の西洋發見』에는 베노후스키의 서한 전문이 실려 있는데, 중요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1771)에 러시아 측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가리요트船 2척과 후레가토船 1척이 캄차카를 출발해 일본 근해를 항해하고 그 시찰의 성과를 정리해 하나의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계획에서는 내년 마쓰마에 및 북위 41도 38분 부근의 여러 섬을 공격할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캄차카에서 가장 가까운 지시마의 한 섬에 이미 요새가 축성되었고, 탄약·총포의 비축과 함께 군수창고도 1동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외에 이하의 것을 참조 바람. 水口志計夫・沼田次郎 編譯, 1970, 『ベニョフスキー航海記(東洋文庫160)』, 平凡社; 日蘭學會・法政蘭學研究會 編, 1979, 『和蘭風說書集成(下)』, 吉川弘文館, 55쪽(“一, 去年琉球國大島之内江漂來異國船之儀咬口留吧において風聞承り申候處, ポウル國之者二而可有禦座哉. バロン・モリツ・アラアダル・ハン・ヘンゴロウと申者浦に相成, シベリ國に差送り候處夫よりカムシカシテカ江落行, 右之所より船を盜同類乗組逃出申候, 其末去年アマガハ之地に著船夫よりロソソ江渡りフランス船に更乞仕, 右フランス國を指罷越候由沙汰有之候.”).

고, 그것을 일본인이 ‘한벤고로’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한다.¹⁹⁾ 아무튼 ‘한벤고로 사건’은 에조치만이 아닌 일본의 북방 지역에 대한 커다란 위기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海國兵談』을 저술한 계기가 이 사건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에조치에 대한 막부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외교적 영향을 주었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막부의 태도는 전술한 바이지만 1779년 러시아가 앓케시에서 통상을 요구했을 때에도 막부의 외교나 에조치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지식인에게의 충격은 막부의 외교변화를 초래하였고,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대책과 에조치 개발을 주장한 구도 헤이스케의 『赤蝦夷風説考』이다. 당시, 구도는 난학자들과 通詞 요시오 고사쿠[吉雄幸作] 등을 통해서 나가사키와 네덜란드의 정보를 상세히 입수하고 있었는데, “난학자는 아니지만, 그 사상 방법은 난학계의 開明的 知識人”²⁰⁾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학식이 풍부했었다. 때문에 구도에게는 마쓰마에로부터 제자 입문을 원하여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마쓰마에의 공무와 관련된 재판의 판결에 조언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었고, 구도는 그들로부터 마쓰마에의 사정과 에조치 교역의 실태, 러시아 남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²¹⁾

물론, 나카이 노부히코[中井信彦]의 연구에 의하면, 에조치에 대해서는 구도보다도 앞서 나미카와 덴민[并河天民]이 1717년 이전(1717년에 病死)으로 생각되는 시점에서 『關疆錄』을 저술해 에조치의 일본 복속과 개발을 언급하였고, 그의 형인 나미카와 세이쇼[并河誠所]가 막부에 현책하기 위한 노력도 보

19) 芳賀徹譯, 1982, 위의 책, 271쪽(각주 5번) 참조.

20) 沼田次郎·松村明 校註, 1976, 『日本思想大系(64)-洋學(上)』, 岩波書店, 해설 참조.

21) 門玲子, 2001, 『わが眞葛物語江戸の女性思索者探訪』, 月藤原書店刊, 第一章 「眞葛小傳」.

이지만,²²⁾ 당시 이러한 견해는 막부에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에조치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구도의 『赤蝦夷風說考』는 막부에 의해 수용되어 에조치에 대한 정책변화를 초래하는데, 과연 『赤蝦夷風說考』에 보이는 구도의 북방인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서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료 1]

㉑ 카무사스카(감차카 반도)라는 곳은 아카에조[赤蝦夷]의 올바른 명칭이다. 유심히 그것을 물어보니, 네덜란드의 동쪽 옆에 오로샤(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도를 무스코비아(현 모스크바의 주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스코베아라고 말하고 있다. ㉒ 오로샤는 寬文年間(1661~1672) 무렵부터 세력을 키워 正德(1711~1715) 무렵에는 오쿠에조[奥蝦夷]²³⁾ 카무사스카의 나라들까지 다스렸다. 에조(蝦夷, 현 北海道)와 카무사스카 사이에 지시마[千島]의 섬들이 이어져 있다. 이곳을 오로샤는 享保(1716~1735) 무렵부터 침략하기 시작해 성곽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한다. 오로샤 사람들은 때때로 마쓰마에[松前]²⁴⁾ 부근에 표류해 오는 것 같다. 네덜란드와 인접해 있으면서 그곳에서 오쿠에조까지 확장해 왔다고 듣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생각해 보니, 마쓰마에에서의 소문과 네덜란드 서적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는 점도 있어 내가 생각한 바를 삽입해 신기한 이야기로 1책을 만들었다. 더욱이 私見의 증거를 들어 1책을 추가하여 합쳐서 2책으로 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상권 1책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하권은 읽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天明 3년(1783) 癸卯 正月 日²⁵⁾

22) 中井信彦, 1953, 「蝦夷地開拓說の系譜」, 『社會經濟史學』, 18-5, 社會經濟史學會, 70쪽.

23) 북해도의 제일 깊숙한 곳을 말하며, 명확하게는 호로이즈미[幌泉]보다 먼 곳, 그리고 지시마 열도[千島列島], 가라후토 등을 가리킨다.

24) 여기서 松前町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는 가메다[龜田] 서쪽으로 구마이시[熊石]의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和人地, 마쓰마에로 불렸다고 한다(井上隆明, 1979, 앞의 책, 48쪽).

25)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앞의 책, 29쪽. 이후 본고에서는 인용문 중의

우선 밑줄 ㉔로부터 쿠릴 열도의 제일 북쪽 대륙부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가 바로 아카에조[赤蝦夷]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카에조는 에도로 후토[澤捉島]·우르프토[得撫島] 등에 내항한 러시아인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일설에는 빨간 얼굴 또는 빨간색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어쨌든 『赤蝦夷風説考』는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대한 풍설고로서 구도는 이미 러시아 대륙부의 캄차카 반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함께 모스크바(무스코비아)²⁶⁾에 대한 지리정보도 획득하고 있었음을 위의 [사료 1]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밑줄 ㉕에서는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해 1711~1715년 무렵에 캄차카를 다스렸고, 1716~1735년 사이에 지시마의 섬들까지 공격해 성을 구축했으며, 때로는 마쓰마에까지 표류해온다고 하여 러시아의 남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구도의 기술대로 1711~1735년 사이는 포트르 대제에 의한 남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때임을 염두에 두면 명확한 시대적 상황인식의 반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도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본문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시마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러시아와 에조치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였다는 사실, 또한 러시아 측에는 蝦夷通詞와 日本通詞가 있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기술,²⁷⁾ 러시아의 무역품목과 무역 전반에 걸친 개관, ‘한벤고로 사건’에 대한 평가, 러시아에 대한 남진과 무역 대응책 및 이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에조치에 대한 개발 등 다종다양한 시각과 측면에서 러시아와 에조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 기호는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임을 밝혀둔다.

- 26) 무스코베야는 무스코비아와 같은 뜻으로 모스크바의 교외 지역을 말한다. 원래는 일본에 수입된 가죽 제품의 하나를 말하는데, 네덜란드인이 일본에 가져온 것이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산품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백수나 건달들이 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세 중기의 희극 작품에 무스코베야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92~93쪽(각주 1) 참조.
- 27) 이것은 러시아가 일본으로의 남진을 위해 표류한 일본인으로부터 일본어를 습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赤蝦夷風説考』에 이들 통사가 “우리들의 선조는 일본인이고 나라는 오로사(러시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부터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도는 러시아의 남진을 군사적 위협이라는 위기의식보다는 무역 진출로서의 위기의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赤蝦夷風說考』에 당시 러시아인들은 에조치와의 교역을 위해 일부러 표류해 오기도 한다는 故漂 관련 기술, ‘한벤고로 사건’에서 베노후스키가 언급한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침략의 풍설²⁸⁾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확인이 된다. 또한, 구도가 “아카에조(러시아)가 일본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의심해야 할 첫 번째의 것으로 삼겠다. 그러한 의도가 있든 없든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히물며 전후 사정을 생각해 보면 커다란 전쟁을 걸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²⁹⁾고 그의 저서에서 단언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네덜란드와의 연관성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자료 2]

㉑ 원래 네덜란드 측은 일본과의 교역을 허락받아, 나라도 부유하다고 들고 있는데, 만약 오로샤(러시아)가 일본무역을 시작하게 된다면 국가의 흥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후에 오로샤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네덜란드의 교역품이 이미 南蠻産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도 북쪽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 오로샤에서 唐(중국)으로의 통로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교역과 使幣(使者와 贈物)가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唐物(중국 물품)은 베이징으로부터 많이 운반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들 사이의 거래이기에 가격은 싸다. ㉒ 오로샤와 일본의 교역이 개시되면, 네덜란드의 나가사키 교역은 쇠퇴할 것이다. 각종의 뜬소문을 퍼뜨리는 네덜란드의 속내는 오로샤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³⁰⁾

28) 각주 18)번 참조.

29)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앞의 책, 31~32쪽;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53~54쪽.

30)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앞의 책, 32~33쪽;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54~56쪽.

즉, 밑줄 ㉔부분을 보면, 전술한 베노후스키의 풍설을 입수한 네덜란드 상관이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음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 러시아와 무역을 하게 되면 네덜란드의 흥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온갖 ‘잡설’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風説書』에는 “류스國(러시아)에서 군선 25척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국으로부터 넘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올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먼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風聞입니다만, 보고합니다.”³¹⁾라고 막부에 알리고 있었다.

또한 밑줄 ㉕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와 일본이 교역을 하게 되면 네덜란드의 일본 무역은 쇠퇴할 것이며,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일본이 러시아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이러한 구도의 인식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7세기 중후반부터 네덜란드는 세이론·반다·말라카·타이·바타비아·솔론 섬 등의 상관에서 모두 무역 결손상태로 나가사키의 상관에서 얻는 이익에 의해 그 결손을 보충하고 있었다고 말해질 정도였고,³²⁾ 18세기에 들어와서는 해상패권을 영국에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제 지역 무역 상관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이후, 1795년 프랑스에 의한 본국 점령, 1799년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VOC] 해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구도의 러시아 남진의 위기의식에서 군사적 위기의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러시아의 무역진출에 대한 위기감의 발현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에조치에서 통상의 상대가 ‘시마에비스’(島えびす, 섬의 야만인으로 蝦夷를 말함)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러시아와 같은 대국이라면 방치해둘 수만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부터도 확인된다.

31) 『和蘭風説書集成(下)』, 앞의 책, 62쪽. “リュス國ニ而軍船貳拾五艘程用意有之候儀, 本國より申越候, 尤何方江參候哉之儀は相知不申候得共, 遠國江差越候儀とは相聞申候由, 風聞仕候段申越候.”

32) 永積昭, 1971, 『オランダ東インド會社』, 近藤出版社, 112쪽.

[사료 3]

㉑ (러시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두려운 나라이며, 어떤 문제로 발전해 나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인을 撫育하고 언어를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한뼨고로가 해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세에 대한 조사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대로 방치해둘 수만은 없다. 아무쪼록 교역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㉒ 나의 말에 잘못된 점이 없다면 북쪽의 교역로 한 곳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비밀리에 숨어서 행하고 있어서는 언제까지나 음지의 성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누케니(拔荷, 일종의 밀무역)의 상황은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누케니 방지책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한편, 교역 통로를 개설했을 경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생각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要害를 선택해 설치하고, 둘째로는 누케니를 禁制하는 것이다. ㉓ 지금 이대로의 방임 상태로는 더욱더 누케니가 능숙해질 것이다. 정식 교역의 허가야말로 가장 좋은 대책이다. 人情, 풍토도 알려져 있고, 그것에 맞추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³³⁾

위의 밑줄 ㉑에서 러시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두려운 나라로서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며, 이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러시아가 해상에서 지세를 조사하는 등의 사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도 자신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또한 이러한 북방의 위기감을 러시아와의 교역에 의해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교역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 ㉒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쪽, 즉 아카에조와의 교역을 위한 교역로의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당시에 에조치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던 러·일 간의 누케니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했다. 때문에 밑줄 ㉓에서 “정식 교역의 허가야말로 가장 좋은 대책이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이다.

33)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앞의 책, 33~34쪽;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58~61쪽.

2_ 『赤蝦夷風説考』의 蝦夷地 개발안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아카에조, 즉 러시아에 대한 구도의 견해는 러시아가 에조치에 내항해온 이유가 무역 때문이며, 누케니를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에조치를 개척하여 러시아와 교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러시아와의 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본의 경제적 이익, 나아가서는 러시아 무역진출로 인한 에조치의 장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에조치에 대한 개발을 주장하였다. 구도의 에조치 개발론의 가장 중요한 논점 두 가지는 에조치의 금·은·동 광산개발과 러시아와의 교역에 따른 대응책(누케니 방지)인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약간 길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사료 4]

㉑ (에조치에) 금은동이 있다고 한다면 채굴해서 오로샤(러시아)와 교역을 행하고, 상당한 이윤이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흥산(興産)의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자세하게 말하면, 오로샤에서 오는 産物과 藥種은 에조치의 금은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윤택하게 한다. 또한, 唐(중국)과 紅毛(네덜란드)와의 교역은 오로샤의 일본과의 통상에 의해 자극받고 경쟁에 의해 싼 가격을 초래할 것이며, 거기에다 나가사키를 경유한 銅도 그다지 일본에서 유출하지 않아도 괜찮다. …… ㉒ 만약에 오로샤 교역의 통로가 개설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조치의 금은동으로 唐·紅毛의 교역에 충당한다면 國益이 될 것이다. 출비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버려둘 장소는 아니다. 언제든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략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오로샤가 대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 통상을 안 한다는 이치는 있을 수 없다. 잘 조사하지 않으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없고 안심도 이룰 수 없다. 宗門의 조사도 마찬가지로 조사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 ㉓ 그런데 조사한 후에는 奉行 담당제도로서 매년 교대제를 취해야만 한다. 교역의 경우도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㉔ 지금까지의 대로라고 한다면 매년 누케니는 늘어날 것이다. 아무튼 매년 오로샤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이

익을 좋아하는 것이 人情이기 때문에 누케니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에조구치(蝦夷口)에서의 누케니는 금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마쓰마에 지역에만 지시해서는 멀리까지 이르지 않는다. 여러 나라로부터 마쓰마에 산물의 매입 상인이 모이고, 누케니에 의한 판매는 여러 곳에서도 가능하다. 동해의 해로를 기억해 류큐(琉球)와 교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문제가 많으며 알기 어렵다. 紅毛書를 생각해 본다면, 오로샤가 일본교역을 선호하는 것은 수십 년 이전부터의 일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역을 실시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봉행을 배치하여 지배하지 않으면 누케니 금제는 실현되지 않는다. 좋은 기회로서 우선 에조의 산출품을 조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㉔ 에조지産의 금은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약종 등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매년 나가사키로부터 수출하고 있는 銅을 줄이고 또한 누케니 금제의 법령이 두루 미친다면, 수십 년 안에 나라가 부유하게 될 것은 손바닥을 보듯이 명확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는 나라의 힘을 쌓는 것에 있다. 국력을 두텁게 하는 것에는 외국의 귀중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이다. 금은동과 같은 귀중한 것을 일본으로 수출하도록 한다면 외국은 대단히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상당히 그러한 마음가짐에는 공색하며, 실현까지는 마음고생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을 늘리는 것은 에조치에 金山을 열고 산출물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광산채굴업자들이 말하는 바이지만, 투자와 생산고가 맞지 않아 쇠퇴해 갔다. 전술한 오로샤 교역이 실현된다면, 지금만큼의 힘을 가지고서도 개발이 가능하다. ㉕ 개발과 교역의 힘을 빌려 에조 一國에 대책을 세운다면 금은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물 전부가 우리나라의 需用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위의 교역 장소는 에조치만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가사키를 시작으로 모든 요해지, 좋은 항구에서 받아들여도 좋다.³⁴⁾

이 글에서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위의 [사료 4]의 앞부분 기술에서는 에조

34)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앞의 책, 35~36쪽;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58~61쪽.

치에 '砂金'이 많이 있고, 구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부친이 金山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료 4]의 밑줄 ㉔와 ㉕에서는 만약에 에조치에서 금·은·동이 산출되어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이윤이 많이 생긴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개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욱이 에조치의 금·은·동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産物과 藥種과 교환할 수 있고, 이러한 러시아와의 교역은 나가사키에서의 중국과 네덜란드에 가격경쟁을 일으켜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나가사키에서 銅의 유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18세기 중엽부터 최대의 수출품이었던 銅 생산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銅 생산의 감소에 따라 당해 연도의 무역량이 감소하는 사태까지 발생³⁵⁾하고 있었기 때문에 銅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의도가 구도에게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가사키에서와 같은 奉行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밑줄 ㉖), 이는 후술하겠지만 1793년 막부가 에조치에 나가사키 奉行과 같은 北國郡代의 설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구적인 견해였다. 또한 밑줄 ㉗에서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에조치 산출의 금·은·동을 중국과 네덜란드의 무역에 충당하면 국익이 되며, 일본이 부국을 이루기 위해서 에조치의 금·은·동 개발보다 더 뛰어난 책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밑줄 ㉘의 내용을 포함해 구도의 주장이 나가사키에서의 무역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에조치 개발론으로서 일본 국내의 대외무역의 발전과 국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 일본 부국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렇게 금·은·동을 개발하려는 목적에는 에조치에서 벌어지는 누케니의 방지도 있었음을 밑줄 ㉙와 ㉚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즉, 에조치에서 지금까지의 누케니 문제를 거론하여 마쓰마에 한정하지 않고 에조치 각 곳에 봉행을 두어 누케니에 대한 금령의 확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케니에 의해 일본의 부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35) 윤병남, 2007, 『구리와 사무라이-아키타번을 통해 본 일본의 근세』, 소나무, 240~242쪽.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밑줄 ㉑에서 개발과 교역에 의해서 예조치 대책을 세운다면, 예조치의 금·은·동만이 아니라, 모든 산물이 일본에는 필요한 물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예조치의 금·은·동 개발과 산물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지만, ‘예조치 一國’과 ‘우리나라(원문: 我國)’인 일본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구도에게 예조치는 일본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고 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은·동 광산을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구도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도의 예조치 개발론에서 침략적 성격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의 예조치에 대한 인식은 『赤蝦夷風說考』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명확해진다.

[자료 5]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의 국력을 늘리는 것은 예조치에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㉒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가무사스카(캄차카)의 사람들이 예조치와 하나가 되어 예조치가 오로샤(러시아)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변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여러 가지의 풍설이 유행하고 있다. ㉓ 그것을 들으면 동북 예조치 쪽에서는 점점 오로샤에 순종하여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실정으로 일단 오로샤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힘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상황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이 없다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국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예조치 대책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주의해야 한다. 그 어떠한 國益策이라 하더라도 국내적 상황만으로 수단을 궁리하는 것에 그친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 나의 비평의 말은 여기에서 그치겠다. 다만 1천 량, 2천 량의 산출고로는 1년의 교역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唐과 紅毛의 교역과 비교해 생각해 두어야 한다. 게다가 ㉔ 예조치 金山의 채굴 방법, 즉 채광부 고용이라든가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의 금산과는 사정이 다르다. 예조치에서는 금은이 통용되지 않는다. 쌀, 술, 소금, 담배 등의 종류만 선호하기 때문에 금은을 중시하지

않는다. 광산에서 일하는 보수도 마찬가지로 현지의 에조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는 다르다. 임금으로는 모두 다와라모노[倭物]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金과 銀은 필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出資가 겹쳐져도 산출고를 가지고 교역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³⁶⁾

즉, 밑줄 ㉔에서는 에조치를 그대로 두면 일본은 지배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에조치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에조치 개발안에 대한 빠른 시행을 제안하고 있으며, 밑줄 ㉕에서는 동북 에조치는 러시아를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힘이 미치지 못해 에조치에 대한 일본의 권익조차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일본의 국력증강을 위해서 에조치에서의 통상과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 밑줄 ㉖에서는 에조치 금산의 채굴방법, 광부의 고용, 임금의 산정방식이 일본 내의 방식과는 다르고, 금은도 통용되지 않으며, 광산에서의 보수도 에조치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에조치에 적합한 대책의 수립을 부언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의 북방인식과 에조치에 대한 개발안을 두 가지 점에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구도의 북방인식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현으로서 그 대책은 초지일관 러시아와의 교역추진과 그에 따른 누케니 방지이며, 둘째는 러시아의 무역진출에 의해 에조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에조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에조치의 금은동 광산개발을 통해 일본의 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식민적인 동시에 침략적 성격의 개발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6)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앞의 책, 36~37쪽;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61~62쪽.

Ⅲ. 幕府의 『赤蝦夷風説考』 수용과 蝦夷地 이주 개발안

1_ 幕府의 『赤蝦夷風説考』 수용

앞에서 살펴본 구도의 에조치에 대한 견해는 당시 막부의 실권자로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老中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의 중상주의적인 정치지향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쉬웠으며,³⁷⁾ 더욱이 재정 확충을 위해 광산개발에 적극적이었고, 해외의 금·은화폐를 중심으로 외화획득에 열심이었던 다누마 정권의 경제정책³⁸⁾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었다. 여기에 1785년 9월 하야시 시헤이가 『三國通覽圖説』³⁹⁾을 저술하여 에조치에 대한 영토권 확보와 에조치 개발론을 주장하면서 다누마의 에조치 개발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한 막부 인식의 변화는 에조치 탐험대의 조직과 파견으로 실현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寺社奉行이었던 요도번[澁藩]의 번주 이나바 마사아키[稻葉正

37) 菊池勇夫, 1995, 「海方と北方問題」, 『岩波講座 日本通史-近世4』 14, 岩波書店, 227쪽. 한편, 구도의 딸 다다노 마쿠주[只野真葛]가 저술한 『むかしはなし』의 내용을 근거로 『赤蝦夷風説考』는 로주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의 수하인 미우라 소지[三浦莊二]의 의뢰를 받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견해(門玲子, 앞의 책, 第一章 참조)와 마찬가지로 『むかしはなし』에 수록된 구도와 미우라 소지의 대화 내용(“いざさらば其あらまし主人[田沼]へ申上度し, 一書にさせていただかれよといひし故, 父様書て出されしを, 随分うけもよく感心有て, 其奉行に父様をなさんといひしとぞ”)을 근거로 다누마의 직접 명령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견해(井上隆明, 앞의 책, 17~18쪽)가 있음을 밝혀 둔다.

38) 關根徳男, 1999, 『田沼の改革-江戸時代最大の經濟改革』, 鬱朋社, 제4장 「田沼の改革」 참조.

39)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巻)』, 앞의 책, 74~78쪽. 하야시 시헤이가 주장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一. 에조치에는 금산이 많은데, 에조인(아이누)들은 채굴할 줄 모르고, 또 사금도 많이 있음에도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며, 지금 채굴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채굴할 것이니 이 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一. 구마이시(熊石, 현재는 후타미[二海]郡 야쿠모조[八雲町]의 서부 지역)를 국경으로 하는 것은 에조를 외국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에조의 제일 북쪽의 소야[宗谷]와 시라누시[白土]로서 국경의 끝으로 삼는 것은 에조고쿠[蝦夷國]를 일본의 영토로 보는 식견이다.”

諫]의 가신인 미야카와 도메[宮川留]가 작성한 『蝦夷地一件』⁴⁰⁾에 그 전모가 밝혀져 있다. 요도번의 이나바 씨[稻葉氏]가 이것을 작성한 것은 이나바 씨의 分家が 將軍과 老中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한(お側御用取次役) 이나바 마사아키[稻葉正明]로서 정보에 통달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⁴¹⁾ 아무튼 『蝦夷地一件』은 당시에는 극비문서로서 『赤蝦夷風說考』로 시작된 탐험대의 조직, 북방조사, 러시아인, 山丹人(아무르 강 하류 부근에 거주하는 오로차족)과의 대화, 교역의 실정, 간세[寬政]개혁에 의한 탐험의 증지령과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개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사료로서 특히 구도의 제안이 막부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구도의 『赤蝦夷風說考』는 어떻게 막부에 전해지게 되었는지부터 『蝦夷地一件』을 토대로 살펴보겠다.

[사료 6]

구도 헤이스케[工藤平助]라는 사람의 저작 『赤蝦夷風說考』를 일람했던 바, 에조치[蝦夷]의 동북쪽에 아카에조[赤蝦夷]라고 칭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 집필자 구도 헤이스케는 任官의 몸이지만, 의사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㉓ 『風說考』를 읽고 난 후에 구도를 만나서 작성되어 있는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에조치에 상세하고 마쓰마에[松前]에 알고 지내는 친구도 있어 이러한 관계로 에조치의 사정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도 헤이스케의 마쓰마에 정보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지난해부터 마쓰마에의 누케니 문제에 대한 풍문을 조사하고, 단속법을 검토하기 위해, 또 金山 등의 산물조사를 위해 우선 公儀禦普請役이라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㉔ 마침 그때 『赤蝦夷風說考』가 작성되어 저자인 구도 헤이스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에 의하

40) 『蝦夷地一件』(全5册,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 청구번호: 0178~0184). 한편 출판본으로는 『新北海道史(第7卷-史料 1)』(北海道, 1969)와 전술한 이노우에 다카아키[井上隆明]의 『赤蝦夷風說考』(앞의 책)의 부록으로서 『蝦夷地一件』의 일부 사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新北海道史(第7卷-史料 1)』를 이용했다.

41)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46쪽.

면, 에조치에 대한 見分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은밀하게 사람을 에조치에 파견하여 風聞風說의 종류를 조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㉔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구도 헤이스케를 만나 『風說考』의 내용에 조사를 거듭해 마쓰마에 시마노카미[志摩守公廣]의 계라이[家來]를 저의 집으로 불러서 내밀하게 사정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쓰마에 시마노카미 쪽에서 公儀[막부]에 진언하는 형태를 취하여 금은산의 개발, 러시아 교역을 公儀 조사라는 명목으로 내걸고, 새롭게 公儀가 “마쓰마에번 [松前藩]의 단독행동은 삼가도록”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마쓰마에 시마노카미 계라이를 불러들여 마쓰마에번의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선 문의 드립니다. 甲辰(1784) 5月⁴²⁾

위의 [사료 6]은 당시 다누마 권력의 핵심이었던 勘定奉行 마쓰모토 이즈노카미[松本伊豆守: 松本秀持]⁴³⁾가 1784년 5월 16일 다누마 루주에게 보낸 서한으로 밑줄 ㉔로부터 마쓰모토가 먼저 『赤蝦夷風說考』를 보고나서 구도에게 에조치의 사정 청취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밑줄 ㉕에서는 구도로부터 에조치에 대한 사정을 듣고 나서 에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見分]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이미 사람을 에조치에 파견하여 風聞·風說을 조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밑줄 ㉖에서는 구도를 다시 만나 『赤蝦

42) 『蝦夷地一件』, 赤蝦夷之儀に付申上候書付(『新北海道史(第7卷-史料 1)』, 273~275쪽).

43) 윤병남은 다누마 시기의 勘定奉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勘定奉行은) 막부 재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전문성으로 인해 막부의 위계질서를 뛰어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윤병남, 앞의 책, 249쪽)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마쓰모토 역시 다누마 정권에서 출세한 최고의 브레인 중 한 명이었으며, 당시 막부의 중요 정책 결정을 비롯해 에조치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이 마쓰모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었다. 쓰지 젠노스케[辻善之助]는 마쓰모토에 대해서 “재정에는 상당한 수완이 있어 다누마의 재정계획을 떠맡치고 있었으며, 다누마의 정책은 마쓰모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辻善之助, 1980, 『田沼時代』, 岩波文庫, 263~264쪽)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막부 내부에서 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夷風説考』의 내용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마쓰마에번의 가신을 소환해 사정을 들어야만 하고, 에조치의 금·은산 개발과 러시아 교역에 대한 조사는 마쓰마에번의 요청에 의한 형식을 따르되 마쓰마에번의 단독행동은 삼가라는 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5월 23일 다누마에 의해 받아들여졌는데, [자료 6]에서 알 수 있듯이 마쓰모토가 다누마에게 진언한 것은 구도가 『赤蝦夷風説考』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은산의 개발, 러시아 교역에 대한 문제는 구도가 주장한 것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밑줄 ⑥의 기술에서 마쓰모토에게 에조치에 대한 조사를 명령받은 사람은 勘定組頭 쓰치야마 소지로[土山宗次郎]로서 『蝦夷地一件』에 의하면, 조사보고서⁴⁴⁾를 그해의 5월에 제출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록이 없지만 5월 23일 조사지시를 받고 즉시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에조치 문제는 중요문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에조치의 자연환경과 마쓰마에의 주변 지리, 에조치의 항구 및 계절별 생산물, 에조치의 산업과 각 지역 간의 교역상황, 금은동 광산의 상황, 마쓰마에번의 재정 상태, 러시아와의 관계, 에조의 생활과 에조에 대한 평가 등으로 당시 에도에 있던 마쓰마에번의 게라이 미나토 겐자 에몬[湊源左衛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중심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에조, 즉 아이누에 대한 쓰치야마의 다음과 같은 평가인데, “에조[蝦夷]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문자도 없어, 일본의 通詞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태도는 좋은데, 그만큼 일본인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어쨌든 그럴듯한 논리에 에조는 매번 패하고 있으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길 때가 없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지고 있습니다. 교역에서도 그러합니다. 장사로 다투어 생겨도 끝에는 일본인에게 속아 넘어가 물품을 많이 내줘버립니다. 교역의 가격도 이렇다 할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꼬챙이 하나에 연어 5마리를 묶어 거래를 합니다. 술에는 물

44) 『蝦夷地一件』, 松前并蝦夷地之竝儀に付及承候趣申上候書付(『新北海道史(第7卷-史料1)』, 275~279쪽).

반을 섞어 그들에게 넘깁니다. 그것도 2升(1.8ℓ) 들어가는 나무통으로 연어 10묵음도 구할 수 있는데, 1묵음은 연어 20마리입니다.”⁴⁵⁾라고 하여 예조에 대한 멸시관과 함께 일본과 아이누 간 교역에서의 불평등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쓰모토는 마쓰마에번에 직접 조사를 지시하고, 또 6월이 되어서는 마쓰마에번의 번사 등을 불러들여 조사를 지시하기는 했지만, 명확한 조사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1784년 10월에 마쓰모토는 구도가 제안한 에조치에서의 러시아 무역과 금은동 광산의 개발을 위해 조사단의 파견을 로주 다누마에게 건의하였고, 다누마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 ‘에조치 조사탐험대’(見分隊)의 파견이 결정되었다.⁴⁶⁾

『蝦夷地一件』에는 ‘조사탐험대’의 결정에 따라 조사용 선박의 제조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785년 5월 2일자 기록에 의하면, 이세[伊勢]에서 回船 2척, 飛船 2척, 舢舨 2척이 만들어져 시나가와[品川]에 입항하였고, 설계도안대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하여 그 상황을 막부(로주에게)에 보고하고 있으며,⁴⁷⁾ 동시에 ‘조사탐험대’의 선박에 실린 선적물에 대한 매입을 완료해 4월 29일 시나가와를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막부에 보고되고 있다.⁴⁸⁾

이 대규모의 ‘에조치 조사탐험대’는 1785년 4월 29일에 출항하여 1786년 10월 28일 간세개혁에 의한 정변으로 탐험이 중지되어 1787년 1월에 ‘조사탐험대’가 에도로 귀항하기까지 약 20개월에 걸친 대조사였다. ‘조사탐험대’의 성과와 기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탐험대 기록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蝦夷拾遺』⁴⁹⁾에 상세히 남아 있는데, 사토 유키노부[佐藤行信]가 작성한 서문에 의하

45) 상동.

46) 井上隆明, 1997, 앞의 책, 18~19쪽.

47) 『蝦夷地一件』, 蝦夷地見分に付新作廻船出來形之儀申上候書付(『新北海道史(第7卷-史料1)』, 321~322쪽).

48) 『蝦夷地一件』, 蝦夷地見分に付回船之積入候荷物并出帆之儀申上候書付(『新北海道史(第7卷-史料1)』, 322~323쪽).

49) 많은 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노우에 다카아키에 의하면, 佐藤玄六郎本이 東京大學 総合圖書館, 江別市 北海道立圖書館, 能代市 花園町 三ノ八照井良彦 등의 소장본이 있다고 하며(井上隆明, 앞의 책, 45쪽), 이 외에도 北海道大學圖書館에 『蝦夷拾遺』와 『蝦夷拾遺補遺』, 秋田縣立圖書館에 『蝦夷拾遺附言』, 早稻田大學

면 조사대에는 본인을 비롯해 야마구치 다카시나[山口高品], 이하라 노리가타 [庵原宣方], 미나가와 히데미치[皆川秀道], 아오시마 노리오키[靑島軌起]가 참가하고 있었으며, 『蝦夷地一件』 등의 기록에 보면 『蝦夷草紙』를 저술한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蝦夷拾遺』에 의하면 조사 내용은 에조치의 주민과 거주지 및 지리(元之卷·亨之卷의 地理大概[上下]), 에조치의 인물과 생산품(利之卷), 에조치에 관한 雜説과 더불어 에조의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언어학적인 조사(貞之卷), 아카히도(赤人, ‘赤蝦夷’라고도 표기하며 러시아인)에 대한 諸説과 에조치와의 관계 및 러시아의 종교(러시아 정교)·山丹人에 대한 설(別之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에조치 탐험대’는 일련의 조사를 마치고, 1785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마쓰마에에 머물게 되었는데, 사토 유키노부만은 탐험대의 중간보고를 위해 12월에 에도를 출발하였다. 곧이어 중간보고서는 1786년 2월에 에도에서 勘定奉行 구와바라 모리카즈[桑原盛員]에게 보고되었고,⁵⁰⁾ 이어 다누마 로주에게도 보고되고 있었다. 그 후 사토는 다시 에조치로 출발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사토 유키노부가 기존의 에조치 개발론에서 벗어나 본토의 인적 자원과 결부된 새로운 시각에서의 개발론을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본토에 있는 에타[穢多]와 히닌[非人]이라는 천민들의 이주에 의해 에조치를 개간시킨다는 놀랄 만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다.

圖書館에 『蝦夷拾遺』라는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인터넷상에서도 원문의 열람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노우에 다카야키의 『赤蝦夷風説考』에 권말로 전문이 수록된 『蝦夷拾遺』를 참조했다.

- 50) 원래는 마쓰모토 勘定奉行에게 보고되어야 했으나, 勘定奉行의 실무에서 떠나 있었으며, 閏10월 3일자로 면직되었다고 한다. 이노우에 다카야키[井上隆明]에 의하면, 이미 寬政改革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며, 에조치 문제도 마쓰모토에서 구와노로 이관되었다고 한다(井上隆明, 1979, 앞의 책, 287쪽, 각주 2번 참조).

[사료 7]

- ㉠ 에조치는 주위 700리, 면적 1,166만 4천 정보입니다. 이 정도로 늘리고 있는 토지가 있고, 사람도 적어 식량이 부족합니다. 1할을 개간하더라도 전답지 116만 6천 4백 정보가 될 것이다. 1反 5^門의 수확을 예상하면,⁵¹⁾ 583만 3천 석이 가능하다. ㉡ 아사쿠사[淺草] 이마도[今戸]의 에타카시라[穢多頭] 단자에몬[彈左衛門]⁵²⁾에게 자문해보니 수하의 3만 3천 명 중에서 7천 명을 이주시킬 수 있으며, 전국의 에타[穢多]·히닌[非人] 23만 명 중에서 6만 3천 명을 이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때에는 히닌과 에타의 차별을 해소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에 의해 에조치는 關東과 동등한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⁵³⁾

위에서 확인이 되듯이 당시의 규모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이주민 계획에 의한 에조치 개발안이다. 밑줄 ㉠에서 에조치가 넓으며 더욱이 개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할만 개간해도 583만 3천 석의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도시대 1697년도의 생산량이 약 2,709만 석이고 1829년에는 약 3,055만 석이었다는 것⁵⁴⁾을 감안하면 약 5분의 1의 생산량을 에조치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는 많지만, 사람이 적어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밑줄 ㉡에서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에타와 히닌이라는 본토에 거주하는 피차별민을 이주시켜 개간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단

51) 에도시대의 면적 환산율은 1町=10段(反), 1段=260步, 大=240步, 半=180步, 小=120步, 1步=方1間=方6尺.

52) 단자에몬[彈左衛門]은 에도시대 피차별민이었던 에타[穢多]·히닌[非人] 신분의 두령이었다. 일반적으로 막부 측의 호칭으로서 에타카시라[穢多頭]라고 하며, 스스로는 조리카시라[長吏頭] 야노 단자에몬[矢野彈左衛門]이라고 칭하였고, 아사쿠사[淺草]를 본거지로 했기 때문에 아사쿠사 단자에몬[淺草彈左衛門]이라고도 한다. 막부로부터 간헐슈(關八州, 水戸藩·喜連川藩·日光神領 등을 제외), 이즈[伊豆] 전역 및 가이 쓰루군[甲斐 都留郡]·수루가 순토군[駿河 駿東郡]·무쓰 시라카와군[陸奥 白川郡]·미카와 시타라군[三河設樂郡]의 일부 피차별민을 통괄하는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전국의 피차별민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鹽見鮮一郎, 2008, 『彈左衛門とその時代』, 河出書房新社, 22~59쪽].

53) 『蝦夷地一件』, 赤蝦夷之儀に付申上候書付(『新北海道史(第7卷-史料1)』, 329~331쪽).

54) 『日本大百科全書』, 1994, 小學館, '江戸時代' 항목.

자에몬 수하의 7천 명만의 이주가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에타와 히닌 23만 명 중에서 6만 3천 명을 이주시킨다는 대규모 이동이었다. 또한, 사토는 이것이 실행된다면, 밑줄 ㉔에 보이는 바와 같이 히닌과 에타의 차별성을 해소시키고, 에조치를 關東과 마찬가지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제언을 상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말과 근현대 일본에 들어와서도 에타와 히닌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근대 이후 일본정부와 홋카이도에 이주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아이누인들이 지금까지도 차별 아닌 차별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과연 사토의 생각처럼 에조치 개발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다. 실제로 에타와 히닌류는 아니지만, 1799년 에조치가 막부의 직할령이 된 이후 ‘八王子千人同心’이라는 무사시노쿠니[武藏國] 다마군[多摩郡, 현 八王子市]에 배치된 郷士 집단이 막부에 소청하여 두령이었던 하라 한자에몬[原半左衛門]을 대장으로 삼아 同心子弟 100명을 수반하고 1800년에 에조치의 시라누카[白糠]와 유후쓰[勇拂]로 이주해 개발에 착수했으나, 병자와 사망자의 속출로 4년 만에 중지된 史實이 존재한다.⁵⁵⁾ 이를 볼 때, 사토의 위와 같은 에조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에조치 개발론을 평가하자면, 에조치에 대한 멸시와 증속론적인 북방인식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아무튼 사토의 에조치 개발안에 대해서 다누미는 2월 14일에 승인을 하였고, 사토는 자신의 개발안 실현을 위해 다시 에조치로 출발하여 5월 22일에는 마쓰마에번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토인 이주계획은 마쓰다이러 사다노부[松平定信]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에조치 조사탐험대’의 중지와 함께 실패로 끝나버렸고, 구도의 『赤蝦夷風説考』에서 제안했던 에조치에서의 러시아 교역 추진과 에조치 개발은 모두 백지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제4장에서 살

55) 吉岡孝, 2002, 『八王子千人同心(同成社江戸時代史叢書)』, 同成社, 76~77쪽; 菊池新一, 1966, 「北海道屯田兵制度の先驅的類型-八王子千人同心の移住を中心として」, 『經濟論集』 4, 大東文化大學經濟學會, 참조. ‘八王子千人同心’은 막부의 직제하에 편입되어 무사시[武藏]와 가이[甲斐]의 국경 경비와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 ‘千人同心’을 무사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정착되고 있다.

펴보도록 하겠다.

2_ 蝦夷地 이주 개발안의 본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서 사토의 본토인 이주에 의한 에조치 개발론 이후, 당시 지식인들에 의해 에조치 이주 개발론이 본토의 문제해결, 즉 본토의 범죄자들을 이용한 개발론으로 전개되면서 일본역사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의 이주 개발론을 살펴보면, 혼다는 1791년 1월에 『蝦夷動靜』(엄밀하게는「赤人日本國へ漂著に擬へ近年繁々渡來するに謂ある事」)을 저술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료 8]

㉑ 에조치의 諸嶋도 모두 北極 고도 40여 도의 땅이고, 쌀과 여러 토산물이 풍요로운 最良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착민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토착민을 증식하면 개발도 자연히 성취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일본 안에 있는 도적, 또는 법도를 어기는 등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 모두의 목숨을 살리고, 그 다음으로 가벼운 죄인도 모두 (에조치로) 보내서 어렵 또는 경작을 하여 생계를 유지케 해야 한다. 원래 목숨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몸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개발도 이룰 수 있고, 이국과 일본의 경계도 세울 수 있어 국가 鎮護의 토대를 여는 데에 가장 뛰어나고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 죽는 자도, 쓸모없는 자도 구원을 받아 커다란 자비가 되며, 커다란 國益이 될 것이다. 소중한 국민이고, 1인이라도 버리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㉒ 특별한 중죄인 이외에는 모두 에조의 토착 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제도를 세운다면, 일본의 악당도 적어질 것이고, 자연히 악풍습도 점점 고쳐져서 받도둑, 강도, 노상강도도 적어질 것이다. …… 지금 諸國에 강도가 배회하고, 여러 구니[國]를 돌아다니며 부자의 백성과 조닌[町人]·사원 등을 노리고 야밤중에 많은 세력을 이끌고 와서 가족들을 모두 묶어버리고, 몸값으로 金銀·長材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기에 이르렀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떠돌이 도둑이라고 한다. ㉓ 이

들을 모두 붙잡아 에조치에 보내 버리면 일본 良民의 폐해도 피하게 되어 안도를 얻을 것이다. ④ 또한 에조치에서는 지금도 金銀錢의 통용이 없고 의류와 기저재도 부족하며, 토착민이 적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악당도 반드시 自業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서민도 증가하고 개발도 이룰 수 있어 커다란 國益이 된다.⁵⁶⁾

위의 밑줄 ㉔에서 혼다는 에조치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본토민의 이주에 의한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본토의 도적이나 법도를 어긴 사형수 등의 죄인, 경범죄자들이었으며, 이들을 이용해 에조치의 개발과 함께 일본의 방비에 이용한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자비인 동시에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죄인이 에조치에서 토착하여 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일본 본토의 악당들, 즉 밤도둑과 강도 등이 줄어들어 일본 良民들이 안도할 것이라는 견해이다(밑줄 ㉔㉕). 또한 에조치에는 금·은 화폐의 유통이 없고 토착민의 수도 적어 상기의 죄인

56)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앞의 책, 128~129쪽. “蝦夷諸嶋も皆北極高四十餘度の土地なれば, 米穀・諸土産豊饒の最良國となさんには, 土人を増殖するにあり. 土人を増殖すれば開發も自然と成就するは瞭かなり. 依って日本國中の盜人或は法度を犯したるなどの死刑に處すべき罪人を悉く助命せしめ, その次の輕き罪人も悉く送り遣したらば, 或は漁獵をし或は耕作をして生計を保つべけれ. もとより助命を蒙りたる躬なればなり. 自然と開發も成就し, 異國と日本の境界も立て, 國家鎮護の基を聞かば, 拔群の大功ならずや. さすれば斬する人, 廢する人もともに救れて, 大なる慈仁になり, 大なる國益になるなり. 大切の國民なれば, 一人にでも 廢るは惜き者なれば, 格別の重き罪人の外は, 悉く蝦夷土地の庶民たるべきとの禦制度禦建立あらば, 日本の惡黨も薄くなり, 自然と惡風俗も漸々直り, 夜盜・強盜・追剝も薄くなるべし. …… 今既に諸國に強盜徘徊し, 國々を渡り巡り, 豪富なる百姓・町人・寺院等をねらひ, 夜中深更に及び大勢押し來て, 家内の者を悉く縛縊し, 身上限の金銀長財を奪取り, 多くの人を惱み煩せしむるに至る. 世俗是を渡り盜人といふ. 此者どもをも悉く召捕て, 蝦夷土地へ送り遣したらば, 日本の良民災害も遁て安堵を得べし. 又かの惡黨も蝦夷土地にいまだ金銀錢の通用なく, 衣類器財も乏く, 土人少ければ惡事を働くべき様なくして, 是非とも自業を勤め守り, 生計を勵みつくすべし. さすれば庶民も増殖し, 開發も成就して大なる國益なり.”

들이 범죄행위를 할 수 없어서 자연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에조치를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리 하자면, 혼다의 주장은 본토 죄인들의 에조치 이주는 에조치의 개발, 북방의 경비, 일본 본토의 범죄해결이라는 3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개발론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토의 본토 천민계층을 이용한 에조치 개발론에서 혼다에 의해 본토의 범죄자들을 이용한 개발론으로 변화되면서 에조치 문제는 본토의 내부적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도 인식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에조치 개발론은 미토번[水戸藩]의 제9대 藩主이며 15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의 친부이기도 했던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가 저술한 「北方未來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異國船打拂술이 실행되고 있었음에도 러시아의 남진이 극심화되는 상황 아래 나리아키는 북방 방비와 번 재정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막부에 에조치 개발을 건의하고 있었는데, 「北方未來考」는 장래에 자신이 마쓰마에·에조 일대의 영지를 배령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토 낭인들의 에조치 이주를 가정해 1833년에 집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기술이 보이고 있다.

[자료 9]

一, 이번에 水戸殿(도쿠가와 나리아키)가 마쓰마에·에조 일대의 영지를 拜領받았는데, ㉠ 북쪽의 오랑캐를 鎮撫하는 데에 열심히 시행한 바, 인력이 부족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북쪽 오랑캐를 방어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낭인 등을 시작하여 함께 마음을 합쳐 本朝의 오랑캐 방어를 행해야만 한다. 뜻이 있는 무리들은 몇 명이든지 오는 대로 무사의 가신 신분으로 삼고, 각기 토지를 나누어줄 것이다.

一, 금일의 경영에 지장이 있어 ㉡ 신분이 낮은 자들이라도 북쪽의 땅에 오면 토지를 주고 각기 직업을 배정해 고용할 것이다. 때문에 에도[江戸] 안에는 물론, 諸藩 모두에서 몹시 쪼들려 살 곳이 없거나 또는 거지가 되었다든지, 또는 방화와 도둑질 등을 하고, 사람들의 돈과 곡식 등을 빼앗아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쳐 결국에 그 자신이 처벌을 받을 일도 없도록,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처자까지도 같이 데려

온다면, 각기에게 토지를 나누어주어 사용케 한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浪民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⁵⁷⁾

즉, 나리아키는 ㉔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에조치를 拜領받았다는 가정하에 북쪽 오랑캐(러시아)를 진무했으나, 에조치에는 인력이 없어 개간과 러시아 방어가 힘들기에 낭인을 에조치로 불러 가신으로 고용하고 토지를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토의 낭인들을 이주시켜 에조치를 개간·개발하고 동시에 러시아 남진에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밑줄 ㉕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곤자·저지·방화자·도둑·강도 등의 범죄자 및 그 가족까지도 에조치로 이주시켜 개발에 이용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본토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자들에게 에조치의 토지를 분급해 개발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1791년 『蝦夷動靜』에서 혼다가 [사료 8]에서 주장한 본토 범죄자들을 이용한 에조치 개발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도쿠가와 나리아키에게 보이는 에조치에 대한 관심이 혼다 도시아키를 비롯한 다치하라 스이켄 [立原翠軒], 고미야마 후켄[小宮山楓軒]과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⁵⁸⁾는 것을 염두에 두면, 본토 범죄자들의 에조치 이주를 통한 개발론도 혼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57) 徳川齊昭, 1942, 『北方未來考(抄)』, 高須芳次郎編, 『水戸學大系』第五卷(水戸義公・烈公集), 水戸學大系刊行會. “一, 此の度水戸殿儀, 松前・蝦夷一圓領知に拜領致され, 北狄鎮撫の儀等厚く尊慮を蒙られ候所, 人力少くしては土地切り開き, 北狄防禦の儀も行届かせられず, 依ては浪士を初め, 共に一心を同じ本朝の禦爲夷狄防禦致すべし. 有志の輩は何人たりとも參り次第士分に召抱へ, 夫れぞれ土地相渡し申さるべき事. 一, 今日の經營に指し支へ候下々の者たりとも, 北地へ來り候はゞ土地を渡し, 夫れぞれの職業を以て召使せらるべく候. 依ては江戸内は勿論, 諸國共窮迫等にて據なく或は乞食に成り, 又は火付盜賊などいたし, 人の金穀杯を奪ひ數人へ難儀をかけ, 終に其の身も刑に相成り候様の事致さず, 經營に指し支へ候者は, 妻子迄も召し連れ來り候はゞ, 夫れぞれに土地を渡し使はせられ候事. 右の條々浪民へ觸れ候間禦意を得べき事.”

58) 桂島宣弘, 2001, 『華夷思想の解體と自他認識の變容』, 島嶼進他編, 『岩波講座近代日本の文化史(2)』, 岩波書店. 본 논문은 『自他認識の思想史』(有志舎, 2008)에 수정하여 수록.

다만,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이와 같은 견해는 「北方未來考」라는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래에 대한 구상이기는 하지만, 당시 러시아 남하가 극심화되는 에조치의 위기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으로서 나리아키가 에조치에 대한 방비와 개발안을 정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시 일본관료들의 에조치에 대한 인식의 틀을 엿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문제에 대한 해소가치로서 에조치 개발론이 진행되고 있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여기서 [사료 7], [사료 8], [사료 9]의 관련 속에서 생각해보면, 사토가 본토의 에타, 히닌이라는 천민계급을 이용해 에조치를 개발하자는 '이주 개발론'은 혼다에 의해서 본토의 범죄자들을 이용한 '이주 개발론'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도쿠가와 나리아키에 의해 범죄자만이 아닌 낭인까지도 포함시킨 '이주 개발론'으로 전개되어 당시 지식인들의 에조치 개발에 대한 기본인식으로 이주계획이 자리잡아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핍박받아 왔던 차별적 존재들과 일본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 조금 더 강조한다면 일본 사회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이용가치가 없는 자들을 이주시켜 에조치를 개발하자는 것으로, 본토의 사회문제 해결과 결부된 에조치 개발론이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에타와 히닌, 낭인과 범죄인 및 그 가족 등을 에조치로 이주시켜 이용하자는 것은 에조치 개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는 멸시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 글에서 취급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1864년에 사카모토 료마[阪本龍馬]도 낭인들을 모집해 이주시킴으로써 에조치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⁵⁹⁾ 그러나 이것 역시 실패로 끝나고 본격적인 이주가 실행되는 것은 1869년에 에조치가 홋카이도라는 명칭으로 개정된 이후, 메이지 정부의 모집과 사족단체 및 사회단체에 의한 이주였는데⁶⁰⁾ 아이러니하게도 사카모

59) 童門冬二, 2009, 『阪本龍馬に學ぶ』, 新人物往來社, 123~131쪽.

60) 武田安弘, 1979, 「明治期における北海道移住農民－檢討視角と課題」, 『地方史

토의 이주 계획은 그의 조카였던 사카모토 나오히로[阪本直寛]가 1897년에 홋카이도 개척사업을 위한 ‘北光社’라는 합자회사를 만들면서 실현되고 있다.⁶¹⁾

IV. 蝦夷地 非개발에서 再개발로—1799년 蝦夷地 幕領化까지

구도의 『赤蝦夷風説考』의 제안을 받아들여 막부가 에조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이나, 결국 이러한 에조치 개발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백지화되고 말았다. 왜 개발안이 중지되었고, 또 이후에 막부에서 에조치에 대한 어떠한 정책변화가 있었으며, 이른바 에조치에 대한 적극적 진출에 의한 幕領化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하 간단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구도의 『赤蝦夷風説考』에서 시작된 에조치 개발문제는 막부(다누마 정권)에 의해서 다대한 지원을 받으며 추진되고 있었고, ‘에조치 조사탐험대’였던 사토 유키노부[藤玄行信]가 중간보고서에서 제안한 에조치 111만 6,400 정보의 개간사업을 승인하는 등 에조치 개발은 본 궤도에 오르는 듯하였다. 그러나 1786년 8월에 10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하루[徳川家治]가 급병으로 쓰러져 20일에는 將軍의 사망설이 시중에 떠돌았고, 22일에는 다누마의 登城이

研究』29-4, 地方史研究協議會, 24~28쪽; 白井暢明, 2002, 「北海道開拓者精神史における聖園農場および武市安哉の思想の特色と意義」, 『旭川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文』33, 旭川工業高等専門學校. 참고로 관련된 연구발표문이 시라이 노부아키의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되어 있어 참조를 바람(<http://homepage3.nifty.com/nobu-shirai/sub38.html>).

61) 白井暢明, 2000, 「北光社'農場·阪本直寛のキリスト教的開拓者精神—北海道開拓者精神史におけるその特色と限界」, 『旭川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文』37, 旭川工業高等専門學校.

갑자기 중지되었으며, 27일에는 로주[老中] 다누마의 해임, 9월 8일에는 將軍 사망의 공포, 10월 4일에는 장례식이 거행되는 등 숨 가쁜 정변이 계속되고 있었다.⁶²⁾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 반 다누마파였던 로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가 득세하면서 다누마는 실각하여 에조치 개발계획은 중지되었고, 뒤이어 다누마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에조치에 대한 막부의 관심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즉, 동년 10월에 에조치 조사와 개발을 추진했던 勘定奉行 마쓰모토 히데모치[松本秀持], 11월에는 아카이 다다아키라[赤井忠晶]가 해임되었고, 다누마도 10월 5일자로 5만 7천 석 중에서 2만 석의 감봉, 간다바시[神田橋]에 있는 가미야시키[上屋敷]와 오사카[大阪] 구라야시키[藏屋敷]의 몰수, 에도성[江戸城]으로의 登城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⁶³⁾

또 1787년 6월에 마쓰다이라가 새로운 로주가 되면서, 건축재정과 문예부흥의 기치를 건 간세개혁과 함께 에조치에 대한 거의 모든 사안은 마쓰마에번에 위임되었으며, 동 지역에 대한 非개발정책으로 후퇴해버리고 말았다.⁶⁴⁾ 간세개혁이 정치적으로는 다누마파의 숙청, 경제적으로는 건축재정에 의한 검약과 증상주의 정책에 대한 부정, 사상적으로는 주자학만을 막부 승인의 학문으로 인정한 ‘異學의 禁’, 막부에 대한 정치비판을 금지하고 난학을 공적 기관에서 철저히 폐지한 ‘處士橫斷의 禁’ 등을 내용⁶⁵⁾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며 동시에 다누마 정권에 의해서 실시된 에조치에 대한 조사·개발 계획은 마쓰다이라 정권이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정책이었던 것이다.

다누마파에 대한 숙청은 ‘에조치 조사탐험대’에까지 미쳤다. 1786년 10월

62) 井上隆明, 1979, 앞의 책, 30쪽.

63) 辻善之助, 1980, 앞의 책, 218~255쪽; 關根徳男, 1999, 『田沼の改革－江戸時代最大の經濟改革』, 鬱朋社, 제5장 「失脚」 참조.

64) 藤田覺, 1995, 「一九世紀前の日本」, 『岩波講座 日本通史－近世5』 15, 岩波書店, 13쪽.

65) 竹内誠, 1976, 「寛政改革」, 『岩波講座 日本歴史』 12, 岩波書店, 33~35쪽 참조.

에조치 조사 중지명령이 내렸을 때에 ‘조사탐험대’는 아직도 에조치에 있었는데, 1786년 閏10월 20일에 禦普請役으로서 야마구치 다카시나[山口高品], 사토 유키노부[佐藤行信], 미나가와 히데미치[皆川秀道], 아오시마 노리오키[靑島軌起]의 명의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閏10월 3일에 사토가 구와바라 勘定奉行의 저택에 불려가 에조치 조사가 중지되었음을 확인받고 있었다.⁶⁶⁾ 그 후에 ‘조사탐험대’와 관련이 있는 거의 전원이 처벌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勘定組頭였던 쓰치야마 소지로[土山宗次郎, 土山孝之]는 공금횡령의 죄목까지 더해져 1787년 12월에 다누마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참수형에 처해졌다.⁶⁷⁾

마찬가지로 최후까지 마쓰마에에 남아 뒤처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아오시마 노리오키[靑島軌起]와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 등도 조사에서 돌아온 뒤 투옥되었다. 모가미는 혼다 도시아키의 제자로서 혼다의 탄원에 의해 석방되고 있었지만, 아오시마는 『蝦夷地一件』에 수록된 아오시마에 대한 조사보고서(1790년 7월 13일 松平定信에게 보고된 기록)를 보면, 아오시마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또 “旅宿에서 役人에게 酒興을 접대받고 동행한 사무라이 몰래 야밤중에 빠져나가 갑자기 遊女屋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를 사서 희롱하여 놀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쓰마에 役人이 알았다면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어디에 보고해야 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⁶⁸⁾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다누마 정권에 대한 숙청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아오시마의 부정도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아오시마는 사형에서 遠島 유형으로 감형되었으나 형집행 이전인 1790년 8월 17일에 병사⁶⁹⁾하여 형집행

66) 『蝦夷地一件』, 赤蝦夷之儀に付奉申上候書付(『新北海道史(第7卷-史料1)』, 403~410쪽).

67) 野口武彦, 2006, 『大江戸曲者列傳-太平の巻』, 新湖社, 106~111쪽. 쓰치야마가 가장 중죄에 처해진 이유는 에조치 개발계획의 입안자 중의 1인이었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한 낭비였다고도 한다.

68) 『蝦夷地一件』, 赤蝦夷爲禦用著遣候靑嶋俊藏不正之取計仕候一件吟味仕候趣申上候書付(『新北海道史(第7卷-史料1)』, 492~494쪽).

69) 상동. 이 기록에는 朱書로서 “아오시마는 그 후에 遠嶋의 처벌을 받았지만, 出帆

은 중지되었다. 결국, 다누마파에 대한 숙청작업과 에조치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 등으로 다누마 정권의 능동적인 에조치 개발과 진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寛政改革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789년 5월 31일에 에조치에서는 큰 봉기가 발생했다. 이른바 ‘구나시리[國後]와 메나시[目梨]의 봉기’로서 ‘구나시리·메나시의 전투’라고도 하는데, 마쓰마에번[松前藩]의 상인과 飛驒屋에서의 난폭한 거래에 불만을 가진 구나시리의 아이누가 수장 쓰키노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봉기하여 상인과 상선을 공격해 役人 1명과 番人 70명을 살해하였고, 여기에 메나시의 아이누들이 참가하면서 일본인 상인들을 공격한 사건이다.⁷⁰⁾ 마쓰마에번은 철폐와 대포로 무장한 260명의 부대를 파견했는데, 조사 결과 130명의 아이누가 살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중에서 37인을 감옥의 창살 안에서 잔인하게 처형시켰다. 일본사에서는 ‘에조소동[蝦夷騒動]’이라고도 하는데, 이 봉기는 막부에도 보고되어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기쿠치 이사오[菊池勇夫]의 연구에 의하면, 에조치 대책으로서 마쓰마에번이 책임을 지고 아이누를 복속시킬 것, 에조치의 요소에 勤奮을 둔다고 하는 ‘蝦夷地改正’을 실시했으나, 로주 마쓰다이라는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하여 1791년에는 1785~1786년 다누마 정권 때에 에조치 탐험에 참가한 모가미 도쿠나이 등에게 다시 에조치 탐험을 명하여 동쪽으로는 우루프트[得撫島], 서쪽으로는 가라후토[樺太] 서안과 에트로후토[擇捉島]까지 조사시키고 있었다.⁷¹⁾

그런데, 에조치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1792년 9월 3일 러시아

전인 寛政 2 庚戌年(1790) 8월 17일 병사하였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70) 根室市立博物館開設準備室 編, 1994, 『クナシリ・メナシの戦い』, 根室歴史研究會, 16~24쪽. 이 책에서는 구나시리의 總長人(總首長)이었던 산키치 및 산키치의 동생, 長人(首長) 마메키리의 처가 독살되었던 것이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市毛幹幸, 2006, 「18世紀末における近世國家とアイヌ社會の關係秩序—クナシリ・メナシの戦いのアイヌ位置を手掛りとして」, 『北海道・東北史研究』 3, 18~34쪽 참조.

71) 菊池勇夫, 1995, 앞의 글, 230쪽.

사절단으로서 락스만이 네무로[根室]에 와서 통교를 요구한 사건으로 나가사키항으로 입항할 수 있는 信牌를 급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막부의 입장에서는 아이누의 봉기에 러시아의 남진이라는 에조치 사태에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주었고, 그 대책안 마련에 부심케 하였다. 결국, 마쓰다이라는 에조치 방비와 대책에 대한 건의서를 1793년 1월에 將軍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에조치의 마쓰마에 위임을 원칙으로 3년 내지는 5년에 한 번 씩 ‘禦救交易’의 실시, 구나시리·우르프토 주변에 대한 불시검문, 北國郡代(또는 奉行)의 설치 등이며, 이것은 규슈[九州]에서 나가사키 奉行과 마찬가지로의 권력장치를 北國郡代라는 형태로 北日本에서 실행해 마쓰마에번을 후방에서부터 감독·지원함과 동시에 나가사키 奉行·北國郡代 라인으로 외교·무역 시스템의 강화를 모색한 것이었다.⁷²⁾ 그러나 1793년 7월에 마쓰다이라가 로주를 사직하면서 이 계획도 중지되어버렸는데, 1796년 8월 브로튼 선장이 지휘하는 영국선박 프로비던스호가 아부타[虻田]와 에토모[繪鞆]에 내항해 주변 해역을 측량한 사건을 계기로 에조치에 대한 막부의 관심은 또다시 증가되었다.

이에 막부는 에조치에 ‘松前禦用掛’를 두고 간조가타[勘定方]와 메쓰케[目付]를 파견하여 군사적인 요해지와 新田 개발을 위한 조사에 착수시키고, 곤도 주조[近藤重藏]에게는 에조치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에 곤도는 조사를 실시한 후 1798년 8월 막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에조치 대책으로서 “첫째는 에조를 禦領[幕領]으로 삼고, 둘째는 에조를 번성하게 하여 단단히 준비해야 하며, 셋째는 異國의 경계에 매우 튼튼한 城과 해자를 설치할 것도 없이 에조를 일본으로 변하게 하여 에도[江戸]의 은혜에 歸復시키는 것이 급무라고 생

72) 菊池勇夫, 1995, 앞의 글, 232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의서는 「蝦夷禦取建議」라는 제명이며, 1792년 12월 14일에 동료의 로주에게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에조의 땅은 마쓰마에[松前]에 위임시키고, 일본의 땅은 쓰가루[津輕]·남부[南部]로서 그 방비를 지키게 하며, 渡海의 장소에 奉行所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주장이었다(松平定信·松平定光 校訂, 1942, 『宇下人言 修行録』, 岩波書店, 175쪽).

각합니다.”⁷³⁾라고 하여 에조치를 幕府領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책을 상신하고 있었다.

결국, 1799년 2월에 막부는 약 200년간 마쓰마에번[松前藩]에 위임해왔던 에조치 비개밭이라는 방침에서 탈피해 히가시에조치[東蝦夷地]에 대한 7년간의 아게치레이[上知令]를 발령하여 幕領化함으로써 직할지로서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에조치 幕領化의 이유는 “에조치가 幕藩制 사회의 재생산에 불가결한 존재로 되었고, 場所請負制가 북해도 전역에 전개되어 실태로서 국가 영역화가 추진되고 있었으며, 또한 마쓰마에번만으로 북방방비를 일임시키는 것이 불가능”⁷⁴⁾했기 때문이었다. 즉, 에조치의 幕領化는 이국선 대책뿐만이 아니라, 에조치 아게치[上知]를 염두에 둔 사전조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에조치에 대한 내국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⁷⁵⁾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도 에조치의 幕領化에 대한 의의로서, “첫째, 에조치가 일본 북방의 최전선으로서 재인식되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막부의 에조치에 대한 자세가 종래의 ‘華夷主義’에서 ‘同化主義’[內國化]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 둘째, 에조치 幕領化가 동북 지방 민중에게 에조치=프론티어의 환상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이후 에조치로의 이주와 돈벌이를 위한 이동이 증가하게 되었다.”⁷⁶⁾고 평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에조치의 幕領化가 이른바 ‘내국화’로의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에조치에 대한 실질적 일본

73) 『大日本近世史料 近藤重藏蝦夷地關係史料1』(藤田覺, 앞의 글, 24쪽, 재인용). “一ニハ蝦夷を禦料[幕領]に被成, 二ニハ蝦夷振起仕候様厚く禦手當有之, 三ニハ異國境金城湯池を被置候ニも不及, 蝦夷を日本ニ變し, 江戸表之禦恩澤に歸服爲仕候義急務と奉存候” 사료 내용 중의 [] 기호는 藤田覺의 주기임.

74) 菊池勇夫, 1984, 『幕藩體制と蝦夷地』, 雄山閣, 193~196쪽.

75) 菊池勇夫, 1984, 위의 책, 238~244쪽.

76)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6~17쪽. 여기서 말하는 場所請負制는 에조치에서의 교역권을 마쓰마에의 가신들에게 일임하는 기존의 商場知行制가 정체상태에 빠지자, 상인들에게 運上金を 부과하여 ‘商場’을 청부시켰던 제도이다. 그 배경에는 나가사키 무역에서 수출 해산물 비중의 증가, 국내 상품 작물 생산을 위한 金肥 이용의 증가 등이 존재하는데, 場所請負制하에서의 아 이누는 교역의 주체에서 어로노동자로 전락하였다. 1869년에 폐기되었다.

영토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 일본 근세시기에도 막부의 침탈적이고 능동적인 영토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蝦夷地取締掛’였던 하부토 마사야스[羽太正養]가 에조치의 幕領化 목적에 대해서 “이번 에조치 禦用(幕領化)의 취지는 그 섬이 미개의 지역이고, 夷人들 모두 의식주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도 않았으며, 인륜의 道도 분별하지 못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役人을 파견하여 德化와 교육을 베풀어서 점점 일본의 풍속으로 돌아오게 하고, 두터이 복종케 하여 설령 一外國을 따르는 일 등이 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따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의 첫째입니다.”⁷⁷⁾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조치 幕領化라는 것은 아이누 멸시관에 입각한 외국방비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아이누 민족에 대한 멸시관과 에조치에 대한 ‘내국화’ 과정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금후의 과제로서 명기하고 넘어가겠다. 아무튼 막부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후 일본의 공간적 영역확대로 이어졌고, 에조치를 포함한 북방영토인식의 확대를 일본인에게 강렬하게 심어주어 근대 이후 일본의 이른바 ‘북방영토’ 문제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1799년의 에조치 幕領化는 일본의 북방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7) 北海道廳編纂, 1991, 『新撰北海道史(第5卷-史料 1)』, 清文堂, 548쪽. “今度蝦夷地禦用之禦趣意は、彼島未開の地に有之、夷人共衣食住之三も不相整、人倫之道も辨へざる儀、不便之次第二付、此度禦役人被遣、禦德化及教育をたれ、漸々日本之風俗ニ歸し、厚く服從致し、萬々一外國より懷け候事など有之候とも、心底不動様存込七候儀、禦趣意之第一二候” 참고로 『休明光記』(1807)는 하부토 마사야스[羽太正養, 1754~1814]가 1799년에 ‘蝦夷地取締掛’에 임명된 이후 函館奉行·松前奉行으로서 에조치 경영의 최고 관료였던 시대의 기록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막부의 에조치 직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평가받고 있다(和田敏明, 1981, 『北方領土の幻覺』, 叢文社, 85쪽 참조).

V. 맺음말

지금까지 에조치를 공간적 소재로 삼아 1783년 구도의 『赤蝦夷風說考』의 북방인식과 에조치에 대한 개발안, 막부의 ‘에조치 조사탐험대’ 파견, 그리고 본토민 이주계획에 의한 에조치 개발안의 변화와 그 본질, 다누마 정권의 몰락에 따른 에조치 개발 중지와 이후 재개발 추진 및 에조치 幕領化까지의 변화를 살펴해보았는데, 몇 가지 사항으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도의 『赤蝦夷風說考』에 보이는 북방인식은 러시아의 남진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이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무역진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했고, 그 대책으로서 일본 국내외의 경제문제의 해결, 특히 국내의 누케니 방지와 나가사키에서의 해외무역에 따른 문제해결책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을 주장한 인식이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것은 구도의 에조치 개발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에조치의 금은동을 개발해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이로써 나가사키에서 중국과 네덜란드에 가격경쟁을 일으켜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동의 해외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러시아와의 정식교역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둘째, 구도의 에조치에 대한 북방인식의 틀 속에서 영토인식의 문제와 에조치 개발안의 문제이다. 그는 『赤蝦夷風說考』에서 명확히 ‘에조치 一國’과 ‘우리나라(원문: 我國)’, 즉 일본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도에게 에조치는 일본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도가 에조치를 개발하고자 한 것은 일본이라는 영토적 관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무역진출에 의해 에조치 무역권을 잃지 않기 위한 개발이었고, 에조치의 금은동 광산의 개발안도 결국은 일본 국내의 부국화에 토대를 둔 북방인식의 발현이었다.

셋째, 막부의 ‘에조치 조사탐험대’ 파견 후에 탐험대원이었던 사토 유키노

부[佐藤行信]의 조사보고서와 제안, 즉 에타와 히닌이라는 본토의 천민계급을 이용해 에조치를 개발하자는 ‘이주 개발론’이 다누마 정권의 실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막부에 의해 승인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에조치에 대한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토의 천민계급 ‘이주 개발론’은 혼다에 의해서 본토의 범죄자들을 이용한 ‘이주 개발론’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범죄자만이 아닌 낭인까지도 포함시켜 에조치의 ‘이주 개발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조치 개발이 근원적으로 일본 내부의 차별성 토대를 두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본다면, 에조치 이주 개발론이라는 것은 일본 국내 사회를 혼란시키는 피차별민과 범죄자, 즉 당시 일본 사회의 말단에 위치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자들을 이주시켜 에조치를 개발하자는 것으로 본토의 사회문제 해결과 결부된 에조치 개발론이었고, 일본 국내 구성원에 대한 차별성과 멸시, 그리고 에조치에 대한 차별성과 멸시라는 불평등에 기저한 개발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넷째, 구도의 『赤蝦夷風說考』와 에조치 개발안은 이전 막부의 에조치 처리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해 막부가 ‘에조치 조사탐험대’를 파견하는 등의 실질적 에조치 개발의 계기를 이루고 있다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이다. 일본사적인 관점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간 막부의 전통적인 에조치 처리방식, 즉 마쓰마에번에 일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막부의 직접적인 개발로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후 에조치 개발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구도의 에조치 개발론은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한 에조치 개발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에서 중국과 네덜란드의 무역상황까지 염두에 둔 개발론으로서 일본 국내의 대외무역의 발전과 국내의 안정을 도모한 선구적 일본 부국론이 토대를 이루었다. 물론, 다누마 정권의 몰락과 함께 에조치 개발도 일시적으로 백지화가 되었지만, 구도의 『赤蝦夷風說考』는 이후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의 『蝦夷草紙』,⁷⁸⁾ 혼

78) 『蝦夷草紙』는 1785~1786년 幕府의 에조치 탐험에 참가한 모가미 도쿠나이가 마

다 도시아키[本多利明]의 『蝦夷動靜』·『蝦夷拾遺』·『蝦夷道知邊』⁷⁹⁾·『經世秘策』,⁸⁰⁾ 하야시 후쿠사이[林復齋]의 에도시대 외교사료집인 『通航一覽』⁸¹⁾ 등의 일본 북방 지역에 관한 정보서 집필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것이 바로 『赤蝦夷風說考』의 역사적 의미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북방관련 저서들의 출판에 따른 북방정보의 확산은 일부 지식인들 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이누 민족의 봉기와 러시아의 락스만 등을 비롯한 이국선 내항이라는 대외적 위기감과 결부되어 막부에서까지도 에조치[蝦夷地]에 대한 관심을 재차 불러일으켰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지배와 무역정책에 대한 아이누의 봉기, 그리고 격심해지는 러시아 남하와 이국선 내항이 그 배경에 존재하지만, 구도의 『赤蝦夷風說考』가 다른 무엇보다도 일본의 북방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1791년 모가미 도쿠나이의 지시마 파견과 무역의 확대, 그 다음 해인 1792년의 가라후토 조사, 1798년 곤도 주조 등의 북방 지역 탐험 등 막부의 에조치와 북방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진출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799년 막부의 에조치 幕領化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끝으로 일본의 아이누 민족에 대한 멸시관과 이른바 에조치 ‘내국화’라는 강제적 점유의 비교·고찰, 구도 이후에 저술된 에조치 관련서와 에조치 개발론에 대한 일본 측 연구의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는데, 이

쓰마에번[松前藩]의 에조치 대책, 아이누의 풍속·생업·언어 이외에 홋카이도[北海道]·지시마[千島]·가라후토·감차카의 지리·연혁을 상세하게 기술한 저서이다. 원문은 北海道大學附屬圖書館 北方資料室에 소장되어 있고(청구기호: 舊記0117), 「北方資料データベース」에서 전문 열람이 가능하며(<http://ambitious.lib.hokudai.ac.jp/hoppodb/>), 일본국회도서관에도 2종류의 사본이 소장되어 있다(사본1: 청구기호[W328-3], 사본2: 원본대체청구기호[YD-古-3032]), 간행본으로 『北門叢書(第1卷)』(大友喜作 解説校訂, 1943, 北光書房)가 있으며, 『赤蝦夷風說考』·『蝦夷拾遺』·『蝦夷草紙』가 수록되어 있다.

79) 『蝦夷道知邊』(日本國會圖書館 所藏, 請求記號: 166-283, 原本代替請求記號: YD-古-3034).

80) 다수의 간행본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日本思想大系(44)』(塚穀晃弘 外 校注, 1970, 岩波書店)를 참조.

81) 林復齋, 1912~1913, 『通航一覽(第1-8)』, 國書刊行會.



〈그림 2〉 지시마 열도[千島列島] 지명 표기도

참고문헌

〈저서〉

- 榎森進, 1997, 『北海道近世史の研究－増補改訂』, 北海道出版企劃センター.
- 桂島宣弘, 2008, 『自他認識の思想史』, 有志舎.
- 高倉新一郎, 1966, 『蝦夷地(日本歴史新書)』, 至文堂.
- 工藤平助外 著, 1978, 『赤夷動靜・赤蝦夷風説考・三國通覽圖説－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叢文社.
- 關根徳男, 1999, 『田沼の改革－江戸時代最大の經濟改革』, 鬱朋社.
- 菊池勇夫, 1984, 『幕藩體制と蝦夷地』, 雄山閣.
- 根室市立博物館開設準備室 編, 1994, 『クナシリ・メナシの戦い』, 根室歴史研究會.
- 吉岡 孝, 2002, 『八王子千人同心(同成社江戸時代史叢書)』, 同成社.
- 大友喜作 解説校訂, 1943, 『北門叢書(第1卷)』, 北光書房(1972년에 國書刊行會에서 재간행).
- 童門冬二, 2009, 『阪本龍馬に學ぶ』, 新人物往來社.
- 木崎良平, 1991, 『漂流民とロシア－北の黒船に搖れた幕末日本(中公新書1028)』, 中央公論社.
- 門玲子, 2001, 『わが眞葛物語江戸の女性思索者探訪』, 月藤原書店刊.
- 芳賀徹 譯, 1982, 『日本人の西洋發見』, 中央公論社.
- 北海道廳 編纂, 1991, 『新撰北海道史(第5卷－史料 1)』, 清文堂.
- 北海道 編, 1969, 『新北海道史(第7卷－史料 1)』, 北海道.
- 沼田次郎・松村明 校註, 1976, 『日本思想大系(64)－洋學(上)』, 岩波書店.
- 小學館 編, 1994, 『日本大百科全書』, 小學館.
- 松平定信・松平定光 校訂, 1942, 『宇下人言 修行録』, 岩波書店.
- 水口志計夫・沼田次郎 編譯, 1970, 『ベニョフスキー航海記(東洋文庫160)』, 平凡社.
- 辻善之助, 1980, 『田沼時代』, 岩波文庫.
- 野口武彦, 2006, 『大江戸曲者列傳－太平の卷』, 新湖社.
- 鹽見鮮一郎, 2008, 『彈左衛門とその時代』, 河出書房新社.
- 永積昭, 1971, 『オランダ東インド會社』, 近藤出版社.
- 윤병남, 2007, 『구리와 사무라이－아키타번을 통해 본 일본의 근세』, 소나무.
- 日蘭學會/法政蘭學研究會 編, 1979, 『和蘭風説書集成(下)』, 吉川弘文館.

- 林復齋, 1912~1913, 『通航一覽(第1-8)』, 國書刊行會.
- 井上隆明, 1979, 『赤蝦夷風說考』, 教育社新書.
- 海保嶺夫, 2006, 『エゾの歴史-北の人々と「日本」』, 講談社.
- 和田敏明, 1981, 『北方領土の幻覺』, 叢文社.
-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 『赤蝦夷風說考』(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 內閣文庫 『蝦夷地一件』 收錄, 청구번호: 178-0184).
- 『蝦夷地一件』(全5冊,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 청구번호: 0178~0184).
- 『蝦夷草紙』(北海道大學附屬圖書館北方資料室所藏, 청구번호: 舊記 0117).
- ブレット・ウォーカー・秋月俊幸 譯, 2007, 『蝦夷地の征服 1590~1800』, 北海道大學出版會.

〈논문〉

- 桂島宣弘, 2001, 「華夷思想の解體と自他認識の變容」, 島蘭進他編,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2)』, 岩波書店.
- 菊池新一, 1966, 「北海道屯田兵制度の先驅的類型-八王子千人同心の移住を中心として」, 『經濟論集』 4, 大東文化大學經濟學會.
- 菊池勇夫, 1995, 「海方と北方問題」, 『岩波講座 日本通史-近世4』 14, 岩波書店.
- 菊池勇夫, 2002, 「外壓と蝦夷地支配」, 紙屋敦之・木村直也編, 『海禁と鎖國』, 東京堂出版.
- 大熊良一, 1972, 「ロシア人による北方海域探險の歴史」, 『幕末北方關係史攷』, 北方領土問題對策協會.
- 徳川齊昭, 1942, 「北方未來考(抄)」, 高須芳次郎編, 『水戸學大系』, 第五卷(水戸義公・烈公集), 水戸學大系刊行會.
- 藤田覺, 1995, 「一九世紀前の日本」, 『岩波講座 日本通史-近世5』 15, 岩波書店.
- 武田安弘, 1979, 「明治期における北海道移住農民-檢討視角と課題」, 『地方史研究』 29-4, 地方史研究協議會.
- 白井暢明, 2000, 「北光社農場・阪本直寬のキリスト教的開拓者精神-北海道開拓者精神史におけるその特色と限界」, 『旭川工業高等專門學校研究報文』 37, 旭川工業高等專門學校.
- 白井暢明, 2002, 「北海道開拓者精神史における聖園農場および武市安哉の思想の特

- 色と意義, 『旭川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文』 33, 旭川工業高等専門學校.
- 변정민, 2008, 「18세기 후반 幕府의 蝦夷地 개발 정책,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石川猶興, 1987, 「記傳を歩く(28)-工藤平助著「赤蝦夷風説考」-前人未踏の蝦夷地開發論, 『農政調査時報』 373, 全國農業會議所.
- 矢嶋道文, 2002, 「工藤平助『國益思想』の再評價-『報國以言』を中心に, 『日本思想史學會2002年度大會-「大正思想史の諸問題」』, 발표문.
- 市毛幹幸, 2006, 「18世紀末における近世國家とアイヌ社會の關係秩序-クナシリ・マナシの戦いのアイヌ仕置を手掛りとして, 『北海道・東北史研究』 3, 北海道・東北史研究會.
- 岩崎奈緒子, 2006, 「『赤蝦夷風説考』再考, 『北海道・東北史研究』 3, 北海道・東北史研究會.
- 岩崎奈緒子, 2006, 「史料紹介: 天理大學付屬天理圖書館所藏「加模西葛杜加國風説考」, 『北海道・東北史研究』 3, 北海道・東北史研究會.
- 岩崎奈緒子, 2009, 「『加模西葛杜加國風説考』の歴史的意義, 九州史學研究會編, 『境界からみた内と外』, 岩田書院.
- 이계황, 2009, 「에도[江戸] 막부의 대외관계 형성과정, 『한국학연구』 2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竹内 誠, 1976, 「寛政改革, 『岩波講座 日本歴史』 12, 岩波書店.
- 中井信彦, 1953, 「蝦夷地開拓説の系譜, 『社會經濟史學』 18-5, 社會經濟史學會.
- 和田敏明, 1978, 「鎖國の夢を破った古典的三名著, 『北方未公開古文書集成(第3卷)』, 叢文社.
- アニック・ホリウチ, 2009, 「近世日本の知のネットワーク-魯西亞(ロシア)關連の言説を通して, 『比較日本學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5, お茶の水女子大學比較日本學教育研究センター.
- コラー・スサンネ, 2004, 「安永年間のロシア人蝦夷地渡來の歴史的背景, 『スラヴ研究』 51號, 北海道大學スラヴ研究センター.

[ABSTRACT]『Akaezohusethuko』 and Northern Area Recognition of
Edo-Bakuhu

Shin, Dongkyu

This article researches northern area recognition of Japan and Ezochi(蝦夷地) developmental theory based on 『Akaezohusethuko』(赤蝦夷風説考) which a doctor in Sendai-Han(仙台藩), Kudo Heisuke(工藤平助) insisted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and Russian responding method at Ezochi in the latter of 18th century. The contents are as followings:

First, northern area recognition indicated to 『Akaezohusethuko』 of Kudo(工藤) is an expression of crisis consciousness to southward expansion of Russia but it was a consciousness of crisis to trading advance rather than a military threat of Russia, and a recognition for solving economic problems in Japan and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for solving the matters indicated in overseas trading in Nagasaki(長崎) and Nukeni(抜荷, smuggling trade) prevention of Japan. That is, it was an insist that importing goods from Russia by developing gold/silver/copper of Ezochi can prevent overseas drain of copper which was a matter in Japan at that time as well as can make to import goods with low price by competing price with China and the Netherlands in Nagasaki.

Second, it is the matter of land recognition and Ezochi development plan within the frame of northern area recognition to Ezochi of Kudo. He classified Ezochi and Japan clearly in 『Akaezohusethuko』, which

was the proof that Ezochi was not Japan to Kudo. In such meaning, what Kudo intended to develop Ezochi was not caused from land concept of Japan but rather he wanted to develop without the damage of national profit by trading advance of Russia. After all, the development of gold/silver/copper mine in Ezochi was also the expression of northern area recognition based on the enrichment of Japan.

Third, research report and suggestion of Satō Yukinobu(佐藤行信) who was an expedition member after dispatching 'Ezochi researching expedition' of Bakuhu(幕府), that is, 'move development theory' which insisted to develop Ezochi using the humble people of mainland called as Eta and Hinin was not implemented by the knock-out of Tanuma(田沼) political power. But in such a point that it was approved by Bakuhu, we can see the differentiation to Ezochi in those days. Moreover, 'move development theory' for humble people by Satō(佐藤) was developed as another 'move development theory' using criminals of mainland by Honda Toshiaki(本多利明), and it is indicated that after that time, in such that Tokugawa Nariaki(徳川齊昭) suggested 'move development theory' of Ezochi by including even Ronin(浪人) as well as criminals, Ezochi development was progressed basically based on differentiation of Japan inside.

Fourth, Ezochi development plan and 『Akaezohusethuko』 of Kudo was an evaluation to historical meaning which Bakuhu made the opportunity of actual Ezochi development including dispatching 'research expedition' by causing big change to Ezochi dealing method of prior Bakuhu. If limiting only to the viewpoint of Japanese history, it had a big meaning in such that it had caused the change with direct development of Bakuhu getting out of traditional method which had

designated Ezochi matter to Machumae-Han(松前藩). In particular, it had made the basis of 'Japanese National Wealth' considering even trading at Nagasaki as well as southward expansion of Russia and had prepared the opportunity to cause the boom of research for Japanese northern area to the intellectuals at that time. Eventually, active advancing policies of Bakuhu to Ezochi and northern area such as dispatching to the Kuril Islands(千島列島) of Mogami Tokunai(最上徳内) in 1791, Sakhalin research in 1792, and Kondo Juzo(近藤重藏) in 1798 were implemented, and due to this, Ezochi ruling by Bakuhu was made in 1799.

keywords

Edo-Bakuhu, Kudo Heisuke, Akaezohusethukō, Ezochi, Ainu, Bakuhu, Machumae, Russia, Sakhalin, Chisima(the Kuril Islands), Satō Yukinobu, Honda Toshiaki, Northern Area Recognition, Mogami Tokunai, Kondo Juzo

‘식민사상의 선구자·혼다 도시아키’의 재발견

- ‘속도 개업’ 논의를 중심으로 -

류미나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 1743~1820]는 일본 에도시대의 사상가 중 경제론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18세에 이르러 세키 다카카즈[關孝和]의 제자인 이마이 겐테[今井兼庭]에게 수학을 배운 이후, 지바 도시타네[千葉歳胤]로부터 천문학을 배웠으며, 야마가타 다이니[山縣大貳]에게 검술을 익혔다. 그리고 1767년, 에도의 오토와[音羽, 지금의 이케부쿠로 池袋]에 사숙[私塾]을 열었다. 난학에 조예가 깊었던 혼다는 일본의 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다치하라 수이켄[立原翠軒]이나 고미야마 후켄[小宮山楓軒]과의 친교 속에서 발전시켰다.

혼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840년 미야타 빈[宮田敏]의 필사본 『河道』가 간행되면서부터이다. 혼다의 사후 20년 만에 등장한 이 필사본은 지금의 이바라키[茨城] 현에서 벌어진 하도건설에 대한 소개를 적은 것으로, 연구업적이라

※ 투고일: 2010년 9월 28일, 심사일: 2010년 11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29일.

고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이 에도시대에 보이는 혼다에 대한 유일한 소개서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생존한 에도시대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¹⁾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경제부흥책의 선각자’란 시각에서 관심을 얻게 됐고, 나아가 근대 일본의 ‘아시아 진출을 위해 기반을 닦은 지식인’으로 평가됐다는 점이다.

혼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 혼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혼조 에지로[本莊榮治郎]의 평가를 꼽을 수 있다.

교토제국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혼조 에지로는 근세 일본경제사 및 경제사상사 연구에 공로가 큰 연구자로, 1920년부터 본격적인 혼다 연구에 착수해 1935년 『혼다도시아키집[本多利明集]』²⁾을 출간했다. 혼조 에지로 역시 이 책에서 그 자신이 혼다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혼다가 ‘진취성’을 지닌 연구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³⁾

이러한 혼다의 ‘진취성’은 다음 아닌 그의 ‘속도 개업론(屬島開業論)’에서 유래한다. 특히 혼다는 일본과 근접한 거리의 섬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 섬들과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이러한 섬들에 ‘속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곳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의 ‘속도 개업’에 대한 관심은 메이지시대 이후 그를 식민사상의 선구자’로서 평가하거나, 막면체제를 넘어 민족국가로서 일본을 다룬 ‘국민주의 사상가’로 보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⁴⁾ 특히 혼다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며 속도의 개업을 위해서는 ‘타국을 침범해서라도 본국을 증식시키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임무’라고 주장한 것은⁵⁾ 그를 식민지 경영을 제창하는 선구적 학자로,⁶⁾

1) 本莊榮治郎, 1935, 『本多利明集』, 『近世社會經濟學術大系』, 誠文堂, 11쪽.

2) 本莊榮治郎, 1935, 『本多利明集』, 誠文堂.

3) 本莊榮治郎, 1938, 『近世の經濟思想 續編』, 日本評論社, 212쪽.

4) 筒井若水, 1974, 『本多利明の國際社會觀—幕藩期における主權平等意識』, 『社會科學紀要』 23호, 東京大學大學院總合文化研究科, 6쪽.

5) 本多利明, 1970a, 『西域物語』, 『日本思想大系』 44, 岩波書店, 133쪽.

6) 古川萬太郎, 1991, 『近代日本の大陸政策』, 東京書籍, 28~31쪽.

혹은 아시아에서 유럽제국들의 식민지 쟁탈전을 예상한 인물로 주목받게 했다.⁷⁾ 예를 들어 사토 나오스케[佐藤直助]는 혼다에 대한 연구에서 ‘그가 생전에 세계 추세를 알고 국력증진에 식민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한 매우 적극적인 사고를 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⁸⁾

그런데 혼다를 대표하는 ‘속도 개업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그가 생전에 어떤 맥락에서 ‘속도’에 대한 개발론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혼다의 ‘속도 개업론’=‘식민지 경영’ 혹은 ‘해외 개발론’이란 등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혼다의 ‘속도 개업론’은 내용상, 단순히 ‘식민지 경략’이나 ‘제국팽창’의 의미로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덕정’을 중요시했고, ‘무육(撫育)’이란 개념을 ‘교역’으로 정의하고, 교역으로 인한 이국과의 교류를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혼다의 ‘속도 개업론’은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의 주장이 등장한 사회상 또한 드러나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혼다 도시아키의 ‘속도 개업론’을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논의에 문제 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이 논의가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에 등장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혼다의 ‘속도 개업’ 논의의 등장이 일본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그의 논의를 빌려 ‘제국팽창’의 주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혼다가 집필한 글들을 통해 ‘속도 개업’ 논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혼다의 ‘속도 개업’ 논의가 당시 일본 사회의 개혁을 추구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가 제시한 서양과 러시아에 대한 대외관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혼다의 대외관이 메이지시대에 부각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혼다의 ‘속도 개업론’이 어떻게 ‘식민지 경략’으로 이해됐는지

7) 류재곤, 1994, 「일본의 국제론과 대외침략론」, 『청계사학』 11, 청계사학회, 259쪽.

8) 佐藤直助, 1955, 「本多利明の人口論の背景」, 『ソフィア』 3(1), 上智大學, 16쪽.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혼다 도시아키라는 인물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와 논의가 가능함은 물론, 에도시대의 사상가가 메이지시대에 들어서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일례가 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혼다의 관심사였던 지역 중 일본열도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혼다의 대외관 중 서양과 러시아에 관한 시각을 다루기 때문이다.

1_ 러시아의 남하와 혼다의 '속도 개업론'

이 절에서는 먼저 혼다의 '속도 개업' 논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혼다가 '속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속도 개업'을 언급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혼다는 자신의 글 속에 '속도 개업'을 자주 논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세비책보유(經世秘策補遺)』의 내용이다. 이 글에서 혼다는 '속도'를 개업하는 것은 "일본부(日本附)의 섬들을 열어 양국(良國)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혼다는 이들 일본 주변의 섬들을 열어 양국을 만들면, 이들 섬들이 '일본의 요해가 될 뿐 아니라, 제 금산(金山)도 열리고 제 곡과(穀果)도 가능하며 그 외 제 산물도 되어 운택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일본의 국력이 크게 증식될 것'¹⁰⁾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혼다는 '속도'를 '일본 주변의 섬'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습유[蝦夷拾遺]」에서 혼다는 이 '속도'를 '에조'라고 가리켰다.¹¹⁾

캄차카국에서 이어지는 제도를 지나 구나시리도에서 떨어진 곳에 큰

9) 本多利明, 1970b, 「經世秘策補遺」, 『日本思想大系』 44, 44쪽.

10) 本多利明, 1970b, 위의 글, 44쪽.

11) 쓰카타니 아키히로[塚穀晃弘] 역시 그의 해제에서 '속도'를 '에조' 지역으로 봤다. 本多利明, 1970b, 앞의 글, 44쪽.

섬과 무릇 15개의 섬이 있다. 이 섬들에 근년 러시아국의 관리 수명이 건너와 큰 성을 쌓고 동택(冬宅)의 제작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 그렇지만 이 15개의 섬에서 캄차카국까지도 원래 일본국의 속도로, 마쓰마에[松前] 씨의 지배하에 토지가 났다고 섬들 사람 모두가 말했다고 한다.¹²⁾

그리고 혼다는 또 다른 글, 「4대 급무에 관한 상서(四大急務に關する上書)」에서도 ‘에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에조 토지는 북극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소재한 대국으로 특히 섬이 많습니다. 마쓰마에 소재의 섬, 가라후토의 양 섬은 매우 대국으로 벼농사는 처음부터 되지 않다가 나중에는 확실하게 열매를 맺고, 잡곡은 처음부터 급속도로 자랍니다. …… 에조 토지가 모두 40여 도이므로 북경과 같은 기온으로 명백히 최량국(最良國)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 안에 죄과가 있는 자, 사형수나 원도(遠島)·추방자 중에서 구제할 자가 있으면 에조 토지에 보내, 그 죄가의 경중에 따라 원근에 살게 하여 각 장소의 토인에게 당분간 맡겨 구제하시고 사해주시는 감사한 마음을 가르치시며, 어류를 잡게 하시고 농작을 하게 해 생계를 꾸리게 하시면, 점차 인원이 많아져 나중에는 경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¹³⁾

남방(아류산 열도)¹⁴⁾은 동에조라고 하여, 22도가 있다. 마쓰마에 섬(松前島), 일본, 류큐[琉球] 등이다.¹⁵⁾ 22도, 마쓰마에 섬은 모두 인도(人道)가 미개한 에조로 앞의 설명과 같다. 서쪽은 오호츠크, 사카린(사할린), 가라후토[唐太] 등이다.¹⁶⁾

즉, 이 글들 속에서 혼다는 ‘속도’를 ‘에조’로 규정했고, 그 구체적 지역을 일

12) 本多利明, 1935a, 「蝦夷拾遺」, 『本多利明集』 303쪽.

13) 本多利明, 1935b, 「四大急務に關する上書」, 『本多利明集』 268쪽.

14) 本多利明, 1970c, 「西域物語 中」, 『日本思想大系』 44, 142쪽.

15) 여기서 마쓰마에 섬과 일본, 류큐는 ‘마쓰마에 섬, 일본, 류큐와 같은 섬이다’란 의미로 쓰였다고 판단된다.

16) 本多利明, 1970c, 위의 글, 142쪽.

본 근린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북극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소재’한 섬이며, 원래 일본과도 교역이 있었던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혼다가 쓴 「서역물어 하(西域物語 下)」를 보면, ‘에조’를 앞서 말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조의 제도는 일본국의 속도인데, 그 섬은 하치조지마[八丈島] 앞바다의 무메토[無名島], 고도[五島] 앞바다의 고토[鼓島], 사도[佐渡] 앞바다의 마우스도, 히타치[常陸] 앞바다의 무메니도[無名二島]에 도해해 일본의 제 산물로 무육(撫育)·교역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선한 것만 도래하여¹⁷⁾

여기서는 ‘에조’는 ‘하치조지마 앞바다의 무메토, 고도 앞바다의 고토, 사도 앞바다의 마우스도, 히타치 앞바다의 무메니도’로 묘사됐다. 다시 말해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과 일본해(동해)¹⁸⁾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혼다가 말하는 ‘에조’란 두 종류로 정리된다. 첫째, ‘북극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소재’한 섬으로 ‘캄차카국에서 이어지는 제도를 지나 구나시리도에서 떨어진 큰 섬과 무릇 15개의 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째, ‘하치조지마, 사도, 히타치’와 같이 일본열도의 남북에 위치한 제도인 것이다.¹⁹⁾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 모두 일본 근린에 위치한다는 것이며, 과거 일본과 교역을 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혼다가 사용한 ‘에조’란 동북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의미가 아닌, ‘일본보다 미개한 근린 지역’의 의미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혼다의 ‘속도 개업’ 논의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혼다가 ‘속도 개업’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일본과 ‘에조’와의 교역관계에 이상이 생겼고, 그 원인이 바로 러시아 남하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17) 本多利明, 1970d, 「西域物語 下」, 『日本思想大系』 44, 147~148쪽.

18) 일본해에 대한 용어 사용은 현재 한일간 갈등의 요소인 ‘일본해’, ‘동해’로서가 아닌, 일본사적 측면에서 사료용어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19) 이 글에서는 주로 북방 지역의 에조를 다루고자 한다.

혼다는 러시아가 1768년과 1778년에 에조 제도로 내려와 개업을 독촉하고 캄차카와 동에조의 제도에 요새를 구축하면서 토인과의 교역을 시도한 사실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러시아와는 상대적으로 에조 지역의 주민들과 소원했고, 에조 지역의 토인이 일본열도의 산물을 취할 수 없게 금한 것은 물론이며, 가재도구의 칼도 금하고, 일본말을 가르치는 것을 막았던 실정²⁰⁾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²¹⁾

혼다의 이러한 위기감은 에조 지역에 대한 개발의욕을 증폭시켰고, 신속하게 이 지역을 일본 영향권 내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러시아에 선점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00년 7월 13일자, 혼다가 다치하라 수이켄[立原翠軒]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일본의 동양에 모스코비아의 관박(官舶)이 항상 있어서 일본의 표류선을 구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주위담는 책략으로 해가 갈수록 그곳 표류선 중 많은 자가 모스코비아 영내 시베리(시베리아)에서 오호츠크 주변 내 달단 내에 주거하게 하여 모스코비아로부터 후대받고 도움을 받으니 안락하게 살게 됐다. 일본의 가혹한 정치를 받는 것보다 크게 안도된다는 등의 풍설이 있는데 그러하다.²²⁾

즉, 혼다는 러시아가 에조에 대해 ‘후대하고 도움을 주는 것’과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 오히려 ‘가혹한 정치’를 강요한 것을 민감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에조 내 일본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과 교역이 쇠퇴되는 것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혼다는 에조 지역과의 교역으로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러시아와의 경쟁이 표면화되면서 그러한 이익이 감소될 것을 기우했기 때문이다.

20) 本多利明, 1970b, 앞의 글, 46쪽.

21) 혼다는 러시아가 에조 지역의 토인과 교역하는 모습을 “자신의 골육을 잘라 토인을 돕는다”라고 표현했다. 本多利明, 1970b, 위의 글, 46쪽.

22) 本多利明, 1935c, 「本多利明手簡」, 『本多利明集』, 379~380쪽.

지금까지와 같이 국계가 없어 에조 토지를 버려두면 안 될 것이다. 가라후토 섬은 매우 중요한 토지이다. 토지가 광대하여 후에 일본에 큰 이익을 줄 토지이다. 따라서 지금 교역장을 두고 점차 세워가 산단(山丹)의 국경까지도 세워야 할 것이다.²³⁾

다시 말해, 혼다는 에조가 과거와 같이 앞으로 일본에 큰 이익을 줄 지역으로 생각했고, 일본과의 소원한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해 ‘속도 개업’ 논의를 제시한 것이다. 혼다는 이런 정책이 대외적으로 에조를 일본 내 ‘속도’로 과시할 수 있고, 이국과의 경계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에조의 개발로 인해 일본 내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봤다.

[에조 개발을 하면 - 필자] 먼저 이국과 대일본국의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북쪽의 방어가 되는 요해가 생기고 사종문(邪宗門)의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며, 둘째로는 [에조에 사형수와 추방인, 원도인(遠島人)을 보내면 - 필자] 사형수도 구명을 받고, 추방인, 원도인도 모두 국가의 쓸모가 되며, 셋째, 금, 은, 동, 연철을 채굴하여 국가의 힘을 강하게 하고, 넷째, 개발의 공으로 백곡백과도 윤택하게 됩니다. 다섯째, 큰 나무가 양재로 쓰일 윤택한 땅에 있다면 그 재목을 운송하여 장기(長器), 선박의 새로운 재료로 쓰는 등 …… 영원히 기근 없이 만민이 증식하고 국가 풍요에 힘을 더하며 국력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²⁴⁾

위의 글에서 혼다는 ‘속도 개업’으로 북쪽의 이적을 방어하는 요해가 확보될 뿐 아니라, ‘사종문의 무리’, 즉 기독교의 유입이 근절될 것으로 봤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킨 죄인들을 에조에 보냄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구명을 받을 뿐 아니라, ‘나라의 쓸모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에조의 개발은 일본의 경제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란 것이다.

그런데 혼다는 에조와의 교역을 어디까지나 근거리에서 위치한 것을 우선시

23) 本多利明, 1935d, 「蝦夷道知邊」, 『本多利明集』, 333~334쪽.

24) 本多利明, 1935b, 앞의 글, 268쪽.

했다. 그것은 일본이 아직 '만국으로의 도해·운송·교역 일본에 익숙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²⁵⁾ 이것은 앞서 설명한 혼다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다가 '속도'의 위치를 일본과의 근거리 지역이면서 '과거 일본과 교역한 곳'으로 상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혼다는 왜 에조와의 교역으로 인한 이익에 주목했을까? 그것은 당시 일본 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_ 경제부흥책으로 등장한 '속도 개업론'

이 절에서는 혼다가 '에조 개발'을 통해 일본의 경제력 강화를 꾀하고자 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가 일본 내 경제정책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점검하면서 '에조 개발'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혼다가 '에조 개발' 논의를 진척시킨 것은 무엇보다 당시 일본 내 경제형편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다는 동북 지방을 순회하면서 1780년대를 휩쓴 대기근과 재해로 일본열도 전역에 나타난 경제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어느 숙박지에 있을 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2세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 본디 가난한 집으로 이번 기근을 당해 식량이 끊겼는데 ……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하길) 나보다 네가 먼저 죽는 것이 낫다 하고, 원래 내 배에서 나왔으니 다시 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며 목을 비틀어 죽여 뼈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고 한다.²⁶⁾

이 글은 1787년 혼다가 지금의 이와테(岩手) 현을 방문하여 듣고 본 것을

25) 本多利明, 1970d, 앞의 글, 147~148쪽

26) 本多利明, 1970c, 앞의 글, 126쪽.

적은 것으로, 당시의 일본, 특히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기근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나타내준다. 동북 지방을 순회하며 겪은 백성들의 식량부족과 생활의 곤궁은 그가 “눈물이 가슴에 차 할말이 없다”²⁷⁾고 고백한 것처럼 극심한 것이었다.

혼다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근이라 해도 한 사람도 기갈한 서민이 나오지 않고 항상 만민이 산업에 아무 지장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 강구책은 ‘밀실에서’ 쓸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막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적 풍토 역시 혼다의 정책론이 수용될 만큼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경제위기가 다른 아닌 정책의 실패에서 왔다고 봤다. 그는 관리들의 정책이 백성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결국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졌다고 비판했다.

시대에 따라 치도에 이익이 될 일을 탐색해도 선한 일에도 악한 일이 들어 있어 행하기 어렵고, 억지로 행하면 선악이 비슷하여 돌아오니, 결국 소문에 손해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정분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서로 얼굴만 살피고 손쓰는 일을 하지 않으니, 잘못된 일이 점차 축적된다. …… 지금의 집정분들은 모두 신분이 높은 분들이어서 농민 식량의 길과는 멀고, 또한 속관은 아부할 줄만 알지 보좌하는 일 없어서 내리시는 명령이 농민이 원하는 일과는 저어되기에 모두 확정으로 돌아서고, 혹은 흉세 기근을 당해 아사(餓死), 퇴전(退轉), 단절(斷絶)시켜 그 행적이 손쓸 수가 없게 돼 길게 망하는 결과가 됐다.²⁸⁾

이렇듯 큰 효과가 있는 인민을 아사시키는 것은 완전한 고쿠슈(國守)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지 않은 것은 큰 요행으로 진실로 하늘이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리가 있으니 개업을 치평의 국무

27) 本多利明, 1970c, 앞의 글, 124쪽.

28) 本多利明, 1935e, 「自然治道の辨」, 『本多利明集』, 251쪽.

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인민의 산업이 부족하지 않고, 식량이 부족한 일도 없으며 점차 증식하여 일본 주위의 섬들까지 채워지고, 즉시 산업이 단성(丹誠)하기 때문에 섬들에서 금, 은, 동, 철 및 백곡백과, 진상까지도 출산하여 모두 일본에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풍요를 더할 것이다.²⁹⁾

요컨대 막부의 제 정책이 백성들의 생활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곤궁을 막지 못했으며, 결국 백성들이 아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³⁰⁾

혼다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속도의 개업'에서 찾고 있으며, 이것을 '치평의 국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혼다는 이것을 '국군(國君)의 천직'으로까지 규정하면서 아사되는 백성의 고통을 '만민의 부모'인 국군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이에 대해 사토 나오키는 '에도시대의 인구론'에 대한 해석에서, 1700년대 초 일본은 이미 토지에 비해 인구가 포화상태였고, 혼다가 에조를 개발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구포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봤다.³²⁾ 그러나 사토의 해석과는 달리, 혼다는 오히려 인구감소를 우려했는데, 그중 농민 인구의 감소를 가장 염려했다.

이것(제도로 정무를 보는 것)을 내버려 두면, 치평이 이어질수록 무가만 점차 증식하고 사치도 또한 그럴 것이다. 상민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며, 이 두 백성집단이 증식하는 세력에 의해 승(僧), 공(工), 유민(遊民) 또한 증식하기 때문에, 농민만이 혼자 먹여 살릴 수 없다. …… 사,

29)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30쪽.

30) 혼다의 위정자들에게 대한 비판은 쓰쓰이 와카미즈[筒井葯水]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 筒井若水, 1974, 앞의 글.

31) 혼다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낸다. 평에 임해서는 반드시 개업을 통해 국군의 천직으로 하려는 것은 만민에 대해 부모가 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해태(懈怠)하지 않은 국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인민들은 증식하는데 산업에 부족함이 생겨, 자연스럽게 식량이 없어지고 끝내는 영아를 살해하는 우벽(愚癡)이 발생하고 더 심하게는 인민이 부족하게 된다.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30쪽.

32) 佐藤直助, 1955, 앞의 글, 16쪽.

민, 공, 상의 국용[식량-필자]부족으로 농민을 확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농민은 곤궁하게 된다. 논밭도 제한이 있다. 출산의 미곡 또한 제한이 있다. 연공·조세 또한 제한이 있다. 그 나머지 미곡도 또한 제한이 있다. 이런 제한이 있는 미곡으로 만민의 식용을 다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 공, 상, 승, 유민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용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³³⁾

다시 말해, 혼다는 무가와 상인, 그리고 승려와 같은 특정 집단의 인구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농민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며,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폐해가 문제라고 인식했다. 결국 농민들이 이를 견디지 못해 유민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혼다는 당시 일어난 일본열도의 경제악화가 기근과 정책의 실패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다시 말해 상인들의 독점과 그로 인한 자본의 집중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경세비책』을 통해 이러한 사회구조와 경제력 향상의 해결책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4대 급무’로 내놓은 개선책이야말로 경세가로서의 혼다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염초의 채굴로 무기류의 생산효과를 얻고 하도와 같은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둘째, 제금(諸金)의 채굴 및 통치권력의 유통 장악으로 국익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당시 혼다가 소수의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금, 은, 동, 산을 채굴하고, 이를 이국에 유통시키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그는 “금, 은, 동은 영구불후의 장화(長貨)”라고 하며, 이 금, 은, 동이야말로 ‘국가의 뼈대’라고 표현하고 있다.³⁴⁾ 셋째, 선박을 통한 교역이다. 혼다는 일본 내 교역에서 선박을 통한 산물운송으로 인해 산물이 부족한 지역을 구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물가폭등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가폭등은 서민의 생활을 힘들

33) 本多利明, 1970d, 앞의 글, 144~145쪽.

34) 本多利明, 1970e, 『經世秘策 卷上』, 『日本思想大系』 44, 17쪽.

게 하므로, 그 해결책인 선박 교역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 ³⁵⁾ 그리고 마지막이 앞서 설명한 '속도 개업'이다.

다시 말해 혼다에게 있어서 '속도 개업'은 일본 경제침체의 돌파구로서 선택한 대안이었다. 혼다는 '속도'에서 생산된 산물을 확보하고 그것을 일본열도 내에서 교역시켜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별 식량난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본열도의 외연확장을 통해 국내 경제안정을 취하고자 했으며, 혼조 에지로가 지적하듯, 속도 개발을 통해 상품이 필요할 시, 신속히 공급될 지역과의 교역을 기대한 것이다. ³⁶⁾

그런데 혼다는 이러한 경제극복책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정치 역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것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얼마 전에 『제오가라비』라는 책 중에 프랑스의 정치에 관한 것이 적힌 내용이 있었다. 궁핍한 백성이 돈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본 돈으로 계산하면 85만 냥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프랑스의 천자는 매년 이 돈을 나라 중 6개 곳의 구제기관을 설치하고 구조했는데, 이것이 유럽이 돈으로 구하는 목적이다. …… 그러나 일본에는 이러한 도가 없어, 에도에서 배회하는 거지승이 되어 문 앞에 서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 이 자들은 젊은 시절 모두 봉공을 다한 사람으로 모두 국용에 일한 자들이지만, 지금은 늙어서 쓸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문 앞에 서서 먹을 것을 구한다. 만약 프랑스가 이웃 나라였다면, 태연하게 프랑스로 갈 것이다. ³⁷⁾

즉, 혼다는 정치가 백성을 위한 정책으로 나타나길 기대하며, 그 사례로 프랑스를 들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소개된 프랑스 상황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경제활동의 중심을 백성에 둔 프랑스와 백성을 아사하

35) 本多利明, 1970e, 앞의 글, 18~19쪽.

36) 本多利明, 1970d, 앞의 글, 151쪽.

37) 本多利明, 1935c, 앞의 글, 379~380쪽.

기 직전까지 몰아간 일본의 현실은 혼다의 눈에 매우 대조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혼다가 서양 나라들의 정치 형태를 연구하는 배경이 됐다. 혼다의 대외관은 바로 이러한 견해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혼다의 서양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혼다가 당시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를 평가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_ 서양과 러시아에 대한 혼다의 대외관

1) 혼다의 서양인식 - 경제부국의 모델

여기서는 혼다가 관심을 가진 서양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당시 일본이 주자학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중화질서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혼다는 왜 중국이 아닌 서양으로 눈을 돌렸는지, 그 관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혼다의 글에서 서양은 항상 동경의 대상으로 기록돼 있다. 그의 글 속에 나타난 서양에 대한 과도한 동경심은 자칫 서양의 현실을 과도하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필자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서양에 대한 동경심이 일본에 대한 개혁론 위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혼다는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해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서양이 지닌 경제력은 혼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혼다는 먼저 서양의 경제력은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는 방법론에 있다고 봤다. 그는 서양은 일본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번창한데, 일본은 그렇지 못한 것에 주목했다.

서양의 나라들과 섬들은 북극 고도 70도 이상의 극한의 땅이어도 사람의 도도 열리고, 산물도 운택하여 각각 번창하게 됐다. 우리 일본이 동

양에서도 섬들이 있어 특히 북극 고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소재하기에 춥고 따뜻한 정도가 좋고, 오곡백과도 풍속하여 각 양국(良國)이 될 땅이지만, 아직 사람의 도도 얻지 못한 토인뿐이라 모두 이적이 되어 타국에 나갈 산물도 없다. 생각하건대 토지의 춥고 따뜻함을 이유로 사람의 도가 열리거나 혹은 열리지 않는 도리가 있다면, 동양의 섬들은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양 제국의 부국보다 잘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도가 열려 60여 년에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 웬지 금, 은, 동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도를 세우고, 매년 들여오는 것으로 부국이 된다. 성곽 및 서인의 가택에 이르기까지 동, 철, 돌을 이용해 지으면 화재·도적 등의 염려를 모른다. …… 사람의 도를 열어 60여 년이 지날 동안 도리에 이른 곳을 따져보니, 금, 은, 동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들여오는 교역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 동양의 제국은 아직 그러한 이야기기가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³⁸⁾

요컨대 혼다는 서양의 경우, 북극 고도 70도 이상의 극한 땅에 위치하면서도 산물이 윤택하고 번창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그보다 좋은 조건에 위치하면서도 ‘양국(良國)’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원인을 ‘타국에 나갈 산물이 없기’ 때문으로 봤다.

혼다는 이어서 서양이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국이 됐고, 생활적 측면에서도 동이나 철, 그리고 돌과 같은 소재의 가옥을 소유할 수 있어, 화재에 대한 염려가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동양에서 아직 교역의 활발함을 들어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혼다는 서양과 일본의 차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서양에서 발달한 관업 제도와 인재등용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는 산물교역상 ‘자국의 산물을 이용하여 교역을 하면 이익상 좋고 나쁨의 차이가 없지만, 인공산물에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인공산물을 가장 잘 만드는 곳은 바로 ‘유럽 제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이 더욱 강해진 것은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고 있기 때

38) 本多利明, 1935f, 「經濟方言」, 『本多利明集』, 110쪽.

문으로 봤다.

천하만국이 광대하다고 해도, 구라파 제국과 같이 인공이 탁월하고 기기(奇器), 명산(名産)을 많이 배출하는 곳은 없다. 어떤 것에서 그러한가 하니, 관업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관업의 제도란 나라 곳곳에 대학교를 건립하고 재지·예능 있는 자를 등용하여 키우기 때문에 언어 불통의 원국에서도 그 생각이 있는 자가 와서 학교에 들어가 점차 절차의 공을 쌓아 입신양명하면 정신은 이것을 위해 다 소진되어 결국 명예가 기묘한 능력자가 되고 고급 중 나오지 않은 창업을 세워 기기, 명산을 내놓게 된다.³⁹⁾

원래 개업이란 것은 배를 사용하여 섬들의 경도를 측량하고,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고 자연 토산을 헤아리고 토인의 인원을 헤아려 그 섬이 개업되어 대개 어떠한 나라가 될 것임을 알고 난 후에 개업에 이르는 것이 순서이다. …… 여기에 개업의 근본이 있다. 즉, 천문·수리이다. 일본은 아직 이 일에 정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 취의를 아는 자가 매우 드물다. …… 일본은 지나의 고품속을 따라가는 버릇이 있어 유사(有司)인 자 중 천문·산수가 가능한 자가 드물어, 때때로 예조의 토지를 개업하고자 하는 싹이 보여도 결국 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도리(천문·수리)에 어둡기 때문이다.⁴⁰⁾

다시 말해, 혼다가 본 서양은 관업의 제도가 있어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에 의해 좋은 물품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이들 인재들이 천문과 수리에 능통하여 섬들의 경도와 토지의 넓이를 측량해 무역의 가능성을 찾아내기 때문에 서양의 개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서양이 인재를 양성해 교역을 가능하게 할 인적 개발을 하는 것을 동경했는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기술적 인재양성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술발달의 어려움으로 교역이 원활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39) 本多利明, 1935f, 앞의 글, 112쪽.

40) 本多利明, 1970b, 앞의 글, 44~45쪽.

다 인재양성과 이들에 의한 교역발달은 서양이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천하에 무적의 나라는 유럽이다. 어떠한 이유에서 추리하여 생각하니, 먼저, 그 나라 경력 연수가 무릇 5000~6000년에 이르기 때문에 제도의 선미를 다하고, 치도의 근본이 추진되며 자연과 국가가 풍요할 도리를 연구하여 제도를 건립하기 때문이다.⁴¹⁾

혼다는 서양의 제도적 안정은 그 유구한 역사와 관계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역사가 깊은 나라=우수한 나라’란 구도에서 서양을 바라봤다. 예를 들면, 혼다는 유럽의 역사가 6천 년인데 비해, 일본은 2천 년으로 반도 이르지 못함을 지적하고,⁴²⁾ 역사의 오래됨에 따라 국가가 부강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그 역사가 5000~6000년에 이르러 제도와 치도가 겸비되어 있어, ‘천하의 무적’이 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혼다는 문화, 생활양식, 정치제도 등 제방면에서 유럽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중국은 평가절하의 대상이었다. 혼다는 그 이유로 중국의 교역부진과 구 관습을 들었다.

또한 지나는 유럽, 아프리카에도 땅이 이어진 산국으로 남면 한쪽에 해양이 이어져, 나라 안에서 도해, 운송이 불편한 나라이다.⁴³⁾

지나와 같이 동, 서, 북의 세 방향이 모두 나라와 이어져 있어서는 운송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장이 많아 넓게 구할 것이 어렵다. 일본은 다형히 섬나라여서 주위에 해양을 포함한 국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41) 本多利明, 1970f, 「經世秘策 卷下」, 『日本思想大系』 44, 30~31쪽.

42) 혼다는 각국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유럽대주는 인도개벽 이후 경력 6,000여 년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3대주는 이 다음이다. 지나는 요 이후 경력 3,000여 년, 일본은 신무 이후 경력 2,000년이다. 유럽 대주에 비해 아직 반도 이르지 못하다.” 本多利明, 1970g, 「交易論」, 『日本思想大系』 44, 167쪽.

43) 本多利明, 1970f, 앞의 글, 31쪽.

은 전부 기근이어도 한 사람까지도 기갈된 서민은 발생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만민산업에 무엇하나 지장이 없으며 용감히 나아가 농작을 한다.⁴⁴⁾

즉, 혼다는 교역이 불편한 중국보다 해양국가인 일본이 앞으로 훨씬 발전할 가능성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서양에서 영국이 부강했듯이, 동양에서는 일본이 부강할 것이라고 확신했다.⁴⁵⁾

쓰쓰이[筒井]는 이러한 혼다의 견해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중화사상은 중국 이외의 국가를 대등하게 인정하지 않았고, 그 독립성 또한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 등장한 혼다의 대 중국 인식은 주목받을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가 독립된 정치단위로서의 ‘일본’이란 명칭을 쓴 초기 학자로 ‘국가’란 용어가 ‘일본’을 가리키는 단초를 만들었다고 봤다.⁴⁶⁾ 그러나 그는 혼다의 중국 배척은 한편으로는 중화적 보편주의를 부정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무비판적 서양예찬이 내포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시에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적 모델로 서양을 배우자는 혼다의 주장이 중국의 문화나 중국 그 자체를 말할 자는 요구는 아니었으며, 다만 종래의 중국 모방을 버리고 유럽의 탁월한 학문이나 정치제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⁴⁷⁾

그렇다면 혼다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다음은 이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2) 혼다의 러시아 인식-에조 교역의 모델

앞서 제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혼다는 당시 일본이 교역을 실천할 수 있는

44) 本多利明, 1970d, 앞의 글, 127쪽.

45) 本多利明, 1970c, 앞의 글, 138쪽.

46) 筒井若水, 1974, 앞의 글, 18쪽.

47) 筒井若水, 1974, 앞의 글, 28쪽.

용이한 지역으로 예조를 주목했다. 특히 혼다의 눈에 비친 캄차카와 가라후토는 영국과 같은 위도에 속한 지역으로 영국과 유사한 기후조건의 소재지이며, 생산성도 양호하다고 판단했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다.

캄차카와 이 땅[가라후토-필자]에 대도회가 생기면, 그 세에 편승하여 캄차카에서 남양 제도도 열어 하여 각 번창한 나라가 됨에 따라 동도(東都)의 위광도 융성하게 되니, 아메리카 소속의 섬들까지도 또한 속하여 따르는 세력에 더해져 일본도가 된다. 일본에 속해 따를 섬들이 있다.⁴⁸⁾

혼다는 이러한 호조건의 지역에 러시아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것에 긴장감을 가졌다. 그는 캄차카에 확대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일본열도의 경제력 강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인식했다. 즉, 혼다의 대 러시아 인식은 일본 내 현실적 경제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혼다의 러시아관에는 무엇보다 ‘대국’으로서의 인식이 가장 강했다. 그리고 ‘대국’ 러시아가 예조 지역에 대해 매우 관대한 교역정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했다.

(러시아) 남북 위도는 북극 출지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다. 따라서 동서는 대세계의 반에 이르는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모스코비아의 관박(官舶), 도해(渡海)하여 모스코비아의 토산물을 운송하고 교역시켜, 일본의 도움이 없어도 캄차카에 들어가게 되어 적어 조[赤蝦夷]를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믿게 해 모스코비아에 따랐다.⁵⁰⁾

어떤 나라보다 무서운 것은 이 러시아다.⁵¹⁾

48) 本莊榮治郎, 1935, 「本多利明集解題」, 『本多利明集』, 55쪽.

49) 本多利明, 1985, 「赤夷動靜」, 『蝦夷·千島古文書集成: 北方未開古文書集成: 第3卷』教育出版センター, 120쪽.

50) 本多利明, 1985, 앞의 글, 122쪽.

51) 本多利明, 1985, 앞의 글, 126쪽.

즉, 혼다가 본 러시아는 '무서운 대국'이면서, 동시에 교역에도 뛰어난 실력자였던 것이다. 제2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국인 러시아가 일본의 표류선을 구하거나 표류민들을 러시아에 주거시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물론, 에조 지역의 주민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갖는 것은 혼다의 러시아관을 결정짓는 요소였다.⁵²⁾ 바로 러시아가 일본경제의 방해 요소라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혼다의 대 러시아 인식에 대해, 미야타 준[宮田純]은 혼다가 훨씬 강력한 러시아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혼다는 러시아가 교역책과 무역책을 기반으로 교역권을 확대하고 때로는 군사력을 행사하면서 광대한 영토 확장을 국가적 방침으로 삼아, 많은 교통 요로를 획득하려 하는 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⁵³⁾ 실제 혼다는 러시아를 경계한 이유로 러시아의 '해로(海路)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러시아는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반드시 에조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스크바는 제1 육지만이 있는 먼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왕래의 운송이 되지 않고, 또한 대선을 이용하여 운송하려고 하니 본국을 출발해 오란타 해[발트 해-필자]로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가운데 바다를 넘어 아프리카의 남쪽 행선지(희망봉)를 돌아, 인도[인도네시아-필자] 남쪽 바다의 자카르타 주변 해역을 넘어 일본의 동양을 건너 히가시 에조[東蝦夷]에 들어가지 않으면 달리 해로가 없어, 그런 우원의 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빠른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꼭 전쟁을 거처서라도 에조 제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⁵⁴⁾

혼다의 러시아 인식에 확신을 주듯, 러시아는 에조와의 교역을 활발히 진행시켰고, 그 결과, 감차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본과 소원한 관계가 됐다.

52)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80쪽.

53) 宮田純, 2004, 「本多利明の北方開發經濟思想－寛政3年成立『赤夷動靜』を中心に」, 『日本經濟史研究』 4, 5쪽.

54) 本多利明, 1970c, 앞의 글, 137쪽.

교호[享保, 1716~1735] 때부터 캄차카 주변에 모스코비아의 관박(官舶)이 들어와 모스코비아의 토산물을 운송하여 교역하면서부터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캄차카에 다니게 되었고, 적에조[赤蝦夷]를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믿게 되어 모스코비아에 따르게 됐다. 이로부터 점차 캄차카가 열려 일본을 멀리하게 됐다.⁵⁵⁾

요컨대 혼조는 캄차카의 정세가 러시아로 기울었기 때문에, 일본과 거리가 생겼고, 이러한 거리감은 일본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혼다는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에조 개발’에 대해 혼다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었을까? 혼다의 글들을 통해 에조에 대한 구체적 교역 방안을 살펴보자.

(에조는) 원래 속도이기 때문에 인국에 거리낄 것이 없다. 토인을 무욕하고 교역하여 큰 이익을 얻어 토인의 존복(尊服)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점차 사람도 증식하여 일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와 앞에서도 말한 금산(金山), 은산(銀山)도 개척해 대인삼도 자연스럽게 독식하여 재배하고 운택하게 출산하여 일본 국용으로 쓰고 이국 교역에까지 나갈 수 있다면, 일본의 광휘를 더해 풍요를 돕게 될 것이다.⁵⁶⁾

지금 이후에는 아국에서 에조의 섬들에서 캄차카 대지까지 무욕 교역해 토인을 돌봐주고자 하니, 나중에는 모두 아국의 속도·속국이 될 것이다.⁵⁷⁾

다시 말해 혼다는 에조 지역에 대해 ‘원래 일본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잘 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에조 지역과의 관계성을 긴밀히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윗 글은 혼다가 캄차카 부근에 출몰하는 러시아 선박에 위기감을 노출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가 아닌 에

55) 本多利明, 1935g, 「蝦夷土地開發愚存之大概」, 『本多利明集』.

56)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34쪽.

57) 本多利明, 1935f, 100쪽.

조 지역의 주민들로, 이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다. 요컨대 혼다는 러시아가 출몰하는 것을 우려하기보다 그러한 러시아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 예조 지역 주민의 의식 변화에 한층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각으로 혼다의 ‘대 예조 개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혼다는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대일본의 국호를 캄차카 땅으로 옮기고 ‘일본국’이란 국호를 내려, 임시 관청으로 세우고 군현을 두며 제 유사를 보내 토민을 돌보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⁵⁸⁾ 일견 지나칠 정도의 과감성이 드러난 주장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혼다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혼다의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예조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매우 낮은 것이었다. 1801년 1월 21일, 혼다가 다치하라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에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490리에 ‘다디스’라는 곳이 있다. 이 또한 시베리(시베리아)라는 나라로부터 현을 세운 일이 있다. 그 외 일본 주위의 섬들은 대저 서양으로부터 눈을 떠 현을 세우고 토인을 무욕하는 일을 봤다. 만리의 파도를 뚫고 와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일본에서는 땅이 이어진 예조의 토지에 가는 일을 이국에라도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풍습의 천박함에 웃음을 멈출 수 없다.⁵⁹⁾

말하자면, 러시아나 서양은 멀리 있는 지역이라도 국익을 위해 관청을 세우고 토인을 무욕하는 데에 비해, 일본은 인접한 예조를 마치 ‘이국’처럼 본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다는 일본과 인접하고, 과거 교역을 했던 이곳 ‘예조’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예조 주민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혼다에게 러시아는 일본이 추구해야 할 ‘교역의 모델’로서 자리 매김 된다.

58) 本莊榮治郎, 1935, 앞의 글, 53쪽.

59) 本多利明, 1935c, 앞의 글, 388쪽.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혼다의 ‘속도 개업’ 논의는 매우 ‘온건한’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조에 대한 교역에 중심으로 두고,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혼다의 ‘속도 개업’ 논의는 메이지시대 이후 그를 ‘식민사상의 선구자’로 평가한 것과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양자의 인식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필자는 혼다가 ‘속도 개업’ 논의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무육’정책에 초점을 맞춰, 메이지시대 이후 혼다를 ‘식민지 경영의 선구자’로 평가한 내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무육론으로 본 혼다의 대외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혼다에 대한 선행연구자 중 제일인자인 혼조 에지로는 혼다를 연구하게 된 이유로 그의 ‘진취성’을 들고 있다. 혼다의 ‘진취성’은 종래 선행연구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를 ‘식민사상가’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조는 혼다의 글들을 소개할 때, ‘해외 경력론’이란 틀에 삽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도시아키는 에조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해외 제국을 경략하고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캄차카에 대해서이고, 둘째는 가라후토, 산단, 만주에 관해서이며, 셋째는 아메리카에 관해서이다.⁶⁰⁾

지금 돌이켜 도시아키가 논한 것을 보니, 혹은 관영의 해운을 논하고, 혹은 개국무역의 필요를 고조하며, 속도 개업을 통론함과 같이, 모두 진취발전의 의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힘을 중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⁶¹⁾

60) 本莊榮治郎, 1935, 앞의 글, 52쪽.

61) 本莊榮治郎, 1935, 앞의 글, 94쪽.

위의 인용문을 보면 혼다가 ‘해외 경략자’일 뿐만 아니라, 경략의 범위 또한 꽤 광범위한 지역까지 제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혼다는 에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경략’이란 용어보다는 ‘무육’이란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다음은 혼다가 ‘무육’에 관해 설명한 내용들이다.

에조의 토지는 토지에 맞지 않아 토인의 인원이 적다. 일본의 속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무육을 얻어 도를 정비하여 토인을 증식해야 할 것도 수 년간 버려져 왔기에 여제 예카테리나의 덕정 안에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의 단성(丹誠)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세가 됐다.⁶²⁾

아무리 이적이라고 해도 원래는 일본인의 종류이어서 명군이 나와 여기에 명리를 보내 무육 교도시켜 수령이 곤궁의 참을 수 없음을 털고, 선악과 사정을 규명하여 상벌이 엄밀하면 결국 양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적이라고 하면 실로 짐승과 같이 생각하는 자가 많은 것은 너무도 걱정되는 바이다.⁶³⁾

위의 인용문에서 볼 때, 혼다의 눈에 비친 대 에조정책은 이들을 ‘무육’하는 것으로, 종래 지속해왔던 교류를 이어가고 관리를 보내어 에조 지역의 주민들을 공정하게 대하면, ‘양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혼다는 인용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덕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혼다의 다른 글에서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가라후토 등에 상가를 운영해온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역할 것을 주장하면서, ‘토인이 굴에서 살면, 가택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도와주면’ 그들은 일본에 대해 ‘아동이 부모를 따르듯 믿을 것’⁶⁴⁾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혼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에조에 대

62)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31쪽.

63) 本多利明, 1935a, 앞의 글, 298쪽.

64) 本多利明, 1970b, 앞의 글, 44쪽.

한 혼다의 '무육'은 바로 에조와의 교역을 통해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일본의 '생활'이나 '문화'를 전달해, 그들의 삶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무육'은 혼다의 글을 통해 흔히 나타난다.

무육은 즉, 교역이다. 관의 선박을 이용해 천하의 산물을 운송하고, 그 나라 그 섬 곳곳에 부족한 것을 토인과 교역하는 것이 무육이다. 그렇게 하면 기근을 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창을 더하고 토인은 증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간요(肝要)한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역을 상인에게만 주는 것은 도리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 (텐메(天明) 기근서) 관의 교역이 있었다면, 풍작한 나라에서 미곡 및 식물이 될 만한 것을 사들여 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아사하는 나라들에게 운송하고, 요지 요지에 비치해두면 매매교역하고 식물을 얻을 수 있기에 한 사람도 아사하는 토인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육의 개요이다. 가라후토 섬도 이러한 마음으로 무육하면 얼마 안 있어 대량국(大良國)이 되어 일본을 돕는 힘이 될 것이다.⁶⁵⁾

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도를 얻지 못하는 자,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나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무육이란 것은 즉, 교역이다. 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천하의 산물을 운송하고 그 나라, 그 섬, 그곳에 부족한 것을 토인과 교역해 있고 없음에 서로가 통하는 것이 무육이다.⁶⁶⁾

일본이 천하제일의 양국(良國)으로 될 이유를 논한다면, 신무 이래 약 1,500년 중에 점차 제도도 갖추게 됨에 따라 캄차카의 토지에 본도를 옮겨 니시[西]가라후토 섬에 대성곽을 건립해, 산단, 만주와 교역하여 ……⁶⁷⁾

지금까지 무육의 정론을 본 적은 없지만, 옳고 그름을 논한 것을 본 적은 더욱 없다. 그런데 유럽의 융성한 나라들은 모두 무육을 이용해 다

65)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34쪽.

66)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34쪽.

67) 本莊榮治郎, 1935, 앞의 글, 53쪽.

스리는 것을 국정의 최초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인지, 만민이 신복(信服)해 다스리는 길을 만민으로부터 애써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고요하고 편안하다고 할 수 있다.⁶⁸⁾

다시 말해, 혼다가 주장한 ‘무육’이란 ‘교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교역이 야말로 일본이 ‘천하제일의 양국’이 될 필수조건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또한 ‘무육’은 굳이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따르는 자가 믿음을 갖는다면 어렵지 않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혼다가 말하는 ‘경략’이란 ‘교역을 통해 예조와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그 관계 속에 취득한 교역의 산물을 일본에 들여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혼다는 이러한 무육의 모델로 유럽의 나라들을 꼽았다. 그리고 유럽의 ‘무육’ 방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중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민감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그의 주장처럼 ‘무육’의 대상을 일본의 근린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⁶⁹⁾ 요컨대 러시아가 예조에 대해 ‘덕정’을 베풀고 교역하는 것, 즉 ‘무육’하는 것은 거리상 멀리 위치한 다른 유럽들의 ‘무육’보다 훨씬 큰 긴장감으로 다가섰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⁷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혼다의 예조에 대한 접근방식은 메이지시기 이후에 등장한 선행연구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조는 혼다가 교역을 통해 일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한 의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혼다의 주장을 ‘해외 경략자’의 틀로 이해하고 있다.

내가[혼조-필자] 반드시 도시야키의 논을 개국론의 선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쇄국이었던 당시에서 개국진취의 설을 내세우고, 특히 당시 일부 논자 사이에 행해진 사상에 반하여, 무역이 양 당사국을 이롭

68) 本多利明, 1935f, 앞의 글, 90쪽.

69) 미야타 준은 ‘무육’을 러시아와 예조 지역 간의 관계로 봤다. 이 점에서 필자와는 견해 차이가 있다. 宮田純, 2004, 앞의 글, 5쪽.

70) 本多利明, 1935d, 앞의 글, 331쪽.

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구주 선진국이 무역에 의해 국부를 증진시킨 것을 보고, 통절히 개항 통상의 필요를 느끼며,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를 더함과 동시에 무역을 허락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로 식견이 높은 것이었다고 칭하지 않을 수 없다.⁷¹⁾

또한 1957년, 곤도 다케이치[近藤武一]가 쓴 혼다의 평가에서도 혼다의 ‘무역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용을 하고 있다.

모스크비아에 친화된 토인의 풍정(風情)을 새롭게 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에 속한 섬들인 것은 선조 대대로 전해져온 것으로, 신전을 존경하는 풍속은 지금도 그치는 일 없고, 이 풍속을 잃지 않은 가운데에 일본의 선박이 매년 도해하여 교역하고 운송하여 무역하면, 결함이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보충되며, 일그러짐이 있는 것은 교역해 서로의 것을 나누면 친해져 따르는 것은 쉬울 것이다. 이제 겨우 안에[安永, 1772~1781] 연간 이래 나타난 모스크비아어기에 지금 늙은 오랑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이 정책을 실시해 늙은 오랑캐들에게 옛것을 전하게 하고, 국운을 망각하지 않도록 재, 덕, 능(能)을 겸비한 유사를 출사해 무역하면, 얼마 안 있어 일본을 따를 것이다.⁷²⁾

이것은 혼다가 에조 지역에 대해 일본의 무관심을 일깨우고, 러시아에 선점되기 전에 교역을 통해 에조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런데 곤도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금일 지시마[千島] 제도가 일본과 소련 간의 영토 문제로 주목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매우 흥미로운 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⁷³⁾ 다시 말해, 혼다에 대한 곤도의 평가는 혼다가 생존한 과거를 곤도의 현실에 투영시켜, 20세기의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지시마의 관계에서

71) 本莊榮治郎, 1935, 앞의 글, 40쪽.

72) 本多利明, 1970c, 앞의 글, 137쪽.

73) 近藤武一, 1957, 「天明, 寛政期の進歩的經濟學者一本多利明のことども一」, 『金城學院大學論集』通號 59호, 160쪽.

바라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메이지 이후에 등장한 혼다에 대한 평가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팽창주의가 본격화된 1880년대 이후 혼다의 연구 역시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조 역시 조선을 넘어 만주, 중국에 대한 침략이 절정을 이룬 1930년대에 혼다의 연구를 집대성해 출간한 상황을 볼 때, 혼다가 ‘식민사상가’로서 일본 사회에 자리매김된 것은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혼다의 예조 지역에 대한 정책이 ‘교역’을 중심으로 한 ‘무욕’의 방법이었음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이들 선행연구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II. 맺음말

이상으로 혼다 도시아키의 ‘속도 개업’ 논의를 중심으로 한 ‘대외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다는 당시 일본의 경제적 곤궁을 극복하기 위해 ‘속도’를 개업하고자 했다. 그리고 구체적 지역으로 예조를 들었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눈을 돌렸다. 혼다의 예조 개발 목적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일본경제의 돌파구를 만드려고 했고, 둘째는 일본과 이국과의 경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북쪽의 이적을 방어하는 요해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혼다가 이 지역에 관심을 둔 것은 무엇보다 일본과의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며, 종래 일본과의 교역을 해왔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당시 일본의 현실 속에 용이한 수단이었고, 신속하게 물자교역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혼다는 이들 지역과 교역하면서 일본 내 물자 부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혼다의 예조에 대한 관심 뒤에는 일본 내 경제력 압박이 있었다. 특히 1780년

대 일본열도를 강타한 기근과 백성의 생활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 등은 혼다로 하여금 변혁을 구상케 했다. 더욱이 무가와 상인의 경제력 독식으로 인해 농민의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 극심하자, 혼다는 ‘경세비책’을 통해 정치·사회·경제의 개혁을 추구했다. ‘속도 개업’ 논의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다.

혼다는 이 개선책의 모델을 서양에서 찾았다. 혼다가 본 서양은 ‘교역’과 ‘제도’가 갖춰진 곳이었다. 혼다는 ‘천하에 무적의 나라는 유럽이다’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유럽이 ‘천하의 무적’으로 등극한 것은 ‘모두 만국을 다니며 공을 세운 까닭’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즉, 대외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⁷⁴⁾ 그리고 학교와 선거 등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서양이야말로 일본이 지향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교역을 중시하는 혼다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에조에 대해 활발한 교역을 진행시키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더욱이 그러한 러시아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며 ‘존경심’을 표현한 에조 주민들의 태도는 혼다를 더욱 불안케 했다. 혼다는 정책적으로 일본 역시 에조와 교역해야 한다고 주장함은 물론, 그 방법론으로 ‘무육론’을 강조했다. 혼다는 ‘무육’을 ‘교역’으로 인식했고, 에조와의 교역을 통해 신뢰를 얻고 그들을 감화시켜 에조를 ‘속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 선박 등을 제작하고 이것을 이용한 해양의 교역을 활발히 하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다의 ‘에조 개발’ 논의는 종래 주로 ‘식민지 경영론’으로 해석되어 왔다. 혼다에 대한 전문 연구자 혼조 에지로 역시 혼다가 에조 제도를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제국을 경략하고 영토 확장을 주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혼다가 언급한 ‘속도 개업’ 논의는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의 ‘식민지 경영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 에조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경쟁은 곧 19세기 말~20세기 초두, ‘러시아 남하’의 위기로 투영되어, 일본의 아시아 진출에

74) 笹間愛史, 1984, 『本多利明小論－福澤諭吉の初期經濟論との對比』, 『法政大學教養學部紀要』 제51호, 法政大學教養學部, 131쪽.

명분을 갖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다는 '식민사상의 선각자'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24년 일본정부로부터 종4위를 제수받게 된다.⁷⁵⁾

이상으로 메이지 이후 주를 이룬 '식민사상가·혼다'의 상(像)은 보다 다각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을 알았다. 혼다는 시대적 배경이 전혀 다른 에도의 사상가가 메이지시대 이후 국가전략에 동원되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일본 전근대의 사상가들의 논의가 어떠한 역사상을 갖고 있고, 각 시대별로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할 것이다.

75) 本莊榮治郎, 1935, 앞의 글, 15쪽.

참고문헌

〈저서〉

- 本莊榮治郎, 1931, 『近世の經濟思想』, 日本評論社.
 本莊榮治郎, 1935, 『本多利明集』, 誠文堂.
 本莊榮治郎, 1938, 『近世の經濟思想 續編』, 日本評論社.
 塚穀晃弘 編, 1970, 『日本思想大系』 44, 岩波書店.
 社會經濟史研究所, 1971, 『社會經濟史研究所研究紀要』 通號 6.

〈논문〉

- 本莊榮治郎, 1935, 「解題 本多利明集」, 『近世社會經濟學術大系』, 誠文堂.
 本多利明, 1935, 「蝦夷拾遺」, 『本多利明集』, 誠文堂.
 佐藤直助, 1955, 「本多利明の人口論の背景」, 『ソフィア』, 上智大學.
 池田喜義, 1957, 「本多利明の經濟說について」, 『宮崎大學學芸學部研究時報』, 宮崎大學學芸學部.
 近藤武一, 1957, 「天明, 寛政期の進歩的經濟學者-本多利明のことども」, 『金城學院大學論集』, 金城學院大學論集委員會.
 島崎隆夫, 1958, 「本多利明の農政論-その前提」, 『三田學會雜誌』 慶應義塾經濟學會.
 海老澤有道, 1958, 「蘭學者の天主教理解-前野良澤·本多利明を中心として」, 『ソフィア』, 上智大學.
 島崎隆夫, 1958, 「本多利明の農政論-その經濟政策の性格續」, 『三田學會雜誌』, 慶應義塾經濟學會.
 平田厚志, 1958, 「本多利明の經濟思想小論-特に重商主義論を中心として」, 『龍穀史壇』, 龍穀大學史學會.
 石原正令, 1970, 「本多利明人口思想の根據」, 『函館大學論究』, 『函館大學論究』 通號 5, 函館大學編集委員會.
 柳田富雄, 1970, 「道元 上」, 「本多利明·海保青陵」, 『日本思想大系』 12, 岩波書店.
 筒井若水, 1974, 「本多利明の國際社會觀-幕藩期における主權平等意識」, 『社會科學紀要』 通號 23, 東京大學大学院總合文化研究科.
 宮崎道生, 1977, 「新井白石と洋學者-白石と本多利明·渡邊崋山」, 『岡山大學法文學部學術紀要』 38(史學篇), 岡山大學法文學部.

- 長尾久, 1980, 「本多利明と大原左金吾」, 『相模女子大學紀要』通號 44, 相模女子大學.
- 笹間愛史, 1984, 「本多利明小論－福澤諭吉の初期經濟論との對比－續－」, 『法政大學教養部紀要』通號 51, 法政大學教養部.
- 折原裕, 1993, 「江戸期における重商主義論の成立－海保青陵と本多利明」, 『敬愛大學研究論集』通號 43, 敬愛大學經濟學會.
- 小林龍彦, 1993, 「本多利明の3角法と漢譯西洋曆算書との關係について」, 『科學史研究 [第2期]』31 (通號 184), 日本科學史學會.
- 류재근, 1994, 「일본의 국제론과 대외침략론」, 『청계사학』 11, 청계사학회.
- 西岡幹雄, 2000, 「本多利明の「自然治道」論と開發經濟モデル－政策思想における「西域」型經世學への轉換」, 『經濟學論叢』, 同志社大學經濟學會.
- 前田勉, 2004, 「蘭學系知識人の「日本人」意識－司馬江漢と本多利明を中心に」, 『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 愛知教育大學.
- 宮田純, 2004, 「本多利明の北方開發經濟思想－寛政三年成立『赤夷動靜』を中心として」, 『日本經濟思想史研究』, 日本經濟思想史研究會.

[ABSTRACT]

Making the Tradition of Colonialism in Modern Japan: The Revaluation of Honda Toshiaki’s Discourse for ‘Cultivating Neighboring Territories’ during the Meiji Era

Rhyu, Mina

This research attempts to review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Honda Toshiaki, who is well-known as the founder of the Japanese philosophy for colonialism, and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is thoughts. Honda Toshiaki, a distinguished social thinker during the Edo era, acquired a reputation with his publication concerning governing and economic managements, *A Secret of Governing*. During the Meiji era, he has been called the founder of a discourse of the ‘colonial governing,’ because he presented an argument for ‘cultivating neighboring territories.’

His academic interests in ‘cultivating neighboring territories’ originated from his emphasis on trade and its positive effects on Japan’s economic development.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he argued that trade with neighboring countries near Japan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solve the problematic shortage of goods and materials in Japan. However, since he considered Russia as the potential threat to Japan’s national security, his key target area of cultivating trade was not Russia, but rather the Ezo area (currently Hokkaido) between Japan and Russia. In order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the Ezo area, he pointed out the significance of trade. Therefore, the promotion of trade

with the Ezo is the core of his argument for ‘cultivating neighboring territories.’

Although, however, his discourse is not directly related with colonialism, he has reevaluated as the founder of the ‘colonial governing’ during the Meiji Era. It is because the Meiji intellectuals have reconstructed and utilized his thoughts in order to rationalize Japan’s imperial expansion to A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other social philosophers of the Edo era, who have been considered as founder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keywords

Honda Toshiaki, ezo, an island belonging to Japan, Colony management, trad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토 노부히로의 대외관

- 구제와 침략 -

최은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책임연구원

I. 머리말

막말유신기의 대외관은 대외 위기, 즉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서구열강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고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양상은 다양하다. 일본 역사 학계에서는 주로 화이관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지만 박훈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국적(戰國的) 대외관과 응비론적 대외관으로 재정리한 바 있다. 전국적 대외관이란 만국대치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막말의 세계정세를 새로운 전국으로 보는 관점으로, 강대국가론이라는 변종을 아우른다. 한편으로 응비론적 대외관이란 일본의 대외팽창을 주장하는 관점이다.¹⁾ 이 글은 박훈이 제시한 이 분류에 즉해서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대

※ 투고일: 2010년 9월 28일, 심사일: 2010년 11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29일.

1) 박훈, 2008, 「18세기 말~19세기 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東洋史學研究』 제140집. 화이론적 파악을 중심에 두고 근세 후기에서 막말에 이르는 시기의 대외관의 변화를 좇은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荒野泰典, 199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荒野泰典, 1994, 「近世の對外觀」, 朝尾直弘 외

외관을 파악하려 한다.

박훈에 따르면 이 글에서 다룰 사토 노부히로의 대외관은 웅비론의 한 유형인 군사적 팽창론으로 규정된다. 1823년의 『우내혼동비책(宇內混同秘策)』(이하, 『혼동비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대외관은, 세계의 최고위에 일본을 놓고 다른 나라를 정복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토록 선명하게 대외침략을 공언한 사상가는 에도시대를 통틀어 달리 없는데, 그 대외관의 이와 같은 성격은 일찍부터 인식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11년에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가 사토를 일컬어 “오늘날로 따지면 제국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인 사람이라 한 것은 그 한 예이다.²⁾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훈 논문을 제외하고는 사토의 대외관을 정면에서 다룬 연구성과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국학자로서의 사토, 근세에 근대적 정치경제질서를 주창한 경세론자(經世論者)로서의 사토라는 이미지에 집중해 왔으며 지금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토의 대외관은 『혼동비책』의 강렬한 인상, 근대 일본이 보인 침략의 역정과 흡사한 주장 탓에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처음부터 부정당해온 것이다.

그런데 시야를 약간만 넓혀서 사토가 여러 외국, 세계에 대해 논한 다른 문헌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인상은 조금씩 허물어지게 된다. 1820년대라는, 그의 82년 생애에서 극히 짧은 한 시기를 제외하면 그가 『혼동비책』만큼 강력하게 대외정복을 주장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으며, 이 책의 앞과 뒤에 나온 저술에서 펼쳐지는 대외관은 동시대의 다른, 적어도 『혼동비책』보다는 온건한 대외관들

편, 『岩波講座 日本歴史』 제13권, 東京: 岩波書店.

- 2) 河上肇, 1911, 『經濟學研究』, 339쪽. 제국주의자라는 규정은 『혼동비책』의 내용을 보면 금새 와 닿을 것이지만 사회주의자라는 규정은 의외로 보일 것이다. 가와카미가 사토를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이 글의 뒷부분에서 다룰 『수통비록(垂統秘錄)』의 내용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즉, 사농공상의 신분제 대신에 8민을 도입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전문적인 업(業)을 부여하는 것은 계급 철폐이고, 사적인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며, 일체의 교육이 국비에 의해 이뤄지며 빈민을 구제하는 것 또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 즉 푸리에나 생시몽식의 사회주의이다. 河上肇, 1911, 위의 책, 335~356쪽.

과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사토의 대외관이 단일하지 않고 웅비론적 대외관과 전국적 대외관의 병존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 후자가 오히려 사토의 일관된 대외관이며 그를 특징짓는 대외관으로 간주되어온 웅비론적 대외관은 히라타 국학[平田國學]의 감화를 받은 시기의 이상(異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으로서의 웅비론적 대외관이 사토에게 지녔던 의의와 후대에 그것이 부각되는 과정이 막말유신기 대외관의 이해에 시사하는 바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각각의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사토 노부히로란 인물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 필요할 것이다. 18세기 중반의 이른바 다누마 시대(田沼時代, 1767~1786)가 전개되기 시작할 때 현재의 아키타 현에서 태어난 사토는, 그 자신의 언명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젊은 시절을 일본 각지, 주로 동북 지방을 편력하며 보냈다. 편력은 각지 서민의 생활상을 보고 그들을 구제할 방도를 생각하라는 아버지의 유지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1792년에는 에도 교바시의 야나기 조[柳町]에서 의사로 개업했고 5년 뒤인 1797년에는 모친상을 계기로 현재의 지바 현 도가네 시[東金市]로 이전했다. 이후의 행적은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없다가, 1813년에 다시 에도로 돌아와 이번에는 니혼바시의 도미사와 조[富澤町]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이렇게 해서 에도에 체재하던 1815년에 일본 중심주의로 유명한 국학자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의 문하에 들어가는 것이 이후의 그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 다룰 『혼동비책』 등 그를 대표하는 저작들이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한다. 이후 1850년에 에도에서 82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어갈 때까지 대량의 저술작업을 행했다.³⁾

현재 그가 남긴 저작은 『사토 노부히로 가학대요[佐藤信淵家學大要]』(1906년) 및 『사토 노부히로 가학전집[佐藤信淵家學全集]』(1925년)으로 모아

3) 飯村粹, 1893, 『佐藤信淵翁傳』, 5~30쪽; 島崎隆生, 1977, 「佐藤信淵人-物, 思想ならびに研究史」, 『日本思想大系』 45, 東京: 岩波書店, 604~605쪽.

져 있는데, ‘가학’이라 불리는 것은 여기 수록된 저술들의 일정 부분이 사토의 아버지 사토 노부타카[佐藤信孝], 조부 사토 노부카게[佐藤信景]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저작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경세론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몇몇 저술들을 제외하면 그의 저작은 대체로 농학으로 분류되어 마땅한, 농촌 생산력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경세론자 사토라는 이미지가 확고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토의 저작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점은 사토의 저작 곳곳에서 표절과 다른 사상가의 사상 요소의 차용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모리 센조[森銑三]가 1942년 저작 『사토 노부히로 - 의문의 인물[佐藤信淵 - 疑問の人物]』에서 이를 확인한 이래 이 사실은 널리 공인된 바이며 이제 와서 이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다.⁴⁾ 국학의 스승인 히라타 아스타네뿐만 아니라 혼다 도시야키 등 같은 시대의 주요 사상가들의 흔적은 도처에 숨어 있어서 텍스트를 해석할 때 과연 어디까지가 차용이고 어디부터가 사토의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녹록지가 않다. 후술할 『천주기(天柱記)』처럼 저작을 통째로 옮겨쓴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일이 차용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역측의 영역을 넘지 않는다.

둘째, 사토가 조부와 부친의 저작이라 언급한 것들이 사실은 사토 자신의 저술일 것이라는 혐의이다. 그의 저작 도처에서 ‘가학’의 수립에 대한 강한 집념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집착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저술을 조부와 부친에게 양보하게끔 했을 거라는 추측은 뿌리 깊다.⁵⁾ 두 번째 문제점은 이 글과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저술은 사토가 조부나 부친에게 양보했다고 일컬어지는 저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 森銑三, 1942, 『佐藤信淵 - 疑問の人物』, 東京: 今日の問題社.

5) 대표적인 예로, 조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토성변(土性辯)』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요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작성 연대의 비정조차 곤란해지게 마련이다.

반면 첫 번째 문제점은 어떤 장면에서든 해석자를 괴롭히지 않을 수가 없다. 19세기 사상사를 다루는 가쓰라지마 노부히로도 예외가 아닌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사토의 어떤 부분이 표절이고 어떤 부분이 독창적인가라는 문제는 되도록 피하고 그의 언설체계 전체를 살필 것을 권하고 있다. 즉, “노부히로 사상의 으뜸가는 특질은 애당초 그러한 지식의 집적, 정보의 잡탕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⁶⁾ 필자는 이 입장에 동의하는데, 표절이든 차용이든 대외관과 관련하여 사토가 동요한 진폭과 그 배경이야말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하, 사토의 대표적 대외관인 웅비론적 대외관을 『혼동비책』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전국적 대외관을 드러내는 저작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보인 진폭을 검토하기로 한다.

1_ 웅비론적 대외관-『혼동비책』

이미 언급했듯이 국학에 입문한 지 8년이 된 1823년에 사토는 웅비론적 대외관으로 분류되기에 충분한 저작 『혼동비책』을 남겼다. 나중에 논할 다른 저술들을 제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사토의 대외관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운위되는 이 책은, 첫머리에서 “위대한 황국[皇大禦國]은 이 땅 위에 제일 먼저 생겨난 나라로 세계 만국의 근본이다”라 선언하는 데서 시작된다. 해당 문단을 인용해보자.

위대한 황국[皇大禦國]은 이 땅 위에 제일 먼저 생겨난 나라로 세계 만국의 근본이다. 까닭에 능히 그 근본을 다스린다면[經緯] 곧 세계의 모든 곳을 군현[郡縣]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만국의 군장[君長]이 모두 신복이 될 것이다.⁷⁾

6) 桂島宣弘, 1999, 「幕末國學の轉回と佐藤信淵の思想-『天柱記』と鑄造化育論を中心に」, 『思想史の十九世紀-「他者」としての徳川日本』, 東京: ペリカン社, 155쪽.

7) 「混同秘策」, 『日本思想大系』 45, 東京: 岩波書店, 1977, 426쪽.

현대의 독자는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갑자기 일본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접하게 된다. 사토의 이 당혹스런 주장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다.

삼가 신들이 다스리던 시대[神世]의 옛 전적을 살펴보면 “푸른 바다, 바다 물결의 가없음을 알라”고 하니, 이는 곧 황조(皇祖)인 이자나기 신께서 스사노오노 미코토에게 내리신 말씀이다.⁸⁾

여기서 이자나기의 말이라고 사토가 인용하는 것은 『일본서기』에 나온 “쓰키요미노 미코토[月讀尊]여 가없이 푸른 바다, 바다 물결을 다스려라”⁹⁾는 구절이다. 즉, 사토가 갑자기 세계 경략을 말하는 근거는 『일본서기』에 있으며 여기서 ‘황국의 주인 된 자’가 다스려야 할 범위가 일본을 넘어선 세계로, 선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다만, 이 구절에서도 말하는 ‘황국의 주인된 자’가 현실에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지는 항상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혼동비책』에서는 천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저작들에서도 항상 그러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런 애매모호함을 안고 있긴 해도, 이것은 명확하게 히라타 국학의 영향을 느끼게 하는 종교적인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토가 1822년에 작성했다고 하는 『천주기(天柱記)』를 볼 필요가 있다.¹⁰⁾ 『천주기』는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대, 이집트 등 오랜 문명국의 유래를 신화적인 내용으로 풀이한 뒤에 우주의 창생과 운행원리를 설명하는 책으로, 대외관이라는 관점

8) 「混同秘策」, 426쪽.

9) 『日本書紀』神代上 第五段 一書 第六.

10) 『천주기』의 작성 연도에 관해서는 부연이 필요하다. 가쓰라지마 노부히로(桂島宣弘)가 지적하듯 『천주기』는 단시일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1819년에 처음 「서(序)」가 작성되고 6년이 지난 1825년까지 판을 거듭하며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쓴 『日本思想大系』 판본에서는 「서」가 1822년으로, 하권의 최종 연도가 1825년으로 되어 있다. 수정이 거듭된 부분은 「서」 및 그에 연이은 부분, 즉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이 아니라 “유명론(幽冥論)”을 중심으로 한 후반부로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1822년으로 비정했다.

에서 중요한 것은, 국학의 색채를 강하게 띤 이 저작의 모두에서 사토가 “외국은 모두 황국이 이미 생겨난 뒤에야 거품이 모여 땅이 된 곳이므로, 그 나라들의 시초가 (황국보다) 늦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선언한다는 점이다.¹¹⁾ 일본의 지고성이 선협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인데, 외국은 스쿠나비코나[少彦名], 즉 일본 창세 때 바다 너머에서 건너와 창세를 도왔다는 신이 만든 것이라 설명함으로써 일본을 정점으로 한 세계 각국의 체계를 관념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외국의 유래를 설명하는 한 예로서 중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자.

지나국에서 말하기를, 반고씨(盤古氏)라는 신이 있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해와 달은 곧 반고의 두 눈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리 이자나기[伊弉諾] 신이 미소기하라이[禊祓]의 의식을 행할 때 두 눈에서 해의 신과 달의 신이 생겨났다는 옛 전승이 바뀌어 전해진 것이다. 여와씨(女媧氏)라는 여신이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공공씨(共工氏)라는 신이 그와 싸움을 벌였으나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불주산(不周山)에 머리를 박아 죽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하늘기둥[天柱]이 기울어진 것을,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빚어 고쳤다고 한다. 이는 아마테라스 오미노 가미[天照大神]와 스사노오노 미코토[須佐男神]의 고사가 변해 전해진 것이다.¹²⁾

위와 같은 식으로 앞서 언급한 여러 나라들 하나하나에 대해 그 기원이 일본에 있음을 논하고 우주의 원리, 즉 신령에 의한 우주의 창조와 지동설적인 행성의 운행을 설명하는 것이 『천주기』의 주요 내용이다. 가쓰라지마 노부히로[桂島信弘]는 우주 창생의 원리를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18세기 중엽 이래 근세 국학자에 공통된 양상이자 그 근간을 이룬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토의 『천주기』는 당대 국학의 전통에 충실한 책이라 할 수 있다.¹³⁾

11) 「天柱記」, 『日本思想大系』 45, 東京: 岩波書店, 1977, 366쪽.

12) 「天柱記」, 366~367쪽.

13) 桂島宣弘, 1999, 앞의 책, 155쪽.

그런데 『천주기』의 이와 같은 내용은 히라타 아쓰타네가 1813년에 낸 대표작 『영능진주(靈能眞柱)』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신령에 의한 우주 창생, 일본의 신화가 변해 전해져 외국의 신화가 되었다는 주장, 세계의 중심은 황국이라는 주장 등은 모두 이 책에서 이미 언급이 된 것이다. 즉, 『천주기』는 사토가 히라타 국학의 우주론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독창성보다는 히라타 국학을 자기 것으로 흡수했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능진주』 자체가 서양의 동점에 대한 한 반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쓰라지마의 주장을 빌자면, 이 책은 직접적으로 서양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의 북해도 침입을 계기로 강화된 위기의식 하에서, 서양을 서양의 학문으로 대치시켜 이를 자기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오히려 일본을 지고의 위치에 두는 체계로 재구성함으로써 서양에 대응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렇게 한번 걸러진 대 서양 대응을, 사토는 『천주기』를 씀으로써 자기 것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혼동비책』을 씀으로써 구체적인 정치 플랜으로 전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혼동비책』으로 돌아가보자. 모두의 선언에 이어서 사토는 “세계의 지리를 보건대 만국은 황국을 근본으로 하니 황국은 실로 만국의 근본이다. 그 내역을 논하고자 한다. 무릇 황국으로부터 외국을 정벌하는 것은 그 세(勢)에 순응하는 것이어서 쉬우나 다른 나라가 황국으로 침입하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어서 어렵다”¹⁵⁾는 의견을 내놓는다. 여기서 현실적인 대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양이 아니라 중국이다. 사토가 생각하기에 일본 주위의 나라에서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군사가 강한 나라로는 중국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친 정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몽골의 침략을 떠올려보면 중국이 일본을 침략해서 성공할 리는 없으며, 역으로 일본은 몇 년만 준비

14) 桂島宣弘, 2008, 「華夷思想の解體と自他認識の變容」, 『自他認識の思想史一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生成と東アジア』, 東京: 有志舎.

15) 「混同秘策」, 426~427쪽.

하면 전시에 재산 피해가 심대하고 주군의 명에 잘 따르지도 않는 중국을 쉽게 정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중국만 정벌하면 다른 오랑캐들[其他夷狄]을 정벌하기는 쉬우며, 그 때문이라도 중국정벌의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때 사토가 염두에 두고 있는 판도는 중국을 포함해서 서역, 시암(타이), 인도, 그리고 각종 오랑캐들이다.¹⁶⁾

비로소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세계전략 계획이지만, 전체 3권으로 이뤄진 이 책의 대부분은 의외로 국내 경영에 할애되고 있다. 수도를 전통 있는 교토와 더불어 물산이 풍부한 관동의 에도[江戸]에도 뚫으로써 전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서 전개되고 있다.¹⁷⁾ 이리하여 일본 전국을 양경(兩京)과 14성부(省府)로 편제하여 내정을 착실히 다지고, 거기서 비축된 힘으로써 제일 먼저 공격이 용이한 만주와 타이완을 치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을 공격하고, 니가타와 규슈 방면에서 조선을 공격하여 정복한다는 것이 사토 구상의 골자이다.¹⁸⁾ 한편으로는 해외전략만이 아니라 일본 방어에도 주의를 기울이는데, 남쪽에는 적국이라 할 만한 존재가 없으므로 북쪽에 힘을 집중해야

16) 「混同秘策」, 428쪽. 오랑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문에서는 “주리(侏儻), 결설(鳩舌), 의관괘이(衣冠詭異)한 무리” 즉 “난쟁이들, 혀 짧은 자들, 입고 쓴 것이 괴상하고 다른 자들”로 나와 있다. 언어의 소통 여부, 복장의 차이가 오랑캐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상 동남아 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후술할 『방해책』, 그리고 본서에서도 지금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근방의 섬들을 장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7) 막부의 중심지인 에도가 아니라 교토를 여전히 수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당시에 수도 이전을 논한 이는 사토만은 아니었고, 이 역시 국학자인 가모 마부치[賀茂真淵]도 「都うつし」란 글에서 에도를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은 岡部精一, 1917, 『東京奠都の真相』, 東京: 仁友社の 12~13쪽에 실려 있다. 다만, 가모의 주장은 수도가 한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기풍이 쇠해진다는 논리여서 사토와는 궤를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에도 천도론이 이들 동국의 국학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최근 연구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도의 수도성(首都性), 즉 근세 후기에 에도가 실질적으로 수도의 역할을 행하고 각인되었다는 논점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8) 14성부는 슌푸[駿府],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오쓰[大津], 고치[高知], 마쓰에[松江], 하키[萩], 하카타[博多], 구마모토[熊本], 가고시마[鹿児島], 가나자와[金澤], 니가타[新潟], 아오모리[青森], 센다이[仙臺]를 가리킨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남쪽으로 외적이 온다면 교토는 물론이고 나고야, 슌푸도 중요하게 될 테니 군사 5~6천을 내어 무인도가 대부분인 필리핀 지역을 정략하여 방비를 다지며 그곳의 물산을 일본으로 보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⁹⁾

위와 같은 전제 위에서 비로소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게 된다. 사토의 침략 구상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박훈 논문에서 분석이 된 바 있다.²⁰⁾ 그 특징만을 간추리자면 아오모리, 센다이, 가나자와 방면의 군사가 만주를 점령한 뒤 중국으로 향하고, 마쓰에, 하기, 하카타 방면에서 출진하여 조선을 정복하며, 오토마리 방면 군이 타이완을 점령한 뒤 중국으로 진출하고, 마지막으로 천황이 직접 구마모토의 병사를 이끌고 중국의 난징[南京]을 취하여 임시 황거로 삼는다는 것이다.²¹⁾ 당시로서는 황망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후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이 구상이 전후에 공공연히 거론되는 일은 드물었다. 한편으로는 가와카미 하지메를 비롯한 좌파적 지식인들의 연구 속에서 그 사회경제 정책적인 면이 부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 일본 역사의 근대성 맹아 찾기 움직임 속에서 중상주의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토가 꿈꾸었던 대외 정복론 및 이와 연관된 그의 사상적 이력은 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선별된 망각 속에서 사토는 웅비론적 대외관의 주창자로 기억되고 있다.²²⁾

19) 「混同秘策」, 2008, 430쪽.

20) 박훈, 2008, 앞의 논문, 286~287쪽.

21) 박훈, 2008, 앞의 논문, 286쪽. 「混同秘策」, 430~436쪽. 아울러 박훈은 이 계획이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달리 동북 방면으로부터 조선을 공격하는 구상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음을 지적한다.

22) 서론에서 언급한 가와카미 하지메 다음으로 전전에 사토를 연구한 좌파적 지식인으로 하니 고로[羽仁五郎]를 들 수 있는데, 가와카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친 그에 의해 근대적 절대주의 국가 체제를 꿈꾼 사상가로서의 사토의 의의가 확정되었다. 羽仁五郎, 1929, 『佐藤信淵に關する基礎的研究』, 東京: 岩波書店. 전후의 일본 역사학계는 사상사에서 마루야마 마사오가 오규 소라이를 발견하고 도요타 다케시 등이 자유도시의 전통을 모색하는 등, 주로 사상사, 도시사를 중심으로 일본 전근대에 내재된 근대적 맹아를 다양한 형태로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경제사상 면에서 중상주의와 증농주의의 선구자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있으며, 대외관의 측면이 사상(捨象)된 사토는 오래 이 흐름 속의 한 인물로 묘사되

2_ 전국적(戰國的) 대외관

앞에서 본 극단적인 웅비론적 대외관을 사토의 대외관이 지닌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 이 절의 문제는 이것이며, 결론을 앞서 워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 전국적 대외관 및 그 변형태로서의 강대국가론적인 대외관이 오히려 사토의 일관된 대외관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을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토가 저술한 다른 저작들을 살펴보는데, 앞서 말했듯이 사토의 저작은 대부분 농학적인 경제론에 관련된 것이고 대외관을 드러내는 저술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 절에서는 1808년의 『서양열국사략(西洋列國史略)』, 1809년의 『방해책(防海策)』, 그리고 만년인 1848년에 지은 『존화좌적론(存華挫狄論)』을 살펴보기로 한다. 『혼동비책』이 씌어진 1823년을 전후해서 세 권의 저작이 배치된 데 주의해주시 바란다. 이전과 이후의 대외관에서 특정한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혼동비책』의 상대화라는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서양열국사략』- 현실주의적 국제질서 파악

히라타 국학에 입문하기 7년 전에 저술한 『서양열국사략』은 아와번[阿波藩]가로 슈도 씨[集堂氏]에게 헌정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세계지리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유대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서양 고대사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근세로 옮겨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서양열국이 해양세력으로서 어떻게 동아시아로 진출해 왔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한다. 다른 저작들과 달리 사토의 독자적인 주장은 찾아

곤 한다. 대표적으로는 松浦令, 1964, 「江戸後期の經濟思想」, 『岩波講座 日本歴史』 近世5, 東京: 岩波書店. 다른 하나의 흐름은 국학론에서 사토를 다루는 경우이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가쓰라지마 노부히로의 연구가 최근의 성과인데, 이 경우에도 대외관이 문제되는 일은 드물다. 본문에서 말한 대로 사토의 대외관은 박혼 논문을 제외하면 선별된 망각 속에 방치된 것이다.

보기 힘들고 같은 시대 사람들이 서양을 소개한 다른 저술들과 별반 차이도 없지만, 단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아시아와 서양 여러 나라들의 위상 설정이다.

아시아 대주(大洲) 중에서는 중화국을 제일로 친다. 조선, 류큐 등은 공히 부庸(附庸)의 속지(屬地)이기에 나라(國)로 헤아리지 않는다. …… 이 나라는 지금의 대청국이 되면서부터 몽고와 서역 여러 나라, 서남 지역의 여러 오랑개(諸夷), 조선, 여진 등의 여러 오랑개(諸胡)를 신복시키셨다.²³⁾

여기서 사토는 옛날부터 알려진 중화국과 청국을 확연히 구별한다. ‘중화’란 말은 『존화좌적론』에서는 ‘중화의 인민’이란 표현으로 등장하여 중국대륙을 가리키는 듯한 인상도 주는데,²⁴⁾ 그럴 경우 지리 공간으로서의 중화, 역사적으로 그 터에 맹주로 군림해온 국가의 총칭으로서의 중화국, 지금 현재 그 터의 맹주인 청국이 따로 파악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자면 화이관의 중화와는 무연(無緣)의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통신관계에 있던 조선을 ‘부庸의 속지’로 평가하여 아예 국가로 다루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국학자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학의 세례를 받은 사토에게서는 중화론적인 질서 자체를 읽어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중화란 오로지 청국뿐이고 그나마도 중화론적인 의미망과는 무연하다. 까닭에 청국에 무력으로 패하여 신종의 질서를 강요당한 여러 나라들은 독립을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외국에게 무력으로 패하여 신복한 적이 없는 일본과 대등한 독립국가일 수 없는 것이며, 이런 나라들을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아무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을 류큐와 병치시키는 것에서만 전통적인 질서에 대한 약간의 인정이 엿보일 뿐이다. 결국, 한 나라가 부庸국인지 독립국인지는 오로지 그 나라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23) 「西洋列國史略」上,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75~76쪽.

24) 「存華挫狄論」下,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104~105쪽.

에 신중하는지 아닌지의 문제이지 문명수준이나 규모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페루의 잉카는 독립국으로 간주되며 잉카의 왕은 22개의 부왕의 제후국을 거느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논리적으로는, 잉카제국 휘하의 제후국과 조선, 류큐는 동급의 정치체가 되는 셈이다.²⁵⁾ 달리 말하자면, 사토는 조선을 멸시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다만 냉정하게 무시할 뿐이다.

결국 사토에게 아시아의 국가는 일본과 청국, 두 나라만 있는 셈이었다. 이에 대해 그가 “자립한 나라[自立の國, 自立諸國]”라 부르는 서양열강은 어떠한가? 주요한 3개국으로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게르마니아, 터키, 그리고 러시아이며 이들을 사토는 제작(帝爵)의 나라라 칭한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자립한 전통 왕국”인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프로이센, 덴마크, 사르디니아, 나폴리, 포르투갈이며 10왕국으로 총칭하고 있다. 그 외에 네덜란드 등의 독립국도 열거되고 있다.²⁶⁾ 아시아의 두 나라를 십여 개 서양열강이 장차 압박해오리라는 것, 이것이 1808년 당시의 사토가 바라보던 세계의 모습이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은 전통적인 가치나 신의 관계가 아니라 주권국가와 힘(power)을 국제정치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현대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real politics)에 보다 가까운 관점이다.²⁷⁾ 막말유신기 일본에서 전통적 질서와는 다른 힘의 질서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두했음은, 이미 박충석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요코이 쇼난[橫井小楠]을 예로 들어, 1854년의 미일화친조약 이후에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 사토의 인식을 보면 이미 19세기 초에는 철저하게 국력, 국가의 대외 위상(신종이나 독립이냐)에 의해서만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한편으로 이는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에서 파악되는 전국적 대외관의 범

25) 「西洋列國史略」下,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39쪽.

26) 「西洋列國史略」上,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79~80쪽.

27)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현실주의 이론을 염두에 두고 적었다.

28) 박충석, 1980, 「韓日兩國의 國際秩序觀에 대한 比較研究」, 『亞細亞研究』 64, 51쪽.

주에 들어갈 것이며, 이런 점에서 『혼동비책』과는 구별되는 다른 노선의 대외관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훈은 아이자와의 대외관을 평가하여 “보편적 문화력, 또는 문명의 정통성(예를 들면, 중화문명의 도통)을 기준으로 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약하다. 이 점에서 화이질서관과는 상이하며 사실 이것은 근세 일본의 대외인식을 계승한 것이다. …… (만국대치관에 연유하는) 그 위기감은 매우 절박하여 문화적 우월관념 등이 자리 잡을 여지가 적었다”라고 한다.²⁹⁾ 이러한 해석은 『서양열국사략』을 비롯하여 본 절에서 소개하는 사토의 저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바꿔 말하자면 전국적 대외관이 사토 대외관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고전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에서 그러하듯이, 이런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국력 및 군사력의 정비, 그리고 후대의 이른바 ‘이익선(利益線)’의 확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방해책』- 이익선의 확보, 팽창론의 전조

1890년의 메이지 제국의회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행하여 자신의 ‘이익선’ 개념을 폈다.

생각건대 국가 독립 자위의 길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선(主權線)을 수호하는 것, 두 번째는 이익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권선이란 나라의 강역을 말하고, 이익선이란 그 주권선의 안위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주권선과 이익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라로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³⁰⁾

이러한 관념이 이후의 전쟁과 식민지화로 구체화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겠는데, 고전적인 현실주의적 세계관 이외의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

29) 박훈, 2008, 앞의 논문, 278쪽.

30) 「總理大臣ノ演說」, 『官報』, 號外(明治二十三年十二月六日).

는 것으로 보이던 19세기 말의 일본의 상황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가 십여 개의 서양열국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한편으로 북해도에는 여전히 러시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사토시대의 일본의 상황은 그 위기감의 강도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 전통이나 문명의 척도 같은 것이 없이 스스로 정의한 독립국가만의 세계를 보고 있던 사토에게 이 위기감이 주는 결론은 아마가타의 '이익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것이 표출된 것이, 1809년에 썼다고 하는 『방해책』이란 책이다.³¹⁾ 이 책은 『서양열국사략』을 읽은 슈도 씨가 “서양 오랑캐의 교활함(蕃虜ノ狡猾)”에 치를 떨며 대응책을 물어온 데 대해 응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일본을 지켜낼지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응답이 오고 갔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서양열국사략』은 과연 헌정된 책이긴 한지, 저술의 배경을 둘러싼 의문은 남지만 사토의 생각을 읽을 때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내용만을 보기로 한다.

서양 여러 나라가 일본을 영국에 견준다면 일본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대목도 있긴 하지만,³²⁾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혼동비책』처럼 일본의 의의를 극대화하여 타국을 병탄하는 데 있지 않고 서양열국에 대한 적극적 방어책에 있다. 그중 시급한 것은 북쪽의 러시아를 막는 일이다. 사토가 제시하는 해법은, 먼저 캅차카를 공략하여 러시아가 주둔시킨 병사들을 가두고 성곽을 쌓아 일본의 영지로 삼는다는 것이다.³³⁾ 위협은 러시아에 그치지 않는다. 『서양열국사략』의 인식을 이어받는다면 진정한 위협은 일본의 서쪽, 서양열국에서 올 터였다. 그러나 그 전에 또 하나 우환거리가 있으니, 바로 중국이다.

31) 『방해책』은 『사토 노부히로 가학대요』에는 1822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와세다 대학이 소장한 필사본은 본문에서처럼 1809년간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볼 때, 1804년에 벌어진 러시아의 북해도 점거가 있는 직후로 판단되고, 1808년의 『서양열국사략』이 언급되는 점을 감안해서 와세다 대학 필사본의 연도를 따랐다. 다만, 참조상의 편의를 위해 인용은 『대요』에서 했다. 두 판본 사이에 문구의 차이는 없다.

32) 「防海策」, 『佐藤信淵家學大要』, 528쪽.

33) 「防海策」, 529~530쪽.

동북쪽의 근심거리는 러시아와 몽고[韃靼] 그리고 만주 등의 여러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 일본이 걱정해야 할 상대가 어찌 이들만 있겠는가. 바로 저 청이라는 대국이 강대하고도 또 가까이 있으니, 만에 하나 교활한 군주가 등장해서 (일본을) 겸병한다는 뜻을 품게 된다면 그 우환은 러시아와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까닭에 이 대청국(大清國)에 대해서는 비루한 말과 아부하는 태도[卑辭厚聘]를 보여서라도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역하고 통상하여 큰 이익을 거두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임무이다.³⁴⁾

이것은 전작과는 다른 요소이며, 중국을 우환거리로 상정하는 것은 나중에 『혼동비책』의 중국 정복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일본이 자세를 낮추어서라도 중국과는 선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토의 주장이다. 중국이 본래 일본에 적대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인식을 사토가 갖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 ‘교활한 군주’가 등장했을 때뿐이다. 이처럼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는 만년의 『존화좌적론』으로 재등장한다. 여기서, 사토의 중국 정복 구상이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계속 화친한다면 일본에 남은 마지막 위협은 서양 열국이다. 그리고 서양열국과 일본 사이에는 무인의 섬과 섬으로 이어진 해역이 존재한다. 사토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섬이다. 즉, 남쪽에서 영국이 진출하여 필리핀 등지를 경략하고 세력이 더 커지면 동양 여러 나라를 병탄할 뜻을 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에도 앞바다의 하치조지마[八丈島]처럼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은 곳의 인구를 남양의 무인도로 이전시켜 농업을 경영케 하는 것, 다시 말해 식민지를 개척함으로써 영국에 맞서는 방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사토의 구상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베트남, 시암 등과 교역을 행하면서 무인도 경영을 확충하고, 이들 식민지 섬들과 류큐국을 두 축으로 해서

34) 「防海策」, 534~535쪽.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루손 등을 기습 공격하여 취하여 경비를 강화할 것을 논한다. 그렇게만 하면, “영국인들이 창궐하더라도 동양을 노리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견제도 될 터였다.³⁵⁾

한마디로, 『방해책』은 북쪽의 러시아, 남쪽과 서쪽의 중국 및 서양열국이라는 위협 요소에 대해 각각 캄차카와 남양의 섬들을 점령하여 최전방 기지로 삼음으로써 위협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구상을 밝힌 책이다. 『혼동비책』에서와 같은 응비론적 대외관은 여기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무장한 강국들이 곳곳에 준동하는 전국적(戰國的) 현실 속에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외부기지 구축에 열을 올리는 책이기도 하다. 이 『방해책』의 제안은 앞서 언급한 『혼동비책』 속에 흡수되어 중국 정복과는 별도의 남방방어론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언급했듯이 그 근거에는 남방에서 외적이 침입해오면 서일본을 넘어서서 도카이[東海] 지방까지도 순시에 외적의 지배하에 들어가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서일본을 이토록 약한 존재로 보는 것은, 남방공략을 위한 인원은 하치조지마에서 조달하고 그 병력은 이즈에서 조련토록 권고하는 그의 동국 중심적인 시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그의 도쿄(에도) 천도론과 더불어 사토가 얼마나 동국 중심적인 인물이었는지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지니는 함의, 대외관은 물론이고 막말유신기 사회에서 동국과 서국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이로부터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후일의 과제로 삼고 사토의 만년의 저작 『혼화좌적론』에서 드러나는 대외관의 문제로 옮겨가기로 한다.

35) 「防海策」, 535~537쪽.

36) 「防海策」, 537쪽. 박훈은 앞의 논문에서 사토가 제시하는 대외전략 경로가 동북 중심이라는 특이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사토가 동북 출신인 점, 당시 에조 등지의 막부 직할경영이 두드러져 동북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에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박훈, 2008, 앞의 논문, 287쪽. 이런 점들을 인정하면서, 필자는 히라타 문하의 관동 중심적 성격, 무엇보다도 당시 에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이 일본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으리 만치 높아졌다는 점이 일종의 동국 중심적 자부심으로 이어진 결과가 아닐까 추측한다. 실제로 『혼동비책』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사토의 평가는 극히 후하다. 「混同秘策」, 439~441쪽.

3) 『존화좌적론』- 팽창론의 소멸

『서양열국사략』과 『방해책』에서 전국적 대외관을 드러낸 사토는 국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혼동비책』에서 웅비론적 대외관을 극한으로까지 밀어붙였다. 여기서 끝났다면 사토의 대외관은 초기의 전국적 대외관에서 이내 웅비론적 대외관으로 이행한 것이라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년의 저작 『존화좌적론』은 전국적 대외관을 사토가 버리지 않았고, 예전에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던 영국 등 서양열국의 동점이 극적으로 현현하는 1840년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이 대외관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켰음을 알려준다.

영면을 눈앞에 둔 1848년에 지어진 『존화좌적론』은 『서양열국사략』과 마찬가지로 사토의 의견은 별로 없이 18세기 이래 구미세력이 중국에 진출해온 이력과 무기를 담당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혼동비책』 이래 약 30년 만에, 아편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사토는 다시금 현실주의적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 책에서 사토가 표방하는 입장은, 중국을 보전해서 서양 오랑캐를 꺾는다는 뜻의 제목 그대로, 서양열강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토 스스로도 언명하고 있듯이 고전적인 순망치한의 논리이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나눠서 서구의 포와 포술, 서구열강과 중국이 벌인 전투의 서술로 이뤄져 있는데, 전략전술에 치중한 병법서로서의 성격을 띤 그 세부내용을 제외한다면, 대외관과 관련하여 사토가 이 책에서 드러내는 것은 한마디로 팽창론의 소멸, 혹은 원초적인 청일협조론이라 할 수 있다. 청일전쟁 이후 대두되는 청일동맹론의 시원적 형태로도 볼 여지를 주는 사토의 주장은 처음부터 아시아와 서양의 서로 다른 특성을 천명하면서 시작된다.

아시아 사람들은 예를 숭상하고 의를 행하며, 각자가 확실히 그 경계를 지키며, 다른 나라를 침벌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는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 유럽인은 이(利)를 좋아하고 욕(欲)에 따르며, 속여서 뺏으려는 생각이 강하여, 탐내고 탐내도 지치지 않는다.³⁷⁾

37) 「存華挫狄論」上,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1쪽.

아시아 사람들은 예와 의를 알아 자기 것을 지킬 뿐 남의 것을 노리지 않지만 유럽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든 살에 이르러 사토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아시아의 평화, 즉 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의 부재는 바로 이러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청국은 사토의 이런 인식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만청(滿淸)도 이적(夷狄)이고 영국도 이적이다. 그럼에도 내가 영국을 꺾고 만청을 지키려 함은 만청이 중화를 통일하여 어질고 밝은 임금이 여러 대에 걸쳐 계속 나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정사를 행하여서, 중화의 인민들이 크게 번식하여 옛날의 세 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공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다.³⁸⁾ (『존화좌적론』 하, 104~105쪽)

인종이나 문명이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자기 인민들에게 덕을 베푸는 지가 사토에게는 국가와 세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후술하듯이, 대외팽창론을 전면에 내세운 『혼동비책』에서조차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일본은 물론이고(어떤 경우에도 사토가 일본을 부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청국도 또한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은 사토가 청국의 현상을 논할 때 중요한 윤리적 바탕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선 등의 국가는 논의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다. 사토가 생각하는 아시아 국가란 일본과 청국, 그리고 무갈제국 정도인 것이다.³⁹⁾ 『서양열국사략』에서 제시된 주권 국가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훗날에 이르러 수정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동양을 혼동(混同)하여 우내(宇內)를 주머니에 넣으려[括囊]”하는 영국⁴⁰⁾

38) 「存華挫狄論」下, 早稲田大學 소장 필사본, 104~105쪽.

39) 「存華挫狄論」上, 早稲田大學 소장 필사본, 2쪽: “옛날부터 중화국(中華國)이라 칭해온 것은 지금의 만청국(滿淸國)으로 그 영역[境內]이 넓기가 유럽을 다 더한 것보다도 크다. …… 또한 무갈국[莫臥兒國]은 역사와 전통의 제국으로 …… 서양 여러 나라도 이 지나와 무갈이라는 두 개의 큰 나라에는 표(表)를 올리거나 방물을 바치며 신하라 자칭하며 무역을 행하기도 한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설명은 이것 뿐이다.

40) 「存華挫狄論」上, 早稲田大學 소장 필사본, 7쪽.

이 대두하자, 한때 사토가 꿈꾸며 책의 제목으로까지 삼았던 우내의 혼동, 즉 세계 통일을 현실 세계 속에서 피하는 것은 영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혼동의 주체가 되었어야 할 일본은 이제 그 침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토의 생각은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섬나라(一大島國)로 사방이 모두 큰 바다에 접하는 까닭에 우리 영토(領分)만 방어를 견고히 한들 옆 나라가 모두 마음을 합쳐 방비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일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다. …… 청국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큰 나라지만, 강대함에 자만에 빠져 오늘날의 전범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¹⁾

이것은 이전의 저작들에 비하면 훨씬 소극적인 관점이다. 『방해책』에서 역설하던 해외기지 같은 주장이 발 디딜 틈은 더 이상 없으며, 일본과 중국 둘 다 강역의 자주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사실을 사토는 아편전쟁 이후에 뼈저리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사토의 바람은 청국이 다시 흥해서 일본의 ‘서쪽 벽[西屏]’이 되는 것이다.⁴²⁾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서양열국이 강점으로 하는 포병을 주력으로 삼고 보병, 기병, 총병을 보조로 하는 군대를 편제하려 조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었다.⁴³⁾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포술과 서양 특히 영국이 벌인 전투에 대한 얘기로 메워져 있으므로 상세를 생략하지만, 만년의 사토가 보이는 대외관이 1823년에 드러냈던 팽창론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고 그 이전의 생각과 오히려 유사하다는 것은 위에서 인용한 그리 많지 않은 언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열강사략』과 『방해책』에서 일관되게 문제시되던 요소인 서양열국의 동점침탈이 재차 주요의제가 된 것이 그러하고, 중국에 대해 전적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을지언정 순망치한의

41) 「存華挫狄論」上,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95~97쪽.

42) 「存華挫狄論」下,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102쪽.

43) 「存華挫狄論」下, 早稻田大學 소장 필사본, 3쪽.

관계를 의식하는 것, 적어도 일본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외교 관계를 유지할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그러하다. 오직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중국의 위상이 잠재적 위협요인에서 적극적 협조대상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의 변화에 응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사토의 대외관은 흔히 거론되는 『혼동비책』이 아니라 『서구열강사략』, 『방해책』, 『존화좌적론』이라는 선을 따라 전국적 대외관 속에서의 변화를 거듭해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사토의 대외관은 전국적 대외관을 근거에 두면서 일시적으로 팽창론으로 치달았을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3_ 구제와 침략

그러면 『혼동비책』은 그저 한 신참 국학자의 종교적 열정이 낳은 해프닝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 절의 문제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토의 대외관이 품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먼저 『혼동비책』으로 돌아가 그 서문의 일부를 다시 보자.

그렇다면 곧 세계 만국의 창생을 보살피는 것은 처음부터 황국의 주인 된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要務]이었음을 알 것이다. 일찍이 내가 지은 『경제대전(經濟大典)』과 『천형요록(天刑要錄)』은 모두 이 세계를 평안케 하는 법을 기록한 것이다. 생각건대 세계 만국의 창생을 구제하는 것은 극히 거대한 사업이므로 먼저 만국의 지리를 분명히 알고 이어서 그 형세에 따라 하늘의 뜻에 합치하도록 조치한다면, 산령(産靈)의 가르침을 얻어 베풀게 될 것이다.⁴⁴⁾

앞서 『혼동비책』을 논할 때 사토가 드는 대외 정복의 근거가 『일본서기』에 연유하는 선형적인 것이었다고 한 바 있다. 분명히 그런 면모가 있긴 하지만 사토가 이 인용문에서 “세계 만국의 창생을 보살피는 것은 처음부터 황국의 주

44) 『混同秘策』, 426쪽.

인 된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복은 『방해책』에서처럼 물산을 획득하고 대외 방어기지를 구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창생을 보살피는 것” 또한 정복의 주요한 목적, 아니 『혼동비책』에서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창생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위 인용문에서 『경제대전』과 『천형요록』이라는 저술을 언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경제론, 즉 정치경제정책과 연관이 되는 문제이리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두 저서 모두 현존하지 않는).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전후 일본 역사학계가 사토를 조망해온 주요한 측면, 즉 경제론자로서의 사토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사토의 경제론, 즉 생산력 증대와 경제체제 재편에 대한 그의 사상, 특히 『경제요록(經濟要錄)』과 『혼동비책』에 비치는 사상은 같은 시대의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와 극히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⁴⁵⁾ 앞서 언급했듯이 사토의 저작은 각종 차용과 심지어는 표절로 악명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혼다와의 유사함은 우연의 결과 이상의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만년의 『수통비록(垂統秘錄)』에서 펼쳐지는 그의 독자적인 경제론, 국가체제론이 이미 1820년대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⁴⁶⁾ 먼저 만년의 『수통비록』을 통해 그의 경제론의 특성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위로는 천자=천황을 중심으로 3대(臺) 6부(府), 그리고 여러 나라(國) 및 여러 읍(邑)에 학관(學館)을, 각 촌락(村)에 교육창(敎育廠)을 두며, 아래로는 백성을 8민으로 파악한다는 데 있다. 3대는 신기대(神祇臺), 태정대(太政臺), 교화대(敎化臺)를, 6부는 본사부(本事府), 제조부(製

45) 折原裕, 1993, 「江戸期における重商主義の展開」, 『敬愛大學研究論集』 44, 특히 109~111쪽.

46) 『수통비록』에는 노부히로의 아들 노부아키[信昭]의 후기가 붙어 있는데 그 후기는 이 책이 노부아키가 아버지의 생전의 말을 정리한 것이라 설명해놓고 있다. 때문에 정확히 언제쯤 『수통비록』의 내용이 성립되었는지를 두고 1823년 설, 1832년 이후 설, 1844년 이후 설이 제출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日本思想大系』 편자인 시마자키 다카오[島崎隆夫]는 저작 속에 “천보 4년(1833년) 이후” 등의 문언이 등장하는 데서 1844년 이후 설을 택하고 있다. 이 글 또한 이에 따른다.

造府), 개물부(開物府), 융통부(融通府), 육군부(陸軍府), 수군부(水軍府)를 일컫는다. 또한, 8민은 초민(草民), 장민(匠民), 광민(礦民), 상민(商民), 용민(傭民, 때로 白民이라고도 한다), 주민(舟民), 어민(漁民)을 가리킨다.⁴⁷⁾ 사농공상의 전통적 틀을 거부하고 8민의 체제를 구상하는 이유를 사토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농공상이란 식으로 걸으로는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누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사농공상 중 사는 정무와 무비에 집중하고 산업을 농공상에 맡겨버리는데, 산업이 다양화되어 농공상의 범주로는 이를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민이 초민이나 수민, 광민의 일을 겸병하는 사태, 그 역의 사태도 생기는 것이다. 이는 전문성의 상실로 이어져 무엇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끝내는 패가망신하여 집도 잃고 유민이 되는 것이다.⁴⁸⁾

6부의 배하에는 다음과 같이 이들 각각의 민이 편성된다.

〈표 1〉 『수통비록』의 6부 편제와 민의 배치

부	민	임무
본사부	초민	각종 농업
제조부	장민	각종 공업
개물부	수민, 광민	자원 개발 및 채취
융통부	상민	상업, 유통, 통상
육군부	용민	
수군부	주민, 어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변쇄해지므로 이 편제가 지닌 성격을 규정짓는 특징만을 짚어보자. 먼저 지적할 것은 국가의 근간으로서 농업이 꼽히고 이에 따라 본사부의 의의가 근본적으로 가장 크며, 초민 또한 그러하다고 사토가

47) 「垂統秘録」, 『日本思想大系』 45, 東京: 岩波書店, 1977, 488~489쪽.

48) 「垂統秘録」, 488~489쪽.

주장한다는 점이다. 8민 중에서도 초민은 상좌(上座)에 위치하며 다른 7민을 합친 것보다 세 배는 많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도출된다.⁴⁹⁾ 비슷한 논리로 제조부 및 장민, 개물부 및 수민 광민의 의의가 강조된다. 두 번째로는 용통부 및 상민에 관해서는 상민의 자유로운 매입과 판매를 금하고 전국 요소요소에 평준관(平準館)과 교역소(交易所)를 설치하여 일종의 전매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준관과 교역소에 모인 물자를 각 부에 할당하는 것이 용통부의 임무인 것이다.⁵⁰⁾ 간단히 말하자면, 분사, 제조, 개물부 배하의 초민, 장민, 수민, 광민이 생산해내는 자원을 용통부가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외국과 통상을 행하며, 육군부와 수군부는 할당된 물자로서 용민과 주민, 어민을 조직하여 평시에 훈련을 행한다는 구상이다.

천황 아래 이와 같은 행정, 군사 조직을 만들어 일본의 자원과 인력을 총가동하도록 만민을 편성한다는 생각이 현대의 연구자들에게 “대내적 면과 대외적 면을 아울러 가진 통일국가 구상”, “철저한 절대주의 국가”⁵¹⁾란 이미지를 안겨주고, 후술하듯이 일찍부터 사토를 메이지시대 부국강병론의 선구자로서 규정짓게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국의 길은 될지언정 과연 “창생을 보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수통비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의 6부 편제처럼 차가운 국가 구상 밑에 파리를 튼 사토의 현실인식과 그것이 발산하는 주장을 쉽사리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상민을 포함한 8민의 사적 매매를 금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드러난다. 사토가 보기에, 만일 백성에게 매매를 허용하면 반드시 부호가 백성 속에서 나와 빈민에게 고리대를 행하여 끝내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뺏을 터였다. 몰락한 빈민은 소작으로 근근이 살아가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섬기지도 못하며 아이를 배면 독약을 먹여 낙태를 할

49) 「垂統秘錄」, 494쪽.

50) 「垂統秘錄」, 502~503쪽.

51) 塚穀晃弘, 1972, 「佐藤信淵の思想的考察—序論」, 『國學院經濟學』 20-4, 129쪽·146쪽. 사토의 이러한 구상을 절대주의 국가 구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공통된 태도이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내용에서 혼다 도시아키와의 유사성, 혹은 차용을 염두에 두더라도 “만일 하늘이 진노하여 천벌을 내린다면 이를 어찌할 것인가? 가히 두렵지 아니한가!”라며 『수통비록』에서 가장 격한 어조를 보이는 이 대목의 의의를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⁵²⁾ 그가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는 대상은 전 저작을 통틀어 상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으며, 서양열국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상인에 대한 혐오는 단지 『수통비록』뿐만 아니라 천보개혁(天保改革)이 막바지로 치달던 1843년에 작성한 『제사해궁민건백(濟四海窮民建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의 개혁은 더할 나위 없는 인정(仁政)이며 특히 사·농·공 3민에게는 각별히 고맙고도 자애로운 처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인 중에 지금까지 궤뺀 소행을 일삼아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탐낸 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자비를 베푸시어 사형을 내리지 않으셨으니, 그들로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백성(良民)이 되어 제 명을 다하며 막부[上樣]의 인혜(仁惠)에 보답해야 할 터인데도, …… 부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든 수를 내고 있으며, 가진 것 없는 빈자들은 먹고 살 방도 마련하지 못해 당혹해하고 탄식할 뿐입니다.⁵³⁾

상인들의 탐욕과 폐해를 근저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곧 6부 체제의 중요 방침인 사적 매매의 금지였다. “창생을 보살피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생산력을 높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죽을죄를 지었음에도 “사형을 내리지 않는” 은혜도 모르는 상인들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물론 상인에 대한 혐오가 근세 지식인들의 저작 속에 등장하는 것은 결코 드물지 않은 일이다. 이미 17세기부터 특히 유학적 배경을 지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사상은 유포되어 있었고, 사토가 『제사해궁민건백』에서 칭송하는 관정개혁(寬政改革)의 주도자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력이 불분명한 구석이 많은 사토이지만 그가 동북 지방을 유력하다가 에

52) 「垂統秘錄」, 503~504쪽.

53) 「濟四海窮民建白」, 『佐藤信淵家學大要』, 162쪽.

도에 들어갔다고 하는 천명기(天明期, 1781~1789)에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대사건들이 그의 눈과 귀를 피해 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사건들이란 곧 1783년과 1784년에 동북 지방을 직격한 대기근과 관동 지방의 수해, 그리고 1787년에 일어난 에도 도시 소요 등이다.⁵⁴⁾ 뒤이어 행해진 관정 개혁 또한 그의 목전에서 일어났다. 사토가 농촌의 참상에 울분을 표하고 상인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경험이 도출하는 자연스러운 결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험이 자아내는 더 근본적인 결론은 상인에 대한 혐오보다는 구제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 열망은 『수통비책』에서는 「소학교편(小學校編)」에서 교육시설[教育所], 보육시설[幼兒廠, 慈育館]과 각종 원호시설[廣濟館, 療病館]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혼동비책』에 덧붙여져 국내 경영의 원리를 설파하는 「천원법략설(泉原法略說)」이란 경제론에서도 (아마도 관정개혁의 기억에서) 적금(積金)과 강담소(講談所)라는 꼴로, 같은 시기의 『경제요략』에서는 양생소(養生所)라는 꼴로 드러난다.⁵⁵⁾ 아니, “무릇 국가(國家)를 지킴에 으뜸가는 임무는 자애를 깊이 하고 신의를 두터이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외국으로 항해하여 통상교역을 행하는 것이다”⁵⁶⁾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애를 깊이하는 것, 즉 백성을 무육(撫育)하는 것은 사토에게는 애초부터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로 각인되어 있었다 할 것이다.

54) 이 시기의 대기근으로 인해 센다이번에서만 15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나왔다고 전해지며, 에도 도시 소요를 불러일으킨 도시부의 식량 부족에는 상인의 매점매석이 작용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대기근과 수해에 관해서는 菊地勇夫, 1996, 『近世の饑饉』, 東京: 吉川弘文館, 제6장 참조. 에도 도시 소요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한글 문헌으로는 최은석, 2008, 「1787년 에도 도시 소요의 제상」, 『일본공간』 제3호 참조.

55) 사토의 복지시설 구상에 대해 서양 문헌의 영향을 지적하는 논자도 있으나 전후를 살펴보면 오히려 관정개혁의 기억과 사토 자신의 견문이 그의 복지론을 추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양 문헌의 영향으로 사토의 복지론을 설명하는 연구로는 太田素子, 1983, 「佐藤信淵の保育制度構想について」, 『日本保育學會大會研究論文集』 36이 있다. 학교를 다룬 연구로는 周禪鴻, 2001, 「佐藤信淵と黃宗羲の學校論についての一考察」, 『東京大學教育學研究室 研究室紀要』 27이 있다.

56) 「防海策」, 1809, 앞의 책, 525~526쪽.

그러면 이를 누가 수행할 것인가? 물론 군주이다. 그런데 그 군주는 단지 정치적 중심인 것만은 아니다. “국군(國君)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전생에 하늘을 섬겨 사람을 구하는 큰 공덕을 쌓은 까닭에 상천(上天)의 총애가 두텁고 온갖 신들이 그를 숭경(崇敬)한다. …… 까닭에 인군(人君)에게 만민의 곤궁(困窮)을 말하면 백이면 백 슬퍼하고 가여워한다.”⁵⁷⁾라는 말에 엿보듯이, 군주는 하늘이 낸 자이며 마음대로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미 『방해책』에서 사토는 교활한 군주 한 명의 출현이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위협케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군주의 의의는 그토록 큰데, 만일 이 군주가 그릇된 인간이면 그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시 청국을 보는 사토의 관점이었다. 중국 정복의 마지막에 천황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난징을 점령할 것을 사토가 주장했음은 이미 살펴 보았다. 그는 난징 점령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을 돌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청국의 군주는 “그릇된 믿음에 빠져 천지의 신의(神意)를 무시하고 황국(皇國)의 법교를 거부하며 백성[人類]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艱食]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하늘에 죄를 범”하고 있고, 이 때문에 “천벌을 내려 창생을 구”한다. 이어서 명나라 왕실을 되살릴 것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지 점령지의 선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을 도탄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며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사토의 생각이 깃든 주장임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주장, 즉 “몽고와 중국을 정복한 다음에는 산령(産靈)의 법교를 더욱 더 명확히 하고 만민의 고통을 없애”야 한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다.⁵⁸⁾

사토는 도탄에 빠진 현실의 구제를 구상한 경세론자였고 그 경세론의 현현을 이를 이는 군주, 적어도 『혼동비책』을 쓸 당시에는 천황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만국의 상위에 있는 일본에는 자동적으로 “세계 만국의 창생을 보살필”

57) 『經濟要略』上, 『日本思想大系』45, 東京: 岩波書店, 528~529쪽. 아울러 이 문장에서 군주는 변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다른 사상가들 처럼, 사토 역시 군(君)이란 말로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58) 『混同秘策』, 435~436쪽.

의무, 세계의 군주가 되어 일본을 다스리듯이 만국의 백성을 다스릴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침략과 정복은 무욕되어 마땅한 중국의 백성들을 위한 행보였다. 아무리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비합리적인 정복욕으로 채워져 있더라도, 1823년 당시의 사토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천하만국의 백성을 위한 길이었다. 그것은 곧 사토 나름의 유토피아였다.

물론 이미 지적했듯이 이러한 주장은 『혼동비책』 이외에서는 펼쳐지지 않았고 그 전과 후의 중국관은 이와는 판이했음은 이미 본 바이다. 때문에 『혼동비책』처럼 광폭한 팽창론이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정복도 불사한다는 생각(비록 일본 방위라는 목적과 종교적 열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황국의 법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메이지시대 이후의 일본에서 모습을 바꿔가며 나타나는 한 양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론과 결부지어 『혼동비책』의 팽창론적 성격을 이후 일본이 보여줄 여러 가지 모순된 행보의 사상적 원형(prototype)이란 면에서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막말유신기의 대외관을 전국적 대외관과 웅비론적 대외관으로 나누어보는 논리에 의거하면서 사토 노부히로의 여러 저작 중 대외관에 직결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통설대로 『혼동비책』은 웅비론적 대외관을 표방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국학적인 세계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열국사략』, 『방해책』, 『존화좌적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저작을 살펴볼 때, 사토의 대외관은 웅비론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대외관이라는, 동

시대의 다른 사상가들과 공유하는 바가 많은 관점을 아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주권 보지와 힘이라는 기준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에 근사한 것으로, 이 속에서 조선은 부용의 속지로 파악되어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의의를 부정당하며 한편으로 중국은 상황에 따라 일본의 위협요인이거나 협조대상으로 정위(定位)되고 있다. 아울러 저작의 수와 저술 시기를 볼 때 전국적 대외관이 오히려 사토의 일관된 대외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혼동비책』의 팽창론의 근거에는 현실의 구제에 대한 사토의 열망도 미미하게나마 녹아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구제와 침략의 모순적인 병립으로 보고 메이지 이후 일본의 행보에 대한 사상적 원형으로 위치지어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混同秘策」

「天柱記」

「西洋列國史略」

「存華挫狄論」

「總理大臣ノ演說」, 『官報』, 號外(明治二十三年十二月六日).

「防海策」

「濟四海窮民建白」

「經濟要略」

〈논문〉

박훈, 2008, 「18세기 말~19세기 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東洋史學研究』 제140집.

박충석, 1980, 「韓日兩國의 國際秩序觀에 대한 比較研究」, 『亞細亞研究』 64.

荒野泰典, 199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荒野泰典, 1994, 「近世の對外觀」, 朝尾直弘 외 편, 『岩波講座 日本歷史』 제13권, 東京: 岩波書店.

飯村粹, 1893, 『佐藤信淵翁傳』.

太田素子, 1983, 「佐藤信淵の保育制度構想について」, 『日本保育學會大會研究論文集』 36.

岡部精一, 1917, 『東京奠都の真相』, 東京: 仁友社.

折原裕, 1993, 「江戸期における重商主義の展開」, 『敬愛大學研究論集』 44.

桂島宣弘, 1999, 「幕末國學の轉回と佐藤信淵の思想—『天柱記』と鑄造化育論を中心に」, 『思想史の十九世紀—「他者」としての徳川日本』, 東京: ぺ리칸社.

桂島宣弘, 2008, 「華夷思想の解體と自他認識の變容」, 『自他認識の思想史—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生成と東アジア—』, 東京: 有志舎.

河上肇, 1911, 『經濟學研究』.

菊地勇夫, 1996, 『近世の饑饉』, 東京: 吉川弘文館.

島崎隆生, 1977, 「佐藤信淵人—物, 思想ならびに研究史」, 『日本思想大系』 45, 東京:

岩波書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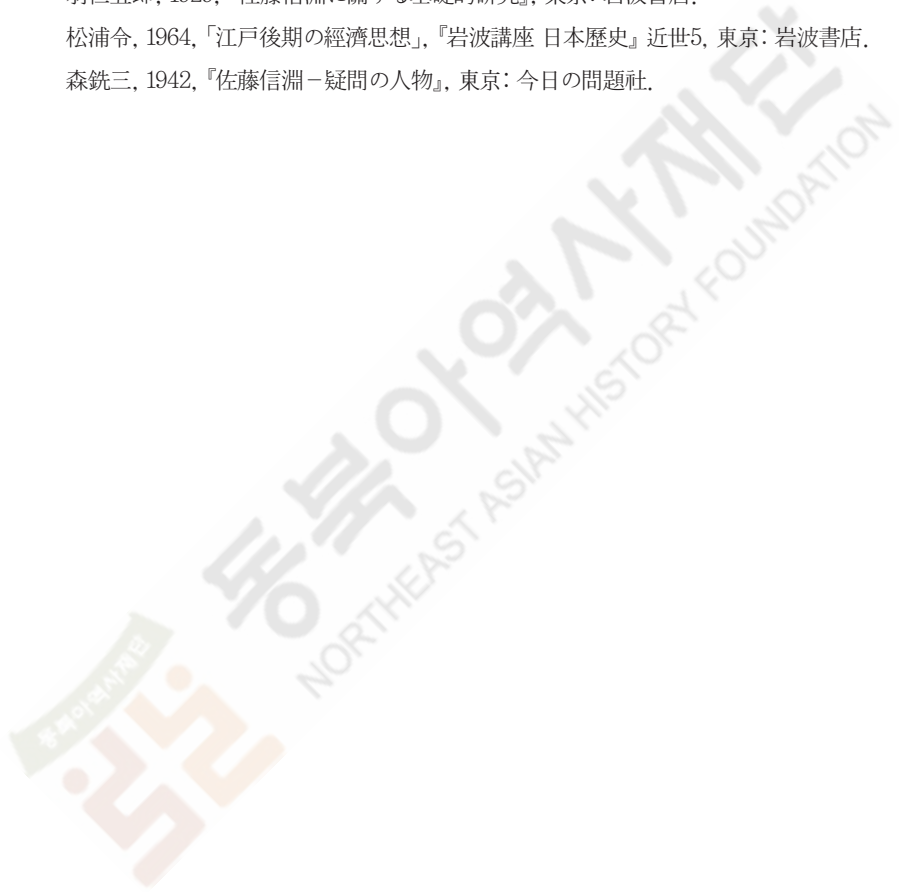
周禪鴻, 2001, 「佐藤信淵と黃宗羲の學校論についての一考察」, 『東京大學教育學研究室 研究室紀要』 27.

塚穀晃弘, 1972, 「佐藤信淵の思想史的考察-序論」, 『國學院經濟學』 20-4.

羽仁五郎, 1929, 『佐藤信淵に關する基礎的研究』, 東京: 岩波書店.

松浦令, 1964, 「江戸後期の經濟思想」, 『岩波講座 日本歴史』 近世5, 東京: 岩波書店.

森銑三, 1942, 『佐藤信淵-疑問の人物』, 東京: 今日の問題社.



[ABSTRACT]

Satō Nobuhirō's Perception of Foreign Affairs
– Mysterious Coexistence of Relief and Inva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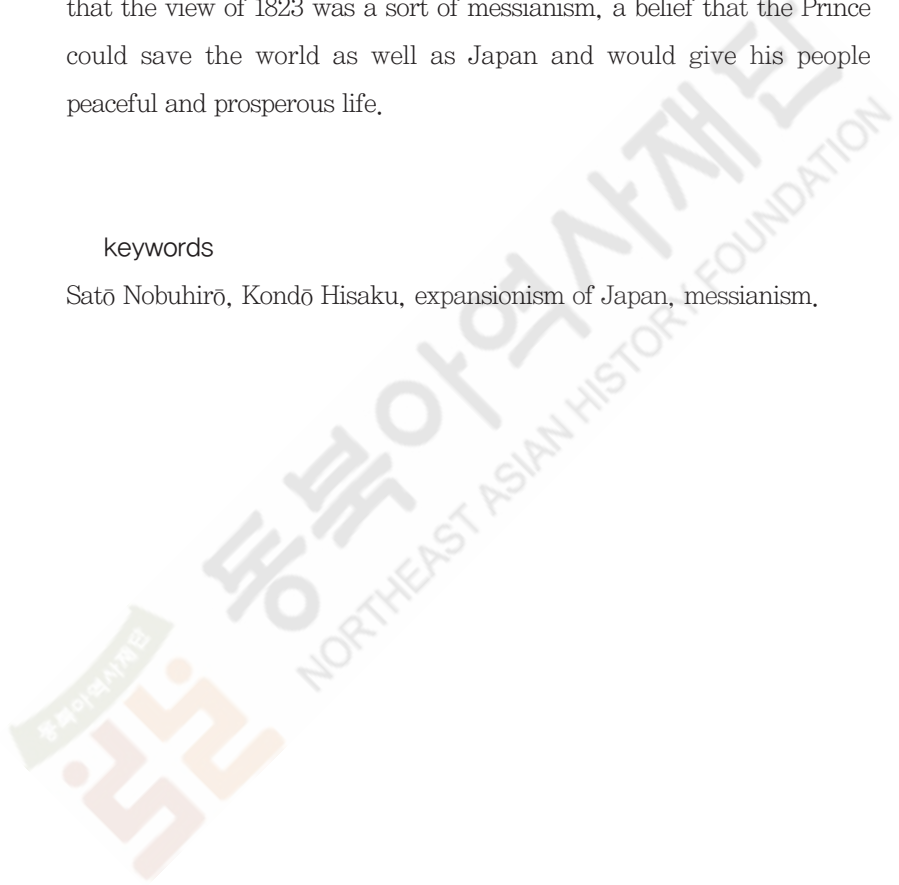
Choi, Eunseok

This article aims at reexamining the so-called expansionist perception of the world seen in Satō Nobuhirō(佐藤信淵, 1769~1850)'s works, supproting Park Hun's criticism against the previous studies of the field and borrowing his categorization of the perceptions into the perception of the world at war and the expansionist perception of the world.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devoted to examining Satō's *Kondō Hisaku* (*A Secret Strategy of Expansion*, 1823), and the nativist influence on the work being represented in Satō's *Tenjuki* which is a derivation of Hirata Atsutane's *Tama no Mahashira*. Succeeding part can be said a new addition to the field. This part examines Satō's other works which expresses different version of his view, that is, the perception of the world at war. Three works of Satō's are cited and examined here; *Seiyō Rekkoku Ryakushi* (*Compact History of the Western Powers*), *Bōkaisaku* (*Strategy of Defending Seacoast*), and *Sonkazatekiron* (*Argument on Supporting China to Dispel the Western Barbarians*). Even though they shows slight differences to each other, especially on the issues concerning China, they share common attitude of treating China as Japan's foremost partner or the most important barrier against the West in the world at constant war. Being cirtcally different the perception of the world and China in 1823, this view of the world at

war and appraisal of China's status should be said Satō's basic and consistent position. This conclusion would mean that the view expressed in 1823 was a mere happening instigated by nativism. Examination of Satō's passion for saving people done in the final part, however, shows that the view of 1823 was a sort of messianism, a belief that the Prince could save the world as well as Japan and would give his people peaceful and prosperous life.

keywords

Satō Nobuhirō, Kondō Hisaku, expansionism of Japan, messianism.



吉田松陰의 대외관

- '敵體'와 팽창의 이중구조 -

박 훈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쌓여 있지만 주요 관심대상은 그의 국체론, 교육관 등이고 대외관 연구는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쇼인의 대외관에 대해서는 허버트 노먼(Herbert Norman)이 '강렬한 배외 애국주의 및 팽창론적 사상'¹⁾이라고 규정한 이래 일본중심주의, 침략주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조선관에 대해서도 페리 내항 이후 쇼인에 의해 조선멸시의식과 해외진출론이 결합되어 근대 정한사상의 원류가 형성되었다고 지적되었다.²⁾

※ 투고일: 2010. 9. 28, 심사일: 2010. 11. 12, 게재 확정일: 2010. 11. 26.

1) 허버트 노먼, 1940, 『日本における近代國家の成立』, 『ハーバートノーマン全集』第1卷, 岩波書店, 1977, 116쪽; 桐原健眞, 2001, 「吉田松陰における對外觀 - 「萬國公法」以前の國際秩序認識」, 『文芸研究』152, 27쪽서 재인용. 후에 『吉田松陰の思想と行動 - 幕末日本における自他認識の轉回』, 東北大學出版會, 2009에 「讀み替えられる「華夷秩序」 - 「國際社會」への編入と參加」라는 제목으로 수록.

2) 天澤康佑, 1969, 「江戸時代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6.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는 다른 견해가 다수 제출되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쇼인의 서양관에 주목하여 그가 단순한 양이론자가 아니라 국제정보에 매우 밝았고, 서양과의 대등한 국제관계를 주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아시아에 대해서도 쇼인을 침략주의자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첫 번째 경향의 연구업적을 낸 기리하라 겐진[桐原健眞]은 쇼인이 쓴 『外蕃通略』을 분석하여 그가 ‘敵禮’, ‘敵體’라는 유교적 외교개념을 차용하여 특히 서양국가들과 일본의 대등관계(敵體)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했다.³⁾ 기리하라는 쇼인이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일본 우월주의라든가, 화이사상 같은 것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대등주의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즉 기리하라는 종래의 연구가 쇼인의 격렬한 존양주의의 언동을, 요코이 쇼난[横井小楠]과 같이 일본을 ‘국제사회’에 대하여 스스로를 定位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곧잘 자민족중심주의의 전형이라고 이해하여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전 세계를 모두 군현으로 만들고, 만국의 군장을 모두 臣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와 같은 레벨에서 쇼인이 일본이 오대주를 병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기리하라는 오히려 쇼인은 일본이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5대주에 진출할 수 없는 쇠국일본을 비판했던 것이고, 이런 화이의식을 넘어서 국제의식은 미일, 러일 등 외교교섭의 장에서 어떻게 대등한 국가 간 관계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물음으로 나타났고, 쇼인은 그에 대해 敵國(대등한 국가), 敵體(대등한 국가끼리의 외교관례)라는 유학적 개념으로 대답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⁴⁾ 그러면서 그는 『外蕃通略』의 분석을 통하여 쇼인이 각국과의 敵體적인 외교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기리하라는 원래

3) 桐原健眞, 2001, 「吉田松陰における對外觀—「萬國公法」以前の國際秩序認識」, 『文芸研究』 152.

4) 桐原健眞, 2001, 위의 논문, 27~28쪽.

단순한 양이론자였던 쇼인이 1850년 히라토와 나가사키에 유학했을 때 거대한 네덜란드 상선에 승선한 경험, 그리고 魏源의 『聖武記』 등의 지식을 접하여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 마침내 서양제국을 일본과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⁵⁾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기리하라의 분석과는 달리 『外蕃通略』에서 쇼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조선, 서양제국과 敵禮를 하는 외교주체는 쇼군이 천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쇼군의 상위에 천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만국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후술하듯이 그가 스페인 국왕과 쇼군의 적례는 용인했지만 스페인 국왕과 천황의 적례는 거부한 것이 그 증거이다. 1858년(安政 5) 당시 미일통상조약체결 교섭을 할 때에도 쇼인은 불가항력적인 미국의 통상조약체결 요구를 쇼군의 적례외교로 간주하여 승인하면서도 천황과 미국대통령의 적체는 거부했다. 그는 주관적으로는 천황의 존재를 상정하여 일본우월주의의 주관적 願望을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우월주의의 장치를 주관적으로나마 확보해둬으로써 쇼인은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서양과의 통교와 대등한 관계, 쇄국 탈피 등을 소리 높여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外蕃通略』에서의 쇼인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할 때 존왕 양이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양열강에 대해 적극개국론과 대등외교를 주장했던 것, 반대로 조선, 중국, 만주에 대해서는 침략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 등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경향은 쇼인의 아시아 침략주의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이다. 邢永鳳은 쇼인은 전쟁보다는 적극적으로 개항하여 타국과 평화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고, 외국관계에서 力, 義, 德을 중시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침략론을 주장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단순히 그 시대 침략론을 추종한 것이라는 것이다.⁶⁾ 구리타 나오야[栗田尚弥]도 쇼인의 침략론은 국

5) 桐原健眞, 2004, 「吉田松陰と白旗—「國際社會」認識の轉向」, 『日本思想史學』, 36, 58쪽.

6) 邢永鳳, 2003, 「吉田松陰における對外意識」, 『山口縣地方史研究』 89, 36~37쪽.

체를 국제답게 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며 1856년(安政 3) 10월 이후 쇼인은 침략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⁷⁾

이들 논자들은 대부분 쇼인이 부분적으로 아시아교역을 주장했던 단편적인 사료에만 의존하여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쇼인은 조선을 비롯한 만주, 캄차카, 오흐츠크, 타이완, 필리핀(루손), 심지어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팽창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침략을 언급한 적도 있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臣屬’, ‘貢納’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적 화이질서’의 틀로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의 최근의 연구경향은 요약하자면 요시다 쇼인이 일본형 화이의식과 일본 우월주의를 버리고 ‘국제사회’를 대등한 국가관계로 보고 일본도 이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轉回’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쇼인이 고색창연한 양이론자가 아니라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서양문명에 대한 유연한 수용태도를 가진 현실주의자였다는 점, 이에 기반하여 쇠국유지가 불가능함을 간파하고 조약체결을 용인했다는 점, 그를 통해 당면 목표를 서양열강과 대등한 ‘독립일본’을 주장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에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 먼저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참가라고 할 때의 ‘국제사회’는 서구열강만을 가리킨다. 쇼인이 이들로부터 일본의 독립을 지켜내고 이들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일본의 외교주체는 과연 천황인가? 천황과 외국의 국가원수가 대등한 외교를 한다면 이것은 대등한 관계(敵體)에 해당되나 필자가 보기에 쇼인은 쇼군이 외교주체가 되어 있는 현실을 용인하면서, 쇼군 위에 천황을 상정함으로써 관념상에서나마 일본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는 쇼인이 ‘敵體’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쇼인의 아시아에 대한 입장도 역

7) 栗田尙弥, 1984, 「吉田松陰の對アジア觀－松陰は果して「侵略」論者か」, 『政治經濟史學』通號 210, 74쪽.

시 침략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침략에 관한 수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제1장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外蕃通略』을 분석하여 쇼인이 일본과 諸外國의 대등한 敵禮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쇼군 정부와 외국 간의 敵禮를 주장하고, 쇼군 정부의 상위에 천황을 위치하게 함으로써 관념적으로나마 일본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기존의 기리하라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어 제2장에서는 쇼인의 서양에 대한 외교책이 단순한 존왕 양이론이 아니라 적극적 개국론이었음을 소개하였다. 이는 최근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를 좀 더 부연하였다. 단, 쇼인이 서양열강과의 대등한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1850년대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선은 일본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였겠으나, 쇼인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설령 현실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서양열강에 대해서도 일본의 우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일통'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대외인식하에서 서양열강 이외의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이 '敵體'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연한 팽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합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연구는 쇼인이 국가 간 대등관계를 지지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아시아 팽창, 침략에 대한 언급을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해석하려 하고, 심지어는 그가 주장했던 것은 교역을 통한 아시아 진출이며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원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쇼인이 구상한 것은 '대등한 국제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하이여러키를 갖는 국제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시아에 대한 그의 침략적인 태도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제3장은 이 문제를 다루었다.

1_ 현실에서의 '敵體'와 관념에서의 일본우위: 『外蕃通略』의 분석

요시다 쇼인은 해리스가 막부에 대해 통상조약을 강요하던 1857년 3월 조슈번의 野山獄에 연금된 상태에서 『外蕃通略』이라는 19쪽짜리의 짧은 글을

쓴다. 이 책은 막부의 書物奉行인 곤도 모리시게[近藤守重]가 19세기 초에 편찬한 『外蕃通書』를 쇼인이 평한 것이다. 쇼인은 이 책을 1854년(安政 元年) 12월에 읽었다고 한다.⁸⁾ 『外蕃通書』는 도쿠가와막부가 제 외국과 교환한 외교서한을 국별, 시대순으로 편찬한 것으로 전27권으로 되어 있다.⁹⁾ 책의 구성은 제1권~제5권 조선, 제6권~제7권 阿蘭陀, 제8권~제10권 明國, 제11권~제14권 安南, 제15권~제17권 暹羅, 제18권~제19권 柬埔寨(캄보디아), 제20권 占城[참파], 太泥[타니][파타니], 제21권~제23권 呂宋, 제24권~제25권 阿媽港(마카오), 제26권 新伊西把亞[이스파니아][멕시코], 第27권 漢又利亞[영국]로 되어 있다.

조선 항목이 제일 먼저 나오고 분량도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도쿠가와막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상대,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외교문서를 교환했던 것이 조선이었으므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쇼인의 『外蕃通略』도 이 체제에 따라 조선과의 외교에 대한 평이 제일 먼저 나오고 분량도 총 19쪽 중 4쪽으로 가장 많다. 책의 내용은 『外蕃通書』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그 밑에 ‘謹按’으로 시작하는 쇼인의 평이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쇼인은 이 평에서 주로 17~18세기 당시 막부의 외교행태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外蕃通略』은 막부가 미국총영사 해리스와 통상조약교섭을 한창 벌이고 있던 시점에 쓰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쇼인은 왜 이런 긴박한 시기에 일견 한가롭게 보이는 에도시대 외교사례집에 대해 평하는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일까? 강압에 가까운 해리스의 통상조약체결 요구를 앞에 두고 이 글을 통해 쇼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外蕃通略』을 분석한 연구자는 쇼인이 외국을 帝國(일본과 대등한 국가, 즉 敵國), 왕국(제국의 종속국 및 식민지), 爭地, 交地(무주지, 변경)으로 구분했다고 보고, 제국에는 중국, 베트남, 시암, 네덜란드, 영국을, 왕국에는 조선,

8) 吉田常吉 等 編, 1978,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岩波書店, 174쪽.

9) 『近藤正齋全集』, 『改訂史籍集覽』에 所收.

캄보디아, 참파, 루손 등을 넣었다고 주장했다.¹⁰⁾ 그러나 『外蕃通略』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쇼인은 조선을 포함한 諸 외국과 일본이 敵體를 취하는 敵國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敵國과 그 외의 국가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하물며 적례를 취해야 할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제국과 왕국으로 구분하는 것은 쇼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쇼인은 적국을 일본과 대등한 국가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국과의 외교주체는 막부, 즉 쇼군 정부이고 외국 국가원수와 적례를 하는 것은 쇼군이다. 그런데 일본은 쇼군 위에 천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대국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를 쇼인은 조선 항목에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것처럼 스페인 국왕이 천황을 적례의 대상으로 여길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일통상조약에 대해서도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기리하라의 말대로 서양열강의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쇼인은 에도시대 외교에서 적체의 개념을 발견하여 서양과의 외교에 적용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념상에서 그는 천황이 존재하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제 외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하 먼저 『外蕃通略』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먼저 自序에서 쇼인은 제국과 왕국의 칭호에 대해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세계가 일본을 왕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 四海는 모두 한문을 쓰고 있어 황국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侏離鳩舌이었던 것이 지금은 彬彬同文이 되었다. 여기서 사사로이 名號를 세워 이르기를 某帝國, 某王國, 某公爵, 某侯爵이라고 한다. 무릇 侏離鳩舌의 무례는 심하게 탓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四海가 禦宇天皇의 大八洲를 王國日本이라고 한다면 征夷府(막부: 인용자, 이하 같음)는 어떻게 천하(일본)에 답할 것이며 무엇으로 天朝(조

10) 桐原健眞, 앞의 논문, 29~30쪽.

정)에 사죄할 것이며 천하의 사대부는 또한 어떻게 자처할 것인가¹¹⁾

이 문장을 보면 쇼인은 제국과 왕국의 서열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이 ‘왕국’으로 취급받아서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¹²⁾ 『外蕃通略』의 서문에서 이미 국제 간의 서열을 중시하고 그 속에서 일본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쇼인의 관심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外蕃通略』을 敵體의 책로 보기 힘든 이유의 하나이다.

자서에 이어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조선과의 외교에 대한 쇼인의 견해가 나와 있다. 1607년(慶長 12) 정월 조선 국왕 李昞¹³⁾(선조)이 征夷府(막부)에 서한을 보냈고, 5월에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가 復書했는데, 그 속에서 조선 국왕은 쇼군을 ‘일본 국왕 전하’라고 칭했고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에 대한 復書에서 일본 측은 쇼군을 日本國源某氏라고 칭했고 말미에 龍集幹支를 썼다. 이에 대해 쇼인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조선이 정이부를 칭하여 일본 국왕이라고 했는데, 국왕은 天朝(교토의 조정)가 명명한 것이 아니다. 덕천 씨는 또한 외국에 책봉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저들이 함부로 국왕이라고 칭한 것은 足利氏의 舊例(무로마치 막부의 족리 씨는 스스로를 일본 국왕이라 칭했다)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심하게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당시에 이를 알려줘 고치게 하지 않은 것이 괴이할 따름이다. 賜書에 단지 간지를 표시하고 天朝의 연호를 쓰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나는 모르겠다. 조선은 원래 天朝에 복속한 것으로 지금 德川氏와 敵國의 禮를 취한 것은 아마 위로 천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헛되이 일본

11) 吉田松陰, 1894a, 「自序」, 『外蕃通略』, 惠愛堂.

12)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도 페리 내항 직후 막부에 올린 건의서 「海防愚存」에서 “神國(일본)은 면적은 광대하지 않으나 外夷에서는 帝國으로 존송하여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신공 황후의 삼한정벌, 중세의 몽고격퇴, 히데요시의 조선정벌, 예도 초기의 기독교 근절 등) 그 明斷과 武威가 해외에 떨쳤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일본을 帝國으로 칭하고 있다. 吉田常吉 等 編, 1976, 『幕末政治論集: 日本思想大系 56』, 岩波書店, 9쪽.

13) 원문에는 ‘昞’로 되어 있으나 ‘昞’의 오류이기에 바로잡았다.

국이라고 칭한다면 義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서한이) 오고 갈 때 만약 정이부의 관위를 명확히 썼다면 名은 바르게 되고 義는 드러났을 것이다. 아쉽구나, 논의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¹⁴⁾

쇼인은 먼저 조선이 쇼군을 일본 국왕이라고 칭한 것은 천황이 그렇게 명명한 적도 없고, 또 쇼군이 외국(칭)에 책봉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이 그렇게 한 것은 무로마치막부 때 쇼군 아시카가[足利] 씨를 계속 일본 국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 선례에 따른 것이므로 크게 탓할 수는 없지만, 도쿠가와와 씨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책망했다.

이어서 그는 조선은 원래 일본에 복속한 나라라고 전제하고 쇼군과 대등한 외교를 하는 것은 쇼군 위에 천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그는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과의 대등한 외교는 인정하나, 쇼군 위에는 천황이 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대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쇼인은 쇼군이 외교서한에 자신의 관위¹⁵⁾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을 누차 지적했다.¹⁶⁾ 이렇게 되면 조선 국왕과 일본의 내대신이 대등한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일본의 위치는 조선보다 명백히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다. 어쩌면 쇼인은 조선 국왕이 칭의 대신과 적례를 취한 것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1610년(慶長 15) 9월 前大將軍 겐 이에야스[源家康]가 安南國 大都統에게 보낸 서한에 ‘日本國從一位源某’라고 쓴 것을 쇼인은 칭찬하고 있다.¹⁷⁾

한 걸음 더 나아가 쇼인은 천황 등극과 관련된 조선의 외교결례를 힐난했다.

덕천 씨가 諸蕃에 대해서는 무역을 하고 서신을 교환했을 뿐이므로 나
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조선만은 遣使通聘을

14) 吉田松陰, 1894b, 『外蕃通略』, 惠愛堂, 1쪽.

15) 도쿠가와시대 쇼군은 조정부로부터 內大臣 등의 지위를 받았다.

16) 3쪽에도 같은 지적이 있다.

17)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9쪽.

하였으니 일이 매우 증대하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덕천 씨의 襲職만 축하하고 天朝의 등극을 축하한 적이 없다. 또 덕천 씨도 역시 이 일을 천조에게 청하여 직지를 받은 적이 없다. 人臣이 외교를 한 죄, 덕천 씨는 이를 어떻게 사죄할 것인가.¹⁸⁾

조선은 막부 쇼군이 취임할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통신사를 에도에 파견 하곤 했으나 한 번도 천황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쇼인은 마땅히 조선은 천황 즉위 시 축하사절단을 보내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진하지 않은 막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쇼인의 입장은 에도시대 이래 일본 지식인들이 관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형식적으로 대등한 국제관계였던 조일관계를 사실로서 인정하면서도 천황의 존재를 상정한 주관적인 국제관계의 틀을 갖고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쇼인은 1610년(경장 15) 명의 福建道總督軍務都察使禦史所에게 로주[老中]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와 나가사키 봉행 하세가와 히로토모[長谷川廣智]가 보낸 서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혼다가 보낸 서한은 끝에 연호를 쓰지 않고 歲舍幹支를 썼고, 서한 중에 명을 가리켜 중화라고 했으며, 또 日本國主 源某라는 말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가사키 봉행 하세가와가 보낸 서한은 일본국 長崎市舶使司 長谷川左兵衛藤廣이 福建道總督陳禦史臺下에 書를 보낸다고 되어 있고, 명을 가리켜 貴國이라고 했고 또 吾國主 源君이라고 칭했다며¹⁹⁾

이 두 서한은 말하기에 족하지 않으나 廣智가 正純보다는 좀 낫다. 漢土人(중국인)은 외국에 문서를 보낼 때 매번 그 지명을 쓰고 그 나라 이름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그 나라의 누습이다. 헛되이 자기 나라가 있는 것만을 알고, 세계에 만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배워서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와 우리나

18)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4쪽.

19)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6쪽.

라가 속국에 문서를 보낼 때는 단지 지명만을 써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와 우리나라가 적국에 문서를 보낼 때는 지명 앞에 국호를 붙여야 한다. 지금 명나라는 敵國이므로 日本國長崎라고 칭한 것은 타당하다. 또 생각건대 내가 正純과 廣智의 서한을 읽어 보니 그들은 足利氏의 고사를 답습하여 勘合貿易을 부활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명나라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나라에게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家康이 義滿과 무엇이 달랐겠는가.²⁰⁾

쇼인은 명나라와 일본은 대등국(적국)이라고 명언하고 있다. 대등국이므로 서한에 일본국이라고 하여 '국'자를 붙인 것을 타당하다고 했다. 이것은 위에서 조선이 일본에 '국'자를 붙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만약에 도쿠가와막부의 의도대로 명나라와 감합무역이 성사되었다면 무로마치막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명의 조공책봉체제에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오히려 이것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쇼인은 보았다. 즉 일본이 중국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것을 극력 반대했던 것이다.

한편 안남에 대해서도 쇼인은 언급하고 있다.

안남 都元帥大都統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國主일 것이다. 그런데 그 서한들에 자신의 성명은 쓰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 대장군의 諱를 직접 거론한 것이 있으니 그 禮를 잃음이 심하거나. 무릇 안남은 역시 한문의 나라이지 蟹字의 무리가 아니다. 당시 막부가 이를 힐책하지 않고 놔둔 것은 무엇 때문인가.²¹⁾

기리하라는 안남, 시암을 적국에 넣고 있으나 그런 해석은 부당하다. 안남, 시암의 국주와 대장군의 서한왕복을 타당하게 보고 있으므로 이들은 조선과 같은 위치로 쇼인은 생각했다고 봐야 한다.

20)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6~7쪽.

21)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8~9쪽.

한편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서양세력과의 외교에 주목해보자. 기리하라는 이 대목에서 쇼인이 서양제국과 일본의 적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서양제국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쇼군이 적례할 대상이다. 따라서 천황을 받들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하위의 국가인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民希蠟은 아마 에스파냐의 명을 받아 루손을 鎮守하고 있는 자인데, 전후에 국주라고 칭한 것이 이런 자들일 뿐이다. 요컨대 저들의 신하인 것이다. 小夷의 신하인 주제에 감히 征夷府에 서한을 보낸 것은 함께 敵體를 하기 싫어서이다. 결국에 가서는 夷主가 장차 天朝를 同輩로 여기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식자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대책을 강구하는 바가 없다.²²⁾

루손의 국주라고 칭하며 쇼군에 서한을 보낸 이들은 스페인의 현지세력일 뿐이니, 스페인[小夷]의 신하인 것이다. 이런 자가 쇼군에 서한을 보낸 것은 스페인 국왕이 쇼군과 적례를 하기 싫어서이다. 즉 쇼인은 스페인 국왕과 쇼군의 적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묵인할 경우 스페인 국왕[夷主]이 천황과 적례를 하려고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外蕃通略』에서 요시다 쇼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조선을 포함한 만국과 일본(쇼군 정부)의 대등한 관계(적체)이다. 그러나 그 적체의 외교주체는 쇼군이고 그 쇼군은 천황의 하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일상적 외교에서 일본은 대등한 외교관례를 용인하고 지속시키지만,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국제 서열에서 상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쇼인은 이런 '名義'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것을 통탄해 하지않았다.

伊祇利須는 한역으로는 영길리이다. 四海가 이를 많이 쓴다. 그러므로 이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영길리는 延寶年間에 교류가 끊겼다가 文化 연간에 와서 우리 변방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安政 연간에 화친

22)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15~16쪽.

을 맺었다. 源家康과 秀忠은 만국과 통교하는 것을 좋아하여 慶長 元和의 때에 왕래가 융성하였다. 寬永 13년에 邪敎금지령을 내려 이에 처음으로 쇄국이 되었다. 근래 계축년, 갑인년에 이르러 영길리, 露西亞, 米利幹, 佛郎西 諸國이 와서 화친을 맺었고 청하는 자는 이를 허락해주었다. 이로써 다시 慶長, 元和의 번성함이 회복되었다고 해야 하는가. 慶長, 元和의 때에는 통교했던 자들이 모두 작은 섬에 초라한 오랑캐들[小島陋夷]이어서 우리가 능히 그 생사를 통제할 수 있었다. 지금의 諸國은 대부분 이와 같지 않다. 국세에 정통한 자는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우려하는 바는 名義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²³⁾

이런 자세는 미국에 대해서도 관철되고 있다. 그는 아쉽게는 하지만 ‘墨夷의 대통령’과 ‘我將軍殿下’가 동등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황송하게도 大日本禦宇天皇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하고 있다.²⁴⁾

그렇지만 존왕 양이론자이면서도 동시에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던 쇼인은 천황상위, 일본우위의 관념적인 국제질서를 함부로 현실화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듯하다. 『外蕃通略』에서도 천황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조선에 대해서뿐이다. 『外蕃通略』에서 주장해 마지않았던 천황이 아닌 쇼군 정부와 제외국과의 적체관계는 굴욕적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개국,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으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해리스의 통상조약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합리화하는 장치였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쇼인의 외국에 대한 자세는 상대에 따라 크게 구분된다. 즉 서양열강에 대해서는 쇼군 정부와의 적체를 주장하여 통상조약을 합

23)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19쪽.

24) 「未定稿附和作」, 『吉田松陰全集』 4(定本版), 140쪽. 『吉田松陰全集』은 山口縣教育會 編으로 지금까지 3회 간행되었다. 1936년 岩派書店에서 定本版(전10권)이, 1940년 역시 岩波書店에서 보급판(전12권)이, 그리고 1974년 大和書房에서 대중판(전10권, 별권 1권)이 각각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定本版을 사용했고, 그 외에 『吉田松陰』(日本の名著 31), 中央公論社, 1973을 참고했다. 그러나 전집 중 미처 입수하지 못한 것은 기존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

리화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대외교역과 진출을 주장하지만, 조선이나 만주,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무력침략 또는 점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서양열강과의 ‘敵體’ 관계: 적극 개국론

당시의 다른 일본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쇼인도 서양열강의 진출에 대한 민감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미 1845년 長沼流병학의 스승 야마다 마사스케[山田亦介]가 쇼인에게 “근자에 서양오랑캐가 날로 강성해져 東洋을 침식하고 있다. 인도가 먼저 그 毒을 입었고, 滿清이 이어서 그 모욕을 받았다. 餘焰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아, 류큐를 먹으려고 쳐들어와 나가사키에 이르렀다. …… 옛부터 위세를 해외에 떨친 자는 위로는 징구 고고[神功皇后], 아래로는 도키무네[時宗], 히데요시 등 몇 사람뿐이다. 너는 아직 젊고 재능도 충분하다. 펼쳐 일어나 勳名을 만국에 세울 수 없다면 대장부가 아닐 것이다”²⁵⁾라고 일깨웠다고 전해지며 쇼인 스스로도 1849년(嘉永 2)에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拂郎察], 영국[英吉利]의 두 오랑캐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남쪽에서 동북으로 진출해오는 형세로 보인다. 이미 영국은 인도를 취했고, 오스트레일리아[濠斯多辣利]를 개척했으며, 수마트라[蘇門答刺]와 그 밖의 海島를 점거했다. 天保年間(1830~1844)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滿清을 어지럽힐 정도의 형세가 되었고, 두 오랑캐가 함께 때때로 류큐와 조선에 상륙하여 무법을 행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는 북쪽 끝의 땅에서부터 일어나 시베리아[止百裏亞]를 개척하고 캄차카[加摸察都加]에 이르러 都府를 설치하고 군함을 준비하여 海島를 취하고 우리 奧蝦夷를 압박하는 형세이다. 좀 과하게 말한다면 우리 神州를 가운데 두고 이적들이 포위한 형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략의 간사한 의도가

25) 『吉田松陰全集』 4, 391쪽(보급판, 川口雅昭, 2003, 「吉田松陰の國際感覺について」, 『藝』 1, 2쪽에서 재인용).

없다고 하기 어렵다.²⁶⁾

이 같은 국제정세 인식은 1825년에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가 『新論』에서 묘사한 서양의 침략형세와 흡사한데,²⁷⁾ 요컨대 서남쪽으로부터의 영국, 프랑스의 위협, 동북쪽에서부터의 러시아의 위협에 일본이 포위되어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인식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런 위기 앞에서 쇼인이 쇠국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쇠국이 도쿠가와 막부의 국시라는 인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쇼인은 네덜란드와의 외교경위를 설명하는 가운데 쇠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덕천 씨가 쇠국을 국시[定制]로 삼았다고 하는데 크게 틀린 것이다. 처음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집권했을 때 포르투갈[波爾杜瓦爾]이 처음으로 와서 開市를 했다. 조금 지나서 邪教를 점점 퍼트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준절히 이를 엄금했으나 잔당[餘類]이 끊이지 않았다. 네덜란드가 와서 분위기를 잘 살피더니 먼저 포르투갈을 비난하여 무역이익[市利]을 독점할 것을 꾀했다. 征夷府[막부]도 역시 네덜란드가 恭順하는 것을 가상히 여겨 그 말을 들어주었다. 元祿 연간에 네덜란드의 켐펠[檢夫兒]이 에도를 참근하고는 책을 써서 쇠국의 장점을 매우 칭송하였으나 그것은 실은 자기 나라에 이롭게 하려고 한 말이다. 文化 연간에 이르러 정이부가 러시아에 국서를 주었을 때 그 뜻[其意]을 전적으로 채용하여 이에 세상에서 모두 쇠국이 덕천 씨의 定制라고 하게 되었다.²⁸⁾

최근 후지타 가쿠[藤田覺]는 ‘쇠국은 막부의 祖法’이라는 언설은 에도 초기

26) 「水陸戰略」, 『吉田松陰全集』, 1, 149쪽(보급판, 川口雅昭, 위의 논문, 3쪽에서 재인용).

27) 박훈, 2008, 「18세기 말~19세기 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동양사학연구』 104집, 279쪽(후에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2009, 『중국 없는 중화』, 인하대학교출판부).

28) 吉田松陰, 1894b, 앞의 책, 4~5쪽.

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세기 말 러시아 사절단 렉스만의 방문에서부터 19세기 전반 레자노프 방문, 네덜란드 국왕의 개국권고 등에 대처하면서 막 부관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²⁹⁾ 위의 쇼인의 쇄국에 대한 지적은 이와 합치하는 것으로 흥미롭다. 이런 인식하에서 쇼인은 현재의 쇄국정책을 명백히 비판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던 1858년(안정 5) 5월 28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쇄국설은 일시적으로는 무사함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宴安姑息의 무리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 원대한 大計는 아닙니다. 가깝게 일본 내에서도 일국에 있는 것과 천하에 跋涉하는 것은 사람의 智愚勞逸에 큰 차이를 초래하는데 하물며 四海에 있어서겠습니까. 부디 대함을 만들어서 공경부터 열후 이하 만국에 항해하여 지견을 넓혀서 부국강병의 대책략을 세우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전할 경우를 말해보면 쇄국은…… 일시의 전략은 될지 모르나 장기간에 걸쳐 계속 해안방어에만 재력을 쓰고 國貧民窮함에 이르게 되어 대적이 침공해 오기라도 한다면 혼자서 농성하는 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외국사정을 모르고 헛되이 해안을 지켜 빈궁에 지치게 되는 것은 실로 실책일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소국이지만 만리 먼 바다에 걸쳐 타인을 제압하게 된 것은 모두 항해의 이점 때문입니다.³⁰⁾

쇼인은 쇄국정책이 일시적인 안전만 가져다줄 뿐이며 일본인을 개화,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군사적으로는 홀로 농성하는 형세가 되어 결국 국가방위에도 좋은 계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쇄국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쇼인은 항해술과 외국어를 익히고 군비를 충실히 하여 일본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는 적극개국론(웅비론)을 주장했다. 당시의 분위기는 “航海의 설은 요즘 書生이 누구나 말하

29) 藤田覺, 「鎖國祖法觀の成立過程」 紙屋敦之 等 編, 2002, 『解禁と鎖國(展望日本歴史14)』, 東京堂出版(初出은 渡邊信夫 編, 1992, 『近世日本の民衆文化と政治』, 河出書房新社).

30) 「續愚論」, 『吉田松陰全集』 4(定本版), 117~118쪽.

는 것으로, 有志의 士들이 서로 모이면 왕왕 이 論을 말한다”³¹⁾고 할 정도로 해외로의 항해에 관심이 많았고, 20대의 젊은 쇼인은 “지나의 책을 읽고서 유럽, 아메리카의 風敎를 조금 알게 되어 오대주를 주유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海禁이 매우 엄격하여 외국인이 내지에 들어오는 것과, 내지인이 외국에 가는 것 모두 허용치 않는 법이 있다. …… 무릇 절름발이가 뛰어나는 사람을 보고, 뛰어나는 자가 말 탄 자를 보았을 때 그 부러움이 어떻겠는가? 히물며 내가 평생 뛰어나다녀라도 동서 30도, 남북 20도의 바깥을 나가 지 못함에라”³²⁾라고 해외진출에 대한 강한 열망을 토로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해술을 익혀야 했다. 쇼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첫째 교토에 '대학교'를 세워 그곳에 항해술을 배우는 곳을 설치하여 교육시킨다, 둘째 무사와 공경의 젊은 인재들을 발탁하여 외국선에 탑승시켜 항해술을 배우게 한다, 셋째 네덜란드 선에 태워 壯士 수십 명을 매년 광둥, 자바, 기타 지역에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항해술을 배우게 한 다음 청국, 조선, 인도 등지를 항해케 한다면 수년 안에 항해술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³³⁾ 또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서양 사정에 밝아야만 했다. 쇼인은 魏源의 『海國圖誌』를 읽고 나서는 “林則徐, 魏源 두 사람 모두 有志의 士로 특히 蟹行書[서양서적]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유지의 사들에게 蟹行學을 권하여 이런 좋은 책을 쓰게 했으면 합니다”³⁴⁾라고 했다. 또 스승인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습득 장려와 서양서적 번역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³⁵⁾

● 그러하다면 1858년 현재 당면한 미국총영사 해리스의 통상조약 체결 요구에 대해 쇼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는 미국의 무례한 태도를 맹렬히 규탄하고 미국의 의도가 일본을 “臣妾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宇內獨立의 대일본으로

31)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139쪽.

32) 吉田松陰, 1973, 「投夷書」, 「回顧錄」, 『吉田松陰』(日本の名著 31), 中央公論社.

33) 「續愚論」, 『吉田松陰全集』4(定本版), 119쪽.

34)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156쪽.

35) 「幽囚錄」, 『吉田松陰』(日本の名著 31), 223쪽.

어찌 犬羊의 비호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³⁶⁾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³⁷⁾

쇼인은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당당한 자세로 상대국에 가서 조약을 체결하기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통신통상은 천지의 常道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사람을 보내 만국의 형세를 자세히 살핀 다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될 수 없고, 이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함부로 개국하는 것은 좋지 않다”³⁸⁾라고 했다. 미국이 개국시켜주니 잘된 일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내 스승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에 活眼이 있습니다. 대강의 뜻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개국시키는 것은 묘책, 그렇게 하면 通信通市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개국당하여 淚出妻哭(齊의 景公이 哭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딸을 哭에 시집 보낸 고사: 孟子 離婁上)해서는 나라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 저는 이 설을 따릅니다.”(1858년: 안정 5/1/19)³⁹⁾라고 당시의 수동적인 통상조약교섭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의 대계를 말하노니 雄略을 떨치고 四夷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航海通市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이루겠는가. 만약 封關鎖國하여 앉아서 적을 기다린다면 기세가 꺾이고 힘이 위축되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항해통시는 원래 웅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祖宗의 遺法이다. 쇠국은 원래 苟偷의 계책으로 말세의 弊政이다…… 원컨대 (미국은: 인용자) 물러나서 우리가 찾아가 답해줄 것을 기다리라…… 그런 후에 나아가서 캘리포니아[加裏蒲爾尼亞]를 방문하여 전년

36) 「未定稿附和作」, 『吉田松陰全集』4(定本版), 137쪽.

37) 그는 4년 전 체결된 미일화친조약에 대해서도 “러시아, 미국과 강화가 정해졌다. 결연히 우리가 이것을 깨어 믿을 이적에게 잃어서는 안 된다. 다만 章程을 엄격히 하여 신의를 두터이 해야 한다”라고 하여 조약의 준수를 지지했다(『吉田松陰全集』제7권, 364쪽(보급판, 川口雅昭, 앞의 논문, 6쪽에서 재인용)).

38) 『吉田松陰全集』제5권, 73쪽(보급판, 川口雅昭, 앞의 논문, 8쪽에서 재인용).

39)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222쪽.

의 사절단에 보답하고 이로써 화친조약을 체결한다. 과연 이렇게 잘 한다면 국위는 奮興하고 俊才는 떨쳐 일어나 결코 국체를 잃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⁴⁰⁾

쇼인은 쇠국을 '말세의 弊政'이라고 명확히 부정하고 오히려 '항해통시'가 '祖宗의 遺法'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히데타다[秀忠]는 만국과 통교하는 것을 좋아하여 慶長 元和 때에는 외국과의 왕래가 융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본에 강요하는 식의 조약체결 대신 미국이 일단 물러가 있으면 일본이 캘리포니아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쇼인은 일본이 취해야 할 길은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서양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약체결을 하고 해외로 용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 일본은 “크게 통상을 열어 선박을 늘리고, 물자를 늘려 항구에서 수출하여 士인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한다. …… 상선이 점점 증가하고 土貨도 점점 늘어나서 무역이 점점 활발하게 되면 곧 군함을 만든다. 군함에는 반드시 포총을 갖추고 사졸을 태우며 商艦으로 輜重을 삼는다. 이렇게 되면 유럽, 미국도 멀다고 이르지 못할 것이 없고, 조선, 만주는 말할 필요도 없다”⁴¹⁾고 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게 될 것으로 그는 보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쇼인은 단순한 양이론자는 아니었다. 그는 서양과의 통교, 무역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일본의 부국강병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조약체결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막부가 취하고 있던 굴욕적,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본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조약체결을 주도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외로 용비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40) 「對策一道」, 『吉田松陰全集』 제4권, 107~109쪽.

41) 「國相益田君に上る書」, 『吉田松陰全集』 제4권, 岩派書店, 1934, 43쪽.

3_ 쇼인의 아시아침략 주장

이처럼 쇼인은 서양열강에 대해서는 항해통시를 통해 무역을 할 것을 주장하고, 또 사절단을 파견하여 화친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 대등하고 준법적인 외교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그리고 미개척지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침략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蝦夷地를 개간하여 諸大名을 봉하고 틈을 봐서 캄차카, 오호츠크를 탈취하고 류큐도 타일러 內地의 제후와 마찬가지로 참근시키고 會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조선을 옛날과 마찬가지로 공납하도록 촉구하고, 북으로는 만주의 땅을 분할하여 빼앗고, 남으로는 타이완, 루손의 여러 섬을 우리 수중에 넣어 점차 진취의 기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⁴²⁾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의 남쪽에 있는데 바다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리 멀지는 않다. 그 위도는 딱 중간 정도이다. 그러므로 그곳은 당연히 초목이 무성하고 인민은 풍족하여 여러 외국이 앞 다퉈 이 땅을 얻으려고 할 텐데, 영국이 이 땅에서 개간하고 있는 것은 겨우 그 심분의 일에 불과하니, 내가 항상 이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곳을 손에 넣으면 분명히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조선과 만주는 연결되어 있는데 일본의 서북쪽에 있고 양쪽 모두 바다로 떨어져 있을 뿐, 가깝다. 그리고 조선과 같은 곳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臣屬했지만 지금은 좀 거들먹거리는 점이 있다. 그 현상을 분명히 밝히고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⁴³⁾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인식이다. 『外蕃通略』에서는 소극적으로나마 막부와 조선의 적례외교를 받아들이는 듯했던 쇼인이 여기서서는 아예 조선을 ‘옛날과 같은 臣屬’의 상태로 되돌려 ‘공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42) 吉田松陰 「幽囚錄」, 『吉田松陰』(日本の名著 31), 227쪽.

43) 「幽囚錄」, 『吉田松陰』(日本の名著 31), 276~277쪽.

하고 있는 것이다. 적례의 개념이 발전하면 당시 서양 국가를 대하는 태도로 아시아 국가를 대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쇼인은 오히려 조선에만 '일본형 화이질서'를 적용하고 있다. 조선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도 '臣屬', '貢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쇼인의 국제인식에서 조선이 갖는 특수성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근대 일본의 조선인식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류큐에 대해서는 일본의 여타 다이묘와 같이 쇼군에 참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1872년 메이지 정부가 류큐 왕국을 폐하고 류큐번을 설치한 것은 실로 이 주장이 실현된 것이다. 에도 막부는 오히려 류큐 왕국의 존립을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에도에 보내게 함으로써 쇼군의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려고 했던 점과 비교하면 쇼인의 이러한 주장은 막부의 류큐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대담한 해외팽창론이다. 에조치 방면에 대한 일본 지식인의 유별난 팽창의식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검토한 바 있지만,⁴⁴⁾ 쇼인도 에조지는 물론 캄차카, 오토츠크 지역까지 진출할 것을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에조지의 막부직할이 아니라 여러 다이묘를 봉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 점인데, 쇼인이 아직 근대국가의 영토확장이라는 개념에 어두웠던 것인지, 1799년 제1차 에조치직할령 때 여러 다이묘를 봉했던 경험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막부에 대한 견제 때문인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이다. 당시 미토번의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오랫동안 에조치를 하사해줄 것을 막부에 요청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류큐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미국으로의 사절파견 등에서 양인의 입장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주에 대해서는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주장과 비슷하다.⁴⁵⁾ 먼저 만주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임을 강조하고 이를 분할(청과 분할하자는 의미인가?)하여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토 노부히로가 만주는 물론 중국 전역을 탈

44) 박훈, 2008, 앞의 논문.

45) 박훈, 2008, 앞의 논문.

취해야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한편 혼다 도시아키, 사토 노부히로 등이 주로 북방에 대한 팽창을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서 쇼인은 남방의 루손(필리핀), 타이완,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진출할 것을 주장했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임을 강조하고 영국이 이미 진출해 있으나 일본에 큰 이익이 될 땅이므로 서둘러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아시아와의 대등하고 평화적인 ‘敵體’ 관계는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은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과 콤플렉스를 아시아에서 보상받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아시아침략 주장은 서양에 대한 방비의 차원에서 구상되고 있다. 즉 쇼인은 서양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면 일본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先聲後實의 방법으로 함선을 만들어 북으로는 에조를, 서로는 조선을 복속시켜 진취적인 세를 보인다면 群夷[서양열강]는 그 본국을 습격당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물러갈 것이라고 했다.⁴⁶⁾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855년(안정 2) 4월 “大禁物은 일본 내에서 서로 정벌하는 것, (이것이) 실로 몹시 두렵습니다. 러시아, 미국과 강화가 정해진 이상, 갑자기 우리 측에서 이것을 깨어 신의를 융적에게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규약을 엄히 하고 신의를 두터이 하여 그 사이에 국력을 키워,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 지나를 복종시켜서, 러시아와 교역으로 잃은 바는 鮮滿에서 토지로 보충해야만 합니다.”⁴⁷⁾라고 하여, 무역역조를 만회할 대상으로 아시아 침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시아 침략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조선을 복종시키고 만주를 접수하려고 한다면 함선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나의 本志이다. 지금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 巨艦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⁴⁸⁾라고 했고, 또 “章程을 엄격히 하고 약속을 잘 지켜 저들로 하여금 驕悍에 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틈을 노려서 만주를 접수하고 러

46)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1978, 171쪽.

47) 1978, 위의 책, 193쪽.

48) 『吉田松陰全集』 제2권, 149~150쪽(대중판, 吉野誠, 「吉田松陰と朝鮮」, 『朝鮮學報』, 41쪽에서 재인용).

시아를 압박하며 조선을 복종시키고 청을 엿보며 南洲를 취하고 인도를 습격한다. 세 가지 중 실로 하기 쉬운 것을 택하여 해야만 한다. 이것은 天下萬世가 계승할 일이다. 천하의 세가 아직은 여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무를 버리고 문을 닦으며 賢能을 부르고 士民을 양성해야 한다”⁴⁹⁾고 하여 속마음[本志]은 근린국가의 침략이지만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유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쇼인은 사토 노부히로와는 달리 중국침략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⁵⁰⁾ 오히려 “豊太閤 정도의 雄才로도 아쉽게도 천하분쟁의 시대에 태어나 神州의 撥亂에 힘을 들이느라 마침내 明國을 손에 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내에 내전이 일어나서는 외국에는 손을 뻗지 못하고, 큰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오히려) 洪秀全 등이 청국을 僞定하고 조선과 만주를 거느리고 우리를 먼저 침입한다면 이보다 더 큰 유감스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⁵¹⁾라고 하여 중국위협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海國兵談』에서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한편 조선에 대해서는 가장 확연히 침략과 복속, 합병을 주장했다.

대저 神輿의 형세는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합병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奥州와 越州 같은 곳은 지맥이 연이어 있어서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삼한이나 임나 등 諸蕃은 지맥이 연이어 있지는 않지만 대치하고 있는 형세여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습격할 것이니 장래에 불측의 憂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합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⁵²⁾

49) 野山雜著「治心氣齋先生に與ふる書」, 『吉田松陰全集』, 제2권 152쪽(대중판, 吉野誠, 앞의 논문, 42쪽에서 재인용).

50) 사토 노부히로의 중국침략 구상에 대해서는 박훈, 앞의 논문.

51) 吉田松陰, 1978, 위의 책, 194쪽.

52) 「外征論」, 『吉田松陰全集』 2권, 451쪽(대중판, 吉野誠, 앞의 논문, 44쪽에서 재인용).

흥미로운 것은 쇼인이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슈번사담게 구체적으로 한반도 침공을 위한 번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점령책’이 그것이다. 그는 안정 5년 2월 19일 어떤 사람의 울릉도 개간책을 소개하면서 “竹島[울릉도] 개간책이 있다. 이것에 대해 막부의 허락을 얻어 에조[蝦夷] 처럼 된다면 옛날 明末의 鄭成功의 업적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깊은 뜻은 접어두고 지금 幕吏가 變通과 興利의 說을 서두른다면 죽도개간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천하가 무사하다면 막부에 조그만 이익이 될 것이고, 일이 생기면 遠略의 침병인 우리 번이 조선, 만주에 진출하는 것이 제일 좋다. 조선, 만주에 진출하려고 하면 죽도는 제일의 발판이 될 것이다”⁵³⁾ 라고 하여 울릉도도 에조치처럼 일본이 장악하여 조선, 만주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고 조슈번이 그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쇼인은 울릉도에 영국 등 서양이 진출한다면 조슈번의 안보가 크게 위협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도(울릉도)가 영국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믿기 어렵다.... 北國船(동해 쪽 일본연안을 따라 항해하던 무역선)이 매번 왕복하면서 그 전후를 지나다니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英夷가 이미 접거했다고 하더라도 관계치 말고 개간을 명목으로 교역을 하면서, 外夷의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묘책이다. 英夷가 이미 접거했다면 도저히 그대로 두기 어렵다.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 長門[조슈번] 등에 내습할지 알 수 없다. ‘한 조각도 바다로 나갈 수 없다[寸板不能不海]’는 누습을 깨는 데는 이 만한 묘책이 없다. 흑룡강이나 에조는 우리 번에서 머니, 그보다는 죽도, 조선, 北京 방면이야말로 우리 번의 급무라고 생각된다(1858년: 安政 5년 6월 28일).⁵⁴⁾

그는 울릉도가 이미 조선령이 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개의치 않았다.

53)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1978, 224쪽.

54)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1978, 235쪽.

죽도는 元祿 연간에 조선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여기어서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번혁의 때이므로 조선에 교섭하여 지금 空島로 놔두는 것은 무익하므로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말하면 이익은 없을 것이다. 만약 洋夷들이 손을 댄다면 이 또한 그냥 둘 수 없다. 그들의 발판이 된다면 우리 조슈변에는 대단한 위험이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는 수 없다. 개간을 명목으로 渡海한다면 이것은 航海雄略의 단초가 될 것이다(1858년: 安政 5년 7월 11일).⁵⁵⁾

“조선에 교섭”한다고 했지만 문맥으로 보면 조선이 반대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조선의 의사를 무시한 점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개간이나 무역을 명목으로 하여 사실상 대륙에 대한 영토적 진출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쇼인은 이어 울릉도 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⁵⁶⁾ 이 사료들만 보더라도 1856년(安政 3) 10월 이후 쇼인이 침략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지적⁵⁷⁾은 재고를 요한다고 하겠다.

한편 어떤 연구에서는 쇼인이 “조선, 만주 및 청국을 찾아가[問ひ] 그런 후에 광둥, 자카르타, 희망봉, 오스트레일리아에 모두 館을 설치하고 將士를 두어 이로써 사방의 상황을 探聽하고 또 互市の 利를 취한다”⁵⁸⁾라고 한 것을 두고, 그가 의도했던 것은 평등호혜 관계에 기초한 구미열강에 대한 범아시아연합이라든가,⁵⁹⁾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항하여 타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자세⁶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將士를 두어 사방의 상황을 探聽”한다는 표현을 보면 여기서의 ‘館’이 단순히 ‘貿易館’을 말하는 것일까에는 약간의 의문이 생긴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55)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1978, 238쪽.

56)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239쪽.

57) 栗田尙彌, 1984, 「吉田松陰の對アジア觀 - 松陰は果して「侵略」論者か」, 『政治經濟史學』 通號210, 74쪽.

58) 『吉田松陰全集』 4권 332쪽(대중판, 吉野誠, 위의 논문, 46쪽에서 재인용)

59) 栗田尙彌, 1984, 앞의 논문, 77쪽.

60) 邢永鳳, 2003, 앞의 논문, 37쪽.

이다.

이 문장의 해석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이제까지 필자가 인용한 사료만 보더라도 쇼인이 아시아에 대해서 초지일관 침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II. 맺음말

최근 존양파의 대외관에 대하여, 그들이 단순한 배외주의자가 아니라 해외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었고 국가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형태로 조약을 다시 체결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등하게 참여할 것을 구상했다는 견해가 많이 제출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는 존양파 대외관의 실체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이 메이지 정부를 수립했을 때 어떻게 그토록 신속하게 ‘개국화친’, ‘만국병립’의 대외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견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연구에는 두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그들이 상정한 ‘국제사회’는 서양열강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막말기의 사료를 읽다보면 ‘萬國’이라는 용어와 자주 마주치는데 문맥상 과연 이 용어가 아시아를 포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이는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존양파의 대외관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대등이라는 관념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잘 서양열강과 대등해지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나 지역을 침략한다는 논의로 연결되었으며 요시다 쇼인도 그 예외가 아니었음은 본문에서 본 대로이다.

둘째,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등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그 안에서 서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서 일본이 최고에 올라야 한다는 ‘세계제패’, ‘世界一統’에의 염원이 관념상에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쇼인이 일본국 정부와 서양열강의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천황과 외국 국가원수와의 대등성을 끝내 거부했던 것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현실성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심지어 개명과 막부 로주[老中]였던 홋타 마사요시[堀田正睦]에 이르기까지 '세계통일'에 대한 관념적 집착은 공유되었다. 현실성 없는 관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었음은 1930년대 후반 이후 군국주의자들의 무모한 대외관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역사학자는 일본이 지녔던 근대국가의 세속성과 신화성을 설명하면서 “근대일본은 인간들의 생활의 장에 입각한 행복이나 이익추구를 기축으로 한 세속적인 사회이며, 국가 또한 기본적으로는 세속국가였다. 그러나 천황제를 둘러싼 이러한 우주론적인 의미부여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사회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신화적인 것이 더욱 흥룡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⁶¹⁾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대외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61) 安丸良夫 著, 박진우 역, 2008, 『근대천황상의 형성』, 논형, 278쪽(원저는 『近代天皇像の形成』, 岩波書店, 1992).

참고문헌

- 吉田常吉 等編, 1978, 『吉田松陰: 日本思想大系54』, 岩波書店.
- 吉田常吉 等編, 1976, 『幕末政治論集: 日本思想大系 56』, 岩波書店.
- 近藤守重, 『外蕃通書』 『近藤正齋全集』
- 吉田松陰, 1894, 『外蕃通略』, 惠愛堂.
- 『吉田松陰全集』, 1940, 보급판, 전12권, 岩波書店; 『吉田松陰全集』, 1974, 대중판, 전10권, 별권 1권, 재인용 자료.
- 『日本の名著31吉田松陰』, 中央公論社, 1973.
- 安丸良夫 지, 박진우 역, 2008, 『근대전황상의 형성』, 논형.
- 박훈, 2008, 「18세기 말~19세기 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동양사학연구』 104집.
-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大出版會.
- 荒野泰典, 1994, 「近世の對外觀」, 『岩波講座日本通史』 13(近世3).
- 桐原健眞, 2001, 「吉田松陰における對外觀-「萬國公法」以前の國際秩序認識」, 『文芸研究』 152.
- 桐原健眞, 2004, 「吉田松陰と白旗-「國際社會」認識の轉向」, 『日本思想史學』 36.
- 佐藤誠三郎, 1974, 「幕末・明治初期における對外意識の諸類型」, 『近代日本の對外態度』, 東大出版會.
- ハムザ, R. イサム, 1996, 「幕末日本における對外觀について」 『アジア文化研究』 22.
- 天澤康佑, 1969, 「江戸時代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6.
- 邢永鳳, 2003, 「吉田松陰における對外意識」, 『山口縣地方史研究』 89.
- 栗田尚弥, 1984, 「吉田松陰の對アジア觀-松陰は果して「侵略」論者か」, 『政治經濟史學』 通號210.
- 川口雅昭, 2003, 「吉田松陰の國際感覺について」, 『藝』 1.
- 藤田覺, 2002, 「鎖國祖法觀の成立過程」 紙屋敦之等編 『解禁と鎖國(展望日本歴史 14)』, 東京堂出版, 初出은 渡邊信夫 編, 1992, 『近世日本の民衆文化と政治』, 河出書房新社.

[ABSTRACT]

Yoshida Shoin's view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Park, Hun

Recently some studies on the Yoshida Shoin's foreign view have pointed out that he was well informed on foreign informations and stood on the side of having equal relationships with western powers. Moreover they have tried to correct the assertion that Shoin insisted the aggression on the Asian countries and areas.

This paper tried to make it clear that Shoin approved the Shogun government's equal relationships with foreign countries in reality, but at the same time he believed Japan's superiority by locating the Tenno above the Shogun in idea.

This construction of foreign view helped him approve that the Bakufu tried to conclude treaty with Townsend Harris. He could keep self-consolation even if the Bakufu would concluded treaty with America because the Shogun was inferior to the Tenno.

● Japan's superiority in idea expressed itself on the aggressive attitude on Asia. So many materials indicated Shoin's insistence on intruding Asian countries and even Australia. I think his aggressive attitude on Asian countries stemmed from the complex of the unaccomplished desire toward Japan's superiority.

keywords

Yoshida Shoin, expansionism, Japanese diplomacy, trade treaty between Japan and U.S.A, invasion on Asia, policy of seclusion, foreign view



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

- 『通譯酬酢』을 중심으로 -

허지은 | 서강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조·일간의 외교·무역업무는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언어도 문자도 다른 조선과의 의사소통과 정보¹⁾수집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은 조선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²⁾였다. 이들의 기본업무는 통역

※ 투고일: 2010년 9월 28일, 심사일: 2010년 11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2월 2일.

1) 情報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또는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다. 민덕기, 2004,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과 정보의 교류」(『사학잡지』 74, 193쪽)에서 “이번 논문에서는 「情報」라는 用語를 部分的인 意味로서 사용하고 있다. 部分的인 의미로서의 情報란, 어떤 主體가 外部의 客體로부터 窺得하는 情況에 관한 모든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의미가 아닌, 완전한 의미에서의 정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습득된 정보를 주체가 識別하고 평가하여 客體에 대응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段階까지를 前提로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어통사가 조선에서 체류하며 五感을 통해 얻은 지식과 조선인과의 접촉을 통해 습득한 모든 소식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기로 한다.

2) 조선시대에 외국어는 譯語라 하고, 역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譯學人, 또는 譯學者라 하고,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譯語之人·譯語人·譯人·譯者·舌人·舌者·

이었지만 이들은 쓰시마에서 막부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체적인 필요에서 지시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통사는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그리고 해외체험이 힘든 시절 이국땅에서의 이문화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은 이후 후배 통사들의 지침으로써 쓰시마의 대조선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출되었다.

이렇게 조선어통사가 수집한 정보는 이후 쓰시마와 막부의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었던 시기에 일본인들의 대외인식의 형성에 중요한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어통사가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통사의 대외인식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³⁾

象胥·譯官·通事 등이라고 하였다. 특히 일본어 통역을 담당했던 관원은 '倭學譯官', '倭譯官(『조선왕조실록』)으로 불렸다. 반면에 일본에서 조선어 통역은 通事·通譯·通弁·傳語官 등으로 불렸지만 쓰시마에서는 通詞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계의 논문을 살펴보면, 한국 측에서는 '외학역관'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데 반해 일본 측에서는 '조선통사'·'조선어통사'·'쓰시마통사'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학역관'과 '조선어통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조선의 일본어 통역관을 兩譯(訓導, 別差), 譯官으로 불렀는데, 조선에서 쓰시마의 조선어 통역관에 대해 사용한 구체적인 호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쓰시마의 조선어통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선어통사들이 남긴 기록을 탈초·번역·소개한 연구가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田川孝三, 1940, 「對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書物同好會冊子』 11; 鈴木棠三, 1979, 「小田幾五郎著, 『象胥紀聞』 解題」, 『對馬叢書 第7集 『象胥紀聞』』, 東京: 村田書店; 安彦勘五, 1989, 「史料紹介 草梁話集」, 『帝塚山短期大學紀要-人文社會科學』 26; 하우봉·홍성덕·장순순·小幡倫裕, 1997, 「史料紹介: 『禦尋朝鮮覺書』(小田四郎兵衛著)-異本『朝鮮風俗記』」, 『全北史學』 19·20), 1990년대에 들어와 아메노모리 호슈[兩森芳洲]의 조선어통사 양성책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田代和生, 1991, 「對馬の朝鮮語通詞」, 『史學』 第60卷 第4號; 米穀均, 1991, 「對馬藩の朝鮮通詞と兩森芳洲」 『海事史研究』 48; 「對馬藩の朝鮮通詞と情報」, 『歴史手帖』 22卷 4號, 1994), 1990년대 후반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보수집의 관점에서 조선어통사를 다룬 연구가 나왔다(木村直也, 「朝鮮通詞と情報」, 岩下哲典, 眞榮平房昭編, 1997, 『近世日本の海外情報』, 東京: 岩田書店). 이 연구는 호슈의 통사 양성책을 다루면서 통사가 수집한 국제정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明·淸 교체기를 전후로 한 중국관련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조선

이를 위해서는 통사의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확인 가능한 것으로는 『禦尋朝鮮覺書』, 『象胥紀聞』, 『草梁話集』, 『通譯酬酢』, 『象胥紀聞拾遺』 등 모두 5종이 있다. 『禦尋朝鮮覺書』는 쓰시마의 조선어통사 오다 시로베[小田四郎兵衛門]가 쓰시마도주의 질문에 대해 모두 61개 항목에 걸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象胥紀聞拾遺』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다 간사쿠[小田管作]가 그의 아버지인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가 남긴 『象胥紀聞』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오다 이쿠고로의 『象胥紀聞』은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것이고, 『草

어통사에 주목하여 조선·일본·쓰시마의 관계 속에서의 통사의 위치와 그들이 갖는 의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쓰시마의 政史의 안에서 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나왔다(許芝銀, 2008. 4, 「쓰시마[對馬] 朝鮮語通詞의 성립과정과 역할」, 『한일관계사연구』, 29).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왜관을 중심으로 한 쓰시마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왜관에서 쓰시마에 보고한 조선과 중국관련 정보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쓰시마가 이러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었던 이유를 조선과의 안정적인 무역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지만(김강일, 2008. 4, 「조선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 『分類紀事大綱』 25, 「風說之事」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9) 정보수집의 최전선에 있었던 조선어통사의 존재, 그들이 수집한 정보의 범주와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8년 허지은은 박사학위논문 『近世 쓰시마 朝鮮語通詞의 情報收集과 流通』에서 조선어통사의 조선과 조선을 매개로 한 중국 및 대륙에 관한 정보수집이라는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통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 및 그 정보가 쓰시마를 통해 막부에 전달되는 경로 및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사례를 고찰하였다(허지은, 2008. 8, 『近世 쓰시마 朝鮮語通詞의 情報收集과 流通』,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조선어통사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외관을 갖게 되었고, 일본 및 일본인의 대외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한편 오바타 미치히로는 오다의 『通譯酬酢』를 바탕으로 그의 조선문화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다의 기록이 조선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선문화 인식에 있어서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같은 유연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小幡倫裕, 2002, 위의 논문). 한편 2002년에는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가 조선어통사 오다 이쿠고로의 『通譯酬酢』의 내용 가운데 飲食之部和 酒禮之部の 일부 내용을 왜관에서의 조선과 일본의 음식문화 교류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분석·고찰하였다(田代和生, 2002, 『倭館』, 東京: 文春新書). 이와 같이 통사들이 남긴 기록의 내용에 대한 분석연구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며, 오다를 조선의 風俗 등 좁은 의미의 異文化 체험자로 한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梁話集』에는 초량왜관을 출입하는 인원을 비롯하여 왜관 인근의 명소 등 초량 왜관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관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通譯酬酢』은 風儀·風樂·船上·外國·乾坤·浮說·武備·官品·女性·飲食·酒禮·禮儀 등 모두 12부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오다 이쿠고로는 46년간 조선어통사로서 쓰시마, 조선, 나가사키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사로서는 최고위직인 大通詞의 지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오다 이쿠고로의 기록은 쓰시마도주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 오다 시로베의 기록이나 오다의 기록을 근거로 그 내용을 보충한 오다 간사쿠의 기록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왜관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한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通譯酬酢』⁴⁾은 왜관 내에서의 왜학 역관과 조선어통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外國之部」 부분은 조선 북방의 정세와 북방민족의 조선침략 여부, 조선 서북쪽의 지형 및 방비, 이국선의 출몰과 異宗, 네덜란드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다가 조선의 범주를 넘어 북방과 유럽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갖게 되었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 주목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오다 이쿠고로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 『通譯酬酢』을 바탕으로 그가 수집한 정보의 범주 및 내용분석을 통해 그의 대외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_ 오다 이쿠고로의 생애

오다 이쿠고로가 태어난 오다 가문의 遠祖는 오다 린안[小田林庵]이었다.

4) 오바타 미치히로(小幡倫裕, 2002, 「對馬通詞 小田幾五郎의 朝鮮文化認識—“通譯酬酢”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는 『通譯酬酢』을 한국어로 ‘통역수초’라고 하고 있는데, ‘酢’에는 신맛 나는 조미료 초, 잔 돌릴 작이라는 두 가지의 음과 훈이 있다. 그리고 ‘수작’은 ①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뜻, 또는 말을 서로 주고받음, 또는 주고받는 그 말 ② 엉큼한 속셈이나 속보이는 짓을 알잡아 이르는 말로 여기에서는 조선의 譯官과 쓰시마의 通詞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으로 보아 ‘통역수작’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린안은 太宰 쇼니 요시요리[小貳嘉賴; 무토(武藤) 氏]에게 近侍했었는데, 요시요리가 1441년 지쿠젠[築前]에서 오우치 모치요[大內持世]와 싸워 패배하고 쓰시마로 도망하면서 함께 쓰시마로 오게 되었다. 쓰시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는 요시요리가 거처할 곳을 미즈네[三根]의 나카무라[中村]에 마련해 주고 미즈네 公方이라 부르며 그 近臣을 公方人이라고 불렀는데, 린안의 이름은 그 30여 명의 公方人 가운데로 보인다. 무토 씨의 실각으로 지쿠젠에 소유하고 있던 所領을 빼앗긴 소 씨는 쓰시마로 옮겨온 舊臣들에게 所領을 줄 여유가 없어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들은 상인이 되어 쓰시마에 머물렀다. 모두 60家로 이들을 60人衆이라고 불렀는데, 오다家도 그중 한 집안이었다.

린안 이후 오다家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분명치 않다. 오다 이쿠고로의 할아버지 이쿠 우에몬[幾右衛門]代인 1723년과 1734년에 화재로 判物, 家書, 器物類가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商賈로서의 오다家는 이 2代가 전성기로 家號는 스키야[杉屋]였으며(本宅은 大町西側奥裏之通 上角에 있었다) 술집과 전당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두 번의 화재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1734년 화재 때는 마침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서류와 중요한 도구를 보관해둔 창고가 모두 타버려 영업도 불가능하게 되면서 朝鮮五代官 등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쇠퇴기의 이쿠 우에몬[幾右衛門]이 藩에 제출한 原書가 있는데, “상업이 전성기일 때에는 거기에 전념했지만 지금은 다시 조선교역 관계의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朝鮮五代官」이 되었는데, 이러한 일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六十人이라는 家格에 주어진 특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쿠 우에몬은 만년에 산수와 습자, 謠 등을 가르쳐 제자가 많았으며, 또한 俳諧·茶湯·香에 취미가 있었으며, 鑑定에 능숙했다. 그의 아들 도하치로[藤八郎]는 1725년에 출생하여 1808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쿠고로는 도하치로[藤八郎]의 외아들로 형제가 없었다. 이름을 무네히사[致久]라고 했으며, 幼名은 고로하치[五郎八]였다.⁵⁾

5) 鈴木棠三, 1979, 「小田幾五郎著, 『象胥紀聞』 解題, 『象胥紀聞』 對馬叢書 第7

오다 이쿠고로는 1754년 11월 28일 六十人家⁶⁾에서 출생하였다.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집안 분위기상 오다는 어려서부터 조선어를 배웠다. 13세에는 조선 조량왜관에 건너와 조선말을 배우고 쓰시마에 돌아가서는 쓰시마의 조선어 교육기관인 韓學司에 들어가 조선어를 공부했다.⁷⁾ 1774년에 朝鮮詞稽古免 割을 받았으며 1776년에는 五人通詞가 되어 통사로서 실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1777년에는 石見·築前兩漂民迎通詞·朝鮮漂民送路通詞 등에 임명되어 현지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1779년에 稽古通詞가 되었고, 1780년에는 長崎勤 番禦雇通詞, 1789년에는 本通詞를 거쳐 1785년에는 통사의 최고직인 大通詞가 되었다. 그는 1811년에 실시되었던 對馬易地通信 交渉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으며,⁸⁾ 1823년에 은퇴하고 詞稽古指南役頭取로서 쓰시마에서 조선어통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다 1831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그의 묘소는 현

集, 東京: 村田書店, 149~151쪽.

- 6) 六十人商人에 대해서는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東京: 創文社에 자세하다.
- 7) 쓰시마에서는 1727년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통사를 양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1678년 왜관 이관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강화로 조선인과 접촉하면서 조선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과의 무역량 감소로 商賣를 위해 조선으로 건너가는 인원이 감소되고 조선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상실함으로써 조선어 수준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쓰시마에서는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메노모리 호슈 등 儒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거 조일간의 통교의 樣態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朝鮮通交大紀』, 『分類紀事大綱』 등의 기록을 정비하였다. 조선관련 정보의 구축을 통해 조선과의 외교·무역교섭의 근거로 삼음과 동시에 교섭을 원활하게 이끔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관련 정보를 구축해가는 시점에서 정보수집의 최전선에 있는 조선어통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쓰시마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조선어통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번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당시 쓰시마에서 실시했던 조선관련 정보구축이라는 정책 속에서 連動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다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1727년 확립된 조선어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조선어통사였다.
- 8) 『文化信使記錄』 1, 「聘禮易地之義二付多田左膳大森繁右衛門追々出府被仰付朝鮮時體禦老中松平伊豆守様江被仰上就右禦返答被仰出朝鮮江禦掛合」, 長正統은 「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1978)에서 역지 통신교섭의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 측 譯官과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 사이에 있었던 중간 공작을 역관이 오다에게 보낸 비밀서한의 내용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표 1〉 小田幾五郎 略年譜

연대	연령	활동
1754년(寶曆 4)11월 28일	0	출생
1767년(明和 4)	13	조선으로 건너와 實地에서 조선어習得 韓學司에서 修業
1774년(安永 3)	20	朝鮮詞稽古割
1776년(安永 5)	22	五人通詞
1777년(安永 6)	23	石見·築前兩漂民迎通詞, 朝鮮漂民送路通詞
1779년(安永 8)	25	稽古通詞
1780년(安永 9)~1785(天明 5)	26~31	長崎勤番禦雇通詞
1789년(寛政元)	35	本通詞
1794년(寛政 6)	40	『象胥紀聞』著述
1795년(寛政 7) 12월	41	大通詞
1796년(寛政 8)	42	『草梁話集』著述
1823년(文政 6)	69	禦役禦免, 詞稽古指南役頭取
1831년(天保 2)	77	『通譯酬酢』著述
1831(天保 2) 10월 22일	77	死亡

* 田川孝三, 1978, 「對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書物同好會會報 附冊子』, 書物同好會, 522~523쪽 · 鈴木棠三, 1979, 「小田幾五郎著, 『象胥紀聞』解題」, 『對馬叢書 第7集『象胥紀聞』』, 村田書店, 149~153쪽 · 오바타 미치히로, 2002, 「對馬通詞小田幾五郎의 朝鮮文化認識」, 『사회과학연구』 6, 176~177쪽 등 참고.

재 쓰시마 이즈하라[嚴原]의 海岸寺에 있다. 오다 이쿠고로의 略年譜를 작성해 보면 〈표 1〉과 같다.

오다 이쿠고로가 통사로 근무한 연한은 46년이나 되었다. 그 공으로 자녀가 士分(禦從士)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二人扶持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이미 큰아들 간사쿠[管作]는 通詞로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二人扶持는 차남 모스케[茂助]가 받도록 했다.

오다 이쿠고로가 町奉行에게 제출한 「乍恐口上書」에 의하면 아버지 도하치로[藤八郎]는 무위도식하며 이렇다 할 일도 하지 않으며 빈궁하게 살다 갔

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古60人家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집안의 이름을 높이도록 가르쳤다고 한다. 오다 이쿠고로는 유서 있는 六十人 格을 박탈당할 경우 선조들에게 면목이 없고, 小送使를 가진 六十人 가운데는 양자에게 상속시키는 예도 있지만 實子상속을 하는 자기 집안은 이 家格을 박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訴願하기도 했다.⁹⁾

이처럼 오다 이쿠고로는 46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조선어통사로 근무하면서 통사로서는 최고직인 大通詞가 되었으며, 60人家의 지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46년간이나 조선어통사로 일해온 오다 이쿠고로는 재직기간 동안 조선의 왜학 역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리고 실제 조선에서 오랜 세월 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의 역사·제도·인정·풍물 등에 대해 책으로 남겼다. 타가와 고조[田川孝三]는 그의 연구에서 오다 이쿠고로가 『象胥紀聞』·『草梁話集』·『北京路程記』·『通譯酬酢』·『繪圖』·『朝鮮詞書』 등을 저작했으며, 이 가운데 『象胥紀聞』·『草梁話集』·『通譯酬酢』만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⁰⁾ 이것은 『通譯酬酢』 끝부분에 있는 後記에 오다 이쿠고로가 이전에 자신이 저술한 책에 象書紀聞 六冊, 草梁話集 一冊, 北京路程記 一冊, 繪圖一卷과 朝鮮詞本 數冊이 있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1998년 쓰시마에서 오다 이쿠고로와 후손관계에 있는 오우라 모치토시[大浦望人司] 씨가 소장하고 있던 오다 이쿠고로 관련자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외의 저작들도 있다. 오우라 모치토시 씨가 소장하고 있는 오다 이쿠고로 관련자료들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9) 「乍恐口上書」祖父幾右衛門小送使禦借上之時分朝鮮町代官被召遣難有奉存候其時分小送使禦借上相成候ニ付段々困窮仕私幼年之比父藤八郎貧窮之仲只管示教仕候ハ古六拾人之家ニ生候故其方生長ニ至リ一廉禦忠勤仕先祖佳名不穢様申聞候ニ付通詞四拾六ヶ年之間先祖より讓來之困窮ト心得一生儉約禦奉公ニ身ヲ入無他念相勤來候去秋不存寄私被爲稱勤勞子共貳人扶持禦徒士ニ被召出冥加至極難有仕合奉存候(鈴木棠三, 1979, 앞의 논문, 151쪽에서 재인용.)

10) 田川孝三, 1978, 「對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書物同好會會報 附冊子』, 524쪽.

〈표 2〉 大浦望人司 所藏 小田幾五郎 關聯資料

제목	책수	판본	서지 사항	비고
書簡掛	1冊	寫本		往復書簡의 필사본
書狀錄	1冊	寫本		往復書簡의 필사본
論語諺解 卷之一	1冊	寫本		『論語』를 한글로 읽은 것
周易諺解 一	1冊	寫本		『周易』을 한글로 읽은 것
象胥紀聞 上中下	3冊	寫本	小田幾五郎著 寬政甲寅 閏復月下弦 對 府源迪子惠 序	
象胥庭訓	1冊	寫本		초량왜관에 관한 여러 가지 覺書
交隣提醒·對韓雜記	1冊	寫本	寬政十二庚申四月日 小 田幾五郎 寫	
聞書	1冊	寫本		조선어 사전
天正十五年 朝鮮禦陣中覺書	1冊	寫本	文化十癸酉年 十二月 二十二日寫 小田致廣	天正 十五年(1587) 도요 토미 히데요시의 九州下 向부터 慶長 二年(1597) 정유재란까지의 기록
書狀集	1冊	寫本	寬政十三 辛酉年二月寫 小田幾五郎	조선어로 된 왕복서한
草梁話集	1冊	寫本	文政八乙酉年三月日 前 大通詞 小田幾五郎篇集 七拾餘歲二至り寫之	초량왜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
草梁話集	1冊	寫本	右話集 前大通詞 小田幾 五郎齡七拾七歲 見聞之 品 自筆覺書也 文政十三庚寅年	''
草梁話集	1冊	寫本	小田藏	''
草梁話集	1冊	寫本	天保 年 小田管作 稿	''
訓蒙字會	1冊	寫本	嘉靖六年四月日 崔世珍序 壬戌初夏樸敬源寫 享和二壬戌年 小田幾五郎	조선어 사전. 한자음에 핀과 訓을 붙임

제목	책수	판본	서지 사항	비고
象胥紀聞 續編	1册	寫本		조선의 사정을 기록, 上卷의 일부만 베김
通譯酬酢 壹~四	1册	寫本	文化十四丁酉年 大通詞 小田幾五郎 內題: 通譯實論	조선에서의 견문 기록
通譯酬酢 伍~八	1册	寫本	文化八辛未年 大通詞 小田幾五郎	"
通譯酬酢 玖~拾貳	1册	寫本	文化十二乙亥年 大通詞 小田幾五郎	조선의 여성, 주례 등에 대해 기록
交鄰事考上·下	2册	寫本	寬政十一年三月日 小田幾五郎	쓰시마와 조선과의 관계의 내력 등을 정리한 기록
淑香傳 上	1册	寫本	寬政五癸醜年寫之 小田幾五郎 致	조선의 대표적 소설, 교토대학과 가고시마 현 沈壽官家에도 있음
淑香傳 下	1册	寫本	寬政五癸醜年寫之 小田幾五郎 內題: 別淑香傳	
崔忠傳	1册	寫本	天保十二辛醜年四月初旬寫 小田二世大通官管作口男東太	"
講話 全	1册	寫本	天明四甲辰五月 編集 小田幾五郎	중급수준의 조선어학서, 교토[京都]대학과 가고시마[鹿兒島] 현 沈壽官家에도 있음
隣語大方	1册	寫本		중급 수준의 조선어학서 (회화용 교재)
朝鮮官職考	1册	寫本		조선의 관직과 그 직제를 기록
朝鮮國ヨリ北京迄路程記	1册	寫本	文化元年七月日 小田致善記之 文化元甲子年六月日 小田致善謹記	京城에서 義州, 義州에서 北京까지의 路程을 기록

제목	책수	판본	서지 사항	비고
北京路程記 全	1冊	寫本	文化元甲子六月日 大象胥官 小田致善 序 於時弘化二乙巳年中秋 二世大象胥官致遠述	〃
北京路程記	1冊	寫本	小田啓太郎 弘化二乙巳年夏 二世大 象胥官致遠 編	〃
北京路程記	1冊	寫本	弘化二乙巳年夏 二世大 象胥官致遠 編	〃
啄穂草	1冊	寫本	文化九陽月 幾五郎男小 田管作	조선의 풍속 등을 기록
啄穂	1冊	寫本	幾五郎男小田管作	〃
羊の道草 坤	1冊	寫本		왜관~쓰시마의 文集
官職考	1冊	寫本	小田啓太郎	조선의 관직에 대해 해 설
(1) 別幅未收件記 (2) 禦送使物差引帳 (3) 漂民順附式例帳 (4) 別幅物未收取入前· 封進物未收出門前 (5) 甲午三月朝鮮人蔘 唐口江商法凡之覺 (6) 己醜十月新古訓導 應對手覺		寫本	庚午~戊寅 文政六癸未正月日 文化十一甲戌年正月日 禦大官方 山城	조선관계의 諸記錄
虎說	1冊	寫本	文化七庚午初夏 小田幾 五郎 集編	조선의 호랑이에 관한 기록
虎說	1冊	寫本	文化七庚午年初夏 大象 胥官 小田致善 序 弘化二乙巳年夏六月日 前大象胥官幾五郎男大 象胥官小田管作跋	〃
虎說	1冊	寫本	文化七庚午年初夏 小田 致善 序 弘化二年六月日 小田管 作跋	〃

제목	책수	판본	서지 사항	비고
虎說	1册	寫本	文化七年孟夏 大象胥 小田致善 序 弘化二乙巳年六月日 小田管作跋	”
交隣須知 春·夏·秋·冬	4册	寫本	小田寬政七乙卯年仲夏 小田識	초급 조선어학서

* 규슈 대학의 마쓰바라 다카토시[松原孝俊]와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교수에 의해 1998년 2월 25일 작성된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원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의 목록내용 이상을 알기는 어렵다.

새로 발견된 자료들의 목록과 간단한 서지사항을 통해 이쿠고로가 직접 쓴 것으로는 『象胥紀聞』·『草梁話集』·『通譯酬酢』 외에도 『交隣事考 上·下』·『講話 全』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가와 고조가 오다 이쿠고로의 저작이라고 했던 『北京路程記』는 모두 4책이 남아 있으며 오다 지젠[小田致善]과 오다 지용[小田致遠] 등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목록에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¹¹⁾ 원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과 오다 이쿠고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들이 오다 이쿠고로가 쓴 것을 나중에 필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통사 오다 이쿠고로가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조선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通詞의 경우는 신분

- 11) 오다의 기록 가운데 현재 원본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는 『象胥紀聞』·『草梁話集』·『通譯酬酢』밖에 없다. 『象胥紀聞』은 1794년 오다 이쿠고로가 本通詞로 근무하던 40세 때 저술한 책이다. 모두 3권인데 1책으로 묶여 있으며, 현재 4종류의 필사본이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草梁話集』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과 東京都立中央圖書館特別文庫室 소장본 두 종류가 있다. 『通譯酬酢』은 이후 쓰시마 宗家の 소장본으로 쓰시마에 전해 오다가 1926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로 宗家文庫의 일부가 옮겨질 때 같이 옮겨졌다.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이 낮더라도 그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館守·裁判을 비롯하여 諸僉官·一代官에 이르기까지 매번 조선을 잘 아는 사람이 조선에 건너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사 가운데 조선을 잘 안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篤實함이 있어도 才智가 없으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며 才智가 있어도 篤實함이 없으면 쓰시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대 부족할 것입니다. 재지도 있고 독실함이 있다 해도 大義를 분변하여 物情을 살피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舊規를 기억하여 대처하지 못한다면 속임수에 넘어간다거나 또는 공갈에 놀라고 이국의 조롱을 받는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¹²⁾

이 사료는 1720년 아메노모리 호슈가 쓰시마에 제출한 『韓學生員任用帳』에서 조선어통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通詞의 모습은 才智를 겸비하고 쓰시마를 생각하는 篤實함이 있으며, 大義에 대한 분변력과 物情을 살피고 舊規를 기억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슈는 통사가 大義를 분변하여 物情을 살필 수 있고 舊規를 확실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쓰시마에서는 호슈의 통사 양성책을 바탕으로 통사 양성을 추진하였고, 오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통사들 중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왜관에서 조선어 견습과정을 밟은 후 최고 위직인 大通詞의 위치에 오르는 동안 통사로서 근무하면서 物情과 舊規 파악을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고, 그가 남긴 기록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기록을 노년에 이르러 쓰시마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배 통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쓰시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사 오다의 정보수집은 호슈 나아가 쓰시마의 통사 양성의 성공 사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생각된다.

12) 雨森芳洲, 1982, 『韓學生員任用帳』, 『雨森芳洲全書3-雨森芳洲外交關係資料集』 關西大學 東西學術研究所 資料集刊 11-3, 大阪: 關西大學出版部, 21~22쪽.

3_ 오다의 대외정보 수집과 『通譯酬酢』 저술

오다 이쿠고로는 1831년 77세 때 오랜 기간 동안 조선어통사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通譯酬酢』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12편 3책으로 되어 있다. 오다는 『通譯酬酢』의 序書 부분에 이 책을 저술한 이유를 적고 있다.

나는 明和 四 丁亥年(1767)에 어린 나이로 조선의 草梁和館에 건너왔는데, (어느덧) 장년의 나이가 되어 (조선의) 역관들과 교류한 지도 거의 50여 년이나 되었다. (왜관에서 조·일간의) 크고 작은 公幹은 통사와 역관의 의논을 통해 결말이 난다. 역관들이 비록 많지만 그중에서도 聖欽 李同知, 土正 樸僉知, 敬天 玄知事 등과는 脣齒처럼 (매우 가까이) 교류한 지 오래되었다. 조선의 인정은 先學들의 좋은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당시 보고 들은 것과 그때그때의 論 가운데 참고할 만한 것을 1년치씩 메모해서 모아두었다가 내 생각대로 後生의 통사들을 위해 통역수작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1807년 丁卯년부터 1818년 戊寅년까지 12편으로 저술하여 소매 속에 넣고 있다가 노년에 이르러 수십 년 동안 입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役方에 제출하였다……

1831년 辛卯 前大通詞 小田幾五郎

齡 七拾七歲自書 謹識¹³⁾

이 내용을 보면 오다 이쿠고로는 13세의 어린 나이로 왜관으로 건너가 장년이 될 때까지 생활했으며, 50년 이상 조선과의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관에 있는 동안 많은 조선의 왜학 역관들과 교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聖欽 李同知, 土正 樸僉知, 敬天 玄知事 즉, 李命和·樸浚漢·玄義洵 등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왜관에서의 조·일간의 크고 작은 公幹은 통사와 역관의 의논을 통해 결말이 난다고 한 부분이다. 즉, 조·일간의 외교와 무역의 장이었던

13) 「通譯酬酢序書」, 『通譯酬酢』.

왜관에서 조선의 왜학 역관과 쓰시마의 조선어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이어서 조선의 人情은 先學들의 좋은 가르침이 많아 자신이 당시 보고 들은 것과 그때그때의 論 가운데 참고할 만한 것을 1807년부터 1818년에 걸쳐 한 해에 한 편씩 저술하고 늘 소매 속에 갖고 다니다가 노년에 이르러 수십 년간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役方에 제출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役方은 다시로 가즈이가 언급한 대로 조선과의 외교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인 朝鮮役方이라고 생각된다.¹⁴⁾ 『通譯酬酢』은 이후 쓰시마 宗家の 소장본으로 쓰시마에 전해오다가 1926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로 宗家文庫의 일부가 옮겨질 때 같이 옮겨졌다.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¹⁵⁾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오다는 통사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大通詞까지 올라갔으며, 77세의 나이에 『통역수작』을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통역수작』은 風儀·風樂·船上·外國·乾坤·浮說·武備·官品·女性·飲食·酒禮·禮儀 등 모두 12부문 3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통역수작』의 上卷에는 風儀·風樂·船上·外國之部, 中卷에는 乾坤·浮說·武備之部, 下卷에는 女性·飲食·酒禮·禮儀之部가 실려 있다. 中卷의 경우 시작 부분에 항목 표시가 없지만 이 항목이 끝나는 부분에 “通譯酬酢伍終り”라고 되어 있어 다섯 번째 항목인 「乾坤之部」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앞 부분에 항목 표시가 없고 내용이 중간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일부 내용이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下卷도 中卷과 마찬가지로 시작 부분에 항목 표시가 없고 일부분이 파손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항목이 끝나는 부분에 ‘通譯酬酢玖終’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홉 번째 항목인 「女性之部」임을 알 수 있다. 中卷의 마지막 항목이 「武備之部」인 것을 보면 下卷의 손상된 부분에 「官品之部」와 「女性之部」의 일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 田代和生, 「對馬藩の朝鮮語通詞」, 『史學』第60卷 第4號, 90쪽, 注 56.

15)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열람이 가능하다. 등록번호는 대마도 종가문서 기록류 마이크로필름 번호 MF726이다.

『통역수작』은 왜관 내에서의 왜학 역관과 조선어통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通曰(통사의 질문)’, ‘譯答(역관의 대답)’ 반대로 ‘譯曰(역관의 질문)’, ‘通答(통사의 대답)’이라는 표시가 있고 그 아래 내용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통사가 질문하고 역관이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다. 12부문 중 「風儀之部」, 「外國之部」, 「浮說之部」, 「飲食之部」, 「酒禮之部」 시작 부분에는 왜학 역관과 조선어통사가 만나게 된 배경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왜학 역관과 조선어통사가 1:1 또는 다수:다수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어통사의 질문과 대답을 모두 오다가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직접 한 질문과 대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왜학 역관과 조선어통사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다는 『통역수작』 끝 부분에서 저술배경과 자신이 남긴 기록의 목록을 정리해놓고 있다.

이 『통역수작』은 大通詞 오다 이쿠고로가 56년간 전후로 근무하면서 12년 동안 1년씩의 이야기를 別書로 기록해놓았던 것을 이제 칠순을 넘겨 편집하여 자필로 쓴 것인데, 조선의 사정에 대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마디도 묻고 듣는 사람도 없는 형편이라 이 12책을 특별히 남겨둔다. 이전에 남긴 書物도 다수 있다. 이것(통역수작)을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 것.

象書紀聞 六冊

草梁話集 一冊

北京路程記 一冊 繪圖 一卷 이외 朝鮮詞本數冊이 있음.

通譯酬酢 拾貳終 前通詞 小田幾五郎 七拾六歲 秋¹⁶⁾

16) 『通譯酬酢』 右通譯酬酢大通詞小田幾五郎前後五拾六年相勤候內拾貳ヶ年之間一ヶ年ツ、之咄し別書ニ記し置候分漸今七旬ニ餘り編集し自筆を以書記候得共朝鮮之事情禦心掛被成候禦方無之此年ニ至り一言問聞候人茂無之事勢故此十二冊別段ニ殘し置候前方仕立候書物數々在之此品外ニ不出候事

오다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통역수작』이 1807년부터 12년에 걸쳐 1년에 한 책씩 쓴 것을 엮은 것이라면 모두 12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에는 1814년에 기록한 官品之部가 결락되어 있다. 오다가 53세인 1807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風儀·風樂·船上·外國·乾坤·浮說·武備·官品·女性·飲食·酒禮·禮儀 등 각 분야에서 조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쿠고로는 76세에 이 『통역수작』을 편집하고 썼다고 하는데, 서문에는 77세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보이지만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쯤에 쓴 것으로 보인다. 50년 넘게 조선어통사로 일하면서 모은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오다가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부문에 관해서는 官制, 형률, 科擧 등에 대해 상세하다. 관제에 관해서는 東西班官職으로 구분하여 堂上官에서부터 統制使에 이르기까지 東西班에 해당하는 관직명과 品數, 담당업무, 휴가에 해당하는 給暇, 外官의 근무처 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평가[褒貶]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기간과 시기,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 평가담당자, 암행어사 제도에 대해서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외교부문에서는 중국의 사절과 그에 대한 조선의 접대 등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조선에서 북경에 파견하는 사절의 종류 및 목적, 북경까지의 路程, 朝貢물품의 종류, 皇帝가 거주하는 城과 황제에 관한 정보까지 상세하다. 그 가운데 중국의 勅使에 대해서는 北京에서 勅使가 왔을 때 조선에서 접대하는 酒禮의 종류와 조선 국왕의 응대 여부, 女樂의 유무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 使者에 대한 접대 정도와 비교하고 있다.¹⁷⁾ 이것은 일본이 조선에 어느 정도의

象胥紀聞 六冊

草梁話集 一冊

北京路程記 一冊 繪圖 一卷 此外朝鮮詞本數冊有之

通譯酬酢 拾貳終 前通詞 小田幾五郎 七拾六歲 秋

17) 『通譯酬酢』拾「飲食之部」.

비중을 갖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였다고 생각된다.

사회부문에서는 宰相·六曹判書를 비롯하여 지방관리들의 행렬뿐만 아니라 조선 양반부인들의 행렬할 때의 수행인원과 이동수단, 그리고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 속에서 행렬할 때의 대비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조정관리와 양반부인들의 행렬에 대한 통사의 관심은 그들이 왜관에 체재하는 동안 볼 수 있는 행렬이 동래부사를 비롯한 부산첨사, 수령 등 왜관의 운영에 관계된 지방관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 남성의 기질과 생업, 여성의 출산·산후조리·의복·재혼·첩·화장뿐만 아니라 양반부인과 일반 서민 여성의 차이, 官婢의 인원수, 선출방법, 담당업무, 신분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상세한데,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다. 통사가 조선여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인 이유는 왜관에서는 여성의 체류가 허락되지 않았고, 왜관의 일본남성들이 조선여성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일용품 구매를 위해 매일 아침 왜관 수문 밖에 열린 朝市에서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부문에서는 조선 전국에 있는 田畝의 총수,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 연공, 토지의 매매 및 토지 가격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正1品에서 從9品까지 관리들의 祿俸을 비롯하여 지방 각 관아의 祿과 八道の 監司 가운데 수익이 많은 지역, 이들의 하루 수당 등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상세하다.

한편, 오다는 조선의 武備를 비롯하여 북방의 정세와 북방민족의 조선침략 여부, 여진으로 인한 불의에 대한 대비, 조선 서북쪽의 지형 및 방비, 女眞과 女直의 구분, 그리고 이국선의 출몰, 異宗 등에 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통사 오다 이쿠고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조선의 정치·외교·사회·경제·문화·군사·風聞을 비롯하여 중국과 북방, 유럽의 상황을 아우르는 다양한 것이었으며, 그중에는 조선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18) 小田幾五郎 編, 『通譯酬酢』肆「外國之部」.

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는 그의 대외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과의 외교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인 朝鮮役方에 제출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결과적으로는 쓰시마, 나아가 막부의 대외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4_ 오다의 대외인식과 그 영향

오다가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을 비롯한 외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의 대외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침저녁으로 조선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성실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을 때에는 저들(조선인)이 계교를 부리더라도 결국에는 정직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조선인들은) 계교를 힐책하면 온화하게 和로 바뀐다. 和에 응하면 이익을 좇고 욕심에 치우친다. 利慾을 바로잡으면 (조선인들은) 거짓으로 개탄한다. (때문에 조선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人情을 아침저녁으로 분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¹⁹⁾

위 내용은 『通譯酬酢』의 序書 끝 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오다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오다는 조선인이 일본인을 대할 때는 계교를 잘 부리며 그것을 지적하면 바로 고치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하면 바로 이익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면 반성하는 척한다는 것이다. 즉, 이익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일본인에게 계교를 부리고 그것을 지적하면 반성하는 체만 하는 성실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것이 조선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조선인의 인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 계교에 넘어가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며, 조선인의 인정을 매사에 잘 분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 내용은 조선 사회의 신분 및 성별에 대한 오다의 인식 부분이다.

19) 「通譯酬酢序書」, 『通譯酬酢』.

남자들은 집 앞에 돛자리를 깔고 낮잠을 잡니다. 여자들은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베를 짜며 정성껏 아이들을 키우는데, 남자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으며 많은 남자들이 담뱃대를 물고 한가하게 있습니다. 양반부인들은 지나치게 조심하며 집안일에는 疏遠합니다. 저는 下賤한 여자들 편입니다. 여성의 손으로 수많은 木棉을 짜서 나라에 득을 줍니다. 이런 大國에서 남자들이 농사일을 게을리하여 노는 땅이 많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의 政事를 비방하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²⁰⁾

오다는 집 앞에 돛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거나 한가하게 담뱃대를 물고 농사일을 게을리하는 조선의 남성에 비해 밤낮 열심히 일하며 아이의 양육까지도 도맡아 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오다는 조선 사회가 남녀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나아가 조선의 일반 여성들에 비해 지나치게 조심하며 집안일에는 疏遠한 양반부인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을 신분차별이 심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조선 남성이 농사일을 게을리하여 조선에 노는 땅이 많다는 언급을 할 때 조선을 大國으로 칭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오다에게 있어서 조선은 大國이지만 신분 차별과 남녀 차별이 심한 나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오다의 조선을 제외한 외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通譯酬酢』의 「外國之部」가 있다. 「外國之部」는 1810년 어느 봄날 오다와 역관이 서로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대화는 역관이 오다에게 나가사키[長崎]에서 여러 해 근무했다고 들었는데, 아메노모리 도²¹⁾가 일본에서 가장 번창한 곳이라고 말했던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나가사키는 중국·네덜란드와의 통상관계 창구였으며 특히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막부의 크리스토포 탄

20) 『通譯酬酢』, 「女性之部」.

21) 아메노모리 도[雨森東] 옆에 작은 글씨로 “조선에서는 아메노모리 도고로[雨森東五郎] 공이라고 부르며 존경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아메노모리 도고로는 아메노모리 호슈루, 일본에서 조선사람이 아메노모리 호슈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다.

압이라는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이곳에는 초기에는 포르투갈, 이후에는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됨으로써 나가사키의 唐人村과 함께 통상관계의 場으로 기능하였다. 오다는 26세인 1780년(安永 9)부터 31세인 1785년(天明 5)까지 5년간 長崎勤番禦雇通詞로서 나가사키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어통사인 오다가 나가사키에서 근무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일본의 조선표류민 송환체제와 관계가 있다. 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은 모두 나가사키로 송환되어 이곳에서 취조를 받았으며, 임시 수용되었다가 쓰시마로 보내지고 이후에 다시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오다가 나가사키에서 담당했던 일은 바로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취조 등과 같은, 조선인과 관련된 업무였다고 생각된다. 오다의 업무가 비록 조선과 관련된 것이었기는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가사키의 정황을 비롯하여 네덜란드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조선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접촉한 조선의 역관을 비롯하여 조선 측 관리에게 제공되면서 조선의 대외인식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란드인의 모습에 대한 역관의 질문에 대해 오다는 그들의 얼굴 생김새를 비롯하여 피부, 목소리, 의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인은 머리카락이 희고 코가 높고 눈은 둥글며, 목소리는 탁하고 분명치 않으며, 피부는 희어서 비겟덩어리 색과 같습니다. 단추를 채우는데, 손목과 발목에 고양이 등처럼 단추를 한 줄로 꿰 채우고 있으며, 소변을 볼 때는 한쪽 다리를 높이 들고 보는데 개가 오줌을 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덜란드를 조선사람들 대부분이 紅毛라고 부르는데 紅毛人은 (일본에) 오는 도중에 掉銅 하나씩에 고용해온 사람들로 몸 전체가 까맣고 옷을 입지 않으며 해엄을 잘 친다고 들었습니다. 수만 리나 되는 海路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바다 바닥까지 들어가 맑은 물을 떠온다고 합니다.²²⁾

22) 「外國之部」, 『通譯酬酢』.

네덜란드인에 대한 오다 이쿠고로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네덜란드인의 의복에 있는 단추, 즉 button을 牧丹으로 적고 있는 부분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일본어에서의 ボタン(보탄)은 포르투갈어인 botão에서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다. 牧丹은 의미상으로는 단추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牧丹이라고 적고 사용했던 것으로 일본인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표기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오다는 네덜란드인들의 피부색을 비젯덩어리 색에 비유하거나 네덜란드인들이 의복에 단추를 많이 사용한 모습이 마치 고양이와 등처럼 보인다고 표현하거나 그들의 소변보는 모습을 개가 오줌을 누는 모습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등 네덜란드인에 대해 솔직하고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인을 비하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통해 일본인들은 사슴가죽과 향료 등의 희귀품과 사치품, 안경, 시계, 거울 같은 유럽의 진기한 물건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 서양인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별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우리에게 서서 걷다가 돌고 춤추고 노래할 것, 서로 칭찬을 해볼 것, 성을 내볼 것, ……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해보라고 시켰다 …… 그 다음에는 명령에 따라 우리는 모자를 써 보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방 안을 돌아다니고, 가발을 벗어 보여야 했다 …… 그러고는 우리에게 부부가 하듯이 서로 키스를 해보라고 했는데, 특히 그 자리에 있던 귀부인들은 그 명령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 이런 광대짓이 끝나자 우리에게 망토를 벗고 한 사람씩 미닫이문으로 가서 유럽에서 군주나 왕에게 하는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했다 …… 우리가 알현실을 나왔을 때는 어느덧 오후 4시였다. 자그마치 네 시간 반 동안 이처럼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다.²³⁾

이 내용은 1690년에 의사로서 데지마에 왔고, 1691년과 1692년에 상관장의 에도산푸[江戸參府]에 동행했던 독일인 의사 쾰펠이 그의 책 『일본사

23) 마리우스 B. 젠슨 저·김우영 외 역, 2006, 『현대일본을 찾아서』, 이산, 137~138쪽.

(History of Japan)』에서 에도 막부의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를 알현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다. 당시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유럽인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존재였을 뿐 결코 경외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인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네덜란드인들은 죄수처럼 생활하도록 강요당했고, 네덜란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한 감시인들 밑에서 인질처럼 지내야 했다 ……”²⁴⁾는 쾰펠의 묘사에서는 데지마에서의 네덜란드인들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일본인들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오다는 조선사람들이 紅毛를 네덜란드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紅毛人是 네덜란드인이 아니라 이들이 일본에 올 때 고용해서 데려온 흑인으로 조선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흑인들에 대해 고용된 사람들로 옷을 입지 않는다거나 바다에 바다까지 들어가 부족한 물을 구해 온다는 등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에도시대에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인을 표현했던 紅毛, 紅毛人을 흑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란다인들이 조선사람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 원망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다시 묻는 역관의 질문에 대한 오다의 답변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네덜란드인과 紅毛人을 구분하고 있으며, 紅毛人을 흑인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⁵⁾

한편 오다의 네덜란드에 대한 인식은 네덜란드선이 조선에 표류해 왔을 때 포구에 정박하지 못하게 한 일이 있는데,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조선의 표류민들을 봤을 때 나쁘게 행동하지는 않는지를 묻는 역관의 질문²⁶⁾에 대

24) 마리우스 B. 젠슨 지음 · 김우영 외 옮김, 2006, 위의 책, 139~140쪽.

25) 「外國之部」, 『通譯酬酢』.

26)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네덜란드선이 조선에 표착한 횟수는 총 2회에 불과하다. 1627년의 벨테브레, 1653년 하멜 일행의 조선표착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역관이 언급한 이전에 표착한 네덜란드선이 이 두 번의 네덜란드선의 조선 표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벨테브레의 경우 조선에 표착한 후 樸燕이라는 조선 이름을 사용하면서 조선의 관직을 가지고 조선여인과 결혼하여 조선에서

한 오다의 대답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선과 네덜란드가 不和 상태라는 것은 일찍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네덜란드 배가 일본에 와서 자신들의 손으로 조선을 빼앗아 바치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대답은 조선은 일본과 隣交의 나라이기 때문에 변이 있을 때에는 구원병을 보내는 관계이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여 공격으로는 보류해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일본의 두터운 隣交가 蠻國에도 통하는 것은 양국의 영예입니다.²⁷⁾

오다는 조선과 네덜란드의 관계에 대해 좋지 않은 사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일본에 ‘바친다[進上]’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터운 隣交國으로 인식하고 있는 조선과는 달리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역관은 오다에게 네덜란드인들이 식량 등을 가지고 오는지 그들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²⁸⁾ 오다는 네덜란드인들이 곡물 대신 빵이라는 것을 먹으며,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소나 양 한두 마리를 배에서 기르면서 오는데 자신도 네덜란드 상관에서 네덜란드인들에게 쇠고기를 나누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일본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

일생을 마쳤으며, 하멜의 경우는 조선에 표착한 후 13년 넘게 체류하다 1666년 일행 중 8명이 탈출하고 나머지 네덜란드인 7명은 1668년 일본으로 송환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역관이 언급한 네덜란드선의 조선표착은 바로 1797년 부르튼 일행의 조선표착을 의미한다. 그러나 1797년 부르튼 일행은 네덜란드인이 아닌 영국인이었다. 이들이 표착했을 때 동래부사·부산첨사·裨將·역관 등이 조사하기 위해 Providence號에 올랐지만 그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이들은 표착한 다음 날 순풍이 불자 바로 출발하였는데, 이들이 떠날 때 왜관에서 망원경으로 이들을 본 왜인이 오란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조선에서는 이들을 오란다인으로 이해했다(鄭東愈, 1971, 『晝永編』上, 을유문화사, 85~87쪽; 『正祖實錄』正祖 21年 10月 4日 己亥). 하지만 사실 이들은 영국인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해금체제 속에서 외국인과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고 이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조선인에게 해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 중 하나는 일본일 수밖에 없었다.

27) 「外國之部」, 『通譯酬酢』.

28) 「外國之部」, 『通譯酬酢』.

다.²⁹⁾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첫째, 오다 자신이 데지마[出島] 네덜란드 상관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상관은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의 관리 아래 있었다. 상관에는 오토나[乙名], 네덜란드어通詞, 구미가시라[組頭], 筆者, 日雇頭, 火用心番, 探番(門番), 買物使, 料理人, 給仕 등의 일본인이 근무를 했는데, 오토나[乙名], 通詞 이상의 역인 이외에는 출입할 때마다 철저히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부교쇼[奉行所]役人, 상인, 水汲人, 遊女 등 특별한 자들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³⁰⁾ 네덜란드 상관에 있는 네덜란드인들의 외부출입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상관출입 역시 원칙적으로는 철저히 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신분으로 7년(1823~1830) 동안 네덜란드 상관에서 근무했던 독일인 시볼트의 『日本』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조난당한 조선인이 나가사키에 올 때마다 방문하여, 가까이에서 그들을 관찰하며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나라에 관해서 약간의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방문에는 여러 가지 번잡한 문제가 뒤따랐다. 나가사키 부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교의 승인이 없으면 조선인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는 것도 또한 내가 조선인을 방문하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 친구들이 언제나 구실을 찾아 먼저 손을 써서 내가 방문하는 것을 도와주었다.³¹⁾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일본인이 부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인지 아니면 부교의 승인 없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시볼트는 일본인의 도움으로 네덜란드 상관을 벗어나 조선인을 만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시볼트가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상관에서 7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 형성된 인맥을 통해 외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

29) 「外國之部」, 『通譯酬酢』.

30) 原田伴彦, 1993, 『長崎』, 中公新書 54, 中央公論社; 東京, 65~66쪽.

31) P. 시볼트 著 · 류상희 譯, 1987, 『朝鮮見聞記』, 博英社, 12~13쪽.

다면 조선어통사였던 오다 역시 5년 동안 나가사키에서 근무하는 동안 네덜란드 상관에서 또는 그곳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 친분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과의 인맥이 결국 오다가 네덜란드 상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네덜란드인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네덜란드인들이 소나 양을 배에서 기르면서 일본으로 온다고 한 점이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상관에서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관 앞 다리 건너편 근무소에 있는 17명의 買物使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였다. 양은 네덜란드인의 주식인 우유와 고기를 얻기 위해, 소는 그들의 경축일과 매해 정월과 동지에 상관에서 행해지는 연중행사 때 초대된 일본인들을 접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이 買物使를 통해 근교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돼지와 닭이었다.³²⁾ 양은 일본에서 사육되지 않았고, 소는 농가의 주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구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³³⁾ 따라서 상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과 소는 네덜란드령이었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배로 운반되어 왔으며,³⁴⁾ 현재 長崎縣立美術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長崎阿蘭陀出島之圖」, 『漢洋長崎居留圖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관의 한켠에서 사육되다가 필요할 때 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 오다는 네덜란드인의 수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네덜란드 상관에 들어가서 40세쯤 되어 보

32) 長崎市教育委員會, 1997, 『出島』, 崎市教育委員會, 長崎: 13, 18쪽; 片桐一男, 2000, 『出島』, 長集英社, 東京: 39~40쪽.

33) 「飲食之部」, 『通譯酬酢』에 역관이 일본인들이 쇠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오다가 일본의 元祖皇帝가 금했으며, 소만큼 농사에 도움이 되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기를 남김없이 먹어버리면 결국에는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34) 長崎市教育委員會, 1997, 『出島』, 崎市教育委員會, 長崎: 13쪽.



「長崎阿蘭陀出島之圖」, 『漢洋長崎巨留圖卷』(長崎縣立美術博物館 소장)

이는 사람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통역관이 대답하기를 “이 남자는 15세입니다. 2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라고 하기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자세히 물으니 역관이 “네덜란드 역법에는 1년째를 봄이라고 하고, 2년째를 여름, 3년째를 가을, 4년째에 이르러 1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20세라고 하면 80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습과 나이가 크게 다릅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³⁵⁾

여기에서 통역관은 일본 측의 네덜란드어 通詞이다. 일본의 정책은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외부인이 일본인과 접촉했을 때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대표들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이유로 일본을 떠나야 했던 경우도 많았다.³⁶⁾ 따라서 네덜란드 상관에서의 일본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통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다. 위 글은 어떤 사람이 네덜란드어 통사를 통해 들은 네덜란드인들의 나이 계산법을 오다가 전해 들은 내용으로 그

35) 「外國之部」, 『通譯酬酢』.

36) 마리우스 B. 젠슨 著 · 김우영 외 譯, 2006, 『현대일본을 찾아서 1』, 이산, 134쪽.

들의 독특한 나이 계산법을 엿볼 수 있다. 즉, 해마다 한 살씩 많아지는 일본의 나이 계산법과는 달리 네덜란드인들은 4년에 한 살씩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15세라고 하면 일본나이로 60세, 20세는 80세가 되며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나가사키에 왕래하는 南京人과 일본인 사이에 쟁론이 없는지를 묻는 역관의 질문에 대한 오다의 답변 내용에서 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南京船 여러 척이 나가사키로 해마다 왕래하는데, 가끔 조선으로 표류하는 경우에는 식량과 물과 땀감만 준다고 들었으며, 南京人과 일본인이 만나 쟁론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下人들이 소소한 일은 참고 넘어갑니다…… 대체로 南京人을 보니 다정해 보입니다. 조선인을 보면 곧바로 가까이 와서 웬지 기쁜 기색으로 머리를 쓰다듬는데 매우 슬퍼 보이며, 上官인 자가 高麗 高麗라고 부르는 다정한 마음을 보면 정말로 애처롭습니다……³⁷⁾

우선 중국인과 일본인의 쟁론이 없는 이유를 오다는 일본의 下人들이 중국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작은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서 쟁론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역관도 그렇지만 오다는 중국선박과 중국인을 南京船, 南京人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과의 무역에 참여했던 중국인들이 주로 푸젠[福建] 성과 저장[浙江] 성 등 북경 정부의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 남부해안 지역의 선박과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다는 일본으로 표류하여 나가사키로 호송된 조선인을 대하는 중국인의 행동에서 중국인에 대해 조선인을 각별히 대하는 인정 많은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에 표착해온 이국의 선박에 관한 問情 때 동래의 內禪將, 부산

37) 「外國之部」, 『通譯酬酢』.

의 서기, 訓導 및 小通事 2~3명과 인근 마을의 노인 4~5명이 참여했는데, 그때 표류민이 이계슈라고만 말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그중 한 사람이 마쓰마에라고 해서 일본의 松前인가 생각했지만 일본인의 모습이 전혀 없어서 결국 물과 쌀감과 식량을 사람 수에 따라 주고 출선시켰다³⁸⁾는 역관의 이야기에 오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계슈라는 것은 이기리스(영국)이며, 魚西亞[오로시아]라는 문자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貴國의 음으로 하면 魚西亞[오세이아]입니다. 외국 중에 대략 한자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음이나 훈을 빌려서 표기하는 한자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³⁹⁾

오다는 당시 조선에 표착해온 것은 영국선박이었다는 것과 일본에서 魚西亞[오로시아]라고 하는 러시아의 조선발음은 魚西亞[오세이아]라고 역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외국이름의 한자표기에 대해 알려달라는 오다에게 “전혀 상세하지 않으며, 長人國·小人國·人國·蝦夷·西洋國 등의 글자만 가끔 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역관에 비해 오다는 외국 국가명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다가 러시아의 한자표기라고 하고 있는 魚西亞는 魯西亞의 오기로 보인다.

이어 오다는 조선에 異宗이 없는지 질문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국 선박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은 북쪽만 女眞으로 땅이 이어져 있고, 동남서쪽은 바다인데 이국 선박의 표착은 물론 이전부터 다른 배들이 와서 나라를 엿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국 선박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국 선박은 異宗을 권유하며 들어와서 國風이 되도록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종파가 나라의 구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⁴⁰⁾

38) 「外國之部」, 『通譯酬酢』.

39) 「外國之部」, 『通譯酬酢』.

40) 「外國之部」, 『通譯酬酢』.

이국 선박은 단순표류가 아니라 異宗을 권유하고 국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조선이 지형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국 선박의 접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선이 왜 그 출몰에 대한 대비에 소홀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관은 조선의 경우 동남서쪽이 모두 바다이지만 동남쪽에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이국선이 오지 않으며, 남서쪽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국선이 오지 않는데, 남경선이 일본으로 통행할 때 가끔 표류해오면 물과 나무를 줄 뿐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에서는 이국선이 표착하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키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이전에 이국선이 전라도 지역에 표착했을 때 관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지역에 급하게 알려 수많은 軍兵을 소집하는 등 소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표착선이 출범한 후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그 후 조선에서는 국내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풍속이 되었고, 법령상으로도 다른 나라의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異宗이 들어올 수 없는 분위기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⁴¹⁾ 오다는 이 역관의 대답 내용을 통해 이국의 선박이 표착했을 때 조선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오다는 女眞의 북쪽에 오랑캐 나라가 있는지, 이것이 女直이라는 나라인지, 일본에선 조선의 북쪽을 女直이라고도 하고 女眞이라고 해서 가지각색인데 문자의 오기, 나라의 차이는 없는가를 역관에게 질문하고 있다.⁴²⁾ 이에 대한 역관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女眞은 조선과 접해 있고, 女直은 女眞과 접해 있으며 압록강 쪽으로 조금 나와 있어 이 때문에 북쪽 전체를 가리켜 女眞이라고 한다고 배웠으며, 조선에서는 이곳을 北狹라고 하는데, 광대한 나라라고 들었고…… 대개 이 정도로 女眞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獫狁은 平安道

41) 「外國之部」, 『通譯酬酢』.

42) 「外國之部」, 『通譯酬酢』.

서쪽에 있으며, 遼東은 黃海의 서쪽에 있으며, 蝦夷는 江原道 동북쪽에 있습니다……⁴³⁾

여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춘추전국시대에는 숙신(肅慎), 한(漢)나라 때에는 읍루(分婁), 남북조(南北朝)시대에는 물길(勿吉), 수(隋)·당(唐)시대에는 말갈(靺鞨)로 불렸으며, 10세기 초의 송나라 때 처음으로 여진이라 했고, 고려는 이들을 흑수여진·동여진(東女眞) 또는 생여직(生女直)이라 했으며, 지린 성[吉林省]의 서남부, 즉 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서여진(西女眞) 또는 숙여직(熟女直)이라 하였다. 조선은 우디케[兀狄哈], 오랑캐[兀良哈], 오도리(吾都裏)로 구분하였지만 총칭하여 野人으로 불렸다. 명나라는 쑹화 강 유역의 여진을 해서여직(海西女直), 통자 강[婆豬江: 佟鴨江]·훈장[渾江] 유역의 여진을 건주여직(建州女直), 헤이룽장 유역의 여진을 야인여직(野人女直)이라 했고, 청나라 때에는 만주족이라 칭하였다.⁴⁴⁾ 이와 같이 여진 지역을 일컫는 호칭이 다양했지만 여진과 여직은 같은 지역을 일컫었던 호칭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다의 말대로 일본에서는 여진과 여직을 혼용하였고 역관도 조선에서는 조선의 북쪽 전체를 가리켜 女眞이라고 하여 여진과 여직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다는 역관의 대답 내용을 통해 여진과 여직의 차이와 그 위치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오다는 역관과의 조선의 북쪽 경계 지역의 왕래에 대한 대화에 이어 예전에는 北京에 갈 때 황해도에서 배로 왕래했는데, 지금은 육로를 이용하게 된 후 배로 통행하는 경우는 완전히 없어졌는지, 그리고 遼東의 해변이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가까이에 있는 오랑캐들이 작은 배로 표착하거나 이전에 해적선이 조선에 왔다는 이야기는 없는지 묻고 있다.⁴⁵⁾

43) 「外國之部」, 『通譯酬酢』.

44) 하우봉, 2003, 「조선전기 대외관에 나타난 自我認識과 他者認識」, 『한국사연구』 123, 260쪽; 이효형, 2006, 「高麗前期의 北方認識 - 발해·거란·여진 인식비교」, 『지역과 역사』 19, 75~78쪽.

45) 「外國之部」, 『通譯酬酢』.

이 질문 내용 역시 조선과 異國과의 접촉에 관한 것으로 역관은 크거나 작은 배들이 표착한 경우는 없으며 요동의 앞으로 동남쪽에 田橫嶋라는 섬이 있긴 하지만 조선의 서쪽으로 산이 보이지 않으며, 繪圖를 보면 대국이라 보일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편에서 반대편의 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⁴⁶⁾

그러자 오다는 두 차례에 걸쳐 몽골인들이 일본을 침입했지만 모두 특별한 이후 일본에 오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 몽골의 침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몽고는 바다가 없는 大地라고 들었는데 배로 온 것이 이상합니다. 公의 말씀에도 서북쪽은 작은 배의 通路가 없다고 하셨는데, 몽고 선박이 왔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조선과 몽고는 땅이 접해 있다고 들었는데 조선의 해안에서 타고 나올 수밖에 없고, 요동은 조선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니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 안의 어떤 道에서 타고 나와 일본에 온 것은 아닙니까.....⁴⁷⁾

바다가 없는 몽골에서 어떻게 배로 일본을 침입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 하면서 땅이 접해 있는 조선을 통해 몽골이 일본을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역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옛 기록에도 없다고 하면서 獐狽의 땅이 광대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人物에 대해서는 모르며, 몽골은 일본이 있는 방향을 잘 몰랐을 텐데 唐太宗이 北狄를 정벌할 때 쫓겨 遼동으로 도망가서 遼동의 서남쪽에 있는 田橫嶋 근처에서 배를 타고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다.⁴⁸⁾

주지하다시피 몽골의 일본원정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당시 고려는 군사전략상 몽골의 일본원정을 위한 병참·보급기지의

46) 「外國之部」, 『通譯酬酢』.

47) 「外國之部」, 『通譯酬酢』.

48) 「外國之部」, 『通譯酬酢』.

위치에 있었으며 특히 金州(金海) 合浦가 일본원정의 發進基地로서 역할을 했다.⁴⁹⁾ 그리고 田橫嶋은 현재 중국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에 있는 섬으로 일본원정 당시 江南軍은 田橫嶋가 있었던 칭다오가 아닌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慶元府(明州, 寧波)에서 出征했었다. 역관의 대답 내용이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 이전에 오랑캐가 조선에 침입한 일이 있다고 들었고, 최근에는 모스크비아⁵⁰⁾가 동북 지역을 침략했다고 들었는데 여진 근처를 침략하지는 않았는지 묻는 오다의 질문에⁵¹⁾ 역관은 오랑캐는 몽고의 俗類를 말하는데 여진 사람도 오랑캐라고 하며 대개 北狄을 奴僕 [떼놈]이라고 한다고 하며 북방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다.⁵²⁾ 이와 같이 역관이 조선과 이국과의 접촉, 조선 북방에 관해 오다에게 제공한 정보가 때로는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정확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이 제한되던 시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다는 이 내용을 통해 대외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쓰시마의 學士 源廸子惠가 쓴 오다의 『象胥紀聞』의 서문 내용이다.

……지금 舌官(통사) 중에 오다[小田] 某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됨이 강직하면서도 또한 부드럽고, 양쪽(조선과 일본) 사이의 일을 잘 처리하여 마치 지극도 叔向이 있는 듯하니 모든 사람의 아래에 둘 수 없다. (오다는) 여가가 있을 때마다 저 나라(조선)의 역관들을 만나 그 나라의 형세를 물어 정리했다가 3권으로 묶어 어느 날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그것을 보니 크게는 도읍제도에서부터 작게는 기호까지도 모두 다루었다. 후진들이 기본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책임자들이 모두 오래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므로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9) 남기학, 2009, 「蒙古의 日本 侵略과 日本의 對應-高麗와 日本의 관계에 유의하여」,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18~220쪽.

50) 에도시대의 모스크바에 대한 호칭

51) 「外國之部」, 『通譯酬酢』.

52) 「外國之部」, 『通譯酬酢』.

이 책을 모든 幹官들에게 추천하며 책 서두에 몇 자를 적어 그 뜻을 기리는 바이다.

1794년 閏復月下弦 對馬學士 源廸子惠題⁵³⁾

源廸子惠는 오다의 사람됨이 강직하면서도 온유하고, 조선과의 일 처리에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현재 확인되는 오다 이쿠고로의 다른 기록에는 『象胥紀聞』처럼 다른 사람이 서문을 쓴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인성과 통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다. 源廸子惠는 『象胥紀聞』이 조선의 정세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양성되는 통사들의 지침서로, 나아가 조선과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까지도 참고로 할 만하여 추천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서문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것을 보면 오다의 기록에 반영된 오다의 대외인식은 이후의 통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幹官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다가 수집한 정보는 征韓論이 대두되었던 메이지[明治] 초기에 일본인들에게도 제공되었다. 소메자키 도후사[染崎延房]는 오다의 『象胥紀聞』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朝鮮事情』을 1874년(明治 7) 도쿄에서 간행하였다. 그는 『朝鮮事情』序文에서 간행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양 사정에 대해서는 미천한 아이도 아는데 조선의 서적만큼은 우리나라에 거의 수입되지 않아 그 사정을 알기 어렵다. 내가 조선의 象官(譯官)에게 부탁하여 얻은 조선전국지도를 비장하고 있었는데, 서적상이 간절히 요구하여 이를 인쇄하여 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부록을 붙여줄 것을 청하여 쓰시마의 통사였던 오다가 기록한 『象胥紀聞』과 그 외에 여러 가지 冊子에서 발췌하여 부록으로 삼고 임시로 『朝鮮事情』이라고 제목을 붙였다”⁵⁴⁾

53) 源廸子惠는 사사키 게이키치[佐々木惠吉], 이후에는 후미우치[文内]로 불렸던 사람이다. 『樂郊紀聞』卷四에 그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자유분방한 천재적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다(鈴木棠三, 1979, 앞의 논문, 2쪽).

54) 染崎延房 編集·石塚寧齋 畫圖, 1874, 『朝鮮事情』, 東京: 三書房, 4~6쪽.

메이지 초기 征韓論이 대두되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조선의 지세파악을 위하여 지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메자키는 자신이 비장하고 있던 朝鮮國細見全圖를 인쇄하여 간행하게 되었고, 조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朝鮮事情』을 부록으로 함께 넣어 간행했던 것이다. 『朝鮮事情』에는 조선의 歷世, 朝儀, 道理 一·二, 節序, 服色, 人物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象胥紀聞』의 상권의 내용과 중권의 일부 내용이 발췌되어 있다. 朝鮮國細見全圖는 현재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朝鮮國征韓’이라는 제목의 跋文에서 조선의 지리와 쓰시마에서 조선까지의 거리 등을 적고 마지막 부분에 조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朝鮮事情』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메이지 초기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커져 조선관련 정보가 필요했을 때 그들에게 참고가 되었던 것은 오다가 수집한 정보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다가 수집한 정보는 메이지 초기 일본인들의 조선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II. 맺음말

지금까지 오다 이쿠고로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 『通譯酬酢』을 바탕으로 그가 수집한 정보의 범주 및 내용분석을 통해 그의 대외인식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다는 46년간 조선어통사로서 쓰시마, 조선, 나가사키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사로서는 최고위직인 大通詞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大通詞의 위치에 오르는 동안 통사로 근무하면서 물정과 舊規 파악을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고, 風儀·風樂·船上·外國·乾坤·浮說·武備·官品·女性·飲食·酒禮·禮儀 등 모두 12개 부문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通譯酬酢』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다는 막부와 쓰시마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通譯酬

酢』序文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외 체험이 힘든 시절 나가사키와 이국땅인 조선에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자신 이후에 통사로서 임무를 담당할 통사에게 지침이 되고 쓰시마의 대조선 업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쓰시마에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록한 기록의 일부는 메이지 초기 일본인들에게도 제공되었다.

물론 오다가 수집한 정보가 때로는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정확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이 제한되던 시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어통사 오다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오다가 수집한 정보와 그것을 바탕으로 갖게 된 대외인식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막부와 쓰시마의 역인들과 후배 조선어통사, 그리고 근대시기 일본인들의 조선 및 대외인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사료〉

- 『交隣提醒』(『雨森芳洲全書3 雨森芳洲 外交關係 資料集』).
- 『象胥紀聞』(鈴木棠三 編, 1979, 『對馬叢書 第7集』, 東京: 村田書店).
- 『禦尋朝鮮覺書』, 日本: 사가[佐賀] 현 나고야[名護屋]城 박물관 소장본.
- 『草梁話集』(安彦勘五, 1989, 『史料紹介』草梁話集), 『帝塚山短期大學紀要-人文社會科學』26).
- 『通譯酬酢』, 韓國: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청구기호: MF726.
- 『通航一覽』(林輝 等 編·國書刊行會 校, 1912, 東京: 國書刊行會).
- 『華夷變態』, 東京: 東洋文庫, 1959.

〈단행본(일본)〉

-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1974, 『小倉進平博士著作集』(四), 京都: 京都大學國文學會.
- 金井圓, 1986, 『日蘭交涉使の研究』, 東京: 思文閣.
- 大友一雄, 2003, 『江戸幕府と情報管理』, 原典講讀セミナー, 國文學研究資料館 編 原典講讀 11, 東京: 臨川書店.
- 山本博文, 1995, 『鎖國と海禁の時代』, 東京: 校倉書房.
- 山本博文, 1995, 『對馬藩江戸家老-近世日朝外交をささえた人びと』, 東京: 講談社.
- 山脇二郎, 1980, 『長崎オランダ商館』, 中公新書 579, 東京: 中央公論社.
- 仙台市博物館編, 1998, 『特別展漂流: 江戸時代の異國情報』, 仙台: 仙台市博物館.
- 市村佑一, 2004, 『江戸の情報力: ウェブ化と知の流通』, 東京: 講談社.
- 市村佑一·大石慎三郎, 1995, 『鎖國-ゆるやかな情報革命』, 東京: 講談社現代新書.
- 岩田みゆき, 2005, 『黒船がやってきた: 幕末の情報ネットワーク』, 『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191, 東京: 吉川弘文館.
- 岩下哲典, 2006, 『江戸の海外情報ネットワーク』, 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 207, 東京: 吉川弘文館.
- 岩下哲典·眞榮平房昭 編, 1997, 『近世日本の海外情報』, 東京: 岩田書店.
- 長崎市教育委員會, 1997, 『出島』, 長崎: 出島資料館.
- 長崎縣史編輯委員會, 1986, 『長崎縣史13: 對外交渉編 第一·第二』, 東京: 吉川弘文館.

- 中村質 外, 1990, 『長崎とオランダー近代日本への歩み』, 長崎: 長崎縣教育委員會.
 片桐一男 編, 2002, 『日蘭交流史: その人・物・情報』, 京都: 思文閣出版.
 姫野順一 編, 1996, 『海外情報と九州: 出島・西南雄藩』,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丸山雍成, 1992, 『情報と交通』, 日本の近世 6, 東京: 中央公論社.
 ロナルドトビ 著, 1990, 速水・永積・川勝 譯,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東京: 創文社.

〈단행본(한국)〉

- 國史編纂委員會 編, 1991, 『對馬島宗家關係文書-書契目錄集 I』, 京畿道: 國史編纂委員會.
 마리우스 B. 젠슨 著·김우영 외 譯, 2006, 『현대일본을 찾아서 1』, 이산.
 三宅英利 著·손승철 譯, 1991, 『근세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 실천.
 櫻井義之 編, 1941, 『明治年間朝鮮關係文獻抄錄』, 書物同好會.
 櫻井義之 編, 1937, 『明治年間朝鮮關係文獻抄錄』, 조선총독부.
 栗田英二, 2005, 『象胥紀聞-對馬島通事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 이회.
 田代和生 著·손승철 외 譯, 1991, 『근세한일외교비사』, 강원대학교출판부.
 P. 시볼트 著·류상희 譯, 1987, 『朝鮮見聞記』, 박영사.

〈논문〉

- 加藤榮一, 1978, 「元和・寛永期における日蘭貿易-鎖國形成期における貿易銀をめぐる」, 北島正元編, 『幕藩制國家成立過程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加藤榮一, 1994, 「出島論」, 『日本通史』 第12卷, 東京: 岩波書店.
 加藤榮一, 1995, 「オランダ連合東インド會社日本商館のインドジナ貿易-朱印船とオランダ船」, 田中健夫 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徳永和喜, 1997, 「薩摩藩の朝鮮通事」, 岩下哲典, 眞榮平房昭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東京: 岩田書店.
 渡邊芳郎, 2005. 1, 「なぜ薩摩藩は苗代川に朝鮮風俗を残したのか?」, 『鹿大史學』 52.
 鈴木木三, 1979, 「小田幾五郎 著, 『象胥紀聞』 解題」, 『對馬叢書 第7集 『象胥紀聞』』, 日本: 村田書店.
 木部和昭・松原孝俊, 1997. 3, 「松原新右衛門 『朝鮮物語』 解讀および解題」, 『漂流・漂著からみた環東シナの國際交流』, 1996年度文部省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

究(B)(1))研究成果報告書).

- 木村直也, 1997, 「朝鮮通詞と情報」岩下哲典, 眞榮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東京: 岩田書店.
- 米穀均, 1991, 「對馬藩の朝鮮通詞と雨森芳洲」, 『海事史研』 48.
- 米穀均, 1994, 「對馬藩の朝鮮通詞と情報」, 『歴史手帖』 22卷 4號.
- 小倉進平, 1934, 「釜山に於ける日本の語學所」, 『歴史地理』 93卷 2號.
- 小川亞彌子, 1994, 「長州藩の朝鮮通詞と中島治平」, 『歴史手帖』 22卷 4號.
- 松原孝俊·趙眞璟, 1997. 2, 「雨森芳洲と對馬藩「韓語司」設立経緯をめぐって」, 『日本研究』 12, 日本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 松原孝俊·趙眞璟, 1997. 3, 「雨森芳洲と對馬藩「韓語司」での教育評價について」, 『言語科學』 32, 九州大學言語文化部.
- 松原孝俊·趙眞璟, 1997. 3, 「雨森芳洲と對馬藩「韓語司」における學校運營をめぐって」, 『比較社會文化』 3,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科日.
- 松田 甲, 1927. 12, 「二百年前の朝鮮物語」, 『朝鮮』 第151號.
- 安彦勘五, 1989, 「史料紹介」草梁話集」, 『帝塚山短期大學紀要-人文社會科學』 26.
- 岩下哲典, 1997, 「近世後期の海外情報とその環境-幕府による情報管理と知識人および庶民の「情報活動」をめぐって」岩下哲典, 眞榮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近世日本の海外情報』, 東京: 岩田書店.
- 原口泉, 1996, 「薩摩藩の海外情報」 姫野順一 編, 『海外情報と九州: 出島·西南雄藩』,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 長正統, 1978, 「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第115輯.
- 長正統, 1968,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第50卷 1~4號.
- 田代和生, 1991, 「對馬藩の朝鮮語通詞」, 慶應義塾大學文學部内 三田史學會, 『史學』 第60卷 第4號.
- 田中隆二, 1999, 「18世紀對馬の朝鮮通詞松原新右衛門の朝鮮觀とその繼承」, 『亞細亞文化研究』 3.
- 田川孝三, 1978, 「對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書物同好會會報 附冊子』, 東京: 書物同好會.
- 島井裕美子, 1996, 「海外情報·異文化の翻譯者」 姫野順一 編, 『海外情報と九州: 出島·西南雄藩』,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 中村榮孝, 1969, 「オランダ船の漂著をめぐる交渉」,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東京:

吉川弘文館.

〈논문(한국)〉

- 고영근, 1989, 「지볼트(Fr. von Siebold) 의 한국기록 연구」, 『동양학』 19.
- 김문자, 2005, 4,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
- 김형수, 1987, 「通事의 職能에 대한 考察」, 『논문집』 6.
- 류상희, 1982, 「18세기 화란인 시볼트가 본 한국관」, 『국어교육』 41.
- 민덕기, 2004,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과 정보의 교류」, 『사학연구』 74.
- 민덕기, 2001,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 신동규, 1998, 「17세기 네덜란드의 조선무역기도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 55·56.
- 신동규, 1999, 「네덜란드인 朝鮮漂著에 관한 再考察 - 漂著船·漂著地·漂著年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8·59.
- 신동규, 2001, 「네덜란드인의 日本行 ‘도주사건’과 德川幕府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14.
- 신동규, 2006, 10, 「前近代 일본의 西洋 異國船 표착처리」, 『한일관계사연구』 25.
- 오바타 미치히로, 2002, 「對馬通詞小田幾五郎의 朝鮮文化認識 - “通譯酬酢”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6.
- 栗田英二, 2003, 「對馬島通事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2)」, 『人文藝術叢書』 25.
- 栗田英二, 1999, 「對馬島通事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 『人文藝術叢書』 20.
- 栗田英二, 1999, 「對馬島通事가 본 18世紀의 韓半島 事情」, 『韓國傳統文化研究』 13.
- 이훈, 2007, 8, 「조선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 - 「傳達文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7.
- 제임스 루이스, 1996, 「朝鮮後期 釜山 倭館의 紀錄으로 본 朝日關係 - 폐·성가심(迷惑)에서 相互理解로」, 『한일관계사연구』 6.
- 池內敏, 1994, 「18세기 일본 민중의 조선 인식」, 『東方學志』 84.

[ABSTRACT]

Tsushimas's Korean Interpreter Oda Ikugoro and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recognition to the outside

Her, Jieun

The Japanese Outpost in Korea called Waegwan(倭館), Korean officials and merchants visited the Waegwan, and they were to be mediated by Tsushima's Korean interpreters in their dealings with the Japanese counterparts. The basic duty of Korean interpreters was interpretation, and The domain needed the information for its own purposes, and sometimes the bakufu ordered Tsushima to gather specific information on Korea or China. It was Korean interpreters who actually engaged in the information gathering work in the field.

The Korean interpreters collected a variety of information out of personal curiosity as well. Oda Ikugoro's publications are a good example of information gathering conducted by Korean interpreters. These information were collected mainly to help his duty at Waegwan. His unusual experience of hardship in a foreign country and his curiosity for foreign culture also led to his writing of this book. The Korean interpreters collected a variety of information out of personal curiosity as well. Oda Ikugoro's publications are a good example of information gathering conducted by Korean interpreters. *Shoshokibun* (象胥紀聞) included encyclopedic knowledge on Korean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Soryowashu*(草梁話集) was designed to be a guide book for the life at Choryang Waegwan, and it also includes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Japan relations. *Tsuyakushusaku*(通譯酬酢) contains various topics such as Korean customs, military facilities and equipments, women, foods, drinking manner, and courtesy. These information were collected mainly to help his duty at Waegwan. His unusual experience of hardship in a foreign country and his curiosity for foreign culture also led to his writing of this book. These records were submitted to the Tsushima domain and used as reference in carrying out its relations with Korea. They also came to be used for the education of Korean interpreters.

When the debate over Japan's conquest of Korea stimulated Japanese interest in Korea in the early Meiji period, many publications on Korea appeared and many of them were based on information collected by Tsushima's Korean interpreters.

keywords

Waegwan(倭館), Information, Korean Interpreters, *Tsuyakushusaku*(通譯酬酢), Korea's Japanese interpreters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가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0호(2010. 12)

초판 1쇄 인쇄 2010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30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